

건축사

1998 **02** vol. 346

칼럼 _____ 건축에 정신을 담자

작품리뷰 _____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기획연재 _____ 한국의 건축가[II] - 김순하(1)

해외건축 _____ 외국의 건축가[5] - 니콜라스 그림쇼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U R E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만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
 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타워파킹

대형채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
 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레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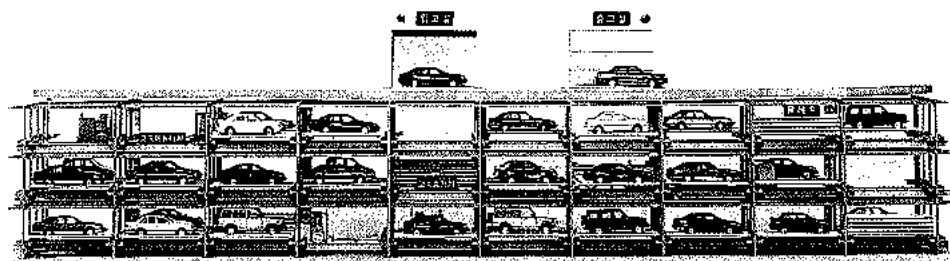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트롤리파킹

무Pallet방식으로 승강리프트와
 각단의 트롤리가 동시동작하여
 입출고하는 시스템

트렌스로파킹

무Pallet방식으로 스페커가
 승강주행을 동시에 행하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윙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02)543-1041(代) · FAX:(02)543-3647
- 본사: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236번지 TEL:(0417)557-9687 · FAX:(0417)557-9689
- 부산:(051)501-8006 ■ 강남:(02)3442-0657 ■ 강북:(02)264-5506 ■ 대구:(053)551-1770 ■ 송파:(02)3401-8262 ■ 인천:(032)431-6732
- 의정부:(0351)877-3808 ■ 안성:(0333)656-7504 ■ 천안:(0417)575-8196 ■ 대전:(012)485-2071 ■ 강릉:(02)474-1661
- 라인:(02)552-3530 ■ 마산:(0551)51-0011 ■ 제주:(064)48-4811

Korea Soft Bank

대한민국정부

표본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성	국	회	장



제13160호 1998. 11. 10. (금)

전자서신소통

제13,161호 발령(전산개발) 전산처리 및 사물인터넷 처리(전산).....전통

공문서

○이달부터 전자공문서(전자공문서).....제13160호

제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공문서

제13160호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제 13160호 1998. 11. 10. (금요일)

이제부터 ③ 정부시설공사 선정 프로그램인 EMS- 1234로

- 내역작성을하여 발주처에 디스켓으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수많은 발주처, 설계사무소, 시공회사들이 EMS- 1234와 R.C, K-FIN를 찾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려전산이 견적/적산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전산내역 입찰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 아프트 서비스

- 분기별로 일위대가와 자재코드 단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 지속적인 Up-Grade
- 철저한 교육(매주 정기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적용분야

-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적산용역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교육용

적산용역 업무문의
☎ (02)278-9095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 : (02) 529-6071~4
FAX : (02) 529-6075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soft.co.kr>
E-MAIL: koreasb@koreasoft.co.kr

물량산출에서부터 내역까지

EMS-1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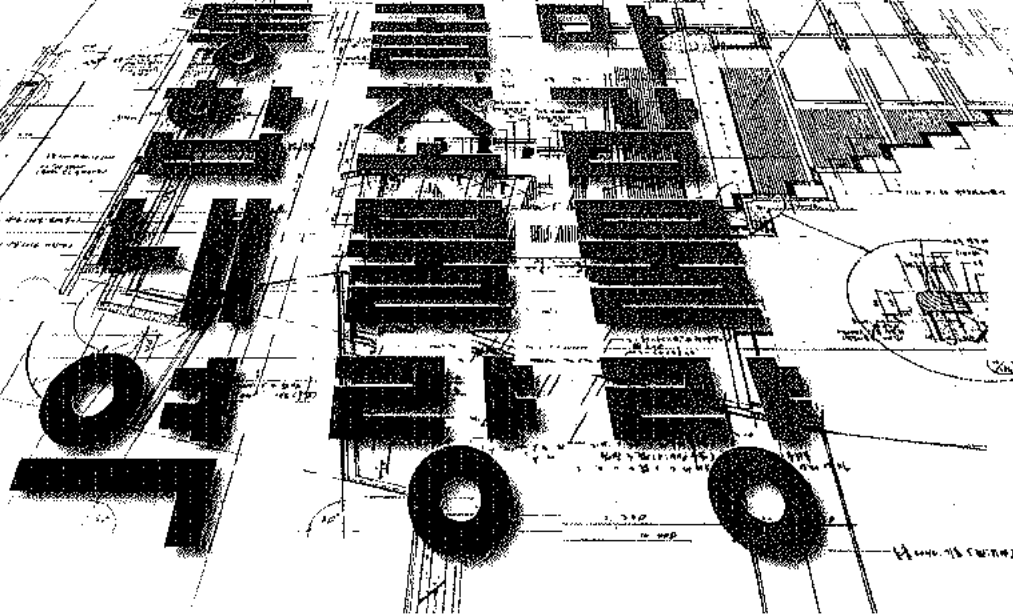
통일 내역관리

K-FIN

마감률관리

R.C

적산용역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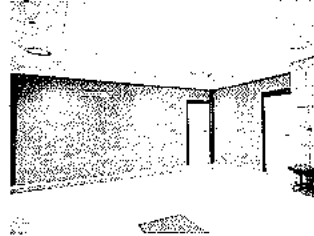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동일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미도피 설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명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마트호텔
- 조선호텔
- 워커힐호텔
- 숙초야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 사 :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3동 154-7

T E L : 838-4545(代)

F A X : 838-0474

공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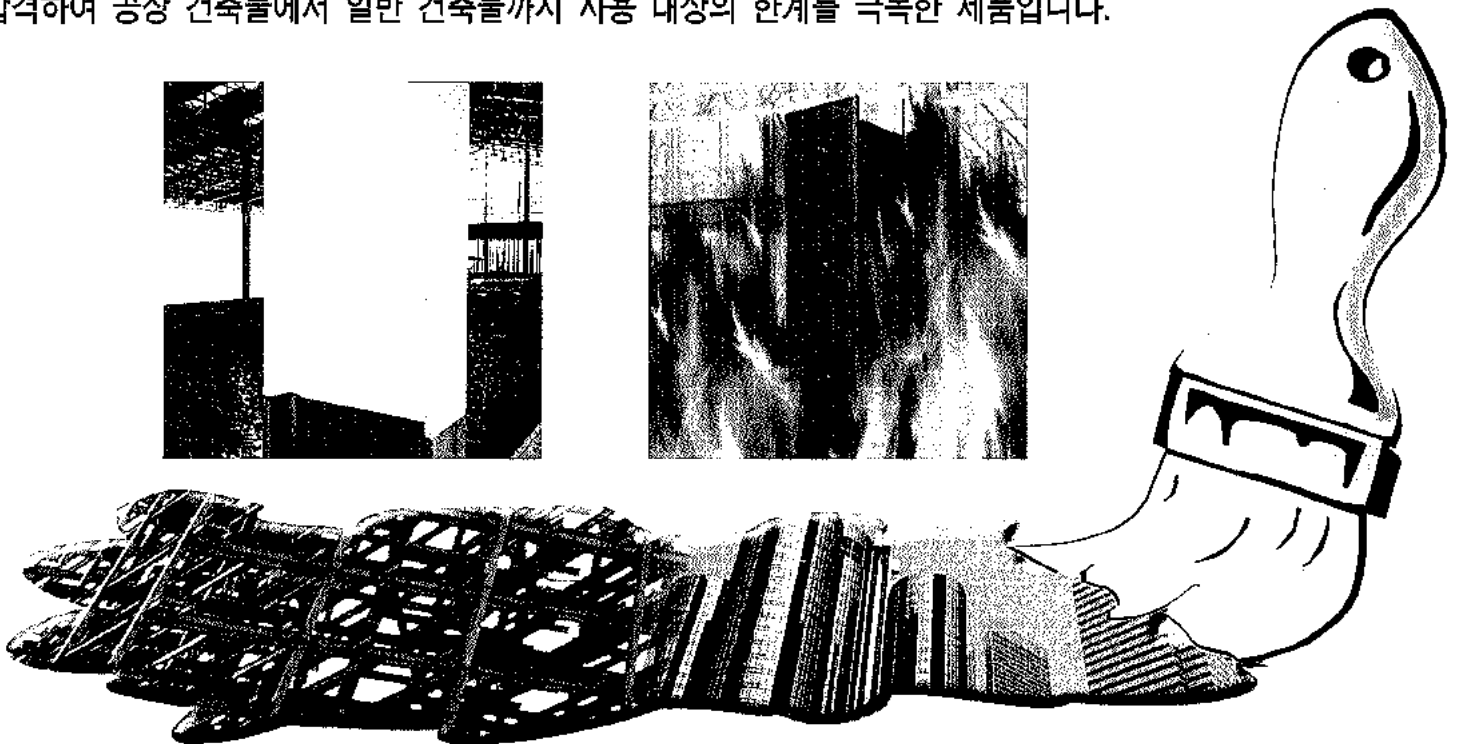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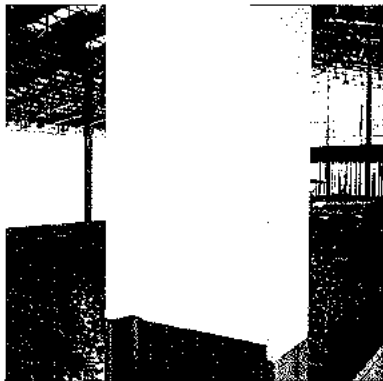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타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트,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재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 화 구 조 지 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타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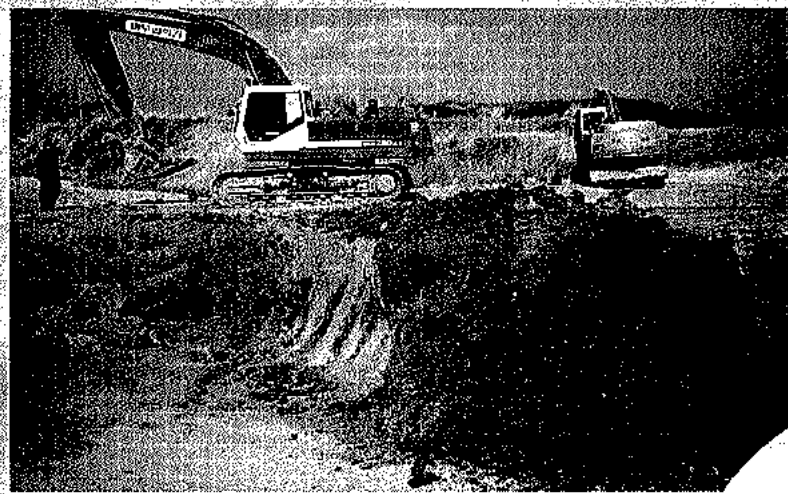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외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이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로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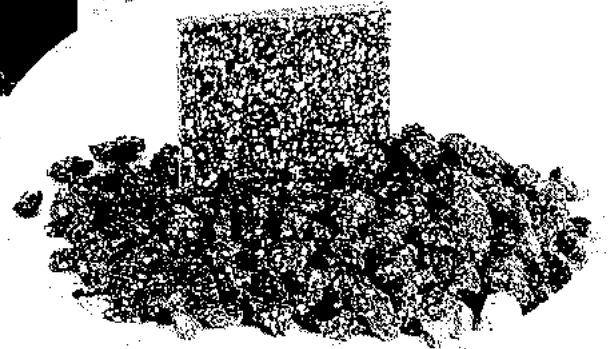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861
TEL:(0335)33-6074~5

황토방



磁玉山 황토방

맥반석을 첨가합니다.
피부를 곱게합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17년 전통 자옥산 맥반석



자석에 붙은 자옥석

磁玉山 건강 온돌재

자석에 붙습니다.
수맥을 차단합니다.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수면시간이 단축됩니다.
건강에 최고입니다.



자옥산 세라믹스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원곡리 산 3-1 TEL : (0584) 52-8830, FAX : (0584) 52-8832, H. P : 011-533-8830

「건축사」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를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본란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
니다.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외(본협회 촬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자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바치, 단면, 평면))
계획작품	최근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미실현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자원고지 2매 내외))
회원동성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원 및 회원사를 소개할 만한 신변잡기,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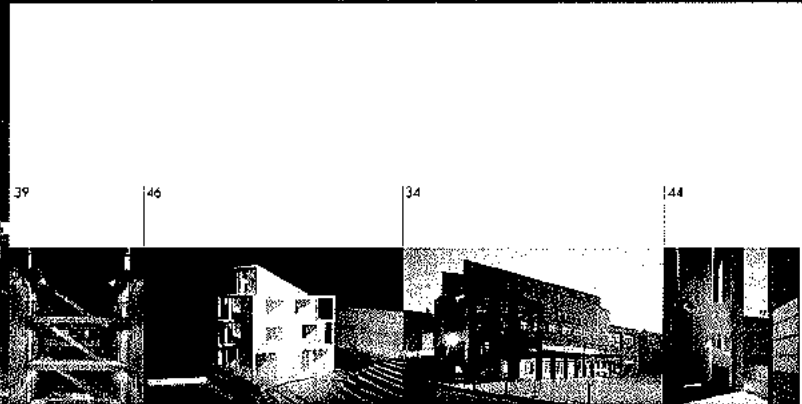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사업부 편찬과
(우편번호 137-070)

문 말 : 「건축사」지 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583-6108

차례 1998 02 346호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정시춘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편찬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윤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66-45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ic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건축에 정신을 담자	방철린	12
작품리뷰 /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정시춘	14
	대담: 도심속 열린교회 - 상징성과 역사성의 공존	유원재	26
	비평: 편안한 도심의 종교문화공간	김상경	29
회원작품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정림건축	34
	MESOTRON	김인철	38
	금정시민도서관	박재평	42
	공덕동 주택	김석환	46
	樓(레스토랑+주택)	이장백	50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개관 - 김순하(1)	천득염	54
건축기행	세계화시대의 지역만들기	류재경	57
해외건축	외국의 건축개관 - 니콜라스 그림쇼	성인수	60
기고	21세기 건축의 새 장을 연 게티센터	박태형	70
리포트	제9회 아카시아포럼 참가기	이정근외	74
세무정보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황용현	84
건축마당	협회소식		92
	건축계소식		94
	해외공모전		98
	현상설계		104
	계획작품		113
	게시판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18
	신입회원		120

Column

Spiritualizing Architecture	Bang Chul-Lin	12
-----------------------------	---------------	----

Review / Yongrak Presbyterian Church

50th Anniversary Building	Chung Si-Chun	14
Interview An Open Church in the Heart of the Metropolis	You Won-Jea	26
Critique Comfortable Urban Christian Cultural Place	Kim Sang-Kyung	29

Works

Soongsil Univ. HAN KYUNG CHIK Memorial Hall	Junglim Architecture	34
MESOTRON	Kim In-Cheurl	38
Keumjeong Civil Library	Park Jae-Pyeong	42
Kongduk Residence	Kim Suk-Hwan	46
Roo(Restaurant & Residence)	Rhee Jang-Baek	50

Serial

Korean Architect, Kim Sun-Ha(1)	Chon Deuk-Yeom	54
---------------------------------	----------------	----

Architectural Tour

Building Reg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Ryu Jae-Kyoung	57
---	----------------	----

Overseas Architecture

Nicholas Grimshaw	Seong In-Soo	60
-------------------	--------------	----

Feature

Getty Center	Arthur T. Park	70
--------------	----------------	----

Report

A Report on the ARCASIA Forum 9		74
---------------------------------	--	----

Tax Information

Value - Added Taxing on Design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Hwang Yong-Hyun	84
---	-----------------	----

Architects' Plaza

KIRA News	92
Archi-net	94
Overseas Awards	98
Competition	104
Blueprint	113
Bulletin Board	117
Statistics	118
New Members	120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협회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303-3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6)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16-5244) · 구로구건축사회/(652-2275) · 노원구건축사회/(333-6076) · 동대문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532-3488)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553-2992) · 양동포구건축사회/(5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0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35-0806) · 중구건축사회/(231-5743) · 중랑구건축사회/(437-733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6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6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 · 66-5651,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가평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2)69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5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61)876-0458 · 고양지역건축사회/(0336)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3)9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39)375-8648 · 동탄지역건축사회/(0335)30-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6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3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6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81 · 양양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6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2-6253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4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3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6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고신지역건축사회/(0654)43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93-200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93-2000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9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1)57-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6)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5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5-5682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23)33-0770 · 산청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통영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신주지역건축사회/(0501)745-6403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54)62-2233

건축에 정신을 담자 Spiritualizing Architecture

방철린 / (주)인·토건축, 본협회 편찬위원장
by Bang Chul-Lin

1998년도가 시작되면서 전국이 온통 IMF의 회오리 속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건축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심각한 곤욕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계획되었던 프로젝트도 대부분 취소되고, 또 진행중이던 프로젝트들마저 중단 사태에 들어가는가 하면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무소는 시스템을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며 봉급을 삭감하는가 하면 사무실 임대료도 줄이려고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한다. 좀더싼 곳을 찾아 사무실을 옮기는가 하면 여럿이 모여 사무실 임대료 예산을 줄이려는 지구책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계는 역사상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간 우리 건축의 위상극복이라는 또다른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 IMF 한파는 세계가 돕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면 수년 안에 극복된다고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후 열릴 건축계의 전망은 감리 분리며, 건설사 설계며, 설계시장 개방 등으로 참담하게 갈기 갈기 찢어진 지금의 우리 건축계의 위상을 놓고 볼 때 절대로 밝지만은 않다.

그칠줄 모르는 경제발전과 함께 새로운 건축물들이 필요하게 되고 많은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지어지면서 많은 건축사가 배출되고 대학에서는 건축관련 학과가 이과 중 단연 톱을 달리고 있을만큼 인기 좋은 직종이 되었지만, 지난날에 이루어 놓은 건축을 뒤돌아보고 쌓아놓은 건축문화를 들추어 볼 때 지금과 같은 건축계의 위상을 남의 핑계로만 일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계가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건축을 대하여 왔는지,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우리 건축의 길을 뒤아가고 있는지, 우리 건축의 미래를 위한 기반은 준비하고 있는지 등의 반성과 함께 우리 건축의 위상을 제고시켜 IMF시대 이후의 험난한 국제 경쟁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

IMF시대 한파는 경제인들이 주도하고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동참함으로써 가능하다지만 건축문화 말바닥 시대는 과연 누가 주도하고 누가 행하여야 벗어날 수 있는가. 정치가? 경제인?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관청? 건축주? 아니면 건설회사? 이상은 건축문화 시대를 보여주는 바로메터라지만 모두 건축문화 발전에 도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주역은 될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방해요소로 급변하기까지 한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건축의 주역은 우리 건축계가 담당하여야 한다. 건축을 직접 생각하고 그리며 지어도도록 돌보아 주는 당사자만이 건축속에 철학을 담고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축을 찾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의 건축문화에서 차용해온 이론으로 우리의 건축을 만들어온 게 사실이다. 기반이 약한 우리 건축의 문화위에 마구 뛰어든 건축사조는 견줄 수 없는 회오리를 만들고 있다. 더구나 외국건축가가 디자인한 건축까지 마구 들여오게 되어 서구 건축일색의 도시 속에 살고 있으며, 아니 이미 우리 도시는 외국 건축문화의 식민지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외국어행을 통해서 건문(?)이 넓어진 건축주의 욕심에서도 그렇거니와 외국의 건축사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건축계가 더욱 큰 문제이다. 조금 크다는 설계경기 프로젝트들은 외국 건축가들까지 참가하게 되다 보니 외국 건축가에 뒤질세라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을 흉내낸다. 수없이 많은 설계경기에서도 '그런 디자인류가 아니면 당선권안에 들지도 못한다'고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부추기기도 한다. 아니, 보통때는 그런 디자인들이 건축계를 망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심사 때는 그런 안을 뽑고 시치미를 떼기도 하니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들어온 외국의 건축문화가 건축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라든가 개념적으로 우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와는 뿌리가 다른 건축사적 맥락 속의 한 단면이고 보면 이들이 과연 우리 정서와 적응이 가능한 것인가를 문제시하는 것이거나, 지극히 피상적이고 형이하학적 모티브에 의한 외형적 모방이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인간의 환경으로서 갖추어야 할 좀더 심미안적인 입장에서 연구되고 배려되어진 건축이 무엇인지, 심리적으로 인간화되고 깊이를 가진 참된 공간은 무엇이며, 좋은 비례로 조절되어진 건축의 형태는 과연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대한 사고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선조들은 이것들을 위하여 어떠한 건축적 행위를 하고 어떠한 건축적 요소에 그 뜻을 내포시켰는가 하는 것이 연구되어지고 계승의 문제와 함께 건축이 이야기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끝까지 감리하고 끝까지 돌보자!

큰 프로젝트는 큰 것대로 작은 프로젝트는 작은 것대로 처음 시작에서부터 집이 완성되어 질때까지 일관성있게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는 일 - 우리가 주력해야 할 일이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많아져서 설계를 하지 못하면 못된 법을 앞세워 감리라도 해서 수입을 얻겠다는 부류들이 판을 그려치고 있다. 그들은 제사보다 제삿밥에 관심이 더하니 건축에 정신을 담고 마음을 담을 실력도, 능력도,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제삿밥과 떡을 챙겨 다음 제삿집으로 옮기기가 바쁘다. 이들은 건축을 기술이나 안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부류들이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다 잡혀 다시는 둥글다고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법정에서 풀려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고 하였듯이 누가 뭐래도 감리는 설계자가 해야한다는 것이 진리인 이상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건축의 완성때까지 작품 속에 우리의 작가정신을 풀어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건축은 생명이 없는 무기물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건축문화의 밑바닥 시대는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소형 건축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소형보다 대형의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쉽다. 큰 프로젝트는 수입에도 도움이 되고 결과물이 금방 눈에 띄며 여러 대중이 이용하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작은 프로젝트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소수인원만을 위한 것이면서 설계사무소 수입에 도움도 안되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어지기 십상이다. 게다가 작은 프로젝트라고 어디 일의 양이 크기에 비례하는가? 작은 애기라도 커다란 어른에 비유하면 덩치만 작았지 있을 것은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좋은집(≠비싼집)을 짓게 해 주려면 큰집에 비해 절대로 정성이 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계비를 제대로 받더라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투자에 비해 얻어지는 결과가 턱없이 작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작은 프로젝트들도 건축주에게는 귀중한 재산이며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엄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 작은 집들과 큰집이 어우러져 도시가 뒜를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작은 프로젝트라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안된다는 핑계로, 이들 작은 일들을 돌보지 않고 대충 내팽겨치고 감리를 남한테 미룰 때, 외국 작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 건축의 미래는 설 곳을 잃게 되어 IMF의 한파보다 더 무서운 건축문화의 식민지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지금 우리 주위를 다시 살펴보자.

작은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감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없는지...

우리 건축의 미래를 작은 프로젝트부터 다시 준비하자.

건축을 가슴으로 하자.

건축에 정신을 담자.

영락교회50주년 기념관

작품리뷰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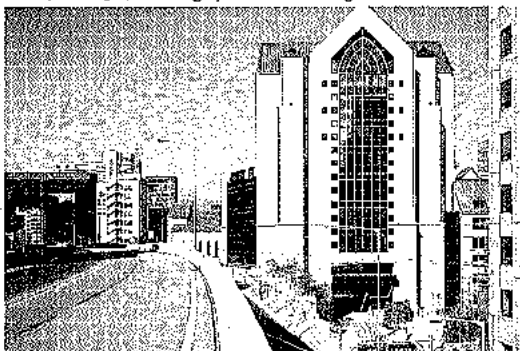
Yongrak Presbyterian Church
50th Anniversary Building

정시춘 / 정주건축연구소
Designed by Chung Si-Choon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6, 저동 2가 61-10, 69-14, 충무로 2가 48-6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1종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집단방화지구
용도	종교시설(교육 및 문화시설)
대지면적	7,717㎡(2,334.6평)
건축면적	2,760.32㎡(835평)
연면적	33,881.68㎡(10,249.2평)
건폐율	35.77%
용적률	157.36%
규모	지하5층, 지상8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312대
설계담당	하학수, 차신균, 심경주, 남태연, 도경선, 이용구, 이세훈, 마공운, 조은진
건축주	재단법인 영락교회 유지재단
시공자	쌍용건설주식회사
인테리어	정주건축연구소 + 최규현
구조설계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하나구조
설비	(주)하나기연
전기	(주)새한설계콘설탄트
음향설계	한찬춘
설계기간	1992. 1~1994. 3
공사기간	1994. 4~1997. 11

본관사진 : 박영채 Photographer : Park Young-Chae



남측에서 바라본 전경

영락교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이 건물은 기독교 교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교회부속건물로 계획되었다. 영락교회는 한국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 삼일로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여 있는 명동성당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신·구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두교회의 본당건물이 모두 고딕양식을 취하고 있어, 도심지역 안에서 형태적 인지성이 매우 강하다.

명동성당이 언덕위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인지성이 높고 교회영역이 개방적인 반면, 영락교회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협소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주위의 고층건물들로 인해 시각적으로 묻혀 버렸고, 폐쇄적인 환경이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영락교회의 본당 남측에 추가로 확보된 대지위에 건립되는 이 새로운 건물이, 영락교회가 가진 본래의 시각적 상징성을 도시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고 또한 미래교회가 지향하는 '열린교회'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문제를 설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았다.

기존의 영락교회는 영역내 가장 높은 대지위에 있는 고딕양식의 본전(예배당)을 중심으로 북측 낮은 대지위에 여러개의 근대적 부속 건물군을 거느리고, 그사이 교회 규모에 비해 매우 좁은 마당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Open Space를 확보하는 것과 교회의 진입로를 확장하는 것이 또한 절실한 기능적 요구이었다.

기존 부지의 남측으로 확보된 2,300여평의 대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였고 더욱이 대지의 형상과 레벨이 매우 불규칙하였다. 문제해결의 단서는 '지하공간 개발'로부터 비롯되었다. 전체면적의 3분의 2를 지하 5개층에 두고, 지상에는 꼭 필요한 시설만 탑상(塔狀)으로 구성하여, 부지 남측 끝으로 배치함으로써 본전과의 사이에 대규모 광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광장을 위요하기 위해 서측 삼일로 쪽으로 낮은 채를 두었다. 또한 남측으로부터의 또 하나의 진입로를 만들어 교회중심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상1, 2층을 거대한 피로티로 만들어 통로를 확보하면서 광장의 확장을 꾀하였다. 교회의 영역만이 아니라 기념관 내부시설도 옥외계단탑, 선긋기든, 레벨차 진입방법 등을 사용하여 대규모 인원의 출입을 요하는 지하 3층으로부터 지상 4층까지의 접근성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내부의 대규모 집회공간들은 이동칸막이에 의해 공간규모의 가변성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교회 분반교육은 물론 평일에 다양한 규모의 집회, 연수, 세미나 등 다양한 교회 내·외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외부가 명실공히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형태구성의 문제였는데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고딕양식의 본전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매스의 구성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건물을 고층화시키면서 동, 서측으로 주거시설과 주거단축의 저층부에 의해 형태적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채플을 통하여 영락교회의 기존 건물들과 형태적 연결성을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형태구성은 본전의 이미지를 현대화함으로써 본전과의 조화를 꾀하는 동시에, 신·구 건물들을 통해 영락교회의 역사성을 보여주도록 의도하였다. 기존층 기본평면을 본전과 같이, 십자형 평면을 취하고 이를 수직으로 상승시켜 급경사의 지붕을 씌웠으며, 네 모서리에 탑형의 수직매스를 두어 본건물의 매스를 강하게 응집시켰다. 각면은 거대한 커튼월을 두어 본전의 뾰족아치창의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본전과의 형태적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외벽의 화강석면의 처리나, 커튼월의 현대적인 디자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형태디자인의 현대적 시대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건물의 십자형 지붕 중앙부의 개구부와 네 모서리에 위치한 탑의 유리지붕을 통하여 밤에 빛을 발하게 하므로써, 도심의 밤하늘에 영락교회의 이미지를 표현하도록하여 주야간 공히 메마른 대도시의 풍경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였다.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Yongrak Presbyterian Church, a new addition to the main building was planned for educational and cultural use.

Yongrak Church, along with Myungdong Church, located also in the center of Seoul just across the Samil Road, bear importance in figurative perception with their Gothic style, and respectively represent the Protestant and the Catholic of Korea.

But whereas Myungdong Church, placed atop a hill, is more visually open and recognizable, Yongrak Church is on a smaller site at a relatively lower ground, somewhat buried amidst high-rise buildings. In this condition, it was our primary task to restore, by the addition at the south to the main Church, the visually symbolic value and its connection to the city. It was also important to have an open image, which many churches aspire to present in the future.

The existing Gothic Church was placed at the highest level within the site, and had a few modernist buildings added at the lower northern part. Gardens between these buildings were too small compared to the size of the main Church. Thus attaining open space and a broad approaching road were another functional objective. The available space of 7,717 m² on its southern side was insufficient to solve all these problems, and the irregularity of the site's contour and level furthered the difficu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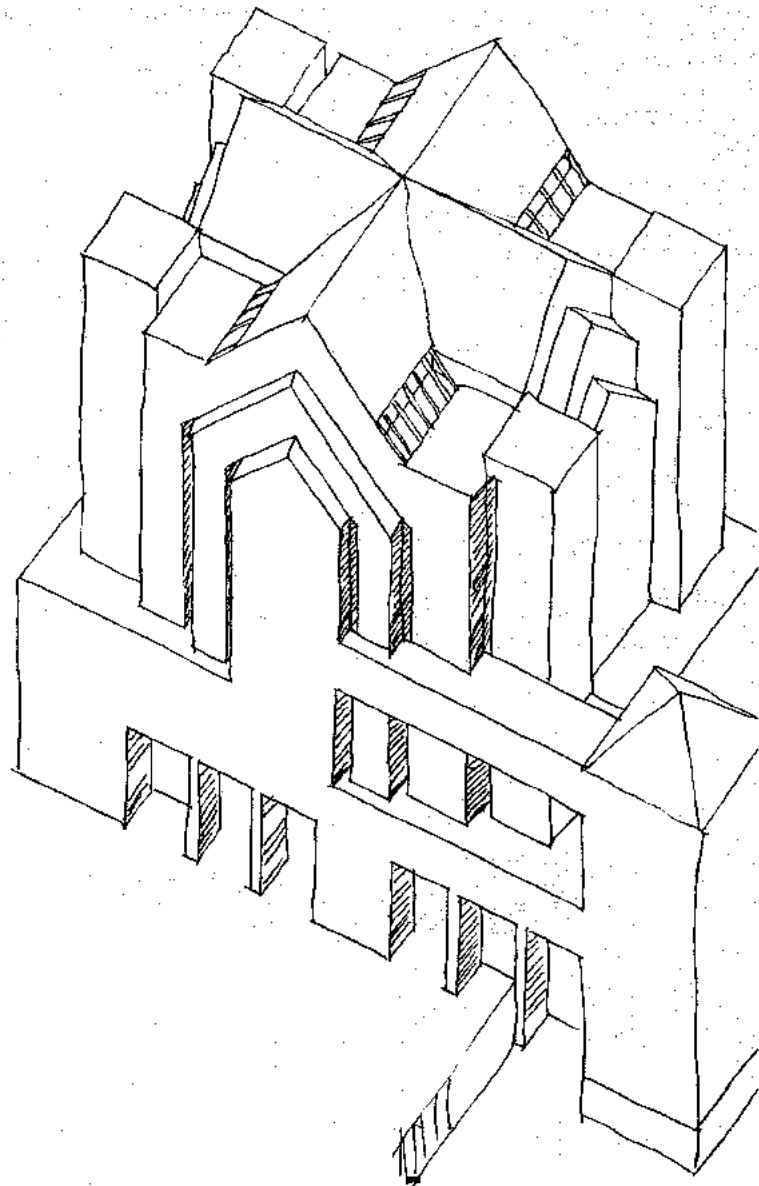
A clue was provided in the solution of developing the underground space. By placing two thirds of the program space in 5 underground stories, with only necessary spaces in tower forms above on the site's southern edge, a spacious square could be formed between these and the main Church. This space is further enclosed by the addition of a low chapel at the west facing Samil Road.

A new approaching road from the south was constructed and connected to the center of the Church by the grand pilots on the first and second floors, which also expanded the square. The facilities inside the anniversary building, utilizing outdoor staircases, sunken garden and entrances using the different levels, enhances the flow of circulation, from the third basement floor to the fourth floor. The auditoriums are reflexible in size and use by the movable partitions, accommodating various uses ranging from week-day's ceremonies to seminars. This multi-use of programs is what comprises the openness of this facility.

Another issue was one concerning the composition of forms: How would it present harmony with the Gothic style of the main Church, itself a historical symbol? The masses, as mentioned above, consists of high-rise main building with housing facilities on the east and west, and the staidness of form is accomplished by lower part of the main stairway hall. The formal connection to the existing Yongrak Church is made by the chapel.

The overall form is a modern interpretation on the Gothic style, whose harmony and schism suggests the history of Yongrak Church.

The plan of basic floors followed the cross of the Main Church, which was stacked vertically and covered with steep roofs. The annexation of vertical masses on each 4 corners of the roofs further intensified the strong image. The formal similarity was achieved by the curtain walls on each side that reflected the main Church's pointed-arch windows, when the finishings of granite or the design of the curtain walls suggested a touch of contemporary sense. The skylight at the center of the cross roof, with others at the towers of the four corners, emit light to the darkened sky, providing vividness, at night as well as the daytime, to the banal urban scene.



Site Seoul Chung-gu Joo-Dong 1ga 6, Joo-Dong 2 ga 61-10, 69-14, Chungmuro 2 ga 48-6

Function Religion Facility (Educational and Cultural Use)

Site Area 7,717 m²

Building Area 2,760.32 m²

Total Floor Area 33,881.68 m²

Building Coverage Ratio 35.77%

Gross Floor Ratio 157.36%

Total Floors 8 Floors, 5 Basement Floors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Number of Parking Spaces 312

Project Architects Ha Hak-soo, Cha Shin-kyoon, Shim Gyung-joo, Nam Tae-yun, Do Gyung-sun, Lee Yong-gu, Lee Sae-hoon, Ma Gong-hoon, Cho Eun-jun

Foundation of Yongrak Presbyterian Church

Construction Ssangyong Constructions Ltd.

Interior Design Architecture Firm Chungjoo + Choi Kyu-hun

Structural Design Hana Struc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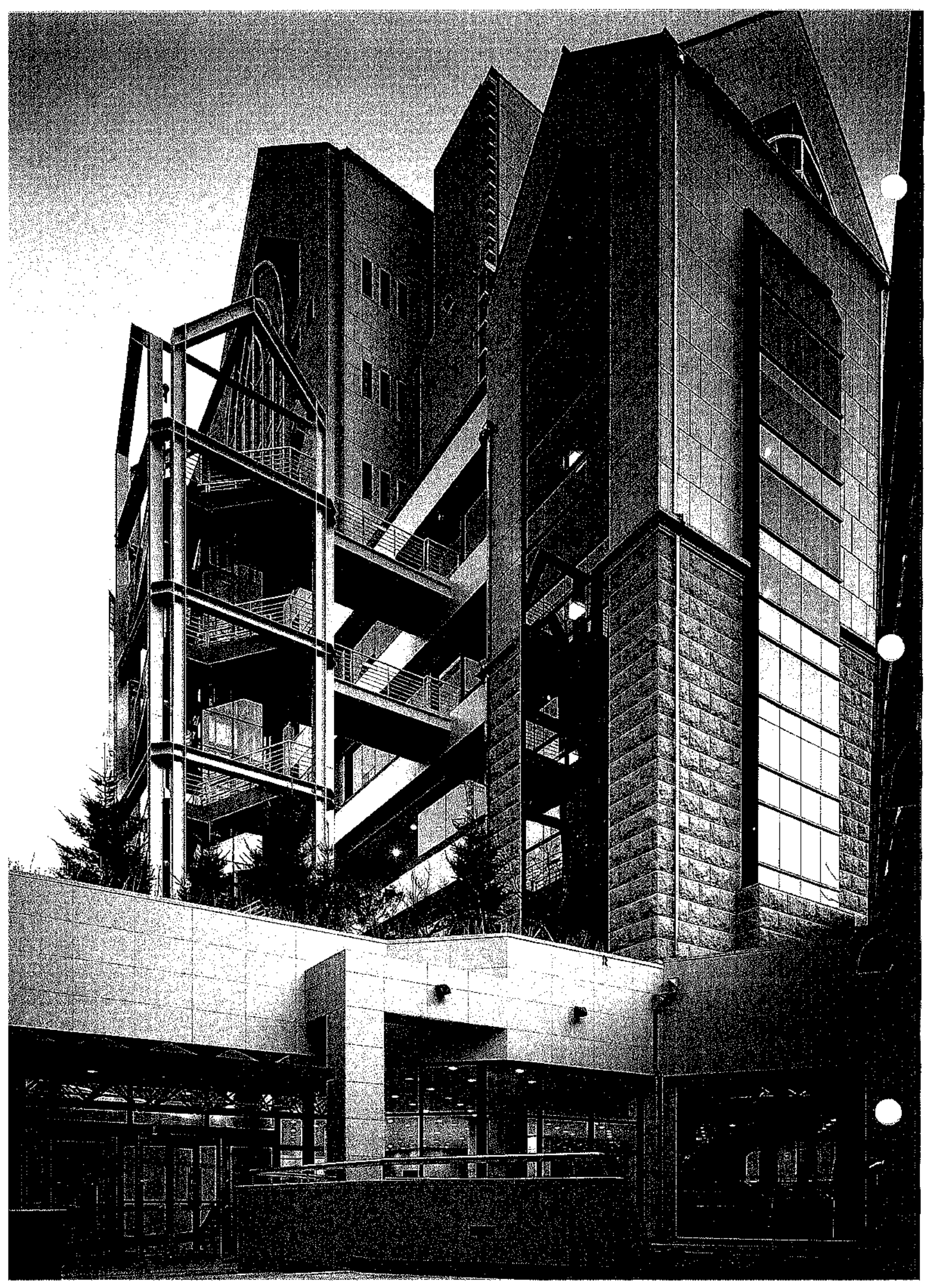
Installations Hana Kiyu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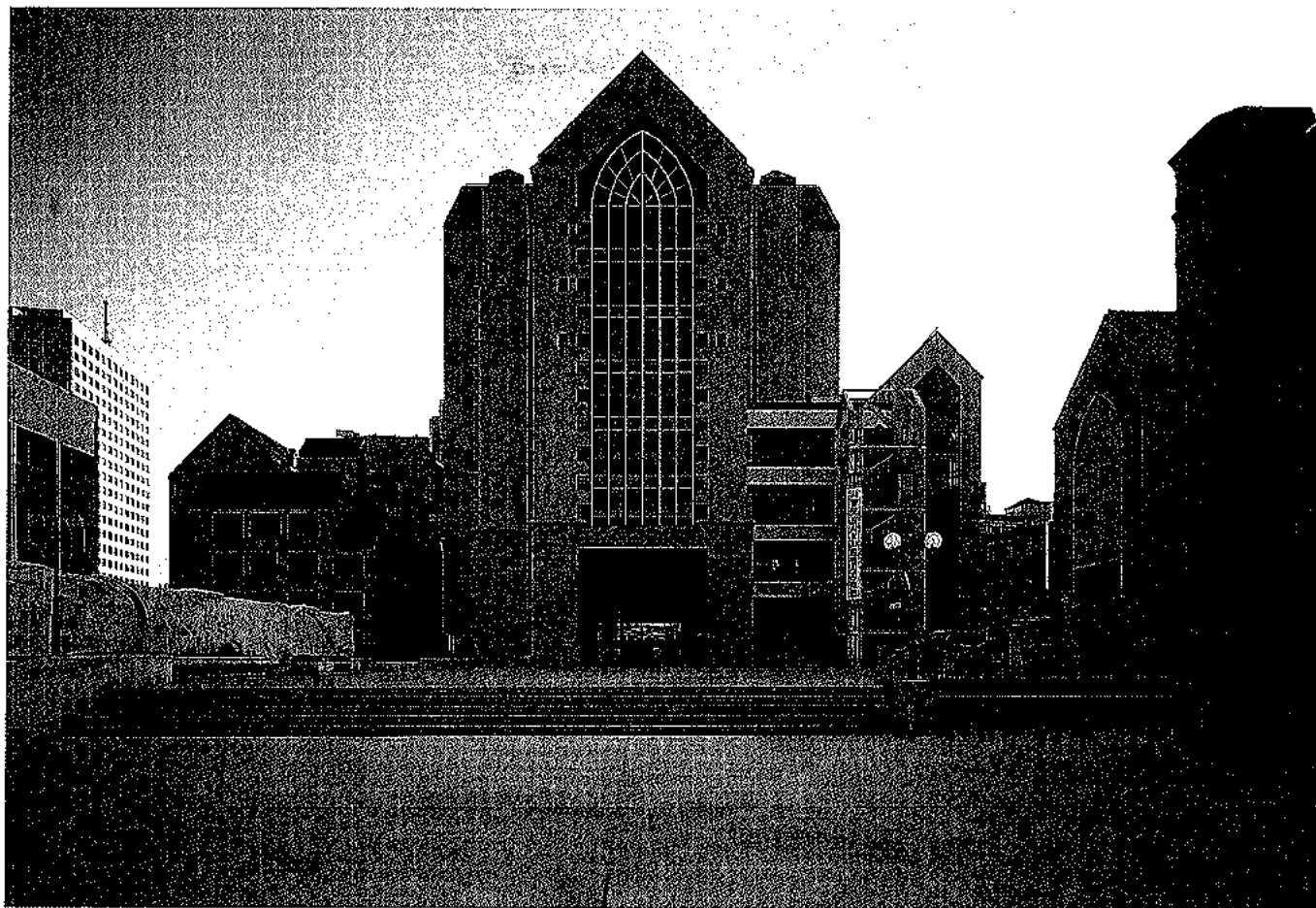
Electrical Installations Saehan Design Consultants Ltd.

Sonic Planning Han Chan-hoon

Design Period Jan 1992 - Mar 1994

Construction Period April 1994 - Nov 1997





광장에서 본 전경



기존본당의 이미지를 도시에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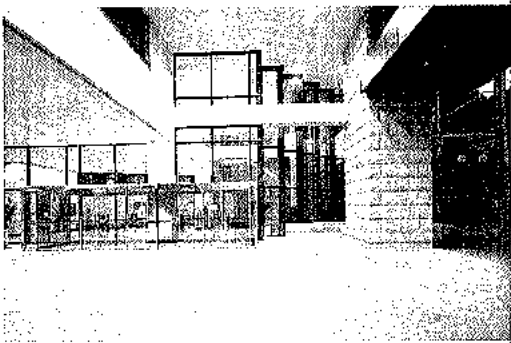


피로티를 관통해서 보이는 도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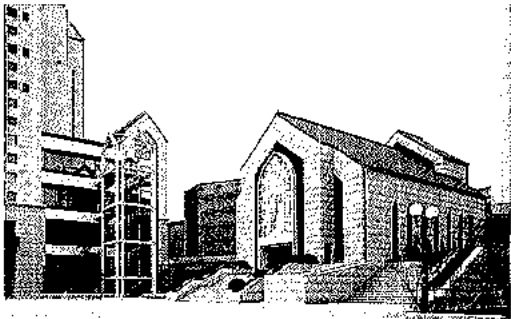


기쁜날의 이미지를 차용한 기념비적 모습

(사진 : K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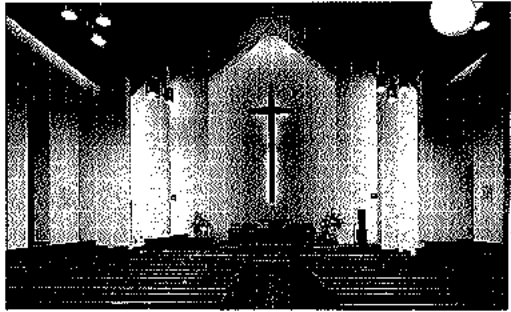


피로티와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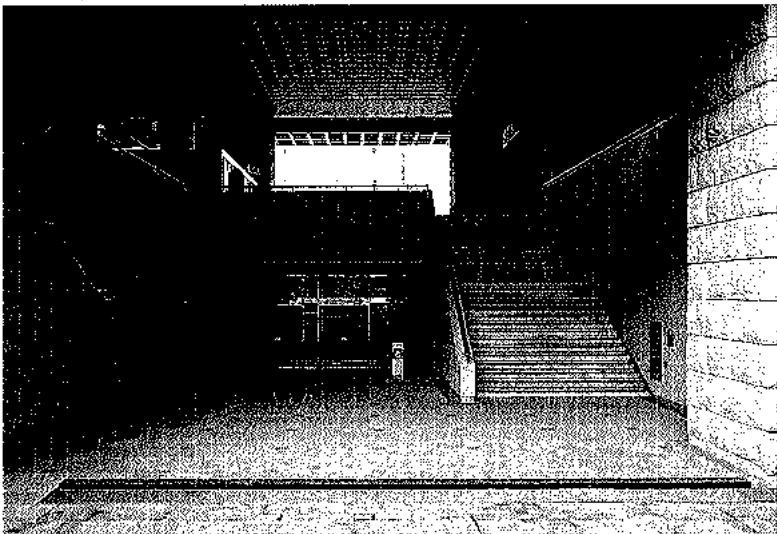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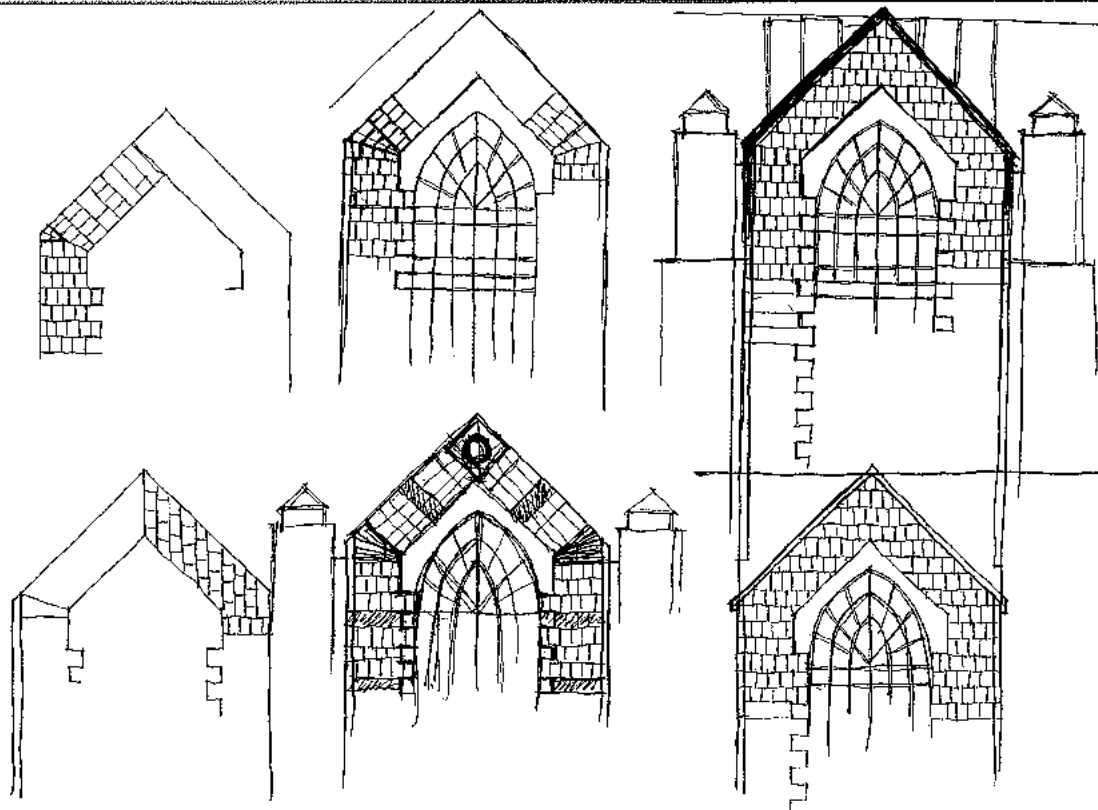


채플전경 (사진 : 주테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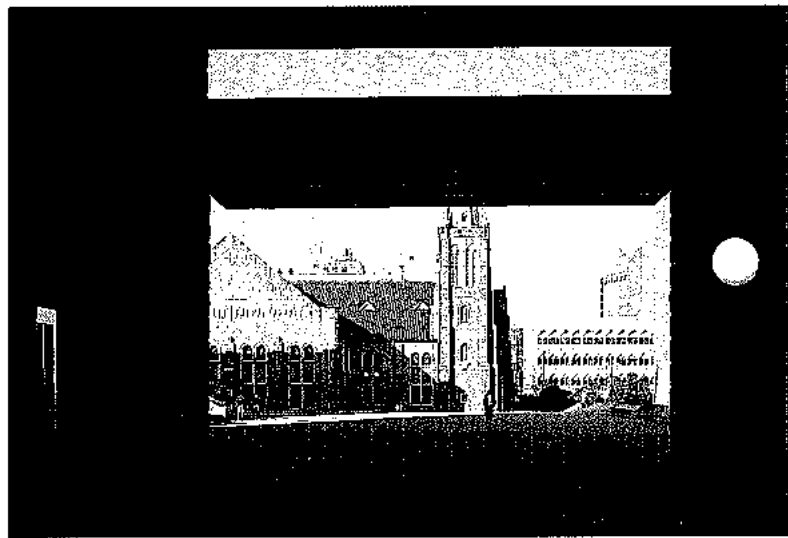
채플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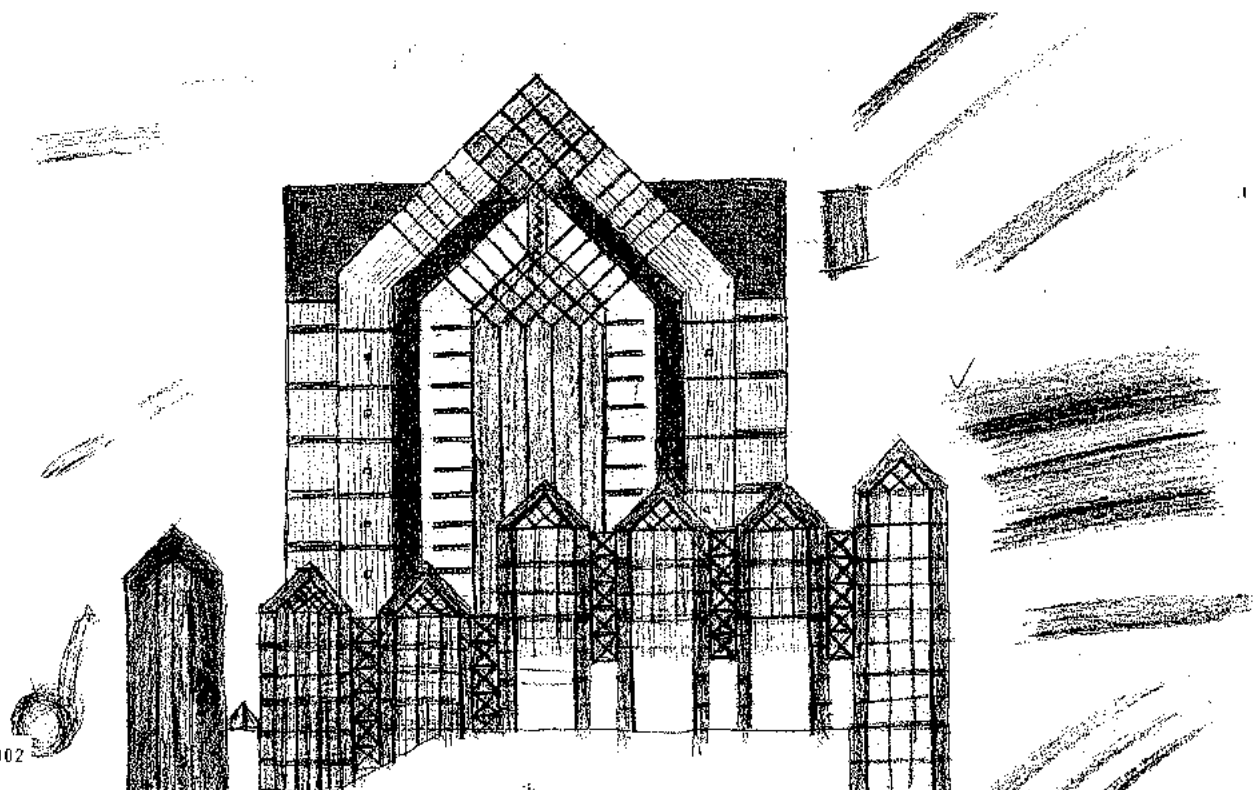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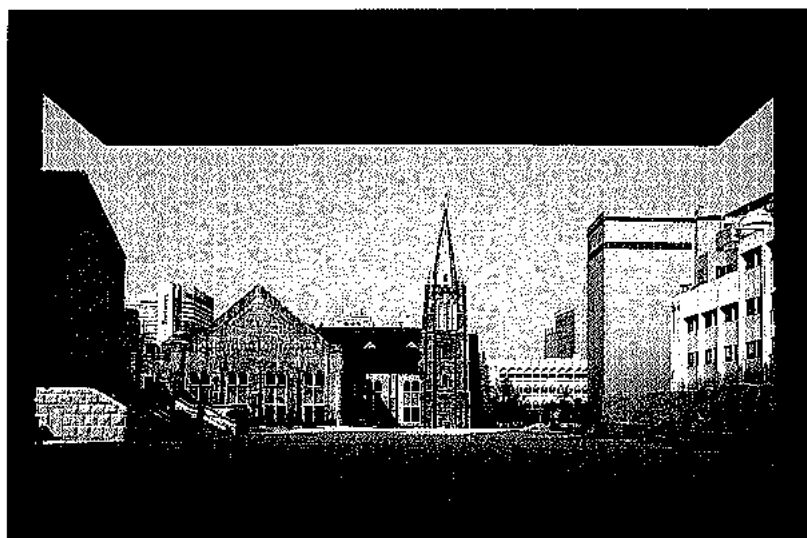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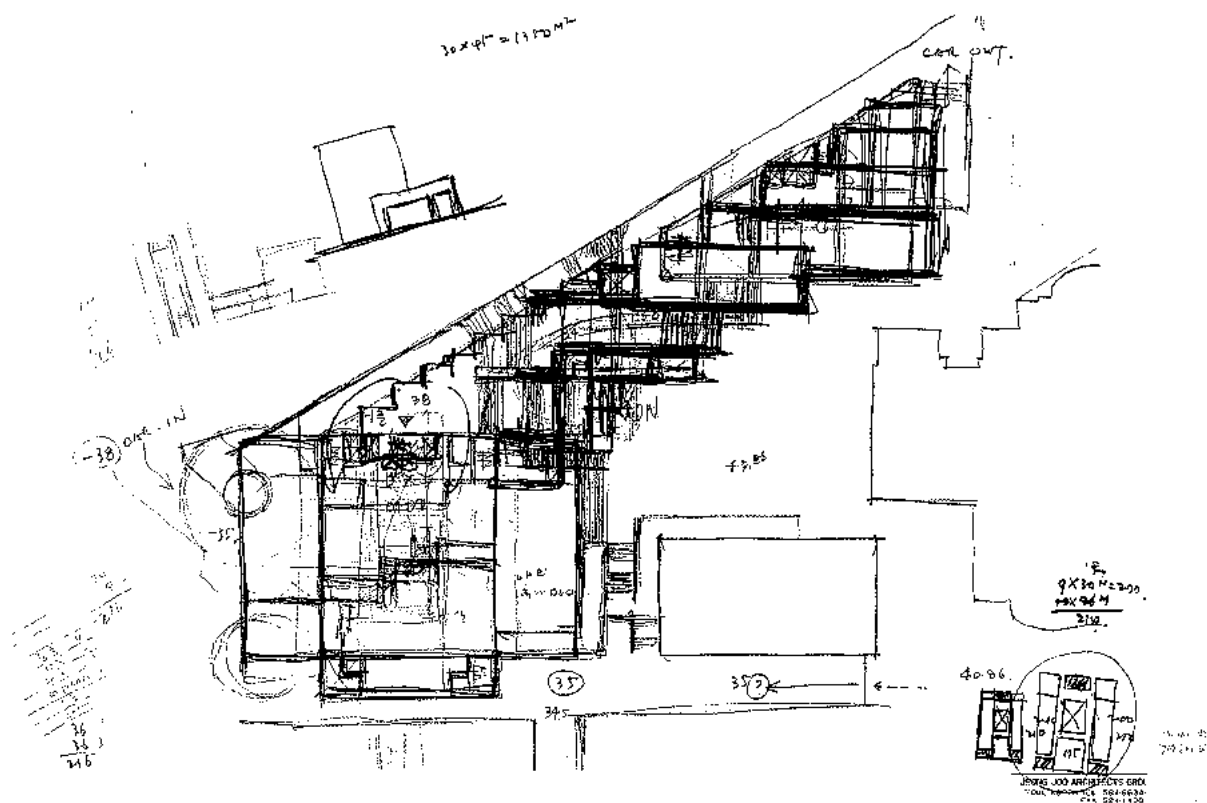


남쪽입구에서 들여다 본 피로티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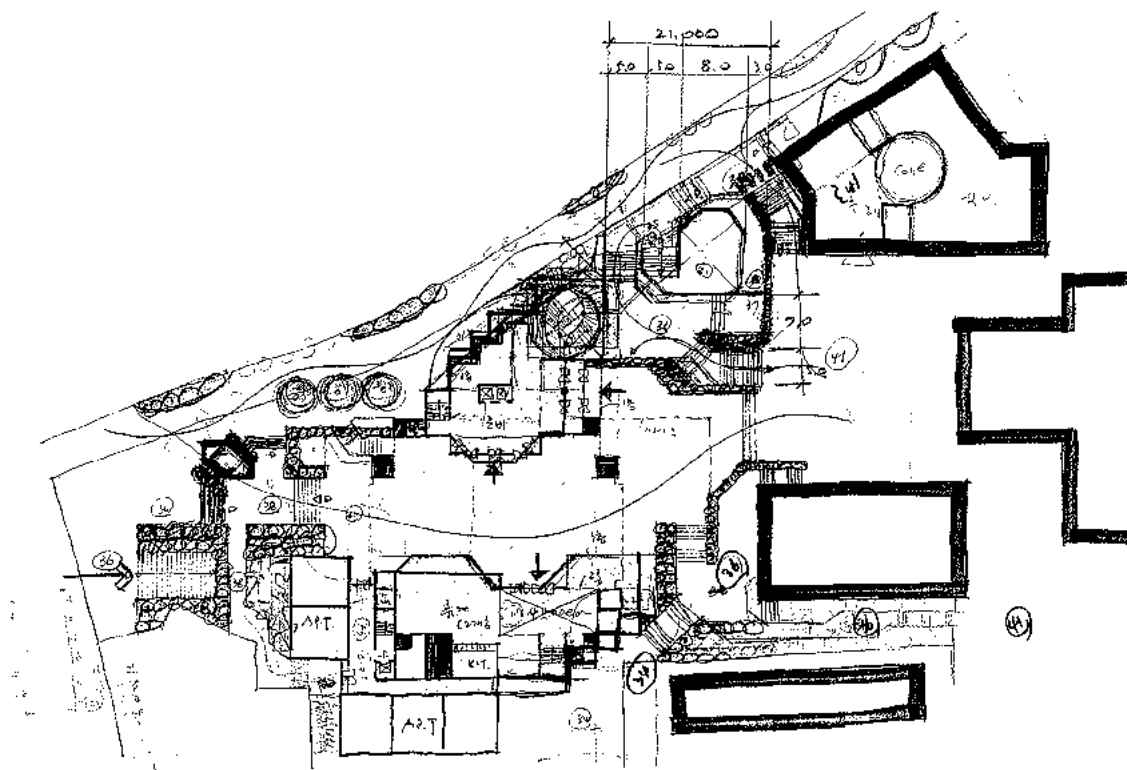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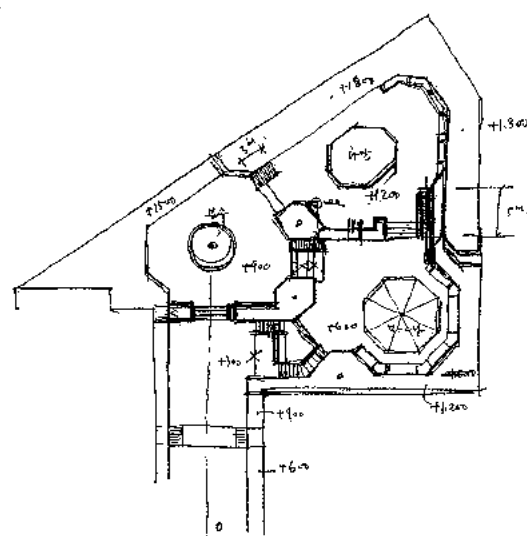
피로티 안에서 내다본 광장과 기존본당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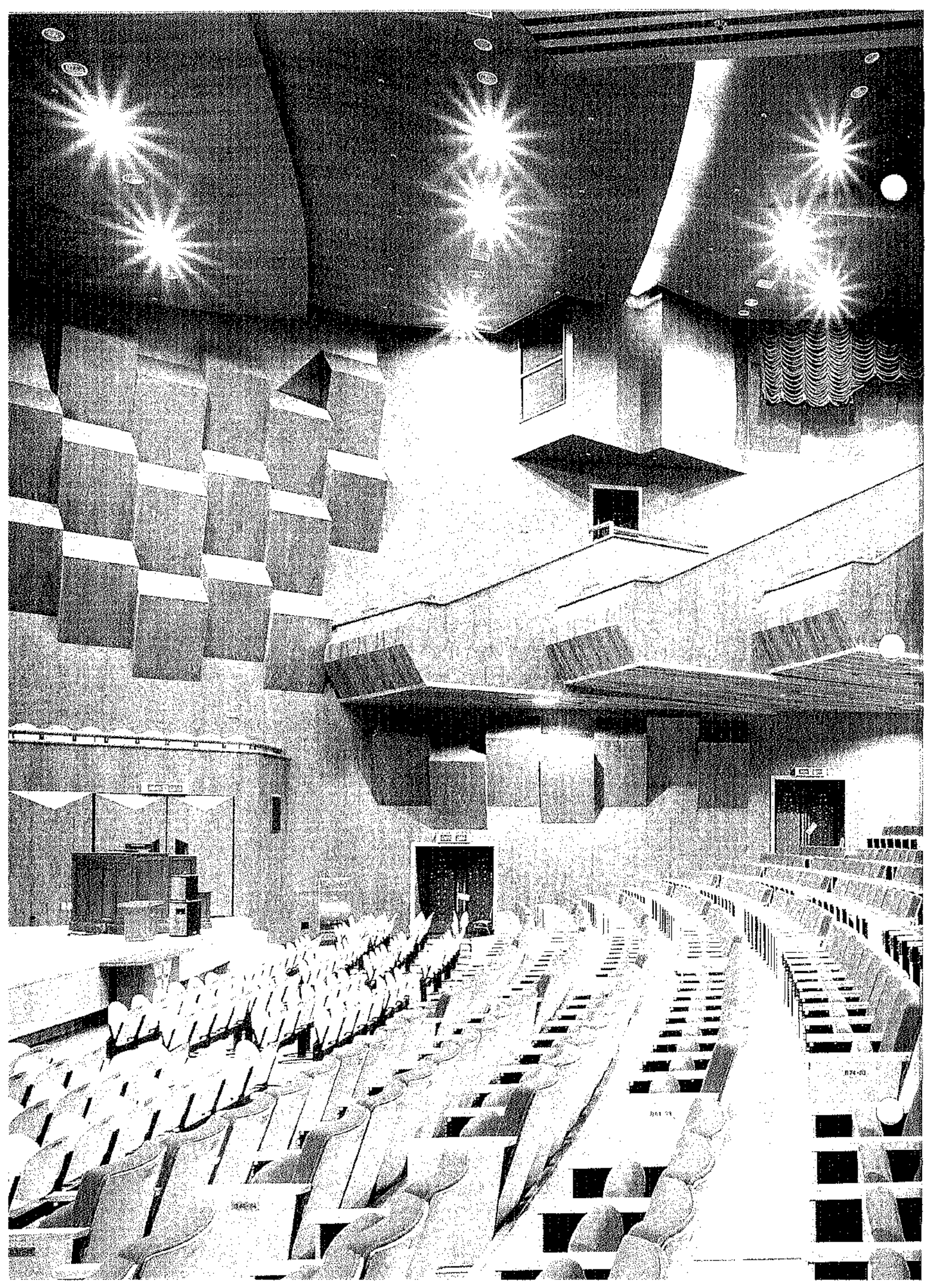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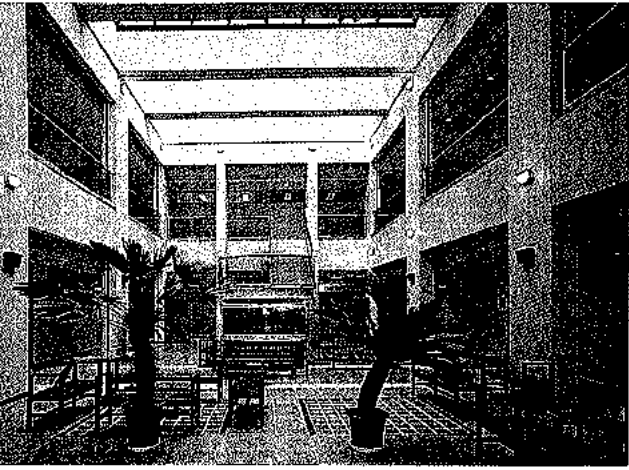
(사진 : 김배오)

피로티 안에서 내다본 광장과 본당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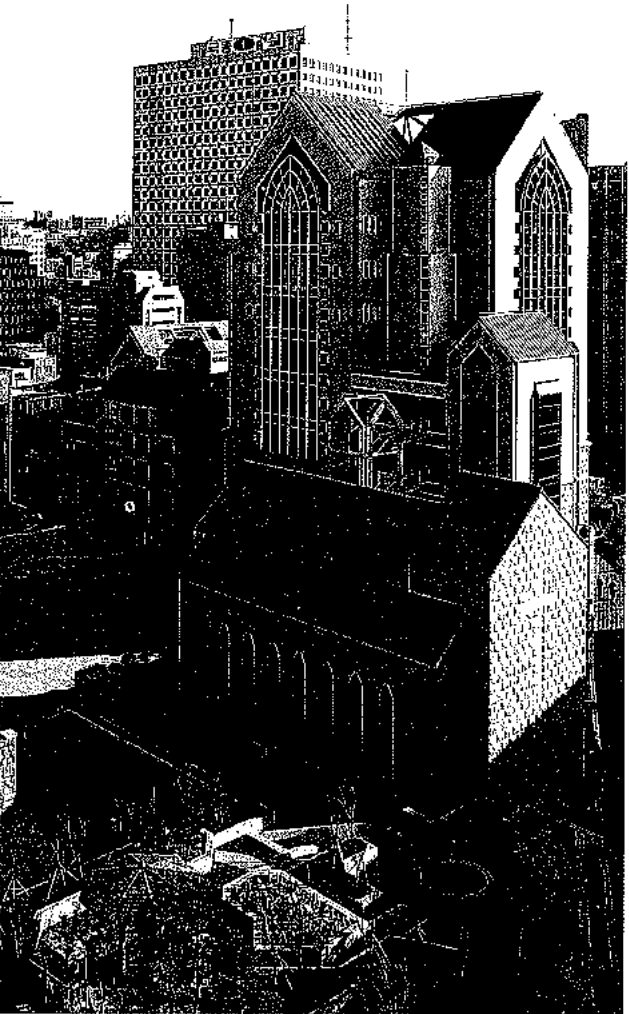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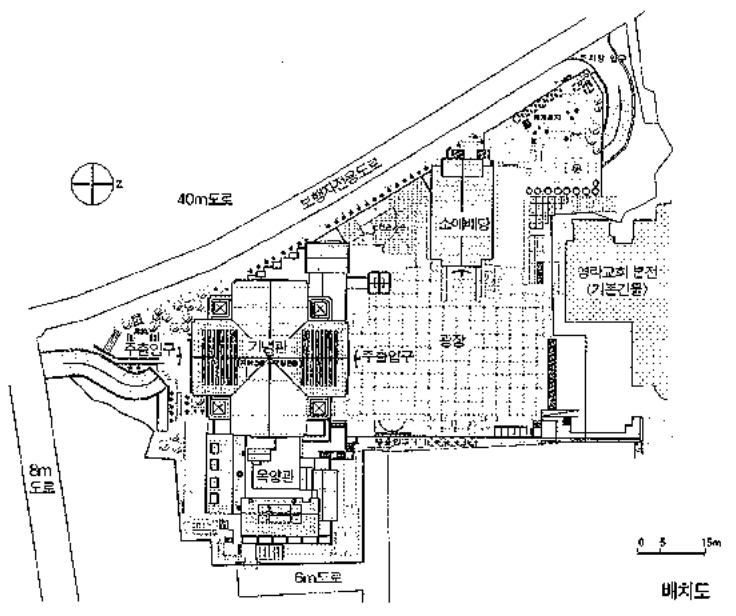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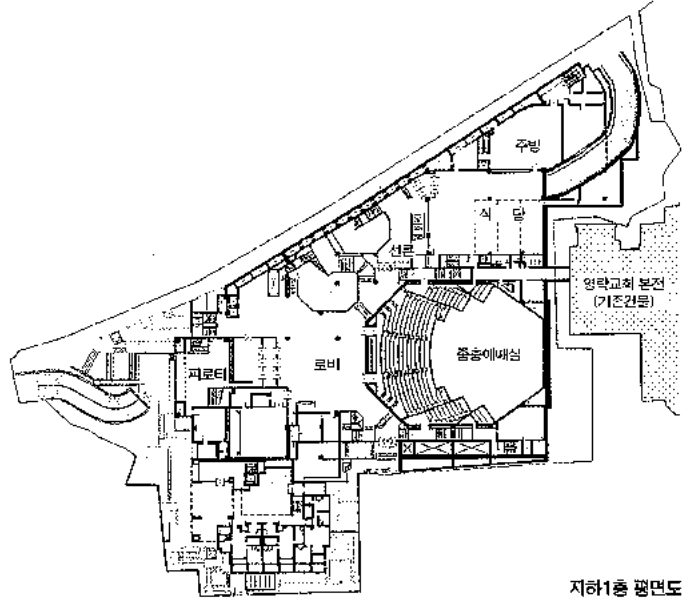
7~8층에 위치한 하늘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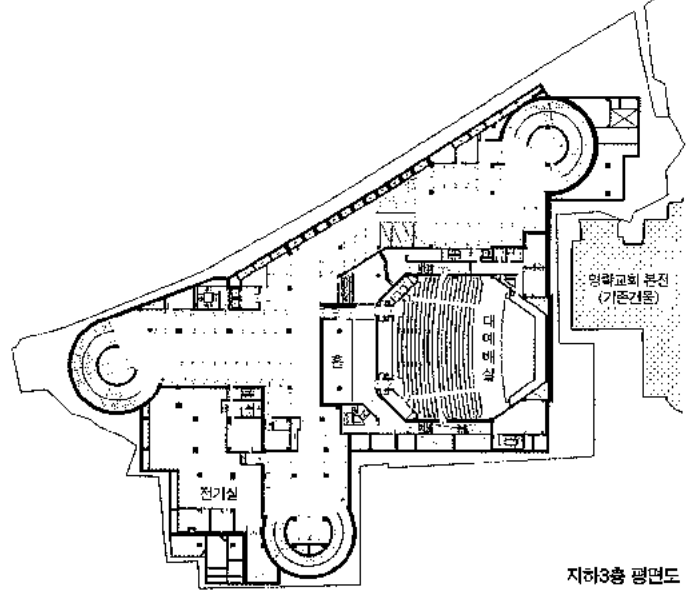
공개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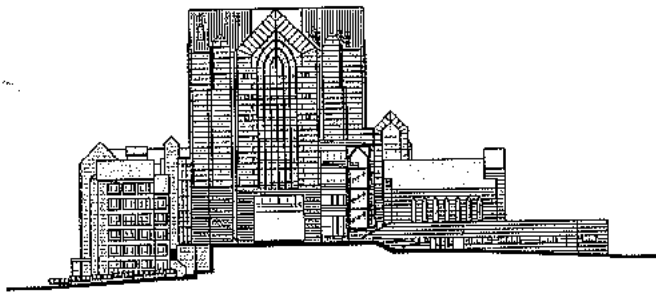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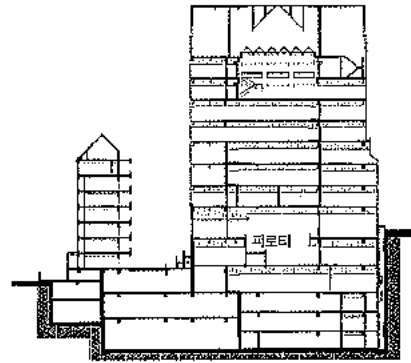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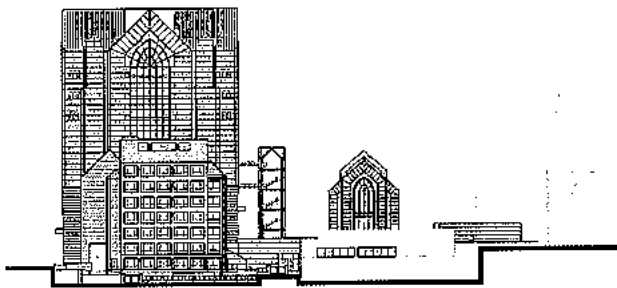
지하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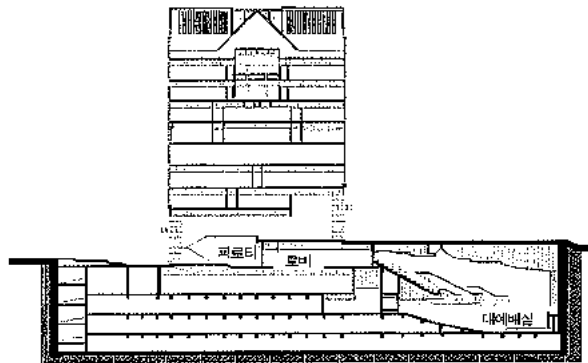
북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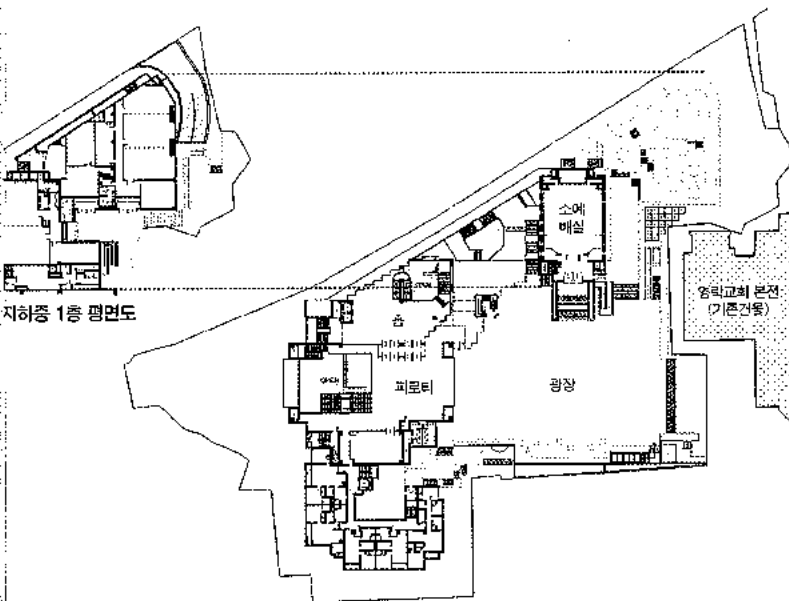
청단면도



동측입면도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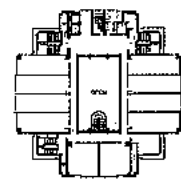


0 5 1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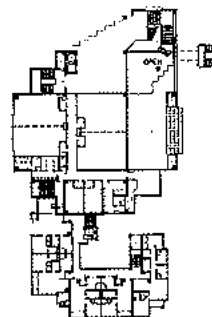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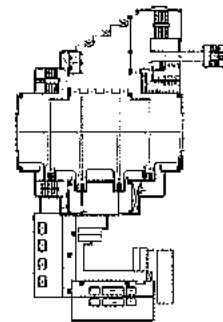
6층 평면도



8층 평면도



2층 평면도



4층 평면도

도심속 열린교회; 상징성과 역사성의 공존

An Open Church in the Heart of the Metropolis;
Coexistence of the Symbolic and the Historic

대담자 / 유원재(다건축)

설계자 / 정시춘(정주건축)

You Won-Jea & Chung Si-Chun

일 시 / 98. 1. 23(금) 14:00~

장 소 / 정주건축



대담광경 (좌: 정시춘, 우: 유원재)

유원재_____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은 서울 도심의 한복판에 거대해진 교회의 여러기능을 해결한 노력이 느껴지는 종교건축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이런 매머드 교회건축에 대해 저항감을 가지게 되는데 설계자의 생각을 듣고 싶군요.

정시춘_____한국 개신교 교회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난 100여년 동안 고도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과정중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 사회적 저항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교회건축의 출현에 대한 부정적 비판들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건물이 일주일에 한두번 사용되고, 주중에는 비어있다는 문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는 교회 자체내에서도 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미래교회의 예상되는 모습과 그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미래교회는 교회 본래의 기능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의 활동과 함께 사회문화, 복지, 사회교육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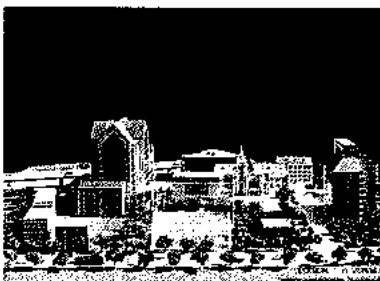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의 규모에 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처럼 대형교회가 바람직하다는 문제는 건축외적인 문제이어서 건축가로서 제가 언급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교인이 주일날 하룻동안에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성도간에 친교하는 등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공간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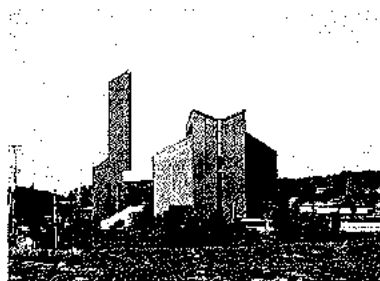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은 주로 교회 교육시설과 문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들은 이동식 칸막이에 의해 다양한 크기로 공간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음악당, 소극장, 음악감상실, 휴게실 등의 문화시설과 함께 지역사회에 개방될 것입니다.

더욱이 영락교회는 한국사회에 개신교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개최되는 다양한 연수, 세미나, 음악회를 위해서도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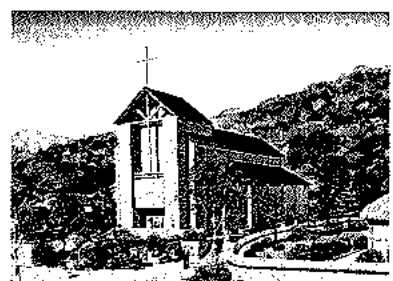
앞서 말했듯이 매머드 교회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감은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회시설이 평일에 비어있는 데도 지역사회에 폐쇄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이 교회의 계획대로 지역사회에 개방되고 늘 유익



영락교회 현상안 모형



합악 앙둔교회



유관순기념 대동교회

하게 사용되면 오히려 친근한 건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원재_____저도 이 교회 교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기 나름의 교회그림을 각자 머리속에 그린다 봅니다.

본당과 아담한 소예배당은 서로 친숙한 기분을 자아내나 본당과 대규모의 기념관과의 대응관계는 아직 익숙치 않다고 봅니다. 이용자의 한사람으로서 기념관이 반사유리로 되어 있어 본당의 반영으로 정면성을 대신하였다면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본당(OLD)과 새로 지어진 부속시설물(NEW)과의 만남을 어떻게 풀어 갔는지 알고 싶군요.

정시춘_____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바로 유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였습니다.

영락교회 본당은 아시는대로 영락교회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고, 기능적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는 건물이며, 또한 일반인들에게 영락교회의 시각적 이미지를 심어준 건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서구 기독교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었던 고딕양식이라서 형태적으로 매우 강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지어지는 이 거대한 50주년 기념관이 본당과 대화하는 방법으로 반사유리를 사용하여 본당을 반영시키는 수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가지 이유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 선교적 사명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야 하며, 교회건축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영락교회의 시각적 사인이었던 본당 건물은 주변의 고층건물들과 삼일고가도로에 가려져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50주년 기념관이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둘째, 유리라는 재료의 이미지가 비교적 보수적인 기독교 교단인 영락교회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셋째, 가능한 넓은 Open Space를 확보하기 위해 탑상(塔狀)의 매스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다양한 기능공간들로 구성되고 여러개 층에 대규모의 주일학교 예배공간을 배치해야하는 이 건물을 유리타워로 구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전의 고딕의 형태언어를 끌어오므로써 동질성을 통한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십자형의 금경사진 박공지붕과 Pointed Arch, 모서리의 뾰족탑, 화강석 혹은 두기의 외벽재료들이 그러한 요소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영역안에서는 신·구 건물들이 유유상종으로, 도시에서는 본당이 보여주었던 영락교회의 건축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건물이 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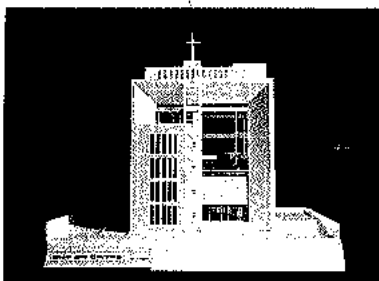
유원재_____정선생님은 그간 많은 교회건축물을 설계했고, 그 작품들을 통해 설계자의 무리없고 저항감 없는 자연스런 건축어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설명적 건축어휘 보다는 교역자의 종교적 메시지로도 전달되지 못하는 영역에 건축가의 추상적 손길을 통해 신비성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면 좋은 종교 건축물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종교건축의 추상성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시춘_____종교건축의 '신비성'에 관한 한 저는 기독교 건축에서는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신비주의적 종교가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설명적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 중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은 신비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타종교에 비해 매우 이성적인식의 종교라고 생각하여, '신비성' 보다는 '상징성'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더욱이 50주년 기념관은 교육, 문화 기능을 가진 교회의 부속시설이지 교회의 중심인 예배당이 아니어서, 이 건물에서 일어날 다양한 활동들에 가장 적합한 기능적인 건물



진주 한성교회



경남교회 계획안



구리 교운교회

을 만들면서, 본전과 조화되고, 본전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뒷받침 해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유원재 _____ 저 자신도 항상 변신의 노력을 하나. 다른사람의 시각으로 잘 인지되지 않아서 막다른 벽을 느끼곤 합니다. 정선생님의 자기 작품 세계에서의 탈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시훈 _____ 누구나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작품순례여행을 통해서 자극받기도 하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도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경험이 변신이나 자기 작품세계에서의 탈출이 아닌 축적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오랜시간의 건축에 대한 경험과 사고는 자신의 생각을 고차사키기도 하고, 정리시키기도 하겠지요. 저는 건축이 건축자체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의 목적과 활동에 가장 적합한 해답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작품을 합니다. 또한 그 건물이 놓여야 할 장소와 주변환경의 조건 또는 요구에 충실하면서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이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위해서, 무언가 다르기 위해서, 또는 불확실한 실험을 위해서 건축의 기본적인 문제를 회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보다 더 충실히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설계하는 건물마다 사용하는 사람과 목적, 그리고 그 장소와 환경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 비슷하다고 평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저의 건축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원재 _____ 마라톤 같이 긴 5년반이 넘는 동안 설계, 감리를 통해 느꼈던 애환의 뒷얘기거리가 있으면 들

려 주십시오

예를들어 설계자를 지치게 만들었던 일이라면, 애초의 생각이 긴시간동안 어떻게 바뀌고 흘러가 완성되었는지요?

정시훈 _____ 예, 참 돌아켜보면 긴 시간이었어요.

처음 현상에 당선하고 나서 새벽에 남산에 올라 영락교회를 내려다 보면서,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하리라 여러번 결심했지요. 그러나 설계를 진행해가는 동안, 밤새워 만들어낸 디자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치는 등 여러가지의 어려움들에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감리를 하는 동안 감리자를 감독하려는 건축주측 감독자와의 심한 마찰은 설계자로서의 의욕을 무참히 꺾어놓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축주가 설계자로 하여금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건물을 위한 길이고, 곧 건축주를 위한 일일텐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겨진 그러나 건축가로서, 더욱이 크리스천으로서 보람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유원재 _____ 구경꾼의 입장으로 숨겨진 결과 이품도 생각치자 않고 느낀대로 질문을 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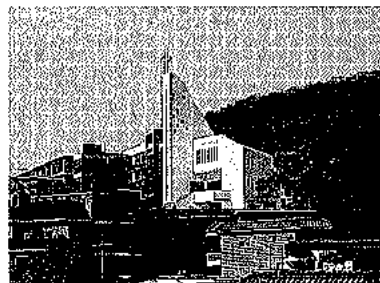
이제까지 축적된 종교건축의 토대로 하느님까지도 흡족해 하시는 현대적 시대성을 넘어서는 교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산 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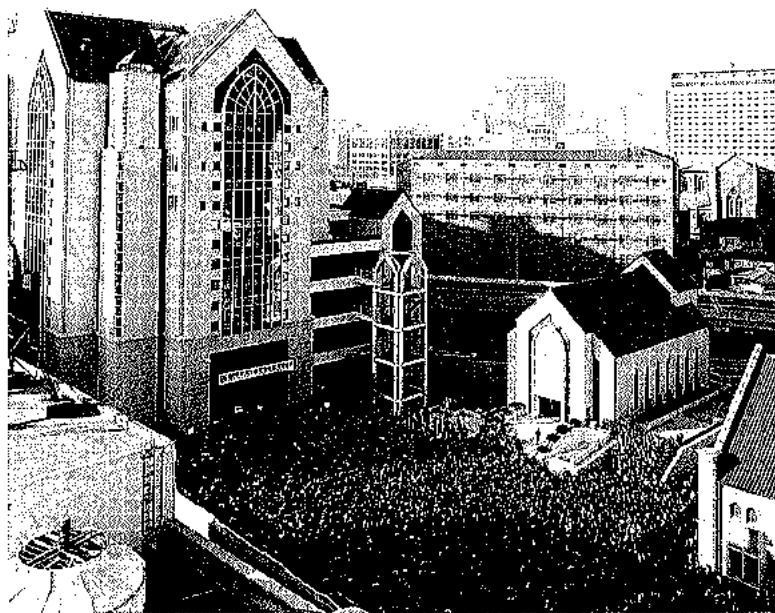
금암 성결교회



서강교회

편안한 도심의 종교 문화공간
Comfortable Urban Christian Cultural Place

김상경 / (주)SK건축사사무소
by Kim Sang-Kyung



50주년 기념관 광장에서의 옥외집회 광경

오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단조로운 도시환경은 점점 기능적이고 기계화되고 있어 마음 붙일 곳을 잃어버리고 지내는 생활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국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활의 멋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이 된 셈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앞에 신선하게 다가온 도심의 새로운 장소가 태어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랜기간 동안의 산고 끝에 새로운 모습으로 완성을 보게 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이 바로 그것이다. 마치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환경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길을 상징하듯이.

특히, 서울에서의 생활이 보행의 기회가 부족한 형편에서 영락교회 주변의 충무로와 퇴계로, 삼일로 그리고 수표다리길 등 추억의 길은 우리의 옛 환경과 건축이 줄 수 있는 생활의 즐거움이었으며, 더욱 이 장소는 오랜 추억을 담은 도심속의 찬양과 예배의 장소이었다. 또한 그장소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온 개신교의 산실이었다. 이 옛 성전 옆에 새롭게 들어선 50주년 기념관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숨결로 아름다운 마음과 여유를 느낄 수 있게 하는 편안하고 겸손한 모습의 도심의 교회건축으로, 그리고 나아가 종교 문화공간으로 신선하게 우리앞에 가깝게 다가선 것이다. 이 건축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서울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채 많은 크리스찬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감되는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여 기독교의 열린교육, 선교 및 문화공간 그리고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옛 교회와 조화되는 50주년 기념관은 오히려 우리들의 발길을 도시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셈이 되었다.

건축가로서 사회적 기여: 길과 광장으로 구성된 종교 문화공간의 창조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은 어린이, 청소년, 장

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요구되어지는 교육공간, 예배기능을 수용하는 콘서트홀과 소극장 등의 문화공간, 그리고 별도의 독립된 채플과 건축주가 요구하고 있는 사택의 주거공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하고 있다. 특히 제한된 대지조건 속에서 콘서트홀 등 대규모 공간을 지하에 구성함으로써 옥외의 광장을 창조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였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기능 상호간에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시도하였다. 도심속에서 충무로와 퇴계로 등 우리들에게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역사적인 길의 흐름과 연계되는 50주년 기념관과 광장은 종교 문화공간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기대할 만하다. 특히 이 광장은 영락교회라는 옛 성전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기독교인들과 지역주민, 나아가 시민들에게 종교생활의 연장의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고, 열린교회로서의 의도를 충분히 발휘하게 되었다. 이 광장은 교회 안에서는 안마당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교회 외부에서 볼 때에는 피로티를 통해서 만나는 도시의 길과 연계된 광장을 만들어 도심지 교회 건축의 혁신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도심에서의 기존의 길 (Street)과 새로운 건축으로 태어난 광장(Square)이 서로 만나게 되어 옛 환경과 새로운 건축이 서로 어울리는 공간구성의 예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장소는 도심속의 광장으로서의 장소성이 돋보임으로써 크리스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발길을 도심안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독교 문화장소로 발전될 것이다.

50주년 기념관 건축의 특성은 상기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의 기존의 길과 새로운 광장을 기념관의 피로티 처리에 의하여 연계시키고 그에 따라 연속적인 장면연출의 공간전개(Space Sequence)라고 하겠다. 콘서트홀 등 비교적 대규모 공간을 지하에 배치함으로써 채광과 통풍 등이 가능한 볼륨있고 다이내믹한 선문정원 및 계단, 그리고 아트리움을 등이 창조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나아가 광장에서 기념관 상부층을 연계시킨 수직계단 타워, 청소년 교육공간이 있는 최상층의 중정형태의 '하늘정원' 등의 적극적인 공간의 전개는 이 건축을

더욱 다양하고 변화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공간은 창의적인 사용방법과 운영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는 친교와 찬양예배 및 모임·전사 등의 다목적 장소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기존 형태와 유사한 십자형태의 평면과 볼륨있는 Mass의 형태미를 화강석의 벽과 커튼월 그리고 경사지붕, 고딕형태의 창호 등으로 강조하면서 옛 건축 및 환경과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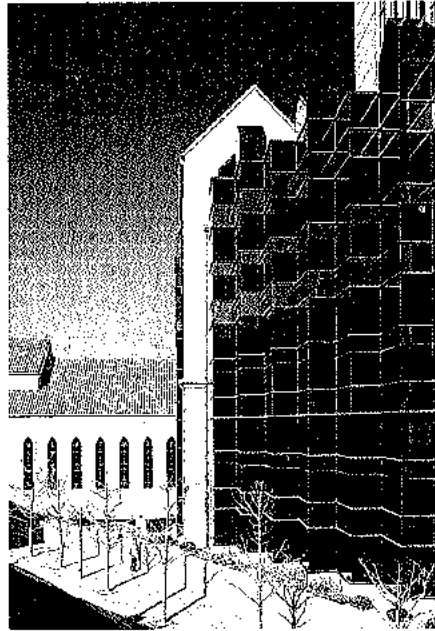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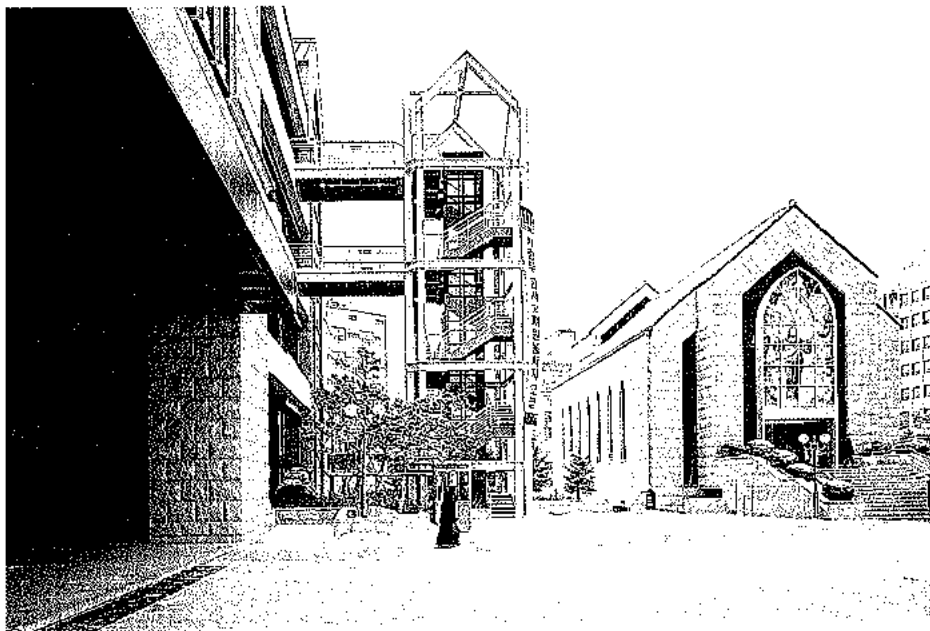
결국 건축주가 요구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는 커다란 볼륨 등을 제한된 대지조건에서 충실하게 해결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지며, 정시춘 건축의 오랜 경력과 식견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리라고 본다. 여기서 정시춘 건축이 제시하는 설계접근은 기존 주변환경을 구성하는 질서 원리에 순응하면서 기존의 옛 상황과의 조화를 제시하는 비교적 절제된 50대 건축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그의 지나온 프로젝트들이 상업적인 것보다는 기독교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다루어지면서 그는 건축주들에게 그의 의지와 소신을 설득하면서 비교적 즐거운 작품활동을 진행하여 왔던 것 같다. 기존의 땀내는 건축물들이 주변환경의 질서를 산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 우리의 도시건축 상황속에서 그의 건축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친근감 있게 주변환경을 결합시킴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결을 성취하였다는 강점이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50주년 기념관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건축가의 기여이자, 건축가 개인으로서는 커다란 보람이라고 할 것이다.

새로운 현대적 형태 표현의 아쉬움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서 정시춘 건축이 지향하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접근자세는 바람직스러우나 그 표현에 따라서는 오히려 무한한 건축설계 범위를 한정시킨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 제시하는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라는 커다란 의미의 건축설계의 주장과 강조가 표현방법에서는 스스로를 묶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다. 내부에서 변화있고 복합적인 기능들을 충실하게 해결한 반면에, 형태의 표현은 비교적 자기완결적이며 Massive 하다고 하겠다. 마치 피로티의 과감한 처리처럼 오히려 비완결적이며, 가볍고 부드러운 처리로 현대적인 새로운 조형미가 가능하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기존 본당과의 조화도 더욱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한편 기념관 타워의 거대한 피로티의 처리가 외부의 길과 내부의 광장사이를ダイナ믹하게 연계하듯이 각 개별적인 건축들 — 즉 옛 성전, 채플, 기념관, 옥외 계단타워, 사택등 — 사이에 더욱 긴밀한 연계가 아쉬우며, 그에 대한 보완은 단위건축 사이에 길, 아케이드, Promenade, 바닥재료의 변화, 조경디자인 등의 처리에 의하여 서로를 묶어주는 공간과 형태의 표현이 적극적인 연속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외부의 독립된 계단 타워로 교육관과 지상을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수단과 같이, 동선의 일부를 외부광장에서 건축물 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하로 진입할 수 있는 외부의 선큰계단이 광장에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삼일로와 기념관 안의 광장과도 적극적으로 연계되어 도시와 건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쉽게 느껴진다. 물론 공개공지가 제한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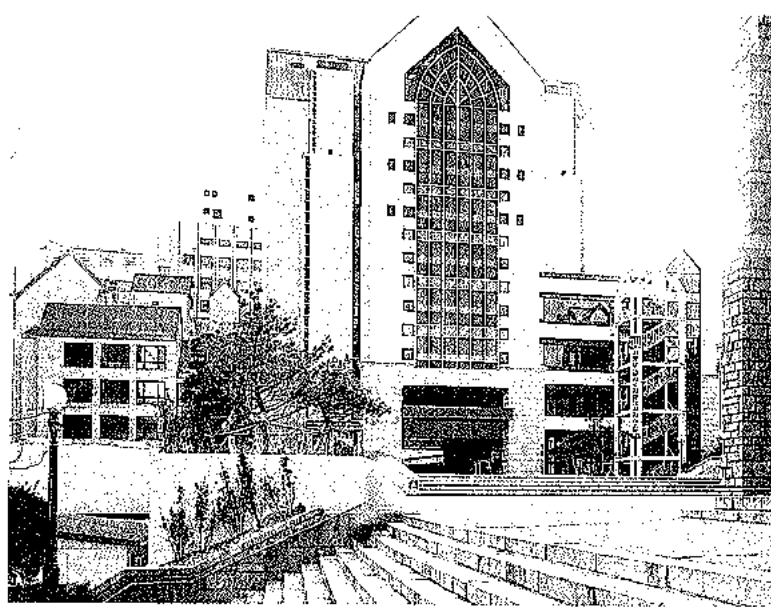
로 연결은 사키고 있지만.

또한 대규모 콘서트홀을 지하에 구성하고 지상을 광장으로 처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오히려 채플과 같은 비교적 작은 공간을 지하에 넣고 마음껏 조형성을 표현하고 강조할 수 있는 콘서트홀은 지상의 Chapel 위치에 구성하면 외부에서의 인지성(Perception)과 조형성도 강해지리라고 보여진다. 그럼으로써 무리한 지하공사의 어려움도 다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 부분은 건축주의와 긴밀한 협의와 토론이 필요하였던 것 같다. 물론 그렇게 되면 외부 광장의 면적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퇴계로에서 바라본 형태의 연속성도 아쉽게 느껴진다. Chapel의 강대상 부분의 창이 없는 벽이 가로와 만나면서 단조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고, 그 부분은 기념관의 변화있는 입면과 대조적이 되어버렸다. 기념관의 커튼월은 오히려 투명성을 강조한 측면에서 반사유리보다는 적절한 색상의 투명유리를 사용하고 서양의 경우에는 루버 등으로 표현하여 조형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로도 발전시킬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비교적 삼일로 고가도로와 어두운 보행로를 밝게 비출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교회건축의 특수한 기능과 함께, 물론 건축가 자신의 건축적 취향도 원인이 되겠지만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와 시공상에서 전개되는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등의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는 오랜기간 동안에 생겨날 수 있는 발전적인 설계변경의 여러가지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내용들이 건축주, 시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보장된다면 더욱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건축주의 창의적인 운영과 사용: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친근한 장소로 기대

앞으로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의 다양한 공간 특히, 피로티와 계단, 선크기둥과 계단홀, 교육관 상부의 하늘정원 등 여러 특징적인 내외부공간 등은 건축주의 지속적인 손질에 의한 창의적인 운영과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다양



한 공간이용 프로그램과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어진다. 물론, 건축주로서 이호진 교수와 여러분들이 오랜기간동안 프로그램 개발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봉사과 참여의 도움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성에 하는데 기여한 점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다양한 전시, 모임, 전도, 선교 그리고 찬양 및 예배 등 건축주의 활발하고 창의적인 운영과 사용으로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친근한 장소로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종교문화화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 선택하여 성공적인 관리운영과 사용에 의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 고유의 생활모습이 담겨진 공동의 집합장소의 연속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50주년 기념관은 다양한 그룹과 연령층의 성도들이 모여 대화하고 서로 전도하며 그들의 종교적인 삶과 직접 연결되는 모임의 장소(Gathering Place)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개별적인 건축물과 도시와의 사이를 연결하는 전이영역(Transitional Territory)으로서 50주년 기념관이 종교문화의 복음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종교적인 영역이 열린 교회로서 지역의 커뮤니티에 구심점이 되어 시민들의 공공생활과 개인생활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활기있는 균형을 찾게 되면 우리의 종교문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The monotonous urban condition that defines our environment is continuously becoming more functional and mechanical, which furthers the banality of our emotions. Where we can enjoy our lives, like our beautiful nature and traditional places, is getting all the more rare.

In this circumstance, it is our delight to find the new 50th Anniversary Building of Yongrak Presbyterian Church. Areas of Chungmu Road, Taegae Road, Samil Road, or the Supyo Bridging

Road that surrounds the Yongrak Church is where we spent our younger days walking around - something not so easily experienced in the urban life of Seoul - and Yongrak Church itself is a reminiscent place of praise and worship. Located in the center of Seoul, it served as the basis of Korean Presbyterian Christians, delivering the divine messages of love. The addition of the 50th Anniversary Building continues its tradition by emitting comfort and modesty through the love and touch of God, while serving as a freshly new Christian cultural

place. Preserv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Seoul, it houses the necessities and wishes of Christians and civilians alike, providing an open place for education, mission, cultural activities and inhabitation. Coming to harmony with the existing Church, the Anniversary Building succeeds to seduce us into the center of Seoul.

Architect's Social Contribution of Christian Cultural Place as the Composition of Streets and Square

The Anniversary Building is composed of the most complex functions required of a church: A place of education for people ranging from children to grownups; A concert hall used for ceremonies; A place for cultural activities including auditoriums; An independent chapel and a residence, meeting the owner's specific requests. In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the site, large areas like the auditorium was placed underground, making room for a square above. This square then stores the various circulations that connect the diverse functions. It is also in continuous flow with the streets connected to Chungmu Road and Taegae Road, places of our remembrance. The Anniversary Building, along with the square, thus fulfills its role as the Catholic culture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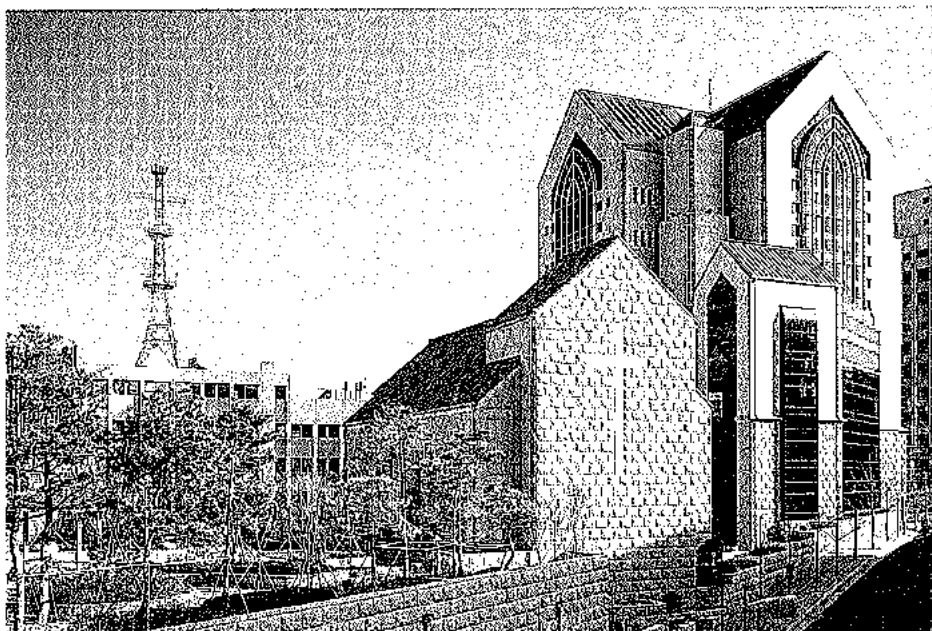
The square extends its capacity by providing the Catholics, the local people and the civilians of Seoul a place where they can deepen their religious life; It is the full embodiment of an 'open' church. Within the Church, it functions as an inner garden, whereas from the outside it is a connection, through the use of pilotis, to the city. The bonding of the new square to existing streets of the region implies a harmonious fraternization between the new and the 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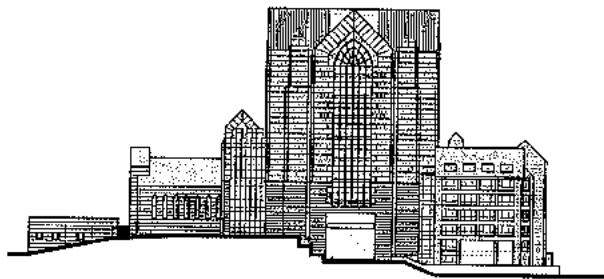
The above-mentioned link between the Anniversary

Building's square with the streets through pilotis render a series of space sequences. With the programs requiring large spaces underground, a dynamic sunken garden and an atrium hall were formed for ventilation and lighting. These formal characters is enhanced by vertical staircase that directly connects the square to the upper story of the building, and the "sky garden" of the Youth Education Center at the uppermost floor. The plan of the floor is similar to the cross of the usual churches, but the overall volume is more dynamic, and is completed by granite and curtain walls, slanted roofs and Gothic-styled windows, which altogether define its architectural character in harmony with the existing buildings and environment.

Meeting the complex and diverse requests of the owner on the functions and programs, and accommodating these into a limited site has been satisfyingly solved, thanks to the insight and experiences of architect Chung Si-choon. Now in his fifties, Chung has presented a modest approach to architecture, submitting the work to its surrounding order and finding a point of compatibility with the past. In his previous works, mainly projects related to Catholic institutions than commercial buildings, he has enjoyed a relatively comfortable position, persuading, rather than being persuaded by, the clients of his design wills. In contrast to the idiosyncratic buildings that disorder the context of the city, his works can be valued for its conforming attitude towards the existing surroundings. By preserving the continuity with the regional community, they hold out a friendly hand to the visitors, whose effect reached its maximum in the 50th Anniversary Building of Yongrak Church. There is nothing more to be desired of an architect's social contribution, and this is where he himself finds delight.

Shortcomings as the Presentation of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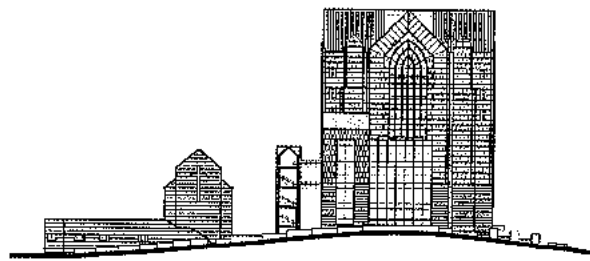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Modern Form

Architect Chung's basic approach on the 50th Anniversary Building of forming consonanc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can certainly be deemed affirmative, but some methods of expression seem to limit the enormous possibilities of architectural design. The large conceptual boundary of emphasis on the harmony of what existed and what is added begins to constrain the design itself. The inside has fulfilled the diverse and complex functions, but the expression of forms is rather self-satisfactory and massive. An unset, light and soft method, such as the use of piloti, could have given the building more contemporary feature. This would have even amplified the harmony with the main Church.

The dynamical link of the politics of the Anniversary Building's tower between the outside streets and the square is somehow absent in other parts - the connections among the old sanctuary, the chapel, the Anniversary Building, outdoor staircase and the private residence. This could have been solved by adopting streets and arcades, thus enabling a promenade, or by the change in the finishing materials of the floors. These methods, perhaps with the addition of landscape design, would have constructed continuity between separate architecture objects. And a direct access, as in the staircase that actively connects the ground level with the education center, could have been utilized in the link between the square and the underground facilities, maximizing the use of the square. The bonding is further missed between the square and Samil Road, which would have enabled a natural flow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city. A limited connection by an open space seems to be unsatisfactory. The laying of functions requiring large areas in the basement has surely made the square more spacious. But by arranging the relatively small facilities like the chapel underground, and thus by placing the Concert Hall above, a stronger sense of form would have been provided and better perceived by the passers-by, since the Hall has more capacity than the chapel in the expression of diverse forms. It would have certainly diminished many challenges in the difficulties of constructing underground facilities. Although it enabled a large open space of the square, extended conversations and meetings with the client would have produced a different result.

Another point of dissatisfaction can be found in the view from the Taegae Road. The windowless plane of the chapel's eleva-



서측입면도

tion that meets the street provides a rather monotonous sensibility, which is all the more emphasized by the contrast with the vibrant form of the Anniversary Building. The curtain walls of this building, as it was used to enhance the transparency, would have been more effective with a slightly colored one rather than the chosen reflective glasses. To the west, the use of brise-soleil could have provided an additional touch of diverse forms, which would brighten the dim pedestrians under the elevated automobile paths of Samil Road. Points referred in the above may well be a result of the special requirements of religious architecture, or of the architect's personal taste. But they may also be the product of the client's various demands, difficulties in constructional methods, or financial constraints. One is assured of a different or better result, if the continuous conversation between the architect, the client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was made possible, incorporating various changes of ideas and design in the long period of planning to construction.

Expectation of Intimate Place Due to Client's Creative Management and Use

It is now left to the owner to manage and creatively use the various spaces of the Anniversary Building, from the piloti to the stairs, the sunken garden to the sky garden. It would require variety of programs in the use of facilities and should be followed by publicity activities. Professor Lee Ho-jin and his associates, as clients, have already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formation of the Anniversary Building, from basic programming to its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ey will surely extend their efforts to make it a place close to the ordinary lives of its users, through meaningful exhibitions, gatherings, missionary works and ceremonies. The success of a Catholic cultural facility depends on this integration with local people and becoming the reflection of their lives with time. The 50th Anniversary Building of Yongrak Presbyterian Church should be a gathering place for people of diverse groups and ages, providing a space for conversation directly linked to their religious beliefs and lives. As a transitional territory of individual architectures and the city, this place is a welcome news to the missions of Catholic culture. We will look along as it becomes the center of the region's community, connecting in balance the public and private lives of the people. We cannot ask more of a Catholic culture fac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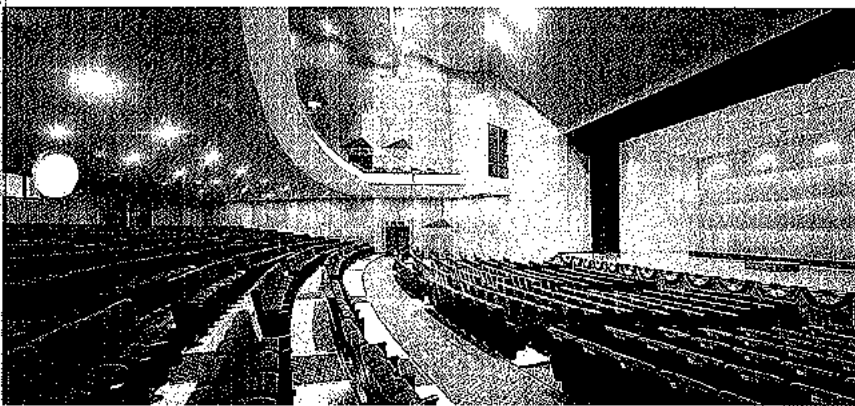
송실대 한경직 기념관

Soongsil University HAN KYUNG-CHIK Memorial Hall

정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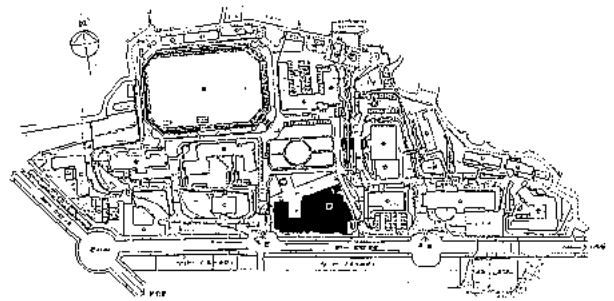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ure





기념관 1층 강당

전경



배치도

당초 설계는 1987년경으로 되돌아보게 되며 대학 교회로 출발된 프로그램은 여러차례 수정되어 박물관이 추가로 계획되게 되었다. 1차 설계가 매듭된 후(1988년경: PM: 최태웅/현이방건축 대표) 근간 다시 시작되어 일부 프로그램이 수정보완되었으며 박물관 1개층과 지하주차장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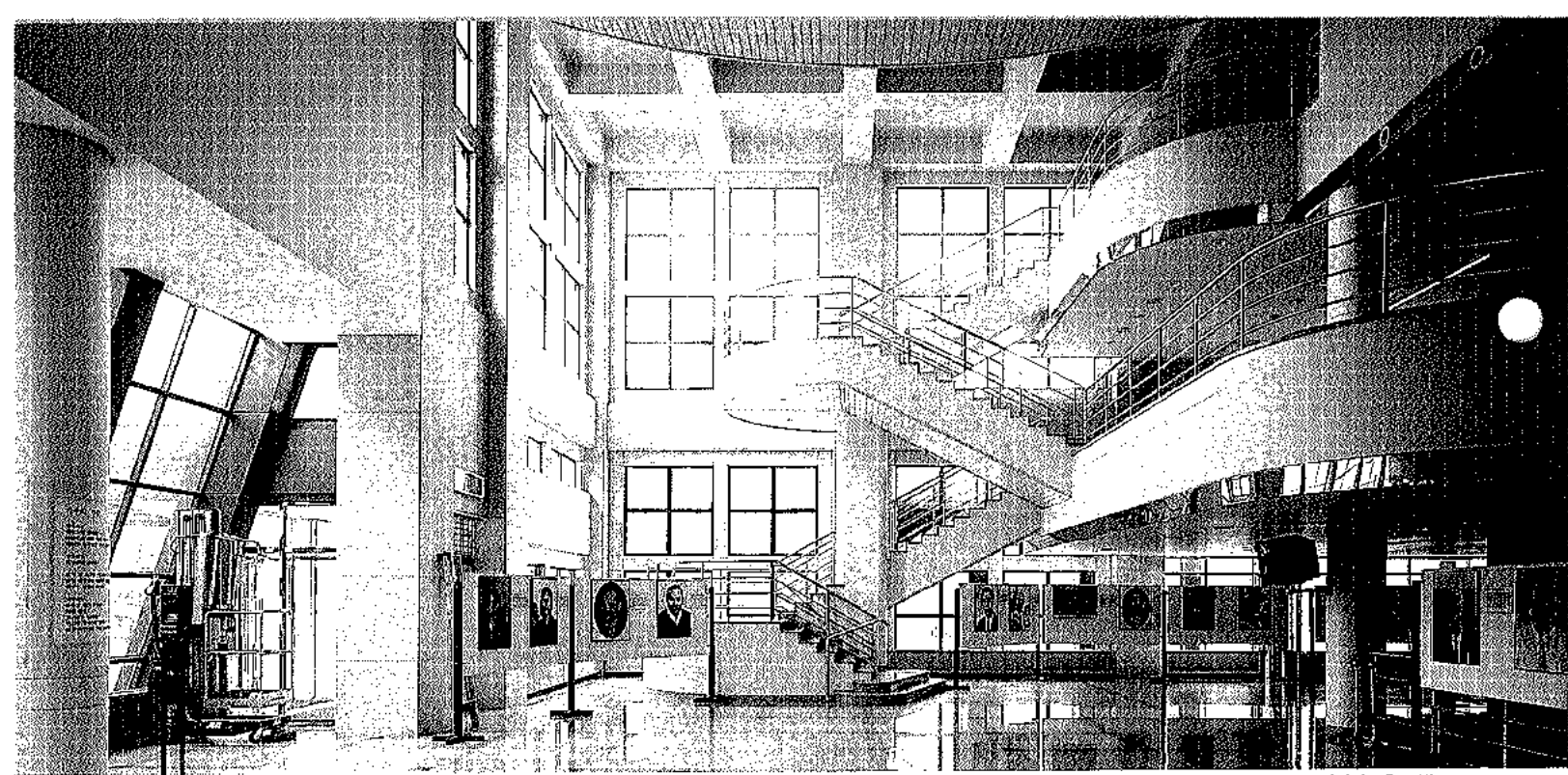
계획부지는 캠퍼스의 정문 입구에 위치하여 기존의 주변 Context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건물이 생기게 됨에 따라 또다른 행태를 야기시키리라 예측케 된다. 따라서 비교적 넓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캠퍼스의 공간을 흡수 포용하려는 의도로 가급적 외부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두기능이 갖는 큰 매스를 완화하기 위하여 완충 공간이 될 수 있는 작은 중정을 가운데 두어 광장과 기념관, 기념관의 교회와 박물관과의 상호 관입 공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대학교회는 예배기능 외에 연극, 음악회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비유형 계획을 하였으며 중정쪽 로비는 기념관의 기념홀과 학생활동의 다양한 활용공간이 될 수 있도록 크기와 높이를 배려하였다. 박물관은 기존 숭실대가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 박물관의 전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물전시, 반입 관리 등에 중점 동선처리 하였으며 대학 박물관의 운영 관리 계획에 적합한 구조로 처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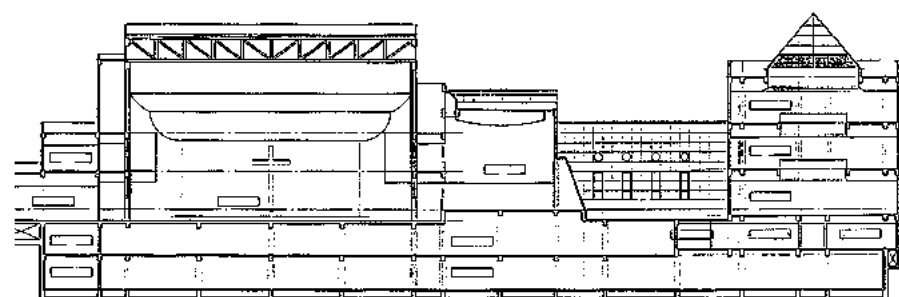
오랜시간 설계도서로만 만족하였던 시간이 길기만 하였는데 숭실 100년의 시점에 준공된 환경직기념관은 한경직 목사님의 큰 뜻을 기리는 또다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의 사명과 봉사에 대학과 함께 그 뜻을 기릴 수 있음을 기대해 본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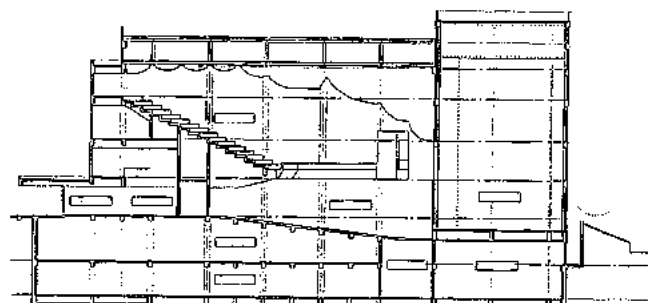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1와 5필지 숭실대학교내
대지면적	122,303㎡
지역지구	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면적	23,513.94㎡(기념관건물 : 3,784.56㎡)
연면적	95,833.18㎡(기념관건물 : 16,237.1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트러스
건폐율	19.22% 용적률 65.61%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대학교회, 박물관)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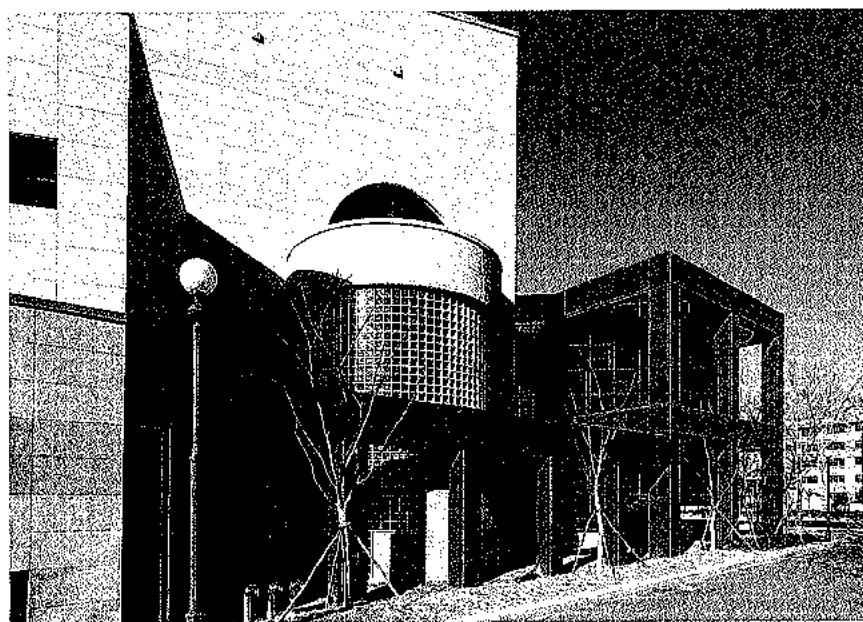
기념관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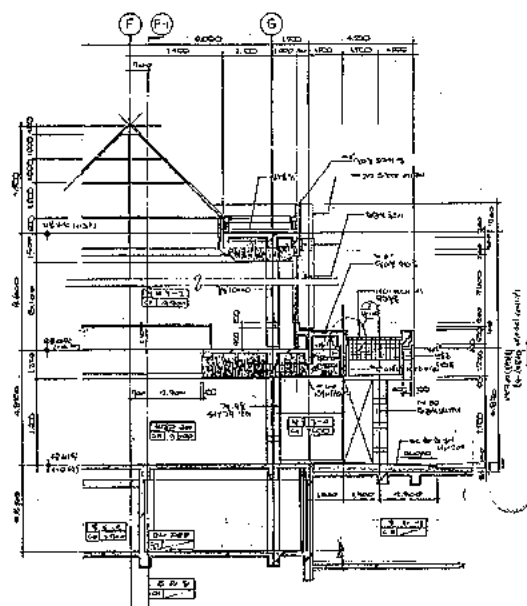
단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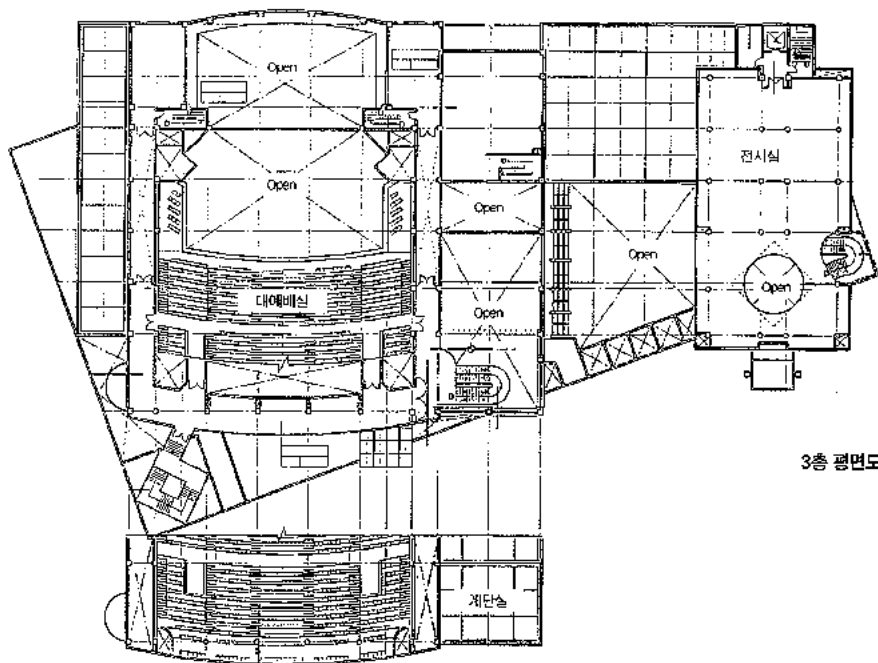
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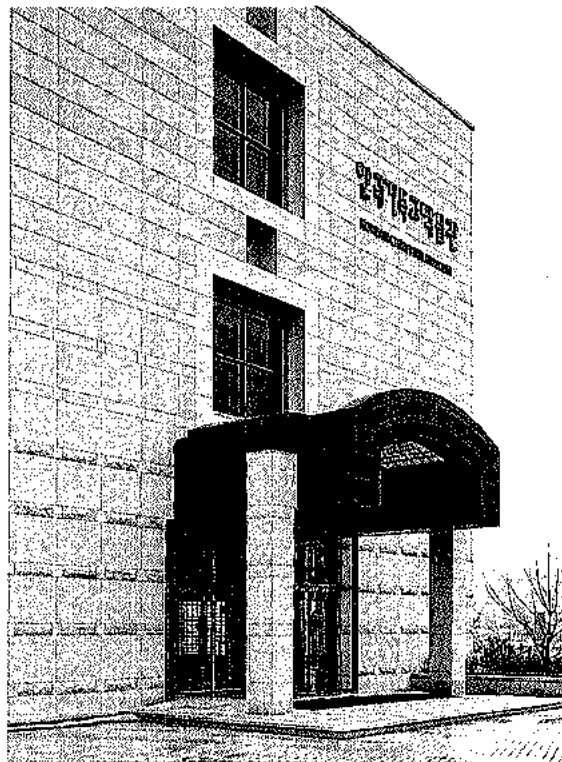
기념관 동측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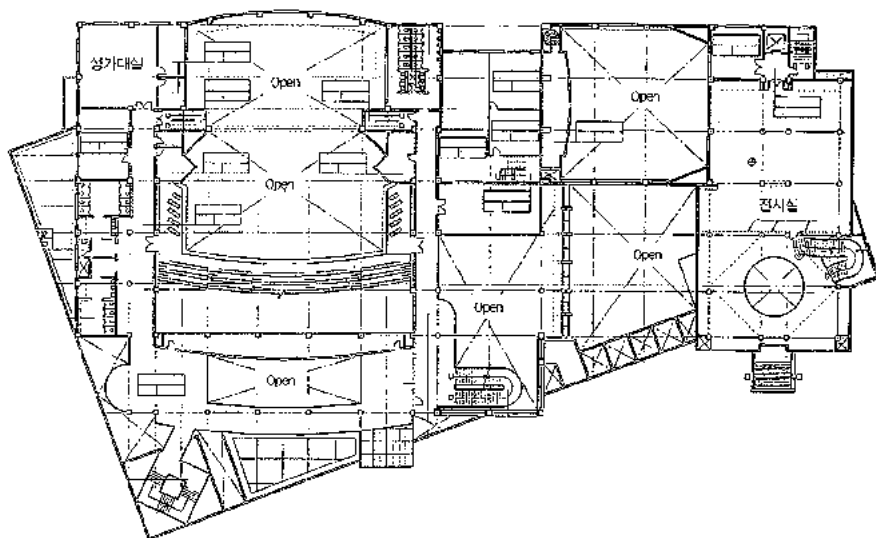
단면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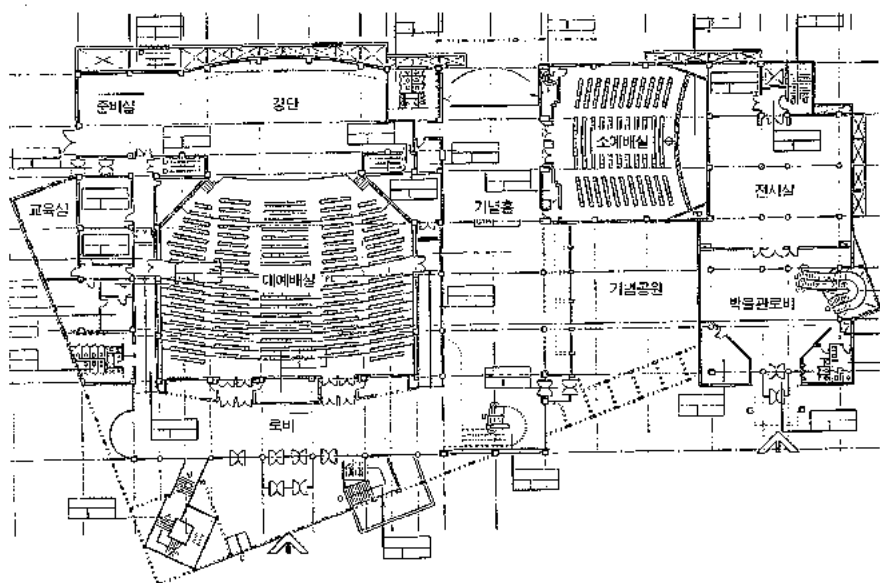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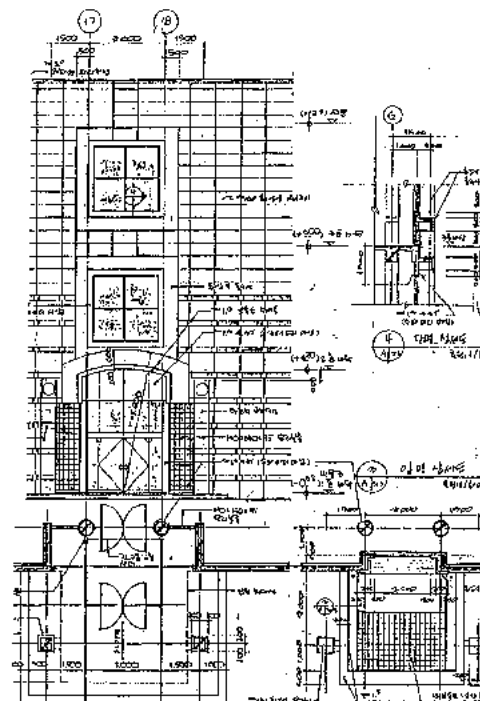
박물관 주출입구 전경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단면상세도2

MESOTRON

김인철 /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l

여덟집을 위한 공동체를 만든다.

도시살이가 그렇듯이 이곳의 주위에는 여유를 찾기가 힘들다. 여백처럼 보이는 것은 강제되거나 강요되어진 것일 뿐이다. 반듯하게 정렬된 도시구획과 남쪽을 향해 줄맞추어 앉아야 하는 이 시대의 건축문법에 충실한 결과이다.

현대도시의 배타성은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다. 도시와 건축에 관한 사회와 제도의 규약 역시 촉매의 역할을 한다. 이웃을 향한 어떤 몸짓도 부정적인 피해의식에 의해 거부된다.

결국 남게 되는 것은 내부에서의 문제만이다. 그러나 합리주의와 기능주의 사생활 보호의 명분을 우선하면 공동체의 모습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

건축이 할 수 있는 일은 문 잠그기에 익숙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완고하게 보이는 용벽에 틈을 만들고 감추어져 있으나 열려질 수도 있는 느슨한 형식을 만든다.

들어다 보이는 것과 드러나 보이는 것은 상대적이다. 보여지지 않아야 할 것과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그들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간을 만들고 기능을 지정하기보다 스스로의 뜻에 따라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조건이 완벽하게 해결된 공간을 제공받아 그것을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도시적 습성을 포기할 수 있는 장치는 한가운데를 비워놓은 것과 장식되지 않은 실내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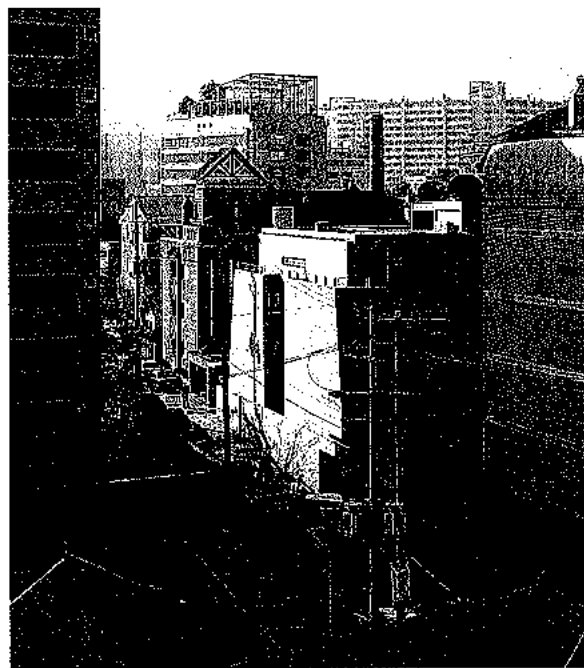
비어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여덟의 각각이 그 비어있음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각본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기대하는 것은 여덟집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름의 모음으로 또 다른 다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익명성으로 가려져있는 도시의 획일적인 모습을 실명의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건축의 형식은 숨은 질서의 역할 일 뿐이다.

건축개요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17-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728.30㎡	건축면적	194.4㎡
연면적	1,838.38㎡	건폐율	50.53%
용적률	173.14%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11.4m
층고	2.85m	주요용도	연립주택
외부마감	벽 - 노출콘크리트, 지붕 - 도막방수위 문자갈채유기		
내부마감	바닥 - 온돌마루, 벽 - 라커, 천장 - 라커		
주차대수	16대	조경면적	149.37㎡
설계담당	점승권	시행자	세진주택
건축주	강애자외 7인		
설계기간	1997. 5~1997. 8		
공사기간	1997. 9~1997. 11		
구조설계	민성건축구조연구소		
설비	성진설비		
전기	아림전기		
조경	푸른조경		
조명	신광조명		
인테리어	(주)아르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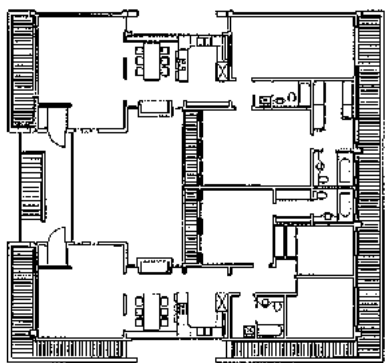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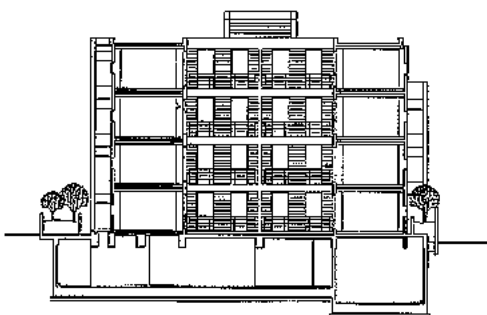


옥외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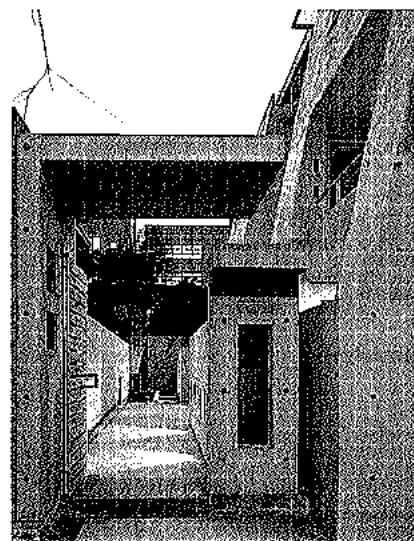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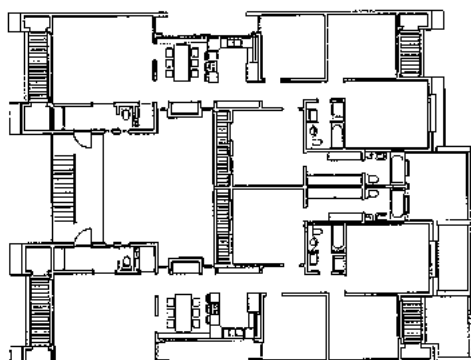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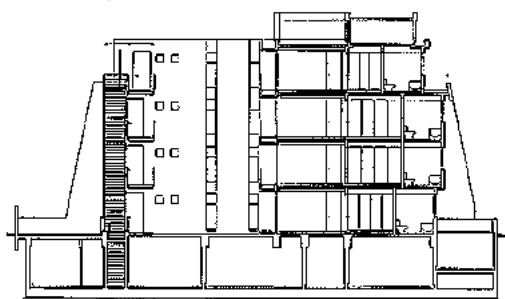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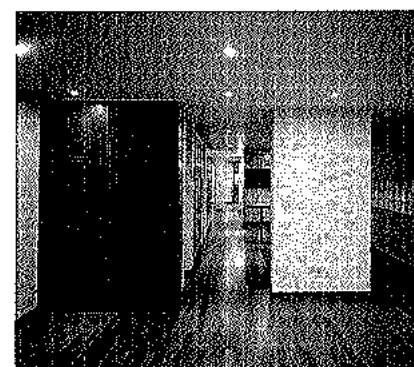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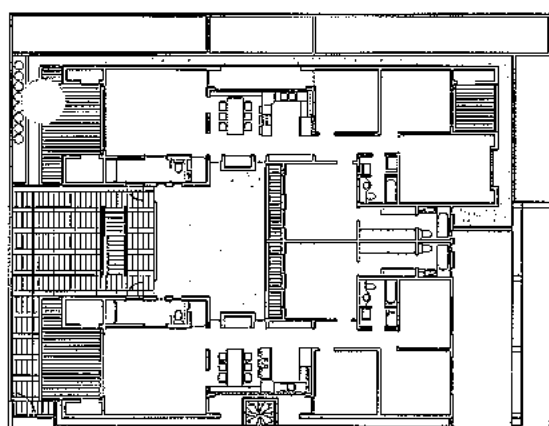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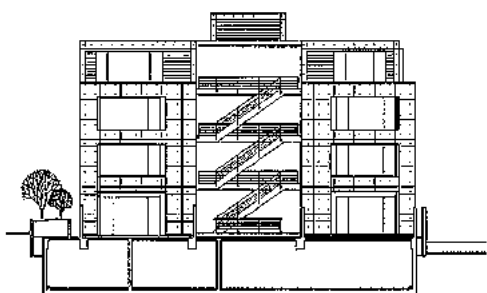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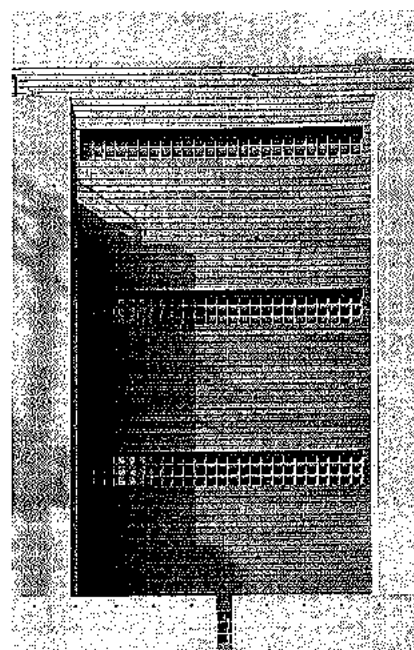
주택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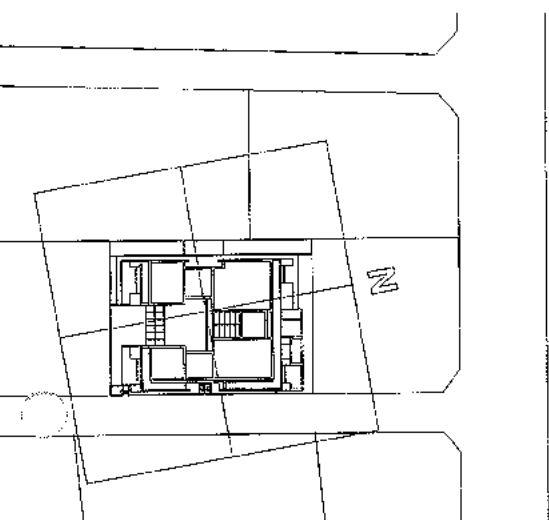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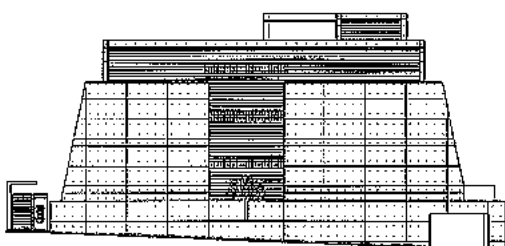
좌측면도



전면 벽면상세



배치도



정면도

금정시민도서관
Keumjeong Civil Library

박재평 / (주)세진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Park Jae-Pyeong

이 Project는 현상설계 작업때부터 개념설정을 위한 기초 분석 작업에 많은 시간적 비중을 두었다. 부정형의 고정차가 심한 대지 구조에서 배치의 최선책은 무엇일까? 단순 독서실 형태의 도서관을 탈피하여 지역도서관의 새로운 Model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러한 욕심들을 주어진 규모에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까?

남·북 방향의 장변으로 건물 Mass를 배치시키고 서측 중앙로(금정로)에서의 시각구조를 고려해 서향으로 정면성을 부여하였다. 대지형상을 이용한 외부공간 Design으로 좁은 대지에서 짜임새 있는 배치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북측 봉우리는 그대로 보존하고 녹지를 최대한 보존코
자 하였으며 지반조성 Level을 전체적으로 높여 토목절토의 부
담을 줄이고 시각의 조정이 될 수 있고자 하였다.

내부공간 구성을 일반 열람실과 함께 전자 도서관을 적극 도입하여 CD, LDP 등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System, 영상·음향실 등을 배려하여 정보화 추세에 무합되도록 하고 강당, 교양교실 등 일반열람실의 부분의 비중을 높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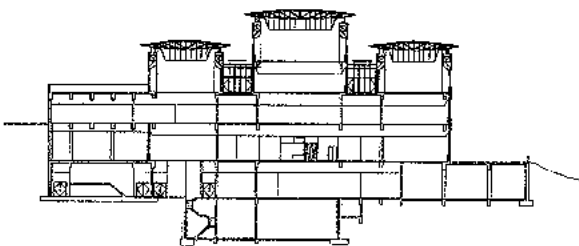
입면은 화강석, 포천석과 분경석을 이용하여 단순, 깨끗한 외관에서 부분적 색상변화를 부여하여 녹지와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지붕 부분을 컬러 스텐레스스틸(골든색상)로 구성하여 햇빛의 각도와 시간대별 색상변화를 디자인의 핵심요소로 도입하여 건물의 「Identity」를 부여 하였다.

특히 지붕부분은 국내에서 보기 어려운 Design으로 관 발주 공사에서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역 건축문화 를 의식해 시도해 보지는 건축주측의 배려가 고마웠으며 디테일 상의 어려움은 일본 및 국내 업체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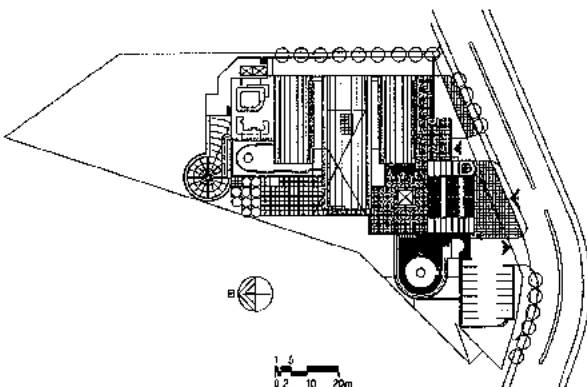
끝으로 기본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크고 작은 변경요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당초의도와 다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운동 산 30번지 일원
용도지역	자연녹지(도서관 시설부지)
대지면적	7,820㎡
건축면적	1,556㎡
연면적	6,201㎡
건폐율	19.89%
용적률	49.60%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마감	화강석 버너구이/18mm 컬러 복층유리
주차대수	42대
	지상20대(일반인용)
	지하22대(직원 서비스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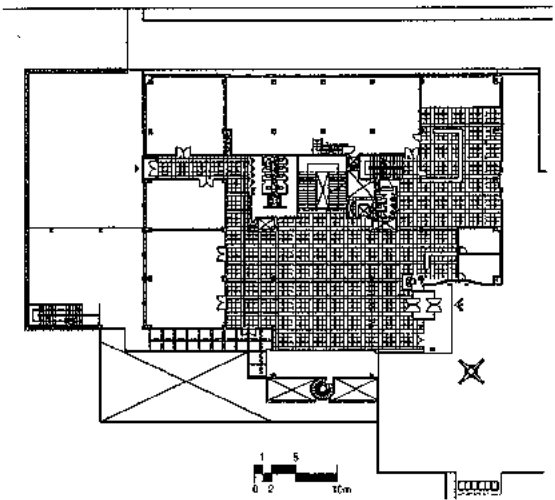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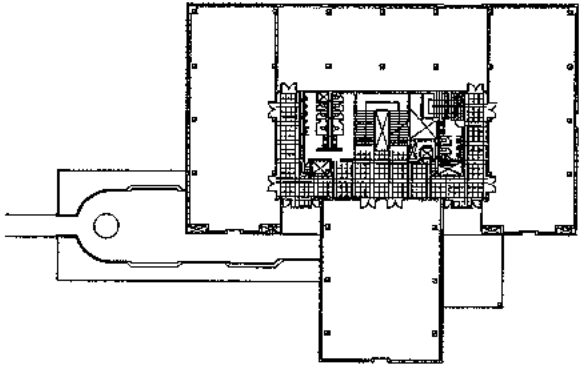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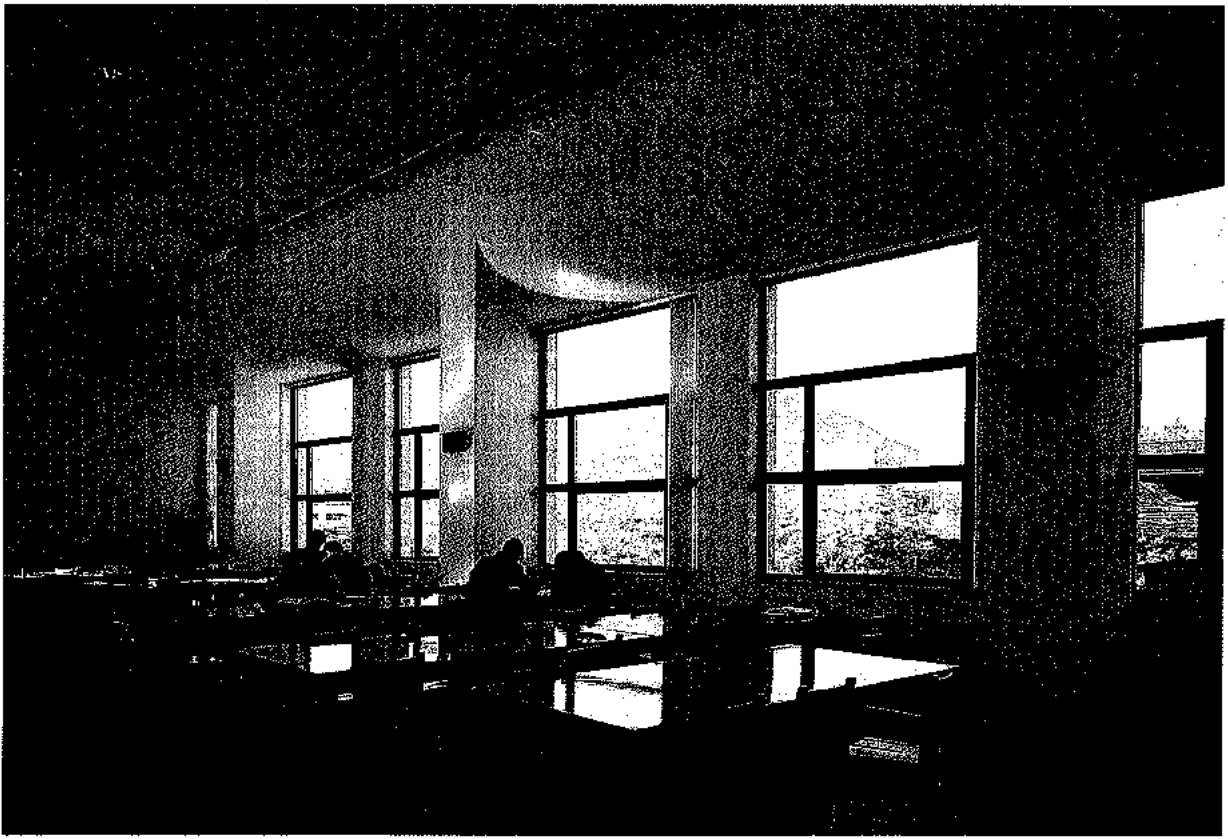
원형 계단실 상세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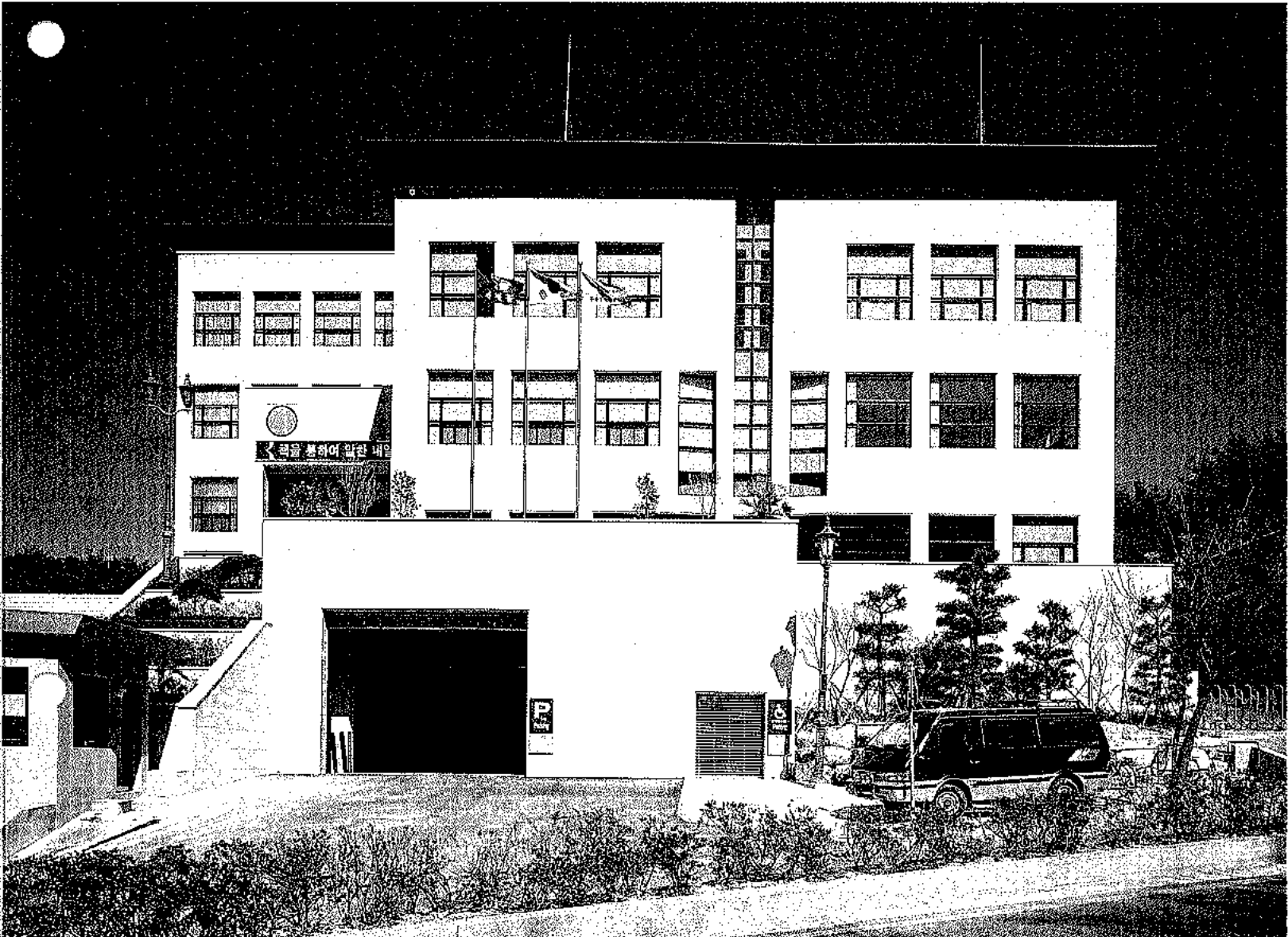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열람실 전경

전경



공덕동 주택 Kongduk Residence

김석환 / 터·울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k-Hwan

건축주는 주택에 대한 주차장 법이 강화된다는 입법에
고를 보고 급히 허가를 득해 두자고 했다.

그리고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도 있고보니 서두르지 않
아도 되었을 집이 일찍 지어지게 되었다.

이집은 서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전세 수입
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전형적인 개발수단으로 지어졌다. 이
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사비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되고 수익
성은 최대한 확보하려 한다. 이 집은 공덕동 로타리에 있는 5호
선 전철역으로부터 반경 500m내에 위치해 있으므로 교통이 편
리하고 신촌방향의 대학가와도 잘 연결되어 원룸형 다가구 주택
으로 설계하였다. 원룸형 구조는 오피스텔처럼 이용할 수도 있
어서 넓은 수요층을 가질 수 있다.

1층에는 피로티 부분의 주차장과 근린생활 시설을 두었
다. 그리고 피로티를 지나 각층에 출입하는 계단실과 연결된다.
2, 3층은 2세대 그리고 지하에는 각각 3세대의 원룸형 주택을
꾸몄다. 각 가구의 구조는 길이가 긴 장방형 평면에 화장실과 주
방을 출입구 쪽에 집중 배치시키므로써 단일 공간내에서 수행되
는 각각의 행위가 독립된 영역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지하층은
지하가 오픈된 남측면과 드라이 에리어에 의해 자연채광이 가능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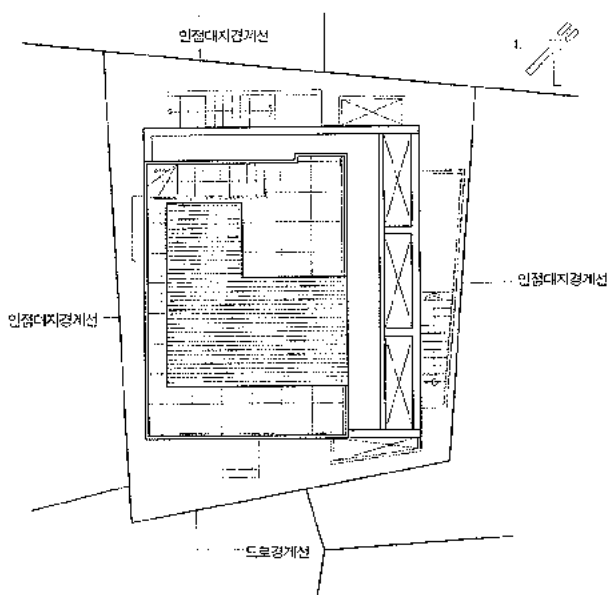
임조권 적용에 의해 계단식으로 줄어든 각층을 비슷한
면적이 되도록 나누다 보니 세대구획 칸막이벽의 위치는 지하층
에서부터 3층까지 모두 다르게 되었다. 그 각기 다른 평면요소
를 하나의 통일된 매스의 윤곽안에서 정리하였다.

외벽은 전체를 백색 드라이비트로 마감하여 형태의 단
순성과 통일성을 갖게 하였다. 계단실의 외벽부분은 골조 프레임
과 유리블럭 및 알루미늄 창호가 면의 구성적 조화가 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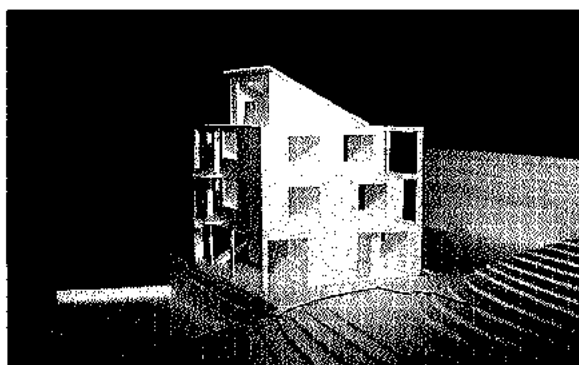
저렴한 건축비와 세입금에 의한 공사비 충당 조건 안에
서 각층의 상이한 요소들을 실용적으로 꿰어 맞추고 외부 형태
상 정돈된 이미지를 갖게 하려 한 것이 이 작품의 설계 의의라
할 수 있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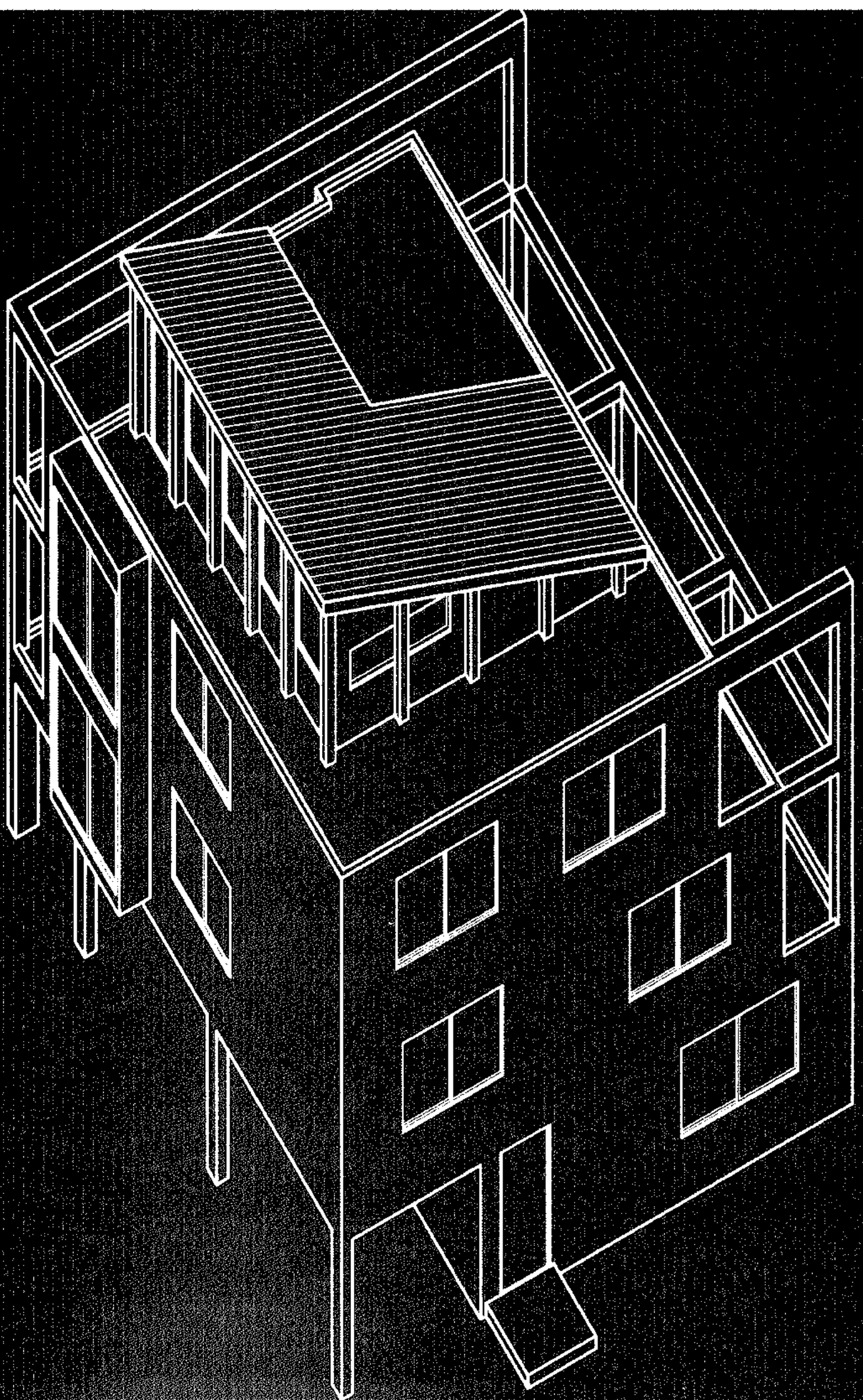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85-239		
대지면적	155.00㎡	건축면적	92.90㎡
건폐율	59.94%	연면적	303.23㎡
용적률	136.41%		
규모	지상3층	구조방식	R.C조
주요외장재	드라이비트 시스템		
건축주	정종업	시공자	쌍봉건설
계획담당	김석환	설계담당	김석환, 김영선
기계설비	화신콘설터트 - 최상현	전기설비	진산전기 - 유병선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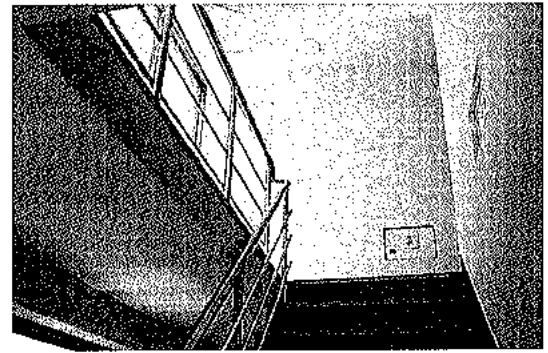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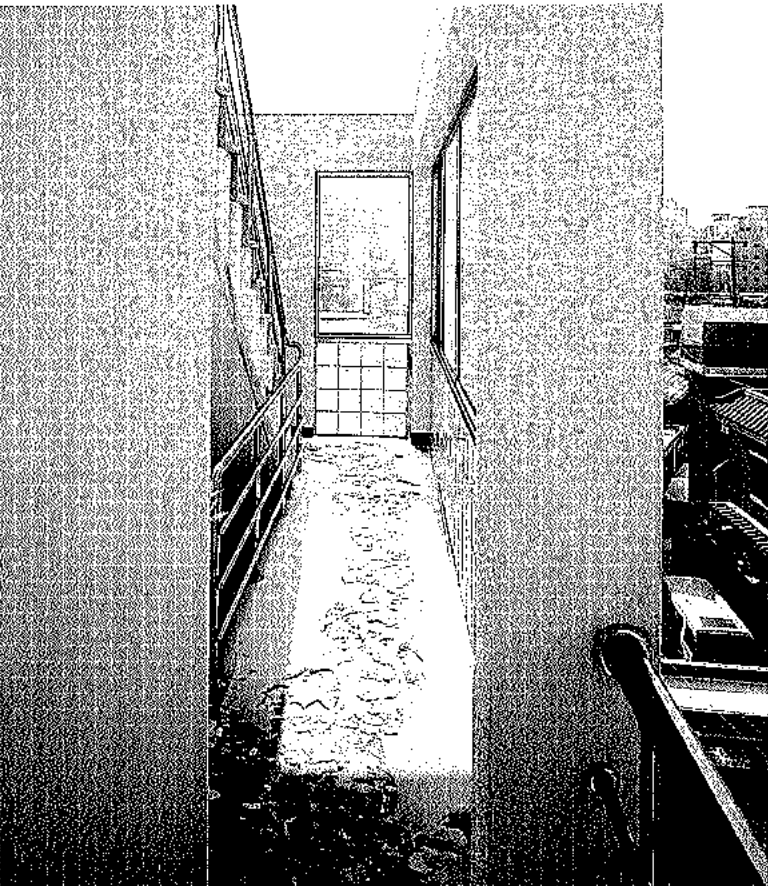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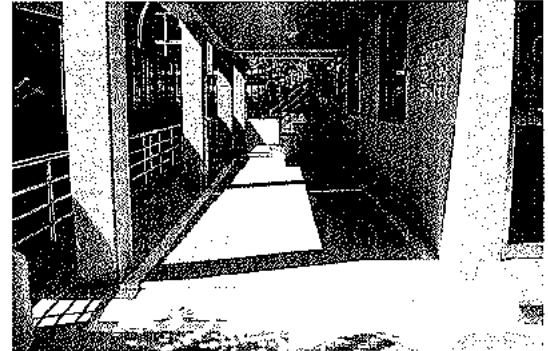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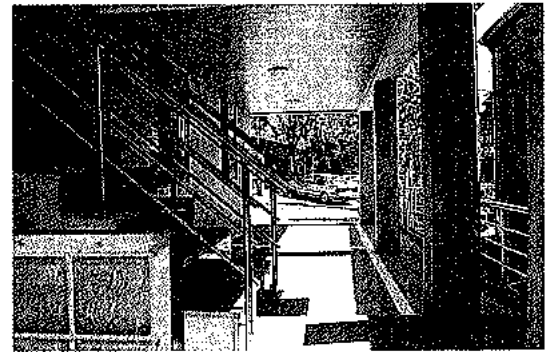
3층 계단실의 골조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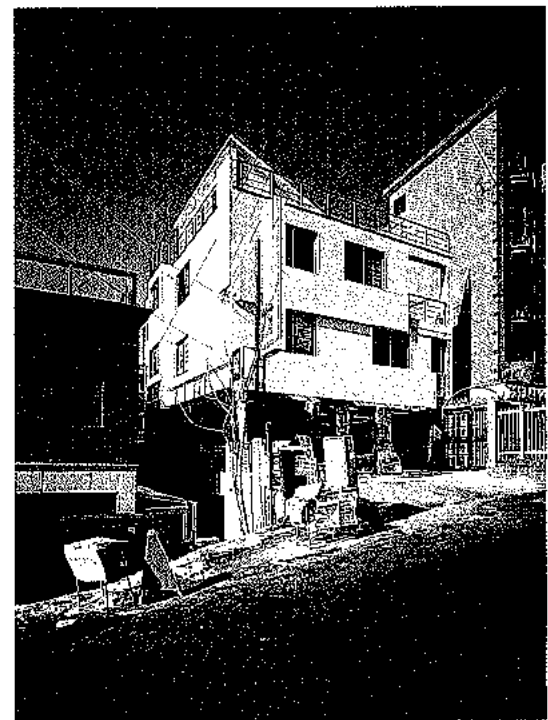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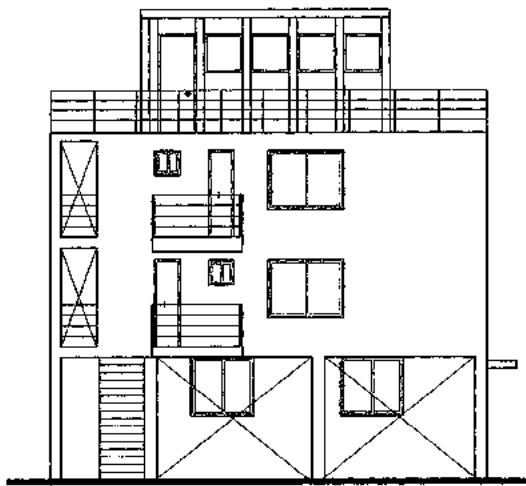
주진입로에서 주차장쪽을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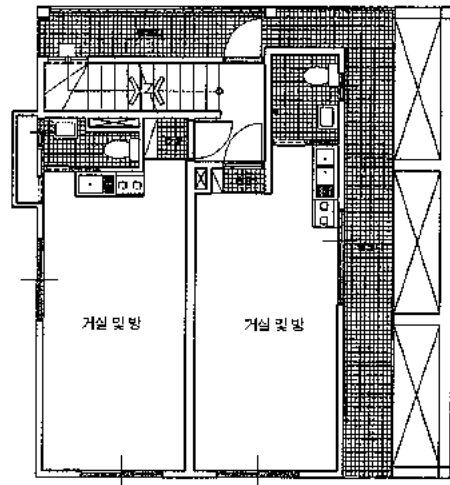
주차장을 통해 주진입로를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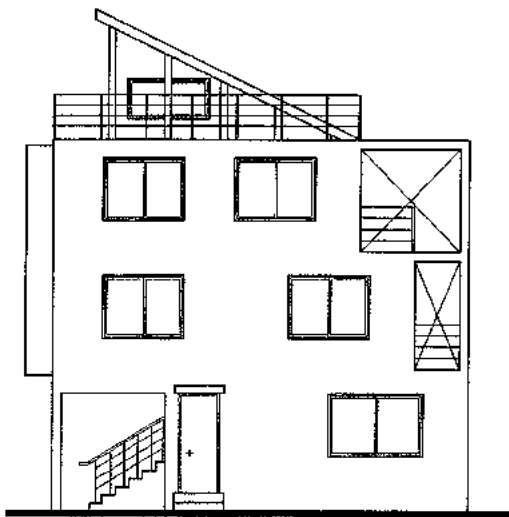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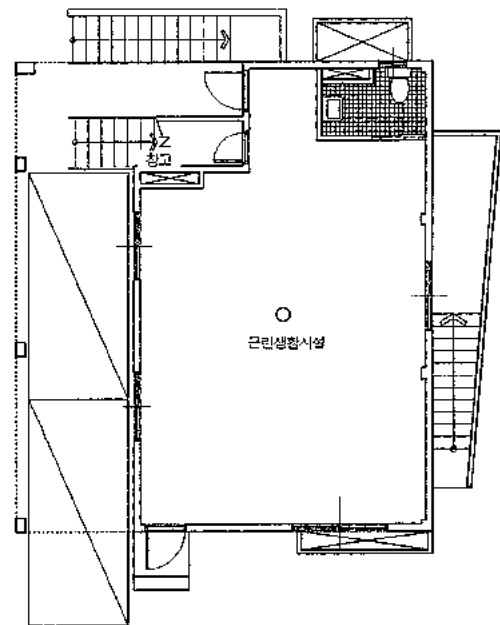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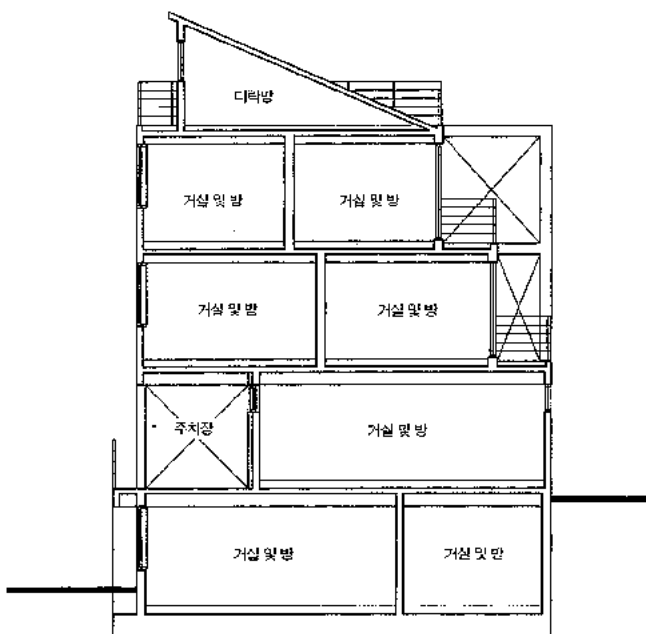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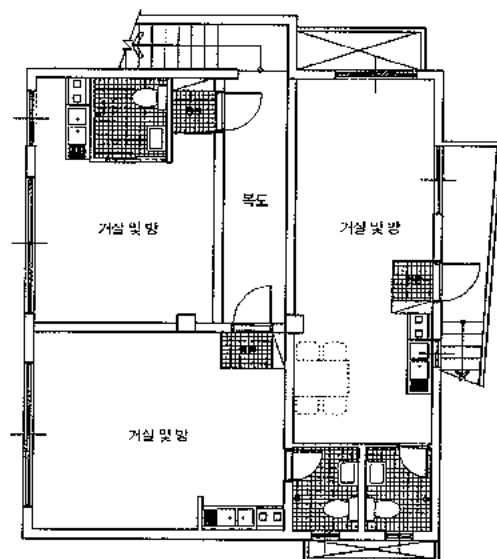
우측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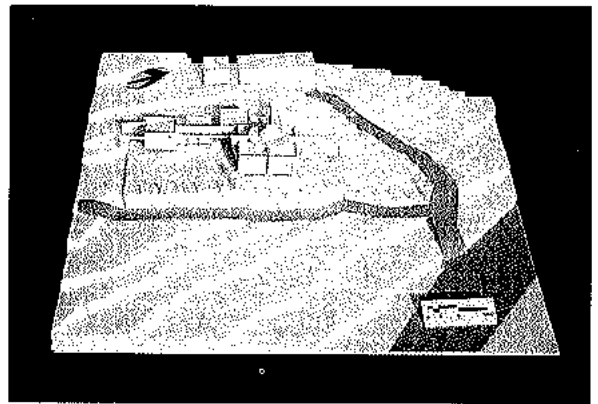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상릉리 127-1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구조및규모	조적조, 지상1층
용도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대지면적	1,322㎡
건축면적	197.91㎡
연면적	197.91㎡
건폐율	14.97%
용적률	14.97%



모형도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할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은 대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이다.

현장조사 결과 대지는 남북으로 긴 축을 형성하였으며 건축주가 대지 구입후 2m정도를 성토하여 경사지로 만들어 놓았다. 건축의 요구는 교외의 레스토랑(도시인의 휴식처)를 경영하면서 거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요구하였다. 대지 뒷편의 산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멀리 보이는 강의 운치를 만족시키는 옛날 선비들의 휴식처인 樓의 개념으로 대지에 접근해 보았다.

대지의 공간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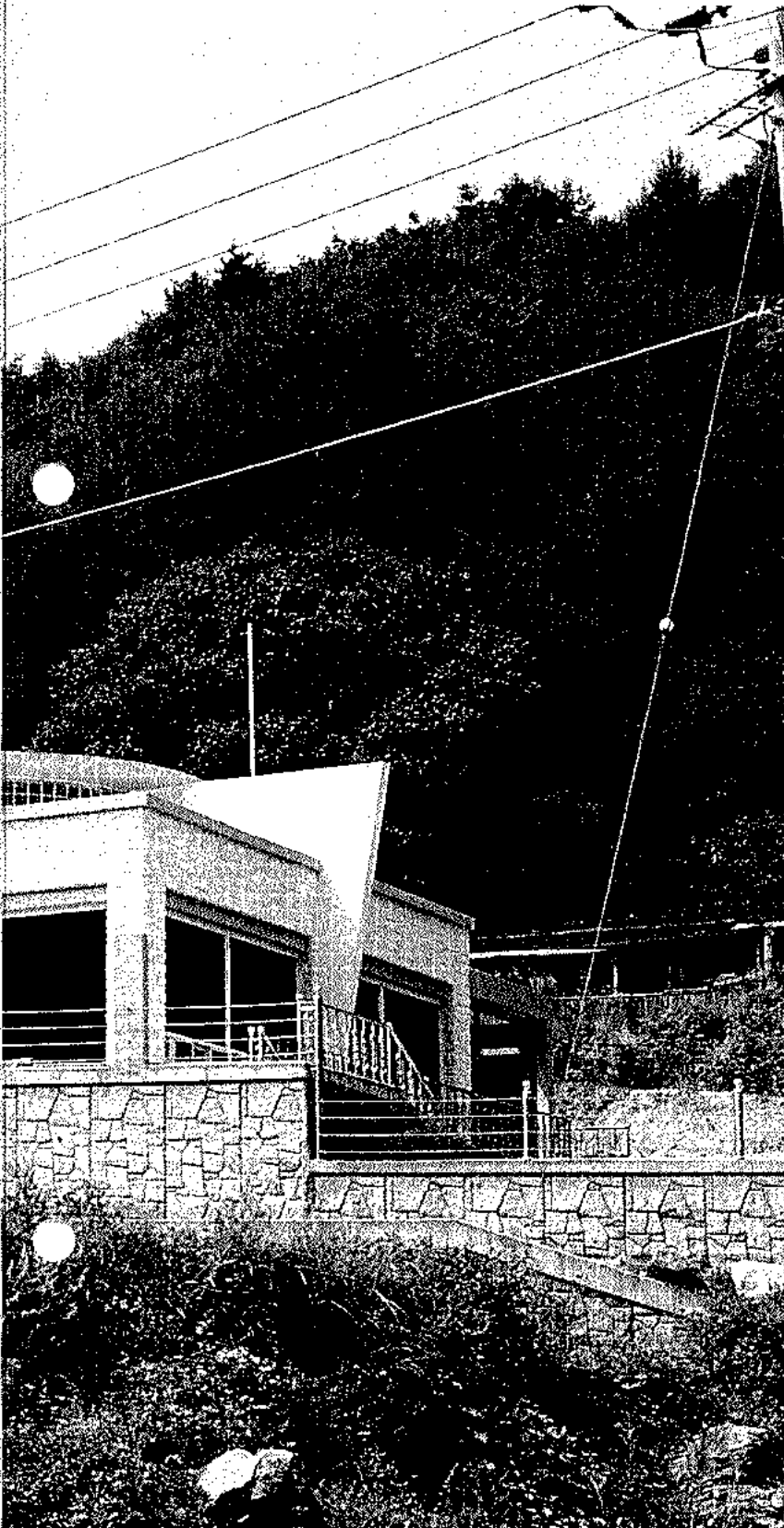
경사진 대지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5개의 소공간으로 나누어 보았다. 도로와 접하는 제1공간은 주차장으로 두고 건물과 주차장 사이의 경사진 높이차를 조절하여 제2, 3공간으로 구분하여 앞마당으로 두었다. 건물뒷편(서측)의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제4공간으로 두고, 안락함과 개방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물로 구획된 뒷마당을 제5공간으로 나누었다.

배치

축을 찾고자 함은 질서를 찾고자 함이 아닌가.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남북으로 자연축을 가진 그 선상에 배치하였다. 레스토랑 부분은 후면 마당을 느낄 수 없도록 대지의 중간에 두어 레스토랑 내부에 위치해서야 후면 마당과 멀리 흐르는 강을 느끼도록 유도하였다. 주거부분은 레스토랑과 분리하여 회랑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배치하였으며 안방 앞에 독립된 마당을 설치하여 대청마루의 뒷편 마당의 느낌을 갖도록하여 공간을 이동할때마다 긴장감과 이완감을 느끼도록 각 공간을 구분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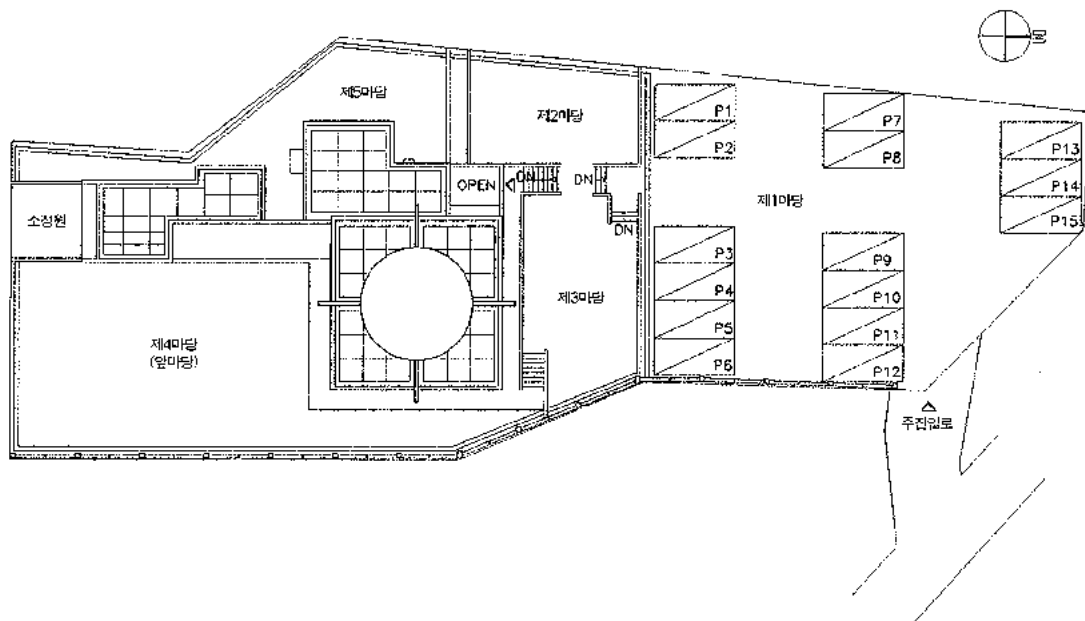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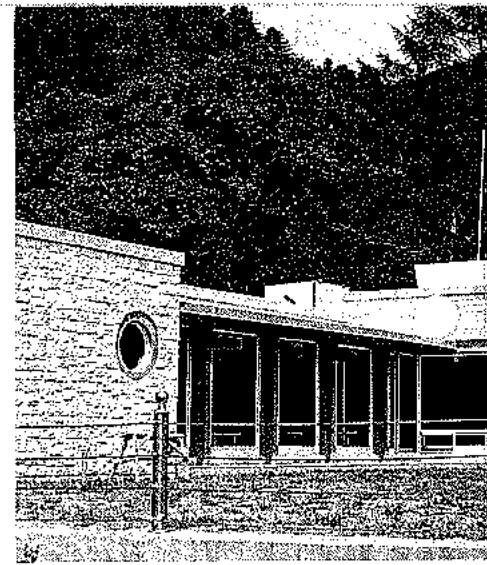
형태

레스토랑은 날개를 달아 Mass의 육중함을 가볍게 실어 건물의 주가되는 Mass로 표현하였으며 대지위에 부상되어 있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지붕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유리 불력에 반사되어 내부에 고른 빛의 형태로 떨어지도록 하고 야간에는 내부 빛을 외부로 발산하여 건물의 존재를 알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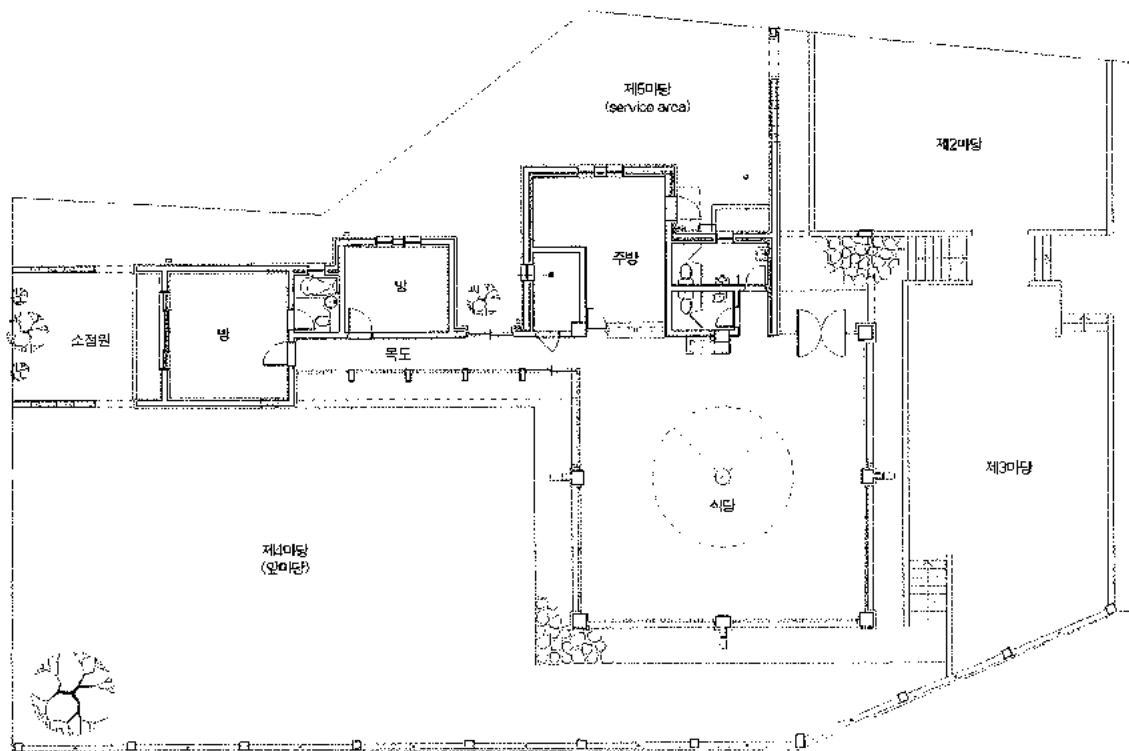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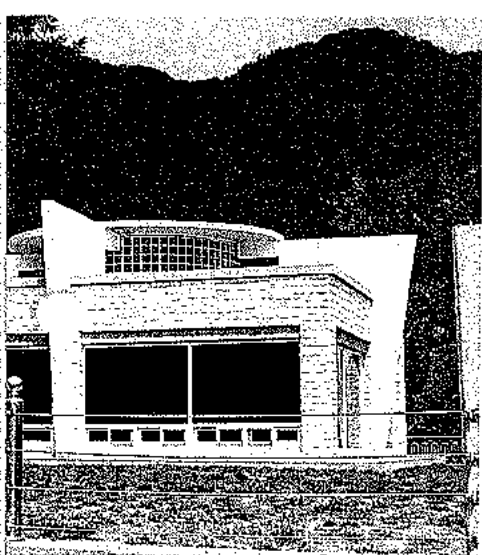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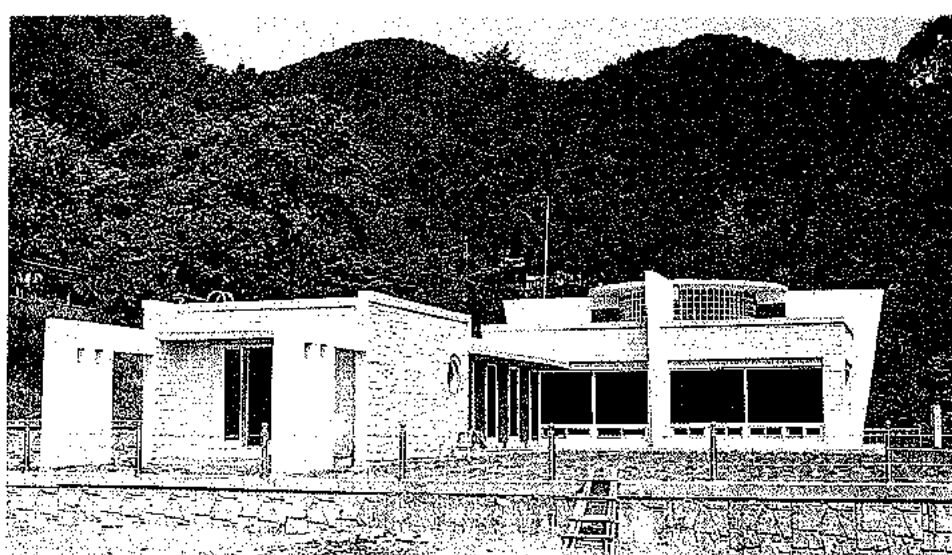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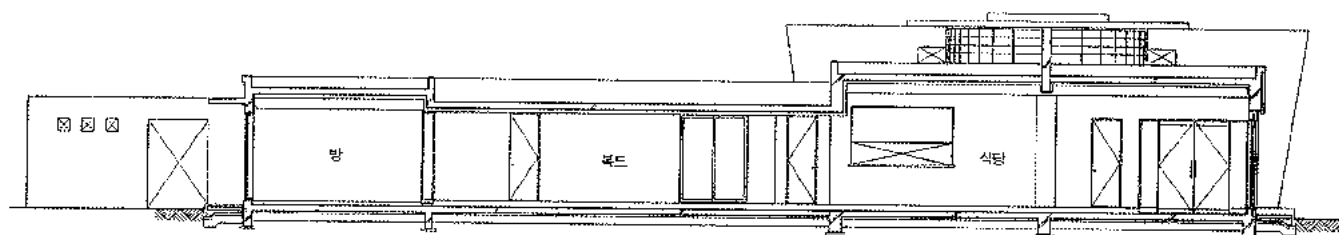
1층 광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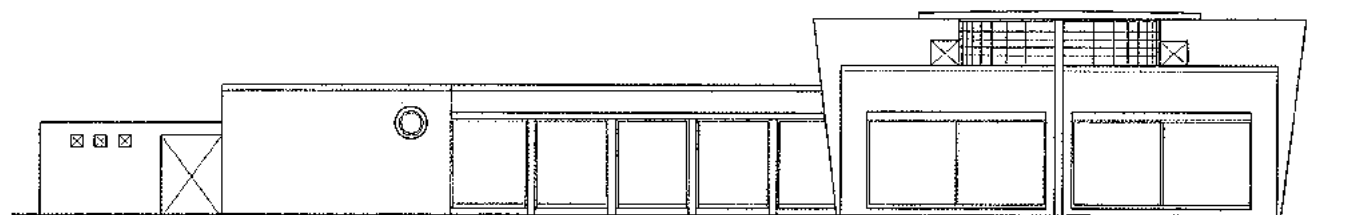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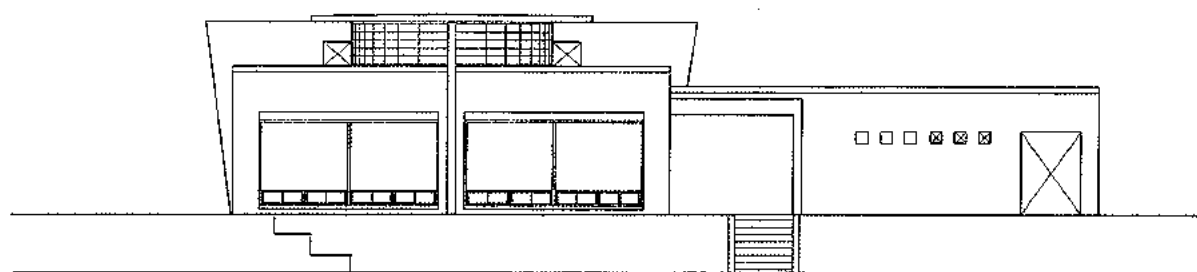
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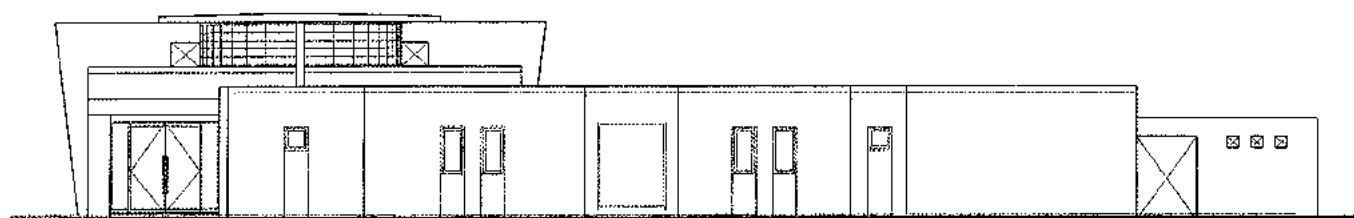
주단면상세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한국의 건축가 11 - 김순하(1)

Korean Architect, Kim Sun-Ha

생애와 작품세계

천득업 / 전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n Deuk-Yeom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인간 김순하(金舜河)

일제시대에 한국인 건축가가 등장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작품이 실현되는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는 1880년대 우리나라에 열강의 건축들이 소개되고 나서 5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었다. 한국인 건축가가 드문 일제시대에 전남지방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한국인 건축가는 김순하를 들 수 있다.

김순하는 1901년 2월 19일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효가리 415번지(현 동해시 북삼동)에서 김진우와 박건지의 4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순하의 집안은 농사를 지었는데, 비교적 부유한 편이었고 어렸을 적부터 그림과 글씨에 재주를 보였으며, 집안의 경제적인 여유가 이러한 재주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는 1918년 3월 25일 고향에서 삼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유학하여, 1922년 3월 20일 경기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다. 곧이어 당시 유일한 건축 전문고등교육기관이었던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학과(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에 입학해, 1925년 2월 10일에 전문학교 입학자 검정시험에 합격했고, 같은 해 3월 25일에 졸업했다.

학교를 졸업한 김순하는 같은 해 5월 1일 토목기사로서 전남도청 토목과에서 근무하면서 건축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선생은 1930년대 말까지 전남 지역에서 유일한 한국인 건축사였으며, 194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박영만, 정옥진, 박해룡 등의 한국인 건축사가 등장했다. 사실 건축사시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가로 불려야 할 것이다.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청사나 공립학교 교사, 은행 및 교통망 등의 시설 신축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건축활동은 일본인들이 담당했고, 이들은 “조선에서 건축계의 건실한 진전을 기약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건축회”를 1922년 3월 8일에 결성한 바 있었다. 회원은 총 122명이었는데, 한국인은 단지 김웅순 한 명 뿐이었다. 대부분의 회원은 관에 있거나 청부업 또는 재료업과 관련된 건축

관계 종사자들이었다. 김순하도 토목과에서 근무하던 1925년경 이 모임에 가입했다.

김순하의 건축활동

김순하는 이때부터 1934년 9월 20일 조선총독부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일본인 건축사들과 경쟁하면서 광주의 근대적인 건축물 몇 가지를 설계했다.

그가 설계한 건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은 공공 건물로는 전남도청사(1930년경 설계) 및 전라남도 회의실(현 민원실, 1932년 준공,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6호)이 있으며, 私的인 건물로는 호남의원(금남로 확장 때 철거), 중앙의원, 춘목암(1935년 준공), 정석호씨 대(1930년대 초로 추정) 등이 있다.

본래 도청 본관은 2층 적색 벽돌조로 건축되었으나, 해방후 미군정청이 들어서면서(혹은 5.16쿠데타 직후에) 미국의 백악관처럼 흰색으로 도색되었다. 그 후 3층으로의 증축은 1975년에 광주지역에서 활동한 김태만(작고)에 의해 설계되었다.

전라남도 회의실은 1981년에 지방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지하1층, 지상2층의 적색 벽돌조 건물이었으나 역시 흰색으로 도색되었다. 선생은 도청 회의실을 설계할 때 붓으로 기록했는데, 지금도 설계도면이 남아 있어 당시 건축설계문화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도면은 1997년 광주광역시 지정 문화재 24호로 지정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전남도청 회의실의 건축은 일본인 도금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1931년 11월 3일 도금업자의 실수로 3층 천장이 붕괴되어 인부와 목수 등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이후 일본인들은 관청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자신들이 배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설계가 잘못되어 생긴 사고라는 여론을 조작해, 김순하는 15일 동안 구류처분을 받았다. 후일 이 사건은 총독부 기술진이 현장조사 차 들려 조사한 결과 일본인 도금업자의 잘못으로 판명되었다. 아무튼 전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청의 설계를 김순하가 맡음으로써 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셈이었다.

김순하에 의하여 설계된 「춘목암(春木菴)」(전 광주미문화원)은 당시 광주에서 가장 인기있고 규모가 큰 한국식 요리집이었다. 춘목암은 황금동 80-81번지에 있었는데 4백41평의 넓은 대지에 연건평 2백21평의 큰 규모였다. 1917년 마산에서 광주에 온 이춘실(李春實)은 황금동 네거리 콜박스 부근에서 우동집을 시작하였다. 그의 뛰어난 요리솜씨와 타고난 근면성 그리고 정직한 경영으로 우동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번창하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그 덕으로 지금의 리버사이드호텔 자리 황금동의 넓은 부지에 저택도 갖게 되었으며 구 광주미문화원자리를 사서 1925년경 춘목암이라는 요리집을 차렸다. 사업은 순조로웠으나

이춘실은 병을 얻어 1929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들은 어려서 그의 여동생인 이진(李珍)이 남편 조성순(趙成洵)과 함께 요리집 경영을 맡게 되었다.

춘목암은 조성순의 능란한 사업솜씨에 의하여 날로 번창하였으며 옆의 목욕탕까지 사들여 새로 건물을 지었으며 1933년경 무등산 기슭 중심사 입구에 각종 나무를 심은 대규모 정원에 분수까지 갖춘 호화스런 춘목암 별장(현 삼애산장)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김순하의 작품인지 분명하지 않다.

김순하는 춘목암의 경영자였던 조성순의 요청에 의해서 건물설계를 맡았다. 그후 춘목암은 해방직전 일제의 전시체제 전환에 따른 유흥업소 정비로 폐업되었고, 건물은 순천철도국에 매수되어 광주보선구 사무소의 직원합숙소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이 건물은 적산으로 처리되어 미군숙소와 미군장교구락부로 이용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9월에 광주 미국공보원으로 사용되었고, 1970년대 후반에는 광주 미국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옛 건물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주차장건물이 들어섰다. <조선과 그 예술>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일본 동양대학교수 야나기(柳宗悅)가 1937년 이곳에 들러 당시 호남은행장인 현준호에게 저녁대접을 받은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다.

1934년 9월 20일 기수(技手)로 조선총독부 관방회계과로 자리를 옮긴 선생은 1942년 4월 1일에는 기사로 승진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시절 선생이 현재의 태릉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과거 일본 군인의 훈련소 건물을 설계했다고 한다. 그후 1943년 4월 6일 조선주택영단(현 대한주택공사) 기사 자격으로 건설부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김순하의 작품세계

섬세하고 우아하다는 평을 받는 김순하의 건축양식은, 목재를 사용하는 한국의 전통 건축양식과는 달리 벽돌과 콘크리트를 주로 사용하는 서양식 건축양식이었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서양인의 공관이나 종교시설 등을 통해 처음 조선에 소개되었으며, 일본인들이 관청이나 학교, 병원 및 각종 행정시설을 건축하면서 점차 유행하는 양식이 되어 갔다. 특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종교건축이나 사택, 그리고 일본의 근대 건축양식이었는데, 중요한 건물들의 대부분은 총독부 지시들에 의해 건축되었다.

일제시대의 건축물 중 많은 건물은 르네상스풍의 건물이었고, 나머지는 절충주의 혹은 네오바로크 양식이었다. 이러한 건축양식은 적합성, 단정함을 무시하고 장식 그 자체에 치중함으로써 건물을 상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에서 일본 본국의 위엄과 권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어서 매우 선호되었다. 몇 년 전 철거한 조선총독부 청사가 그러한 예라

하겠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역의 건물들은 서울처럼 양식 주의적인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아니나 그러한 규범을 따른 흔적이 보인다.

그후 1920년대 일본 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조선의 공업화가 진전됨과 동시에 서구의 합리주의, 기능주의 건축양식이 점차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절충주의 건축수법은 해방이후까지 여전히 존속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김순하의 건축설계 작품은 섬세하고 우아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시대적인 경향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건축양식의 경향을 점차 표현했다. 이러한 흔적은 간결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주는 전남도청이나 회의실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해방 이후의 활동

김순하는 해방 이후에도 조선주택영단에서 1946년 6월말까지 근무하다가, 1946년 7월 1일 토목건축회사인 우일사에 전무로 입사했다. 이때부터 선생은 독자적인 개인사업을 구상했다. 그래서 1949년 12월에 우일사를 그만두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 삼육건설주식회사와 삼육건축설계사무소를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했다. 이들 회사는 건축설계 뿐만 아니라 직접 건설까지 담당했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되어 6.25전쟁이 발발했고, 같은 해 12월 부산으로 내려가 건축업을 계속했다. 그후 삼육이라는 건설회사 이름을 삼광으로 고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설복구 및 건축사업에 주력했다.

한편 해방 후 김순하는 건축과 관련된 여러 단체나 모임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 선생은 초반에는 '조선건축기술단(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9월 1일 결성)', '조선건축학회(1945년 12월 결성)' 등에서 활동하다가 후반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로 활약했다. 이 시기 선생의 주요활동으로는 조선건축기술단에서 식민 기간동안 변질된 건축술어를 우리말로 고치기 위하여 1946년 2월에 결성한 '건축술어연구회'에 참여한 것과 주택문제에 관한 강연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선생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전쟁 이후 더욱 활발해져 1954년 3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한 '대한건축학회'에서 부회장에 당선되어 1958년까지 역임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건축대서사(1948년 서울에서 건축대서사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됨)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구)대한건축사협회'에서 3대 이후 회장을 역임했다. 선생은 이 기간에 '건축사법'을 기초하기도 했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편찬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가했다. 그리고 '건축사법'에 의거해 1965년 4월 25 ~ 26일에 1급 건축사 자격시험이 치러질 때,

김순하는 시험관 자격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후 시험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협회 창설발기인을 구성, 1965년 10월 23일 '(신)대한건축사협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선생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각종 건축·건설 모임 및 정부기관의 위원을 역임했다.

김순하는 다양한 활동의 와중에서도 서울 영등포 오류동에 일신산업주식회사 공장(1963)을, 충남 모산에 한국마방직주식회사(1964)를, 그리고 서울 후암동에 일신산업주식회사 주창균 회장의 집(1965) 등을 설계했다. 그리고 선생이 사망하기 직전인 1966년에는 한국상업은행 본점을 감리하기도 했다.

김순하는 1966년 12월 27일 그가 1963년도에 설계한 서울 흥운동 자택에서 위암으로 사망했다. 선생의 장지는 모란공원에 있으며, 사망 10주기 되던 해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김순하를 추모하는 비석을 세웠다.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김순하의 생가는 강원도에서 유형문화재 제84호로 지정하였었다. 그러나 현재의 소유자인 김동성(선생의 막내 동생 아들)씨가 문화재 지정취소를 한 건물로서 최근에 유지 보수가 개인의 자력으로 어려워 문화재로 재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순하의 생가는 200여 년 전에 건립된 집이라고 전해지는데 현재는 건물이 와해 직전에 있다고 한다.

선생이 설립한 삼육건축사사무소는 현재에도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선생의 친척이자 전 서울시 건축사 회장인 유경철과 강진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김순하의 장남인 김원호는 연세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김순하의 직업을 잇고 있다.

〈참고문헌〉

- 천득염, 광주지방의 일제치하의 건축, 안당 임영배교수회갑기념논총, 1992.
-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40년사, 1985.
- 전라남도지 및 광주시사
- 박선홍, 광주백년 2, 글호문화, 1994
- 정근식 외3인,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신서 40, 김순하, "근대건축사의 큰 별"(김순하의 해방 후 건축설계 활동은 유경철씨의 증언에 의함)
- 최장순, 김순하선생의 생가에 대한 고찰

세계화시대의 지역만들기

Building Reg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인천시민의 일본 탐방기

류재경 / 비전건축사사무소

by Ryu Jae-Kyoung

인천시의 자매도시간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의 기타규슈와 후쿠오카, 삿포로, 나가사키 일대를 지난 1월 19일부터 5일간의 여정으로 테마여행을 다녀왔다. 탐방단은 인천의 시민단체, 교사, 학생,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일본방문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민도입 활성화와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각계 각층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과 인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정보 및 인식공유의 계기가 되었다. <필자주>

살기 좋은 도시 -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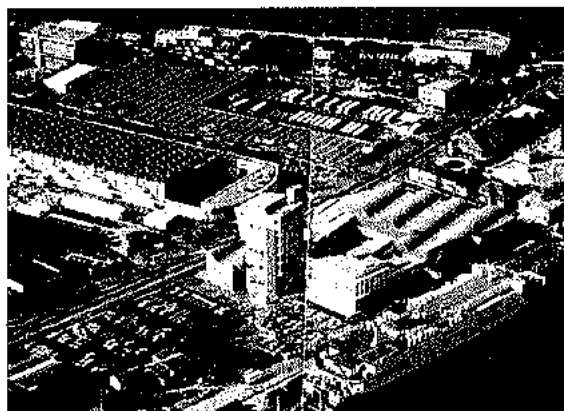
기타규슈시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렇게 화려하거나, 계획적이지 않았다.

공장과 주택가, 상가, 호텔이 혼재해 있었고 거리의 인적은 드물었으며 단번에 오래된 공업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흡사 기타규슈는 인천의 구도심 공업지역인 인천항에서 하인천역을 거쳐 대우중공업, 인천전기, 인천제철을 잇는 거리풍경을 연상케 했다.

기타규슈는 미국의 버지니아주(1959년에 자매결연)와 중국의 대련시(1979년에 자매결연)에 이어 인천과 1988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 과거에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무척 몸살을 앓았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인구가 1백만명이나 되는 일본의 공업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이 도시는 시와 시민이 함께 하는 'My Town, My river murasaking awa'사업으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성과를 거두어 최근 일본에서 「제일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MM사업은 하천정비사업으로 2005년까지 계속된다고 한다. 강 주변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내고, 강폭을 넓혀 홍수를 대비하고 강을 이용한 운송수단의 원활함을 위한 심중효과를 노린 계획이었다. 실제로 강을 따라 늘어선 공장들, 주택가들은 신도시



기타규슈시 「국회의회장」



기타규슈시청사



MM사업계획 개념



기타규슈의 '환경공장'

가 아니지만 질서와 여유가 있다.

보트가 시내까지 왕래하는 모습은 부럽기까지 하였다. 시민들의 소수의견을 성실히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사생대회까지 열어 그 의미를 다졌다는 총괄적인 경영마인드는 난국타개의 지름길을 인간중심에서 찾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관광상품화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스페이스 월드」는 규슈지방의 최대 우주 테마파크로 일본 최대 제철소인 신일본제철소가 지역주민에게 공해로 인해 환경을 파괴한 회사의 행위를 사죄한다는 의미로 공장터를 테마파크로 조성하여 시에 헌납한 곳이라고 한다.

우리의 경우 고층아파트의 콘크리트 숲으로 변하는 무거운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의 책임성을 잘 보여준 곳이었다.

히야카리 환경공장 견학은 우리 방문단으로 하여금 기타규슈시의 환경정책과 자원재활용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시에서 각종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및 재생품을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폐열조차도 전기회사에 판매하여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적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간·자원·환경」을 동시에 생각하는 도시개발 정책에 힘입어 1990년 일본의 단체로는 처음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으로부터 「글로벌 500」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그라버 공원은 일본의 근대화에 지대한 역할

을 했다는 영국 상인 그라버의 저택을 중심으로 영국 무역상들의 저택, 외교구락부 등을 국가가 중요문화재로 지정한 곳으로 인천항이 바다로 보이는 자유공원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산재되어 있는 외국문화를 서양인들보다 더 잘 보수 유지하여 본산지 사람들조차 관광을 오게하는 관광구매력을 창출해 내는 그들의 뛰어난 능력은 일본이 관광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단면이며 우리 인천의 관광산업에 일정부분 조언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도시-어떻게 도시화 시킬 것인가?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지중 가장 가보고 싶은 곳중에 하나가 「하우스텐보스」라고 한다. 우리는 네덜란드보다 더 네덜란드적이라는 이곳을 관광하게 되었다. 하우스텐보스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테마도시」로 네덜란드의 도시건설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도시의 참 모습을 제안하기 위해 탄생시킨 곳이라고 한다.

야구장의 30배이상 되는 광대한 면적의 활용도가 낮은 항만에 17세기 네덜란드거리와 건물군을 건축한 현대식 워터 프론트 관광단지인 HUIS TEN BOSCH는 우리도 시급히 조성해야할 시급한 모델이라 생각되었다. 새로운 도시의 참모습을 제안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10개의 테마로 분류, 도시화하였다는 의도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번두리의 자연경관을 적절히, 그것도 일본의 무역과 관계가 깊은 네덜란드를 일본으로 옮겨놓아 교육적, 관광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 사례라고 평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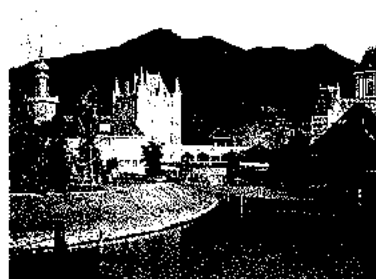
입지적인 물의 흐름을 고려한 수로의 계획과 웅벽에 달리붙어 있는 굴뚝길의 모습은 자연에 흠뻑 취하게 하는 부분이며, 유럽풍의 배를 타고 수로를 따라 왔세나 별장촌을 지나면서 도시 건물사이로 접어들게 한 관광코스는 그야말로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정도로 여운이 남는 코스였다. 매점에서 구입한 야경의 포스터는 꿈의 도시라고 할 만큼 매력적으로 보였다.



나카사키의 「그라버원」



후쿠오카의 수변가 고택건물군



하우스텐보스의 입국장



하우스텐보스의 고급주택가



하우스텐보스의 별장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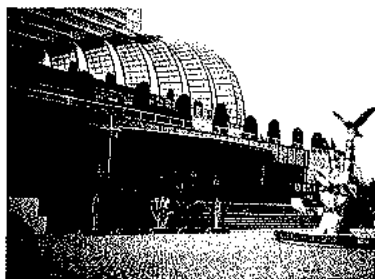
후쿠오카의 시호크호텔과 돔

부족한 인천이 풍부한 자원경관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해변의 도시개발—어떻게 도시계획화 할 것인가?

후쿠오카의 해변도시와 뉴스타다운인 후쿠오카돔은 '친수성의 고취'를 개발이념으로 인공도시의 무기질성을 극복하려 했고, 수많은 야심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 대규모 인공해안을 건설, 해안선의 보존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 해안도시에 꾸며진 건물들은 거의 설계경 기대회를 통해 엄선된 작품들로, 후쿠오카시의 도시 이미지와 상세한 제한요소들을 제시함으로 전체가 최대한 다양함을 그리고 조화롭게 꾸미고자 하는 슬기로움이 있었다.



시호크호텔의 아트리움



해변도시 신주건물군



상록각전기념관에서 본 송도신도시 예정지

다시 기회가 된다면 각 건물마다의 전시들과 다양한 체험 테마들을 피부로 느끼고, 그나마 우리가 준비한 웅인에버랜드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은 채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연수신도시의 바탕적 배경을 서해의 밀물, 썰물을 적절한 물관리법에 의해 응용되어졌다면 지금처럼 살인적인(?) 해안도로와 높다란 방파제 웅벽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돌아매립지 또는 운하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적 자원이

현재 인천시에서는 친수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의 부조화를 시정하고 수변지역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확충되기를 기대한다. 흔히 이야기되는 문화의 불모지라는 수치스런 현실도 수변공간을 적극 이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수변공간은 문화활동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잘 지어진 해양건축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인천문화의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해양박물관, 수산박물관, 해양환경관, 수족관, 여객터미널 같은 해양관계시설들 뿐 아니라 콘서트홀, 연극 공연장, 현대미술관, 기타 전시장, 기념관 같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들을 수변에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모든 시설들이 집합적으로 수변에 인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될 때 비로소 인천은 자기 색깔을 지닌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건축가와 계획가, 관료 및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현실—인천의 미래는?

5일동안의 여행으로 일본을 다 안다는 것은 몹시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이번 짧은 일본테마 여행에서 우리를 자극한 느낌으로 다시 인천을 생각해 보았다. 무리함이 없어 보이는 긴 우회로와 좁은 차선, 사람들의 질서외식, 개방적인 사고와 개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끝까지 유지하는 특유의 상술, 본거지 사람들조차 꼭 들어가게 하는 관광구매력의 창출 솜씨들은 적극 모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귀결된다.

인천의 숙제와도 같은 자유공원 부근의 중국 인촌은 개항도시였던 모든 나라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다. 유독 나날이 쇠퇴하여만 가는 인천의 그곳을 향후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을 지닌 중국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천을 방문할 때 반드시 들러 갈 수 있도록 끌어들이 수 있는 곳으로 계획, 정비해 보는 것도 인천의 비전있는 계획사업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국의 건축가 5 - 니콜라스 그림쇼

Nicholas Grimshaw

우수한 디테일로 기술의 자연화¹⁾와 사이버의 밀림으로²⁾ 향하면서 건축을 완성해 가는 건축가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니콜라스 그림쇼
(1939~)

◇ 연재목차 ◇

(격월 게재)

1. 렘 쿨하아스 Rem Koolhaas
2. 다니엘 리베스킨트 Daniel Libeskind
3. 파울로 솔레리 Paolo Soleri
4. 딜러+스코피디오 Diller+Scofidio
5. 니콜라스 그림쇼 Nicholas Grimshaw
6. 에릭 오웬 모스 Eric Owen Moss
7. 라파엘 모네오 Rafael Moneo
8. 베르나르 추미 Bernard Tschumi
9. 아키텍토리카 Architectonica
10. 건축 스튜디오 Architecture Studio

1. I. M. F 시대: "한국경제가 영국 건축가들에게 타격을 입히다."³⁾

이 말은 1998년 1월 14일 인터넷에 오른 건축뉴스에서 발췌한 글이다. 본문을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영국의 건축가들은 그들이 받은 보수와 반을 날릴 낙진을 맞고 있다. '테리 파렐과 파트너'⁴⁾의 이사인 브라이언 찬틀러⁵⁾는 한국의 통화 가치가 한달 만에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영국 건축가들에게 지불될 금액들은 증시붕괴 이전의 반액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인천 영종도 공항설계의 주계약자 중의 하나인 테리 파렐은 더 말하려 들지 않았다. 어쨌든 파렐은 한국의 경제위기로 발생한 건축에서의 여파가 타이랜드나 필리핀에서의 그의 프로젝트에까지 파장을 일으킬 것을 우려했다. 극동 아시아 지역 국가의 개인 개발업자들은 잠잠해졌으며, 별도 통지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들을 보류한다고 했다. 우리는 I. M. F가 한국에게 예산삭감 등을 유도하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니콜라스 그림쇼사의 이사인, 네븐 사이더⁶⁾는 대부분의 설계회사들은 몇 프로젝트들이 취소될 것이지만, 극동 아시아에 깊게 의존한 회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쇼 회사는 1년 반전에 부산 고속철도 통합역사를 위한 정부 설계경기에서 당선되었지만, 아직도 일을 더 진행하기 위한 청신호가 들어

1. To the Greening of Technology

2. To the Cybernetic Forest

3. 13:23:13, Wednesday 14 January 1998, <http://www.emap.com/news/AJNEWS/114-5627.htm>

4. Terry Farrell and Partners

5. Brian Chantler

6. Neven Sidor, a Director At Nicolas Grimshaw

오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 설계진행은 공공예산 삭감을 주장할 IMF의 요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로저스 파트너십의 예산조정이사인 이안 버틀즈는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로저스사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에 세워지는 한 방송센터 설계계약 건은 영국 파운드화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설계비를 손해를 면할 수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에도 사무소가 있는 '포스터와 파트너들' 회사는 아직 손실효과를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시간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는 사들해질 것"이라고 배리 쿡⁸⁾ 재정이사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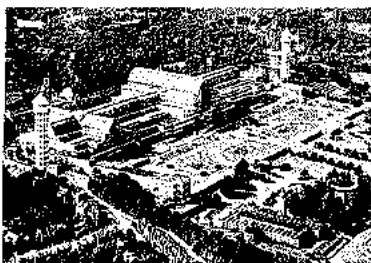
그는 모든 가능성을 한국시장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재정관계자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몰락이 아닌지 우려했다. 아직도 한국경제 체계내에 심각하게 부실한 통화체계가 존재한다.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구제금융에 동의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국 은행들이 진 빚은 통계상 액수를 넘어선다고 우려한다.

위에 인용한 글은 최근 경제상황의 변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가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대중 차기 대통령 측은 경부고속철구간 중 서울~대구 구간은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노선을 전철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⁹⁾ 이제 '경부고속철도 부산 통합역사'는 원점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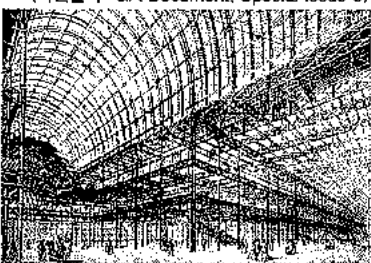
영국인들의 우려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경제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대학에 있는 젊은 경제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I. M. F 시대의 경

제와 건축을 생각해 보았다. 현 사태의 원인은 구조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구조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모델은 모범적이었는데, 은행자본 화생을 통한 대기업위주의 정책, 산업자본 중심의 정책이었다. 1980년대까지 은행은 취약했지만 이런 정책은 모범적이었다. 1983년부터 은행이 민영화, 자율화되었지만, 20년간의 관행은 변치 않았다. 이제 개혁은 필연적이며 최근 개혁시도를 했었지만 정치권에 의하여 저지되었다. 직접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재경원 산하 종합금융회사의 설립, 방만한 외화 도입과 운용. 그 결과로 단기외채와 수출감소가 나타났다. 현 김영삼 정부의 정책적 무능함과 각 경제 부처간의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악화되었다. 종합적 원인은 다음과 같다. IMF 견해(서방측 견해)로서 개방화, 시장자유화, 세계화를 지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반 IMF류 견해로는 국내 여건에 관계없이 개방화, 시장자유화, 세계화를 너무 빨리 했다. 결과적으로 제3세계의 발전과정상 필연적 과정이다. 음모론적 견해로는 서방의 경제적 제재의 목표는 일본이다. 그래도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서구문명에 대응되는 동양의 유교적 가치 문제가 이 과정에서 논의대상이라 할 수 있다. 서양문명 발전에 동양적 태도가 방해된다고 보는 것은 동양인의 피해의식일까? 해결책 중 하나는 정리하고제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업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이 약한 우리는 대량 실업이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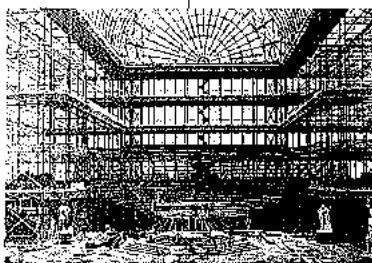
7. Ian Birtles, Financial Controller at the Richard Rogers Partnership.
8. Barry Cooke
9. 동아일보 인터넷 전자신문 1998/01/21 20:15 <http://www.donga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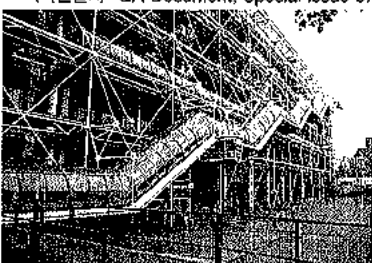
수정궁 외부의 전경
(사진출처: GA Document, Special Issu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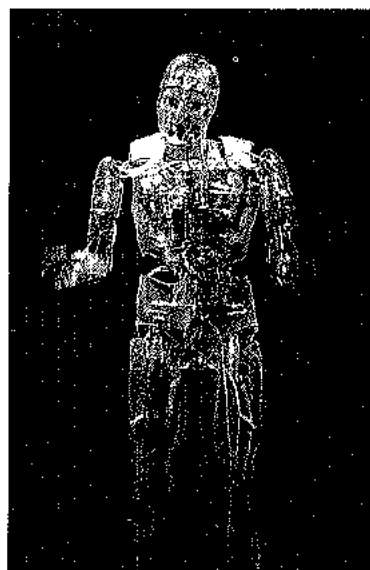
수정궁의 내부 구성,
(사진출처: GA Document, Special Issue 3)



수정궁 내부 주공간
(사진출처: GA Document, Special Issue 3)



파리의 종파두센터



인조인간 또는 사이보그 모형

란을 초래 할 수 있다. 관건은 재벌규제 강화와, 중소기업의 우대 및 그 동안의 경제 제약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재벌 규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하게 기대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서민만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세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일이 순조롭게 처리되기 바란다. 재벌과 연계를 맺고 있는 대형설계 사무소는 물론이며, 자금경색은 건축계도 강타하고 있다. 이제 설계사무소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구조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그 동안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장 스스로의 소비형태, 설계 사무소 운영 관행, 자신과 고객을 두루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능력 등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 이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축설계는 아이디어를 팔고 이것을 실현하는 서비스업이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일이다. 모든 일은 인간의 내부로부터 벌어져야 한다.

2. 건축과 기술: 보철술: 그림쇼의 두 스승

그림쇼는 빅토리아시대의 엔지니어를 존경해 왔다. 아이작바드 킹덤 부르넬과 조셉 팩스턴은 어린 시절부터 그림쇼의 영웅이었다는 게 케네스 파월의 지적이다.¹⁰⁾

아이작바드 킹덤 부르넬¹¹⁾(1806~1859)은 초기 빅토리아시대의 엔지니어였다. 역시 저명한 엔지니어인 아버지 마크 아이작바드 부르넬 경의 아들로 태어난 부르넬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1922년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테임즈 터널(1824~1842)에 1828년까지 참여했다. 1833년

철도회사에 들어가 많은 터널, 교량들과 대규모 기차역 등을 설계했다. 그 뒤 선박 동도 설계했다. 부르넬이 스스로 현대 토목분야에서 통용되는 여러 전문적 원칙을 세우는데 공헌했다. 대표작으로는 런던 패딩턴 역, 브리스톨의 템플 미즈 역 등을 설계했다. 수정궁의 설계자로 잘 알려진 조셉 팩스턴¹²⁾(1803~1865)은 초기에는 온실기술자였다. 1851년 영국 런던 엑스포를 위한 팩스턴의 수정궁 계획안은 초기 설계경기 출품작 245작품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설계경기에 출품하지 않았던, 정원사로서 온실을 제작한 경력의 소유자 팩스턴에게 요구된 것은 빠른 건설기간과 해체 및 이전 복원 작업을 위한 아이디어였다. 9일만에 그려졌다는 이 아이디어는 공업화, 표준화의 성과이면서 그 이전의 어떠한 건물에도 없었던 넓은 스팬과 밝은 대공간이 제공되어, 당시 신문¹³⁾을 통하여 극찬을 받은 건물이었다.¹⁴⁾

이러한 영국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건축 전통이 그림쇼를 통하여 되살아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건축을 다루는데 있어 피해야 할 태도로서 아마도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윌리엄 커티스는 말한다.¹⁵⁾ 그 하나는 어떤 학파나 혹은 당파의 가치를 규정하는 일이며, 둘째는 근년의 발전에서 '본질적'인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는 경우이다. 우리가 당면하기 쉬운 대표적인 이러한

10. 케네스 파월, 「건축과 환경」, 1995년 12월호, 46~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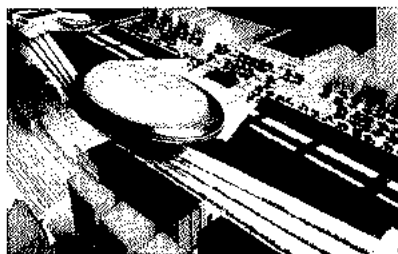
11. Brunel, Isambard Kingdom

12. Paxton, Joseph

13. The Times 1851년 5월 2일자

14. C. Norberg-Schulz 저, 정영수, 윤재희 역, 「서양건축의 본질적 의미」, 363~366쪽, (서울: 세진사,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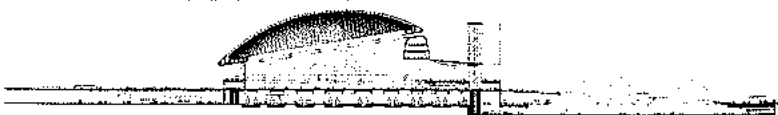
15.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London: Phaidon Press Ltd, 1982), p. 367.



경부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모형 (사진출처: A&C 9512, 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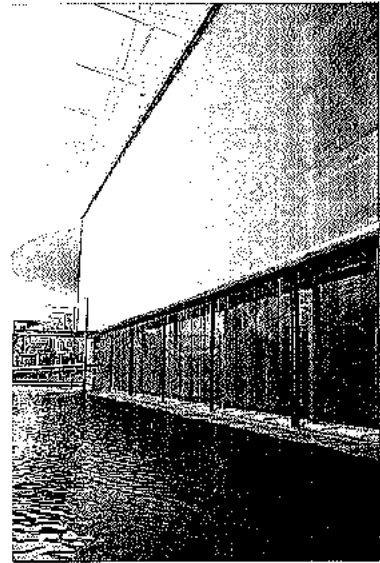
부산통합역사 당선작 내부 홀 루시도 (사진출처: A&C 9512, 21쪽)



부산통합역사 당선작 중앙 홀 종단면도 (사진출처: 이상건축 9709, 118쪽)



부산통합역사 당선작, 바다 쪽에서 본 입면도 (사진출처: 이상건축 9709, 119쪽)



영국판 외부 벽과 흐르는 물

태도는 해체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잘못 전해지고 이해되어 온 서구의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도의 반성에 데리다가 말하는 대로 철저히하려면 우리는 철학자가 폴 라몬, 칸트나 헤겔에게 다가가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직접 듣는 것처럼 그들이 직접 말하거나 서술한 최초의 말에 다가가 철학자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구 철학이 왜 잘못 진행되어 왔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정신적 황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살피기 위하여 또 우리가 왜 우리 고전의 영향력을 피하게 되었는지 살피기 위하여 고전으로 올라가 논어, 맹자, 대학 등의 내용을 천천히 읽고 잘못 전해진 내용이나 오해된 내용을 밝혀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학문적 유행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이 건축적 해체주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만약 철학에서의 해체주의가 건축에서의 해체주의 움직임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 건축에 대한 해체작업은 건축의 첫 시작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 회의가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벌어진 건축작업에 대한 의문과 함께 우리에게도 이어져 온 서양건축에서의 회의를 대등하거나 동등하게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적 해체주의로 명명함으로써 우리의 판단도 혼란스러워 졌고 또 모호해졌다.¹⁶⁾

세계 건축은 다양한 움직임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무슨 주의나 무슨 흐름이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쳤거나 선형적으로 이어져 온 것도 아니다. 다양한 건축가의 다양한 움직임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고 단지 매스컴이나 미디어에 의하여, 또는 몇 안되는 건축 이론가에

의하여 건축적 흐름에서 어떤 경향이 일시적으로 주목받았을 뿐이다. 이점은 하이테크 건축이나, 새로운 형태의 대형 건축물에도 역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산업혁명과 기계산업화 이후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인류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하이테크라는 종류의 건물이 태어나기 전부터 기계에 대한 인류의 생각은 항상 그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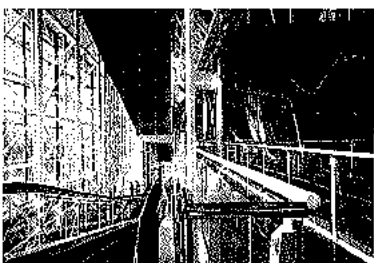
기계가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인조 날개로 하늘을 날고자 시도한 르네상스의 시대로부터 기계의 도움을 받아 인간이 활용하고자 한 태도, 기계의 도움을 받는 태도 - 보철술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된 기계에 대한 믿음은,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 "블레이드 러너" 등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이나 사이보그의 모습에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인류의 태도일 것이며, 우주시대에는 더욱 그 모습이 확연히 등장할 것이라 믿는다. 현대건축에서 '기계는 비건축적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건축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편협한 생각일 것이다. 산업시대에 처음 나타난 기계를 외면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컴퓨터도 외면할 것이다. 컴퓨터를 외면했던 사람은 또 계속적으로 무언가에 뒤 쫓겨 갈 것이다.

3. 기술의 자연화: "디테일은 내 작품의 본질이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실무의 초석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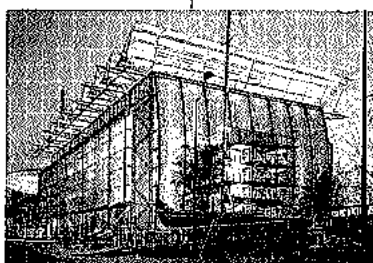
니콜라스 그림쇼는 우리에게 1996년 9월 23

16. 해체주의에 대한 것은 8회 연재 '베르나르 푸기'에 대한 글에서 다시 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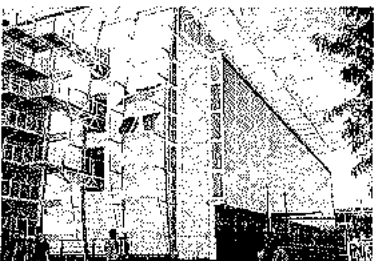
17. Detail, I suppose, has been the essence of my work. It is the cornerstone of the practice as it now ex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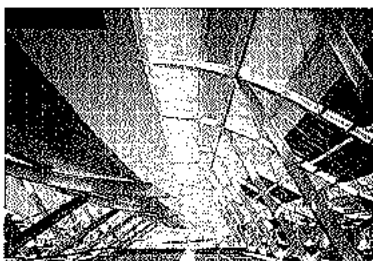
세비야 엑스포 영국관 내부 에스컬레이터와 외벽



세비야 엑스포 영국관 야경



세비야 엑스포 영국관 낮의 모습
유니언 잭이 해로부터 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자본의 단열효과 및 태양열 집열판 (사진출처:
Blue Print, Britain Pavilion, Expo '92, Seville)



영국관 입구와 흐르는 물

일 발표된 “경부고속철도 부산통합역사 국제설계경기” 당선작으로 다가왔다. ‘나콜라스 그림쇼와 협동팀’들과 (주)건원건축(곽홍길)의 안으로 결정되었다. 당선작 건원+그림쇼 안은 둥근 형태의 유리지붕으로 된 강한 이미지의 “은밀한 정원의 도시”로서, “현대적인 테크놀러지의 자연화”에 중점을 두고, 강력한 형태는 벌집형태의 지붕구조로서 125m x 200 m 규모의 대공간으로서 구성되었다. 고속철도의 종착역으로서의 위치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으로서의 철도 정거장을 형성한다. “안락한 환경 영역”으로서의 정거장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이다.¹⁸⁾ 이 심사결과 종합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인간들이 당면한 문제를 특출한 형태로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매우 정교한 개념, 특히 비밀정원에 대한 생각은 흥미롭다. 전체 구조의 크기와 지붕에 있는 정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것인가? 커다란 대형공간인 홀의 부피는 대단히 인상적이며 건설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창출한다. 타원형의 홀은 기차역의 단선적인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다.”¹⁹⁾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평가로 생각된다.

“부산만(灣)의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된 이 아이디어에 대하여, “세계를 향한 부산의 눈동자”, 또는 “세계를 향한 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Latter와 우동주 교수는 대담을 통하여, “부산 역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날, 부산 시민들은 불만만 구경거리로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절실했던 대중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와 효율성 높은 교통 인터체인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도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워터프론트 개발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접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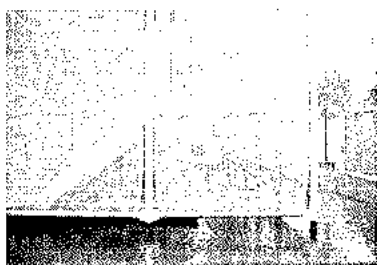
원할해지므로써 부산이 건축을 통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²⁰⁾

현재 부산에는 부족한 대규모 내부공간(메이저 스페이스)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것은 부산에만 부족한 시설이라기 보다 전국적인 현상이며, 앞으로 건축적 공간에 담겨야 할 공공에 대한 배려 혹은 공공의 권리로서의 공간이다. 그림쇼와 협동팀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건축적, 환경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사용자의 행위에 공간적, 유기적 조화를 꾀하는 작품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경기에서 성공을 거두는 요인은 무엇일까? 설계경기 당선작의 개념 “은밀한 정원도시”²¹⁾란 표제어가 보여주는 것은 1960년대에 아키그램 그룹들이 보여준 미래의 건축이 이제 인간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지닌 채, 실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의 기계론이나 기술결정론자들이 간과했던 환경과 인간의 문제가 이제 건축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기술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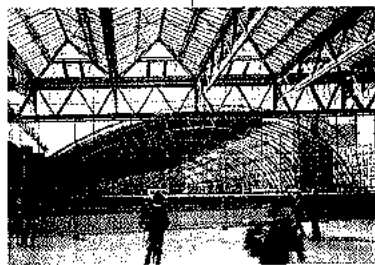
“나는 (바로 지금이라도 부디) 사이버 밀림 공간을 생각하고 싶다.

고물이 된 컴퓨터들을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꽃들인 냥 여기며 그 사이를 평화롭게 사슴이 거니는 소나무들

18. 디자인 프레스, 「A&C, 설계경기 9611」, ‘부산통합역사 건축설계경기’, 12~41쪽.
19. 격원간 「세계경기」, 특집 ‘부산 고속철도 통합역사 국제설계경기의 전 기록’, 155쪽.
‘작품 심사 결과 종합보고서’ 중에서 인용.
20. 우동주, 도시, “세계를 향한 부산의 눈동자”, 『여상건축 9709』, 113~123쪽.
21. The secret garden city.



영국관 외부 벽과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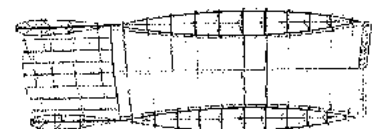
매포소에서 본 위털루 국제터미널 전경
(사진출처: 건축과 환경 9512, 57쪽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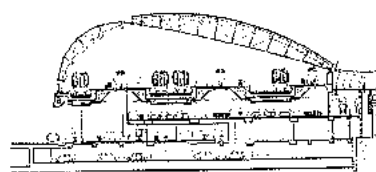
위털루 국제터미널 횡단면도
(사진출처: 건축과 환경 9512, 60쪽)



위털루 국제터미널 외부전경
(사진출처: 건축과 환경 9512, 57쪽)



위털루 국제터미널 지붕 평면도
(사진출처: 건축과 환경 9512, 66쪽)



위털루 국제터미널 출입국 홀 단면도
(사진출처: 건축과 환경 9512, 61쪽)

과 전자 부품들이 가득한 세계를”²²⁾

영국의 그룹 아키텍처를 현실주의자로서 묘사한, 그림소 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계획안에 담긴 건축적 주제는 기술의 자연화이다. 서기 2000년에 이르면, 기술은 더 이상 연기 나는 굴뚝과 기름 냄새나는 터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은 정보가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기술의 자연화 주제는 본래 우리가 컴퓨터의 위력을 통하여 활용한, 더욱 포착하기 어려운 책략을 이해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²³⁾

기술의 자연화는 ‘21세기의 건축’에서의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4. 세비아의 영국관

세계적으로 그림소가 등장한 경우는 1992년의 세비아 엑스포의 영국관 건물이었을 것이다. 1988년, 영국이 세비아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할 때, 당시 대처 수상은, “영국은 건축적으로 탁월한 전시관²⁴⁾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관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기술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의 영국의 잠재력과 지도력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최고급의 전시관을 지녀야 한다. 말 그대로 최상의 전시관을.”²⁵⁾

1988년의 대처의 선언 이후, 1989년에 설계 작업이 진행되어 건물은 1992년에 완성되었다. 영국관의 건축주는 무역산업국²⁶⁾이 담당하였다.

영국관, 절묘한 건축을 위한 전체 아이디어: 스페인 세비아에 세워진 이 건물은 현재 스페인에 존재하는 건물들에 팽배한 조급증에 대한 기술적으로 기후를 조절하여 표현한 것이다. 세비아의 지역성은 기후 면에서 지극히 독특하다. 이곳이 유럽에서 제일 더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 엑스포에서의 필요는 햇빛에 달아오르는 건물에서 내려 쬐는 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감있는 태도의 건축적 기념비를 요구하였다.²⁷⁾

영국관, 절묘한 건축을 위한 전체 아이디어: 스페인 세비아에 세워진 이 건물은 현재 스페인에 존재하는 건물들에 팽배한 조급증에 대한 기술적으로 기후를 조절하여 표현한 것이다. 세비아의 지역성은 기후 면에서 지극히 독특하다. 이곳이 유럽에서 제일 더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 엑스포에서의 필요는 햇빛에 달아오르는 건물에서 내려 쬐는 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감있는 태도의 건축적 기념비를 요구하였다. 전시장을 위한 이러한 요구는 태양에 노출된 건축물이 받는 열을 최소화하는 건축적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었다.²⁸⁾

유럽에서 제일 더운 지역에서 건물은 외부온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점을 건축으로 증명했고, 이것은 당시 엑스포장에 들어선 모든 건축물들이 보여준 방법이였다. 영국관은 관람자에게 기억에 남을 3가지 점에 유의하여

22. 격원간 「세계경기」, 특집 “부산 고속철도 통합역사 당선작”, 12쪽, “1. 은밀한 정원의 도시 개념” 중에서 인용.

23. 격원간 「세계경기」, 특집 “부산 고속철도 통합역사 당선작”, 12쪽, “1. 은밀한 정원의 도시 개념” 중에서 인용.

24. Architecturally Distinguished Pavilion.

25. Blueprint Extra, “British Pavilion Expo '92, Seville: Architects Nicolas Grimshaw and Partners” No.05, London, 1992. Wordsearch Ltd.

26. D. T. I(Department of Trade & Industry)

27. http://darkwing.uoregon.edu/~struct/resources/case_studies/case_studies_simplebeams/grimshaw_pavilion/grimshaw_pavilion.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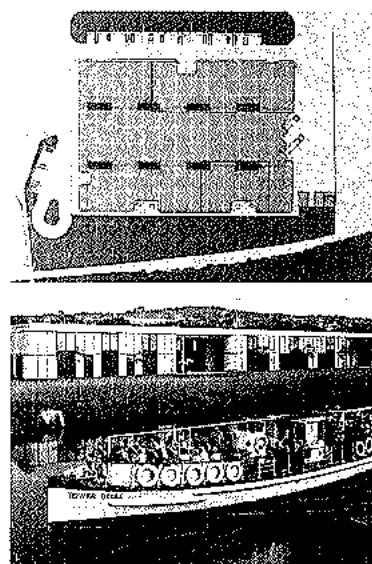
28. http://darkwing.uoregon.edu/~struct/resources/case_studies/case_studies_simplebeams/grimshaw_pavilion/grimshaw_pavilion.html



워털루 국제터미널 전경
(사진출처: 이상건축 9709, 121쪽)



허만 밀러 가구공장
(사진출처: Library of Tape-Slide, 신영사)



허만 밀러 가구공장 전경과 평면
(사진출처: Library of Tape-Slide, 신영사)

디자인하였다.

- 스틸구조의 우아함

- 브리지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며 햇빛 보이는 성당처럼 보이는 십자형태의 내부공간 - 70m 길이의 파빌리온 벽을 부드럽게 타고 회미하게 비치며 흐르는 물은, 윌리엄 파이²⁹⁾의 조각작품 "물보라 벽"으로 요약되는, 환경과 에너지 보존을 향한 상징적 접근.

영국관은 물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8월중의 평균기온이 28도이며, 외부 온도가 40℃일 경우에도 그늘에서는 30℃, 실내에서는 23℃로 계획이 되었다. 물이 흘러내리는 현관을 들어서면 실내는 시원해진다.

RSCG Conran 디자인 그룹이 준비한 멀티스크린 쇼를 보게 된다. 32개의 스크린 비디오타워에서 보여주는 영국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볼 수 있다. 200명을 단위로 하나로 또는 두개의 소형극장을 동시에 운영하여 영상에 로보틱스를 섞어 다중매체 공연을 보여준다.

11분간 공연되는 컴퓨터 영상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드라마는 유럽대륙과 채널터널로 연결되는 영국의 경제중심지로서의 통신센터로서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을 첨단 영상과 인간의 무언극을 적절히 조합시켜 인간미를 잃지 않는 하이테크의 정수를 보여준 점이 관람객의 갈채를 받았다.

92년 스페인 세비야 엑스포 영국 전시관은 그림쇼가 설계했고 엔지니어는 오브 어럽(Ove Arup)이었다. 공학적 측면에서 창조적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러운 조직이다. 세계적인 다양하고 공학적으로 도전적인 건축물을 지원해 준 그룹이다. 그들의 역할은 건축가에게 기술적 가능성을 알게

하는 것이며,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림 쇼, 오브 어럽, 랑던 그리고 에베레스트 등의 각 팀의 연속적인 브레인 스토밍 기법에 의해 초기 아이디어가 발전했다.³⁰⁾

영국관은 건축적으로 보부르(종피두센터), 메닐 미술관(루이스 칸이 설계한 미술관), 그리고 무엇보다 수정궁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건물이다. 그러나 에너지에 관한 영국관 건물의 적극적인 태도는 독자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워털루 국제 터미널

배낭여행을 한 학생들, 또는 '유로 스타'라는 기차를 타고 영국과 프랑스를 오고 간 적이 있는 분들이 영국에서 기차역으로 이용한 곳이 워털루 국제 터미널 기차역이다.

유로 스타 표를 사면 영국, 런던의 워털루 유로 스타 터미널³¹⁾(워털루 국제터미널)에서, 프랑스 파리 북역³²⁾까지, 또는 벨기에 브뤼셀 중부역³³⁾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공항 터미널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도 런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다. 채널터널을 통하여 바다 밑으로 도버해협을 건너,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보이는 국제 터미널은, 영국 국내 철도선과 차별화 되는 자체적 특성을 지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지의 현실적 제약이 많았고, 터미널은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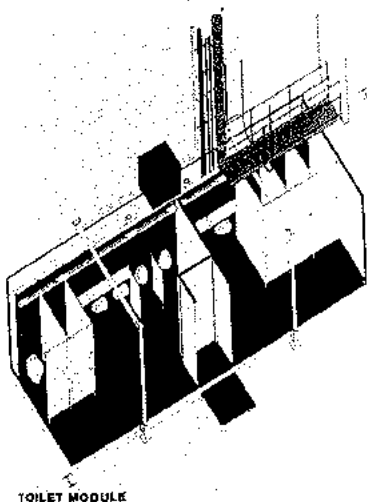
29. William pye

30. Ove Arup & Partners and Davis Langdon & Everest.

31. London's new Waterloo International Eurostar Terminal

32. To Paris Gare du Nord.

33. To Brussels Midi Station



허만 밀리 가구공장 화장실 모듈
(사진출처: Library of Tape-Slide, 신영사)



공장에서 제작중인 화장실 유니트와 내부 모습
(사진출처: Library of Tape-Slide, 신영사)



허만밀리 가구공장 안에서 바라보는 외부풍경
(사진출처: Library of Tape-Slide, 신영사)

15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접근하기 쉬어야 했고, 출발 라운지, 매표소, 세관, 이민국 등 지원시설이 제공되어야 했다. 목표는 승객들이 야단법석을 부리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통과해 갈 수 있는 유선형의 터미널을 설계하는 것이었으며 레벨을 높여 서로 다른 층에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1988년 4월에 시작하여 1993년 5월 완공한 터미널은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유로 스타 열차'는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아 기차운행은 가끔 연착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1995년 여름에 파리 북역에서 런던까지 가족과 '유로 스타'를 탄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2시간 연착을 했다. 사무실에 가서 신고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왔다. 신고한 뒤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더니, 4인 가족 편도요금 액수만큼 환불되었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들어보니 기차 차량의 기술적 문제로 자주 연착한다고 했다. 워털루 국제터미널의 기술적 문제는 지붕구조와 구조물의 의장재였다. 유연한 외벽조립하기³⁴⁾는 디테일을 중시하는 그림쇼 사무소의 특징적인 작업이다. 클래딩은 경량클래딩³⁵⁾으로 나뉜다. 알루미늄과 같은 경량부재를 사용한 클래딩은 경량 클래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같은 부재를 사용하는 것은 중량 클래딩³⁶⁾으로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경량과 중량이라는 말은 재료의 비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예를 들면, 유리는 건재중에서 비중이 큰 재료지만, 유리를 주로 한 클래딩은 경량 클래딩으로 나뉜다.³⁷⁾

그림쇼의 유연한 모듈클래딩 체계³⁸⁾는 1970

년대 중반에 파렐-그림쇼 파트너십에 의하여 완성된 계획안을 통하여 확립되었다. 그 한 예로, 바쓰(Bath)에 세워진 허만 밀러 가구공장에서 네오프렌 개스킷으로 밀폐된, 알루미늄 압출에 의한 속이 빈 철제 형틀에 부착된 파이버글라스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워털루 국제 터미널 경우에도 휘어진 평면 때문에 "루스핏" ³⁹⁾방식을 사용했다.

이 방식은 몇 개 크기의 유리판을 만들어 서로 포개어 놓는 방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용 절감 효과가 큰 방식이다. 구조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유리를 사용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곤란했으며, 구조에 맞게 적당한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모양, 다른 크기의 유리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은 공사를 어렵게 했기 때문이다.

좁은 곳이나 폭이 일정하지 않은 곳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네오프렌 개스킷을 사용하고 있다. 로완 무어는 그림쇼의 건축에 관한 책에서 표제로 "구조, 공간, 표피" ⁴⁰⁾를 추렸다.

34. Flexible cladding

35. Light clad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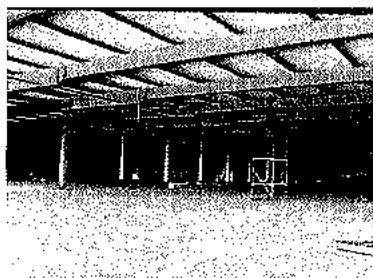
36. Heavy cladding

37. 하문보, 김규석, 이민실 역편, 『건축영어사전』, (서울: 가문당, 1979), 2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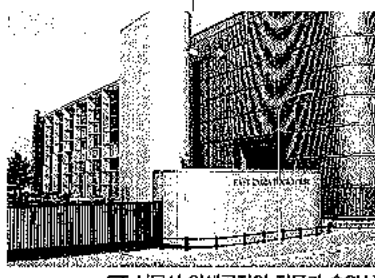
38. Flexible module cladding system

39. Loose fit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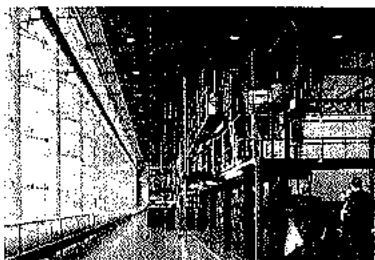
40. Structure, Space and Skin : The Work of Nicholas Grimshaw & partners, <http://www.amazon.com/exec/obidos/Author=Grimshaw%2C%20Nicholas/4097-4755097-938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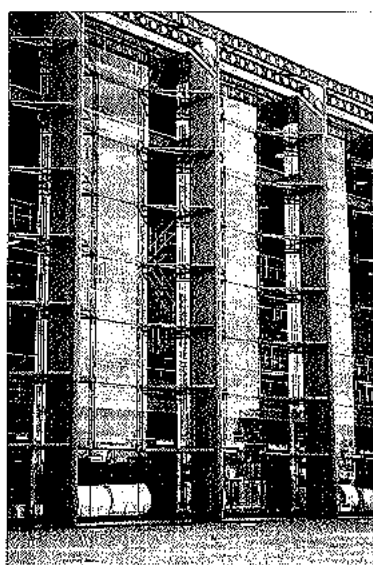
테일즈장 연안에 세워진 항공기의 내부
(사진출처: Library of Tape-Slide, 신영사)



FT 신문사 인쇄공장의 정문과 수위실



FT 신문사 인쇄공장의 내부전경
(사진출처: Architecture in Detail)



FT 신문사 인쇄공장의 외벽

6. 그림쇼의 생각: “나에게 스타일은 없고, 건축방식(Technik)만 있다.”⁴¹⁾

오늘 나는 산업화 건축을 말하려 하는데, 어쩔 수없이 1965년에 실무를 시작한 개인적 경험에 근거를 두며,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림쇼는 자신의 작업을 “산업화 건축”⁴²⁾으로 예를 들면서, 다음과 같은 7개의 항목으로 예를 들었다.⁴³⁾

(1) 산업화 건축에서의 너트와 볼트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들의 결합하는 방법.

그림쇼는 첫 프로젝트인 런던, 페딩턴 학생 200명을 위한 기숙사를 설계하면서, 화이버글라스 회사, 철강 회사, 그리고 모든 단종 건설업 회사에서 이것을 경험했다. 건축의 건식공법에서의 너트와 볼트와의 관계, 그리고 이것들의 결합하는 방법을 그림쇼가 겪으면서 이해한 것은 미래의 융통성 있는 산업화 건축을 건설하는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발전했다. 클래딩(Cladding)은 건물의 비내력 외주벽으로 건물에 붙여지는 나무리재(피복재)나 이것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동사 Clothe(의복을 걸치다)의 문어체, 고어체로서 과거, 과거분사인 Clad는 그림쇼에게 하나의 체계로 등장한다. 클래딩 시스템⁴⁴⁾에 관한 내용은 그림쇼의 건축에서의 핵심이다.

(2) 융통성과 적응성의 의문

거의 모든 건축주들은 건축물이 의도한 용도 이상으로 사용되고, 또 오랜 기간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요구가 있는데, 융통성과 적응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3) 장소에 대한 쾌적성(Amenity)의 문제

영국에서 계속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쾌적성의 문제를 화장실의 도면으로부터 볼 수 있다. 허만 밀러 프로

젝트에서 필요한 화장실 모듈로서 공장에서 조립되고 있는 모습인데,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쾌적한 감정을 제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4)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설계를 해야 하는 작업

우리들은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서 설계를 해야하므로, 최대한 스펀을 넓혀야 하고 다양한 크기의 유니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연한 평면계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인간들의 환경에 맞아야 하는 문제

그림쇼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환경과의 문제는 산업화 건축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건축주나 사용자에게 뿐만 아니라 건물 주위에 살고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위환경에 맞아야 한다. 명쾌하고 우수한 조경은 중요하다. 또 색채문제도 주위와 조화를 취해야 한다.

(6)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히 건물 안에서 공장의 내부를 지나 보이는 밖의 경치를 더욱 좋아한다. 이 원칙도 이후에 이어지는 건축물에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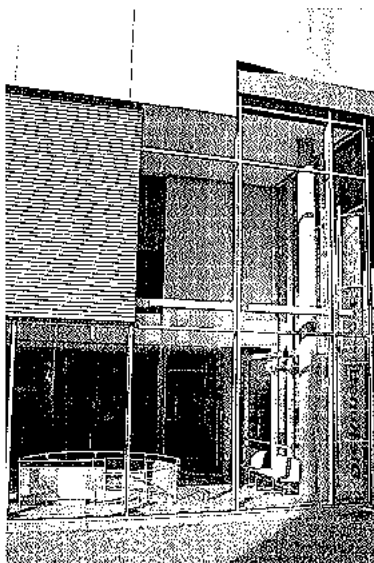
(7) 마지막으로 건물이 비록 반마일 밖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밤에도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창틀 없는” 유리벽을 지니고 있는 RAC 브리스톨 지사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 인쇄공장 등 모든 계

41. “I have no Style, I do have a way of building”, Kenneth Poxel, Britain's Romantic Realist, The Work of Nicholas Grimshaw, 월간 건축과 환경 95.12, 46-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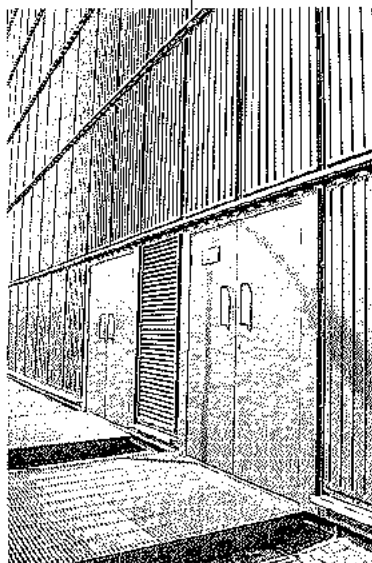
42. Industrial Architecture.

43. Library of Tape-Slide, pp.21~27, 서울, 신영사.

44. Cladding system.



FT 신문사 인쇄공장의 모서리 부분



FT 신문사 인쇄공장의 외벽



히드로 공항 탑승동
(사진출처: 월간 건축과 환경 95.12, 109쪽)



히드로 공항 탑승동 연결통로의 모습
(사진출처: 월간 건축과 환경 95.12, 118쪽)

획안에서 통용된다.

7. 니콜라스 그림쇼: 낭만적 사실주의자

엔지니어의 아들이며 손자인 그림쇼는 1939년 출생하였고, 에딘버러 건축예술대학을 졸업한 후(1959-62년), 런던의 AA 스쿨에서 우수한 학생으로(1962-65년) 학위를 획득했고, 1965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그의 초기 파르너는 테리 파렐이었다.

그림쇼는 1965년부터 개인적인 설계작업을 해왔으나, 1980년 "니콜라스 그림쇼와 협력팀들"을 결성하여 체제를 강화했다.

사무소는 런던 중앙 사무실에 50여명의 직원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사는 베를린과 맨체스터에 있다. 그는 영국, 유럽, 미국 등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플라이머스에 웨스턴 모닝 신문사 본사 건물을 설계했다. 배의 평면 모양을 한 이 신문사는 삼아 모양의 외부 철구조에 의해 지지된 휘어진 유리 곡선벽을 지니고 있다.

런던공항당국을 위해 히드로 공항 국내선 탑승시설을 설계했다. 두 종류의 재료를 사용하여 타원형 횡단면을 지나는 통로를 만들어, 효율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였다.

브리티쉬 항공종합 업무센터를 설계했다. 건물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음장치, 외관은 공항 레이다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해야하며, 3층 이하의 고도제한, 야간에 착륙하는 비행기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건물에서 밖으로 비치는 조명이 보이지 않도록 건물의 입면을 휘어 숙였다. 외벽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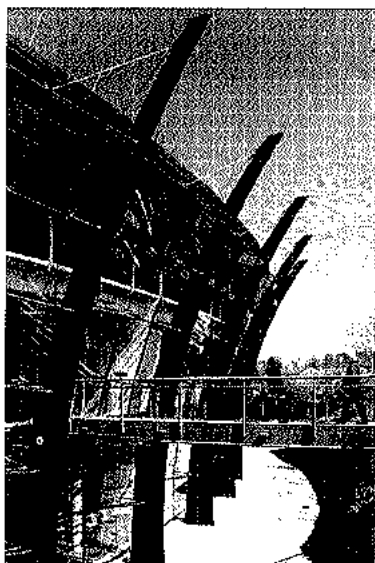
창 위에 달린 루버는 내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에게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⁴⁵⁾

와트포드에 스탠더드 생명보험사를 위해 21 에이커에 달하는 업무지역의 설계를 했다. 해외에서는 이그스 구름바흐 끌로뉴 공장을 위한 본사 건물과, 베를린 증권거래소와 통신센터를 설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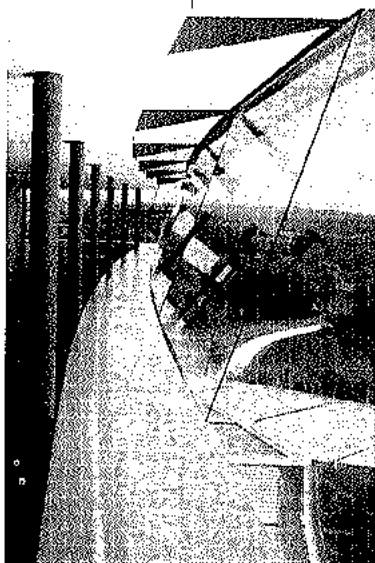
그림쇼 사무소 측은 실무를 통하여 성공적인 건축을 달성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좋은 디테일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도 디테일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건물이 그 안에 인간들의 행동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욕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위주의 경영방침으로 사무소의 고용원은 진행중인 일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⁴⁶⁾ 유연한 고용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가 늘어나면, 인원이 늘어나고,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인원도 줄어든다. 건축주에게나 스스로에게 사치하지 않고,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 것이 그림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리라. 인류를 위하여 현실적 실용성을 건축가의 임무로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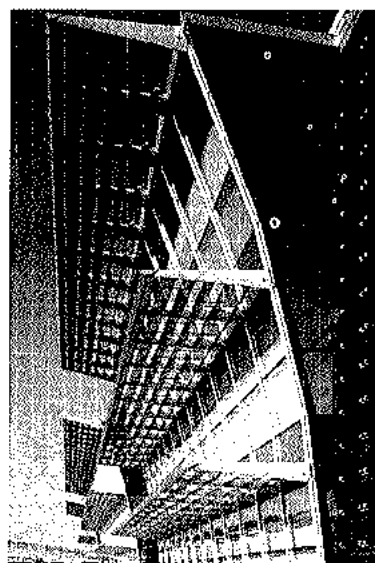
45. 일간 「건축과 환경」, 9512, 「니콜라스 그림쇼」 특집 책조.
46. 건축과 환경 9512, 44~45쪽.



웨스턴모닝뉴스지 본사
(사진출처: 일간 건축과 환경 9512, 103쪽)



웨스턴모닝뉴스지 본사의 창을 없는 벽과 주위환경
(사진출처: 일간 건축과 환경 9512, 107쪽)



브리티쉬 항공종합 업무센터 외벽
(사진출처: 일간 건축과 환경 9512, 130쪽)

21세기 건축의 새 장을 연 게티센터

Getty Center

자연과 예술, 인간 이상의 조화

박태형 / 재미건축가,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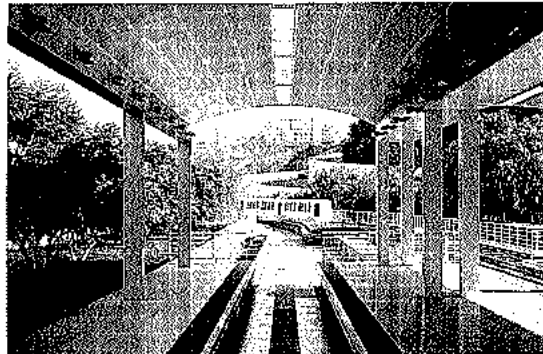
21세기의 문턱에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근원지로 전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경제위기는 당장 한 고비를 넘어서고 하더라도 2~3년 동안은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고, 이로 인하여 그 동안 한국의 건축업계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해외 건축시장이 되었던 동남아시아는 한동안 IMF의 한파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기간을 21세기를 향한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기로 생각하고, 선진 건축업계의 건축동향을 비롯하여 21세기 미래 건축수요의 방향을 파악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건축업계가 21세기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미래 세계건축시장을 재석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들의 건축동향은 21세기 건축업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최근 개관한 게티센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필지주>

리처드 마이어와 게티센터

1997년 12월 16일 로스앤젤레스 근교 산타모니카 말리부해안 산정 110에이커의 대지위에 석유재벌 장 폴 게티의 유산으로 센터 건립계획이 세워진 지 15년, 산아래 입구로부터 정지작업이 시작된 지 8년, 산정의 본건물 착공에 들어간 지 거



산타모니카 산위의 게티센터 전경(사진 : John Stephens)



산위 게티센터의 광장까지 왕복운행하는 무인전기전차
(사진 : Scott Frances/Esto)

의 5년이 된 총공사비 10억 달러 규모의 게티센터는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문화의 전당으로 문을 열어 세기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개관식은 20세기 미국 미술사상 가장 큰 이정표적 사건이자 1백25년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의 잔치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가 참석한 최대의 행사였다.

새로이 문을 연 게티센터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관심을 끌게 하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21세기의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점에서 시사하고 있다. 즉 자연, 첨단 과학, 인간의 조화를 현대건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점을 시사하여 준다.

말리부 해안에 소재하여 있었던 게티 기존 박물관을 더욱 대중들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학자들을 위해 교육 및 연구소, 보존기술 개발소, 박물관 등의 복합적 예술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에 게티재단에서는 예술박물관 건축에 명성을 쌓아가고 있던 리처드 마이어를 게티센터 건립 책임건축가로 임명하였었다.

이미 헤이그 도서관과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애틀랜타 미술관(1980-1983),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술관(1979-1984)을 건축한 바 있는 건축가 마이어는 이번 게티 센터를 두고 제9의 불가사의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는데 흠족하고 있으며 생애에 있어서 의뢰받았던 건축설계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마이어는 1997년 미국 건축가협회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였는가 하면 프랑스와 일본 정부로부터 그 생애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로상을 받기도 하였다.

리처드 마이어는 게티센터 건축을 통하여 20세기 건축이 추구하여 온 완벽하고 세련된 선처리, 보석처럼 정밀하게 처리된 자재구성을 통하여 미래의 이상과 고대 및

19세기 근대 건축양식이 추구한 가치와 표현을 결합하고자 하였으며 거대한 캔버스와 같은 이 산정에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주제로 선을 특별히 강조한 건축물들은 산타모니카 능선을 본 딴 곡선과 눈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상징하는 직선이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다.

문화의 아크로폴리스

게티 센터는 기존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산타모니카 산위에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도 로스앤젤레스 시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경을 갖추고 있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건축양식에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졌다. 선명한 파랑색과 백색의 대담한 조화, 사방으로 장애물 없이 탁 트인 해발 9백피트 산위의 건물들은 하늘만이 유일한 배경이어서 흰색건물이 마치 하늘위에 떠있는 듯 하다.

박물관은 입구와 안뜰을 중심으로 세워진 다섯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빌딩들 사이사이로 도시의 전망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오리엔테이션 센터인 원형건물을 통해 박물관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바로 이 곳에서 마이어의 현대주의적인 추상성을 엿볼 수 있다.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환상적인 빛, 높은 천장, 공간을 둘러싼 기둥들이 빛과 건축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현대적이면서도 이태리 바로크 교회양식과의 유사성을 느끼게 해준다. 인테리어 장식은 감미로운 색상의 천으로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마이어 건축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보안과 미술품 보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열린공간을 형성, 실내와 옥외의 개념을 헐고 건물의 안과 밖이 상호 연속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특히 전체 건축물 공간의 절반이상을



전체 도처지 광장(사진 : Scott Frances/Esto)



무인전차 도착지 광장에서 바라본 박물관입구 정면(사진 : Trom Bonner)



박물관 입구 홀(사진 : Scott Frances/Esto)

차지하는 미술관은 분수가 있는 안마당을 둘러싸고 전시관들이 위치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전시관에서 안마당으로, 안마당에서 전시관으로 드나들며 안과 밖의 개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게티센터 건축을 위하여 인공 알루미늄 패널 Frame을 사용한 유리벽과 천연의 탄산석회 암벽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3만2천5백개의 나무잎 모양, 새깃털 등의 화석이 들어간 1만 4천톤 가량의 석자재가 이태리의 로마인근 티몰리항으로부터 파나마해협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로 수송되어 건물의 벽과 바닥, 회랑의 벽, 곳곳의 자연석 벤치로 이용되었다. 또한 25만개의 모래주머니가 투여되어 산동성위에 건축되는 건물 주변의 토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가히 문화의 아크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든 미술관으로서 손색이 없는 웅장한 규모와 빼어난 예술성은 한편으로 자본주의의 위력을 실감나게 한다.

마이어의 건축과 함께 게티센터가 역점을 둔 것은 조경이다. 게티센터는 전체 대지 1백10에이커중 대부분을 산타모니카 산의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24에이커만 활용해 건축을 했는데 이중에서도 건평은 4분의 1에 불과, 나머지 19에이커는 중앙가든을 비롯한 드넓은 정원으로 꾸었다.

응용예술가 로버트 어원이 디자인한 중앙가든은 원형경기장 모양을 한 13만 4천평방피트의 거대한 정원에 2천여종의 식물들을 심고 중앙의 양 옆으로 수로를 만들어 물이 흐르게 설계돼 있다.

이외에도 8천개에 달하는 각종 수목들로 조경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중앙화단은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에 비유되고 있다. 94년의 노스리지 지진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10년여의 공사기간 끝에 웅장한 모습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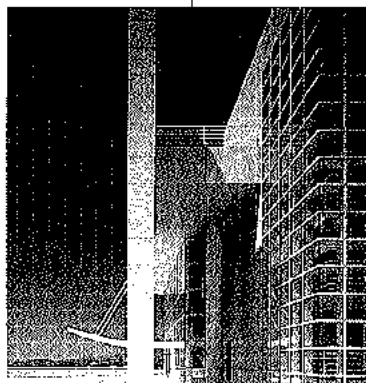
게티 센터에서는 마이어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표현 노력이 특히 돋보인다.

첫째, 기존의 미술관, 예술관들이 위치한 장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시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시 전경을 건물내에서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마치 산위에서 그대로 로스앤젤레스의 환상적인 모습을 보게 설계한 것이다. 마치 명상을 위하여 잠시 천상의 산위에 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아 온 자리들을 뒤돌아보면서 삶자체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예술자체가 추구하여 온 정신적 자이완성의 세계를 건축물 자체로서도 만끽하도록 만들었다. 이를 위하여 언덕아래 지하주차장과 게티센터는 따로 분리되어서 산아래에서 차를 주차한 방문객들은 천천히 움직이는 전차를 타고 5분 정도 산위를 올라가면서 주위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마치 속세의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꼬불꼬불한 유선형의 노선을 타고 하늘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다. 이 전차가 입구 플라자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거대하게 펼쳐진 게티센터의 웅장함이 펼쳐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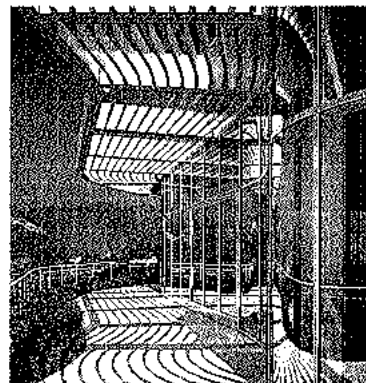
둘째, 게티센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첨단 과학장비들을 예술관 건축물들과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결하여 놓았다. 즉 산위의 게티센터로 연결되는 무인 운전 전기전차를 비롯하여,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된 갤러리는 컴퓨터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최첨단의 장비이다. 이 전차는 선로나 바퀴가 없다. 전기 모터를 통하여 생성된 공기를 팬케익과 같이 생긴 고무패드로 수직으로 내려보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동 조정되도록 된 3개 칸으



입구 원형 홀에서 바라본 박물관 안마당 (사진 : Alex Vertikoff)



오디토리엄(Auditorium) (사진 : Scott Frances/Esto)



산타모니카 산쪽을 향하고 있는 레스토랑/카페 내부 (사진 : Scott Frances/Esto)

로 된 전차가 공중에 부상되게 되면 산위에서 케이블로 끌어당겨 산위, 아래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시간당 1200명 정도를 실어 나르게 되어 있는 단거리 대중운송 양식은 세계에서 5개 장소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게티센터에서처럼 높은 경사각도가 이루어진 산기슭에 설치되기는 처음이다.

또한 게티센터의 각 건물들은 최고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광섬유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비록 산위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외부와 내부간에 정보 교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졌다. 첨단 컴퓨터 시설들을 통하여 전시되지 않은 작품들을 멀티미디어실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도 게티센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멀티미디어를 통한 작품감상 뿐만 아니라 전시되거나 전시되지 않은 모든 작품들의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작품감상이 자료검색을 통하여 보다 완벽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첨단 기후조절장치야말로 게티센터의 문화재보호에 기울이는 최대의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냉방장치가 작동이 안되는 경우에도 화씨 72도, 습도 52%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3개의 공기정화 필터를 장착하여 먼저 30%정도까지 오염미립자를 걸러낸 후 두 번째 필터에서 95%까지 재정화를 하며 탄소필터를 이용 유해가스를 제거한다. 작품보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가스는 건물내부의 작품자체, 페인트, 카펫, 세척제, 시설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게티 보존연구소는 설치되는 모든 작품들과 시설물들에 대한 자체 검색을 통하여 100개에 달하는 유해가능 시설물, 작품들의 설치, 전시를 금지시켰다.

자연채광 시설의 사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즉 태양광선이 갖고 있는 유해성을 극소화시키면서 2시간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채광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컴퓨터로 건물 천장에서 블라인드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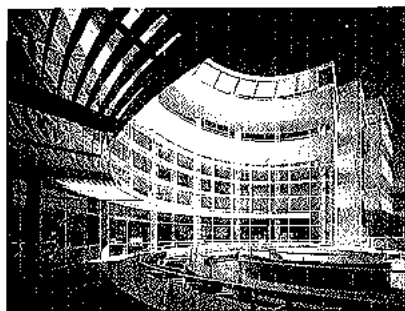
이를 통하여 갤러리내부에서는 200~250 룩스의 밝기를 항상 유지한다. 또한 벽에 설치된 태양열 포토셀이 태양 빛의 밝기 정도를 감지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태양열, 빛의 변화를 포착, 컴퓨터에 이 정보를 보내 천장의 채광블라인드의 각도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2중으로 태양직사광선의 가능한 피해를 줄이도록 되어 있다. 컴퓨터에 필요한 각 방의 태양빛 자료들을 입력하기 위해, 수년 동안 각 방의 태양빛 각도, 직사광선의 열 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이와 같은 장비들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어졌다.

스프링쿨러 시스템은 연기, 가스 감지시에는 신선한 공기가 나오지만 소화를 위한 물이 나올 준비가 되도록 작동된다. 만일 열이 감지될 경우에는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예술품들이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스프링쿨러 시스템에 항상 깨끗한 물이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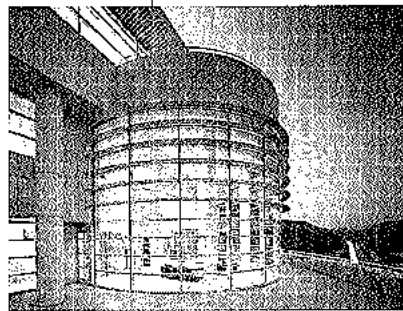
셋째, 각 건축물들은 자연채광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고대, 근대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당시 자연채광 그대로를 통하여 작품들을 볼 수 있도록 갤러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건물들은 자연채광이 만들어내는 자연 그대로의 신비가 건물안으로 들어오도록 창문을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게티센터의 건축은 리처드 마이어가 추구하려고 하였던 자연과 인간의 조화 노력이 다시 한 번 발현된 작품이다.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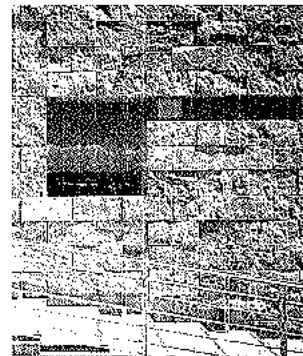
게티센터의 개관으로 이제 미서부도 미동부에 버금갈 수 있는 예술기반이 조성되었다. 특히 예술가, 건축가들은 21세기 건축의 방향을 제시한 게티센터에서 차세대 예술 및 건축의 새로운 태동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 방문객들에게는 문화적 개안을 돕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소(사진 : Scott Frances/Esto)



동쪽발당에서 바라본 독서실(Reading Room)테라스
아경(사진 : Scott Frances/Esto)



탄산석회암 벽
(사진 : Scott Frances/Esto)

제9회 아카시아 포럼 참가기

A Report on the ARCASIA Forum 9

우리 협회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Architects Regional Council for ASIA)가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건축사대회 및 아카시아토론회가 지난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제9회 아카시아토론회는 JIA(신일본건축가협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건축기행 등 다채로운 행사와 연계해 아카시아회원국과 세계 각국의 유명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 협회에서도 아시아 회원국간의 건축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김영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2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편집자주>

■ 세부행사 일정표

일 자	JIA창립10주년 기념행사 (신일본건축가협회)	제9회 ARCASIA토론회	
		시 간	세 부 일 정
9/20(토)		09:00~12: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
		12:00~13:30	오찬
		13:30~17: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회
		18:30~20:30	환영만찬회
9/21(일)		09:30~12: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회
		12:00~13:30	오찬
		13:30~17:00	아카시아이사회/교육위원회
		18:30~20:30	동료파티
9/22(월)	<JIA창립10주년기념행사> - 개회식 • 개회연설 • 시상식(1997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신인상, 제1회 일본건축가협회 25년상) - 심포지엄 기초연설 "다중문화와 건축" 니콜라스 그림쇼(영국건축가) 데이 킹 순(싱가폴 건축가) 안도 다다오(일본 건축가) - 리셉션		
9/23(화)	JIA주제 포럼 1. 건축경제학 2. 정보사회와 복합문화 3. 도시개발의 철학 4. 세계화와 지방문화 5. 창조와 표준화 6. CALS와 건축 - DESIGN FORUM - 전문가 워크샵	아카시아 회기업무 "아시아 건축의 미래" 1. 고층고밀도 주거 2. 건축가 없는 아시아의 도시 3. Global Architecture 환송회	
9/24(수)	건 축 탐 방		

■이사회

제 18차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이사회(Council Meeting)가 1997년 9월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 Tokyo East 21 Hotel Conference Room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회원국 15개국 중 몽고만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였고, 오스트리아, 베트남, UIA대표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본 협회에서는 김영수 회장, 이정근 국제 위원장, 이근창 국제위원이 공식대표단으로, 오근석 국제위원, 아세훈 서울건축사회 회장, 김영석 협회감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 ARCASIA 회장 Mr. Surath로 부터, 본 ARCASIA의 모임이 아시아 건축인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서로의 기술정보 교환과 협력을 바탕으로, 20여년간 지내 온 역사에 대한 의의와 갈수록 돈독해지는 우의를 다짐하자는 개회사에 이어 초청국인 일본 건축가 협회장 Mr. Hozumi의 환영사와 UIA회장의 격려사로 개회식을 마쳤다. 곧이어 1996년도 회의록 승인과 수장을 걸쳐 본회의 진행 절차가 논의되었다. 본 협회에서는 주관했던 ARCASIA Book Project건은 상정되었으나 4여년에 걸쳐 진행사항이 보고되었고 문제점을 회원국 상호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으로 인건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의문사항은 개별적으로 답하기를 하였다.

재정 감사보고서에서는 1996년 이월금 미화 17,455.55달러에 회원국의 96, 97년회비 30,150.79달러를 합쳐 총 47,606.24달러이고 지출은 경상비 6,280.25달러, 현재 잔액 41,325.98달러라고 보고되어 승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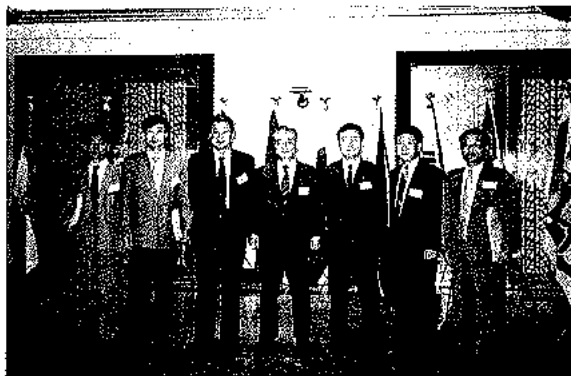
본 회의의 주요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계획

ARCASIA모임의 장래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항목이 논의되었고 그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1) 자금 확보: 현재 각 회원국의 재정상태를 고려 창립 이래 매년 미화500달러, 또는 200달러씩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 책정된 회비는 회의운영 및 통신비 정도를 충당하는 정도이므로 회비의 인상 또는 아시아 Journal에 수록하는 작품에 사용된 자재의 제조업자로부터 찬조 등을 통하여 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추후 말레이시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회기에 상정, 검토 승인하기로 하였다.

1-2) 건축교육: 아시아 정서에 맞는 건축교육의 발전과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론과 실무를 결합시키는 방법과 건축설계 능력을 배양시켜 선진국과의 경제력 확보를 해야함인 시급한 문제임이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Tay Kheng Soon(싱가폴)가 회원국의 건축교육의 실체를 분석, 기본방향을 제시키로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아시아건축에 대한 지침과 교육인증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며, 각 회원국에서는 건축교육을 이수한 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를



아카시아 포럼에 참가한 협회 대표단

제시하여, 현재 홍콩건축사협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건축교육제도 개선 계획에 상호 정보교환하여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1-3) 건축가의 지위 향상: 아시아 국가에서 최우선으로 문제되고 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고밀도 최적 환경의 주택설계를 위해 기술방안을 적극 연구해야 하며, 그와 같은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또한 회원국내의 건축설계경기를 체계화하여 운영해야 함이 논의되었고, 이는 건축가의 창조적인 활동이 인정되어 전문인으로서의 지위향상과 그에 대한 보수가 안정되어 양질의 학생이 선호하는 작업으로 발전시켜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추후 설계경기의 방안의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기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1-4) GATS: 시장개방과 더불어 회원국에 잠식하고 있는 선진국 기술에 관하여 대처방안이 논의되었다.

현재 GATS하에서의 건축설계업무에 관한 진행상황을 Working Group을 편성하여 아래의 주안점을 골자로 논의키로 했다.

- ① 상대국 건축가들과의 상호이익을 취하는 방법 제시
- ② 실제 실무처리 방안제시
- ③ 건축설계업을 무역업으로 고려하는 모순점 강조
- ④ UIA의 윤리규약에 ARCASIA 결의문 삽입
- ⑤ 실제 기술전수의 정확한 구분과 이해
- ⑥ 각 회원국 대표가 채택한 ARCASIA결의문에 대해 각 정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권장

설계용역에 관한 ARCASIA회원국의 "국제윤리규약"은 1995년 싱가포르회의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었으며 상기 사항의 분석 검토를 위하여 필요인원의 선정과 자금의 지원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채택된 결의문을 회원국 해당 정부기관에 보고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였다.

1-5) 장기 계획: 향후 6개년 계획을 회원국의

입지를 고려하여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는 계획서를 말레이시아 P.Kasi가 작성하기로 하였고 상기 계획은 본 회의에 초안으로 제출되었다.

2) ARCASIA Resource Center

ARCASIA모임의 역할과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 논의되었고 말레이시아 주관하여 기본틀을 작성하여 Web Page를 자체비용으로 작성하기로 하였고 그 이름을 "ARCASIANET"를 잠정 결정하였다.

회원국의 소개란은 Format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하고 그 시점은 말레이시아에서 계획 수립되는대로 통보하기로 하였다.

3) Architecture Asia

분기별 발간하기로 한 아시아 건축잡지의 창간호가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창간호에는 협회에서 추천한 2개의 작품이 수록되었고 각 회원국에게 30부씩 무료로 제공되었다. 더 필요한 경우 송금료를 제외하고 미화 7불씩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4) ARCASIA Competetion Gudeline

아시아지역의 건축설계경기의 Gudeline을 점하여 아시아 지역의 건축특성을 살리고 회원국이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본 Gudeline의 작성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중국의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작성 다음 회기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5) ARCASIA Fellowship

ARCASIA창립 이래 본화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이 있거나 전임 회장, 부회장직을 역임한 회원국의 대표단으로 구성하기로 1996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ARCASIA고문 모임으로 첫 회의를 본 회의 전날 Hong Kong의 Ronald Poon의 ARCASIA의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다. 현재 Member로는 48명이며, 본 협회에서는 송기덕 회원, 김지덕 전국제위원장, 이정근 국제위원장이 입회하였다. 본 모임은 이사회와 별도로 운영하기로 하고 토의내용과 제반 회계는 이사회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모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ARCASIA 정관의 수정 또는 애매한 부분의 유권해석을 해주기로 하였고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대표단과 동격으로 대접하기로 하였다.

6) ARCASIA Handbook & Checklist

ARCASIA 거구의 조직과 행사 및 회의진행의 절차, 회장단의 임무 및 역할과 책임, 기타 부속 교육위원

회, 학생챔버리, ARCASIA Award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명기한 Handbook과 Chcklist를 좀더 현실성 있게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내용은 모든 관련서류는 Fellowship Member와 전임 회장단에게도 배부하고 총회의 세부사항을 Shecklistion 열거하지 않고 별첨으로 대처하기로 하였다. Forum의 연사 선정기준을 주최국 위주가 아닌 전 회원국이 참여토록 보완했으며 학생작품에 대한 시상내용을 명문화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모든 회의록 및 기록내용은 말레이시아에서 주관하고 있는 Archives에 보관, 관리, 유지키로 하였고 입회절차에 관하여서는 최소 50명 이상의 건축가를 보유한 나라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특수 사정인 경우는 이사회의 표결을 득하면 될 수 있는 완화조항도 삽입하였다. ARCASIA의 Zone구성을 재편성하여 필리핀이 Zone "B"에 배치되었고 본 협회는 원 구성대로 Zone "C"에 속하게 되었다.

7) ARCASIA Award Program

총회(ACA)에 시행하던 본 시상을 총회시 많은 행사가 겹치게되므로 1999년 Forum이후에는 Forum이 개최되는 홀수해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상 대상 Catagory가 현재 주거, 산업, 전통 3부분으로 되어있으나 확대하여 더 많은 부분을 하기로 제안이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였고 차기 심사위원은 Zone "B"와 "C"에서 각 1명, 아시아 지역권이 아닌 곳에서 한명을 선임하기로 하고 각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

8) UIA 회의

국제 건축가 모임인 UIA에 입지 확보와 결의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ARCASIA에서 공식 대표단을 파견키로 하였고 대표단은 현 회장 또는 전임회장으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내용과 본 회의 토의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Concil Metting에 공식 보고키로 하였다.

9) 1999년 Forum 개최지 선정

일부 회원국에서 국제회의의 참석이 매 3년마다 2차례나 되어 (UIA회의는 매 3년마다 개최됨) 경비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UIA 총회시 비공식의 이사회만 개최하는 일이 상정되었으나 운영체계의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후에 수용키로 하고 본 회의에서는 보류키로 하였다. 1999년 FORUM 후보자로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거론되었으며 방글라데시가 한국의 거취에 따라 개최하기로 하였다.

국제 행사를 치르는 일본건축가협회의 용의주도한 사전계획에 의해 행사장에는 최소 인원(2~3명)을 상주시켜 회의를 번거롭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 사회의 안전자체는 아시아 건축인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며
 일정한 규범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전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하
 여 본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여 참석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금
 번 회의에서는 UIA회장과 AIA회장 등이 참석하여 회의진행을
 주의깊게 참관하였다. 이와 관련 국내의 여건을 조정, 국제회
 의에 한 목소리로 대처하는 점진적인 통합운영이 바람직해 보
 인다. 〈글: 이근창/본 협회 국제위원〉

■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ACAE)

이번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ACAE)는
 1997년 9월 20일~21일 이틀간에 걸쳐 일본 도쿄시의
 EAST 21호텔에서 15개국중 몽고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13개
 국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회의는 ACAE
 의장인 싱가포르 Andrej Tau씨가 개회사와 함께 한국(KIRA),
 방글라데시(IAB), 홍콩(HKIA), 인도(IIA), 인도네시아(IAI),
 일본(JIA), 말레이시아(PAM), 필리핀(UAP), 싱가포르(SIA),
 스리랑카(SUA), 태국(ASA), 중국(ASC), 마카오(AAM)등
 많은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에 한국대
 표로 우리협회의 국제위원 김지덕위원이 참석했고, 참관인으
 로 백경국국제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IAD)에는
 Dr.K.Shabbir Ahmed, 홍콩(HKIA)에는 Edward Shen, 인
 도(IIA)에는 Gurunath Dalvi, 인도네시아(IAI)에는 Budi A.
 Sukada, 일본(JIA)에는 Takefumi Aida, 말레이시아
 (PAM)에는 Parid Wardi, 필리핀(UAP)에는 Yolanoad
 Reyes, 싱가포르(SIA)에는 Andrew Tau, Milton Tan, 스리
 랑카(SLIA)에는 Mihinoce Keerthirathne, 태국(ASA)에는
 Vira Sachakul, 중국(ASC)에는 Loi Sai Hin 등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에서
 토론된 주요의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관심

① 건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아이디어
 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있어 어려움 있음.

②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의 회의를 할 필요 있음. 그러나 현실
 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어 유감임.

2) 건축교육위원회 조직의 개편

① 각 회원국 회원 개개인들과의 연속적인 접
 촉관계를 유지하여 건축교육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노
 력해 주기를 독려함.

3) 건축교육위원회에 2가지의 Issue제시

① 각 회원국들은 건축교육위원회를 통해 무
 었을 기대할 수 있는가?

② 각 회원국들은 건축교육위원회를 통해 무
 었이 성취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4) 건축교육위원회에 제시된 새로운 안전내용

① 경험의 공유

② 건축교육에 있어 아이디어의 교환

③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을 어떻게 준

비할 것인가?

④ Networking

⑤ 새로워진 교과과정 내용의 공유

⑥ 건축교육에 있어 협동심을 강화하기

⑦ Setting up Website

⑧ 교수진의 향상

⑨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

⑩ 예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⑪ 중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어서 또 성취할

것인가?

⑫ 실무와 교육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

5) 앞으로의 건축교육위원회 회의 순서 개편

6) ACAE Business Meeting 형식

첫날	오전	ACAE Business Meeting
	오후	ACAE 토론회 (Business Meeting)
둘째날	오전	에서 결정된 안전에 대해)
	오후	아카시아 이사회 참석, 보고

① 참석자: ACAE 회원과 대표회원만 참석

② 안건:

a. 회의 의사록 및 문제의 제기

b. 각 회원국의 보고서

c. 주제에 대한 토론과 다음해의 토론회에 있

어서의 조직과 목차

7) 토론회 회의 형식

① 토론회 주제 결정

② 토론회의 정보중계자 선정

〈정보중계자의 역할〉

• 각 회원국으로 부터 정보를 수집

• 정보분석과 다음해에 개최를 위해 준비

• 정보중계자는 싱가포르의 Milton Tan교수로
 결정됐다.

③ 각 회원국은 학교학생들이나 교육전문가
 들을 토론회의에 초대하도록 하며 비용은 각자 회원국에서 해
 결하도록 한다.

④ 토론회의 전문가를 통해 문제와 논점 등을
 명확하게 이해할 것

⑤ 1998년 스리랑카에서 개최될 토론회의 주제 선정

• 주제는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여 건축가 역할의 개정의”(Re-Defining the Role of Architect to Face the Challenge of the 21st Century)

• 위의 주제에 대해 토론할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주제를 각 회원국에서 제시했다.

- 건축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훈련
- Research & Development
- 건축교육의 연상으로서 건축가의 계속적인

교육

- 새로운 학교교육
- 교육의 전문화
- Information Technology

7. Networking

8. 건축교육 과정(Curriculum)

• 종국적으로 각 회원국에서 투표한 결과 위의 소주제중에서 건축교육과정 (Curriculum)이 다음 토론회 주제로 결정됐다.

⑥ 일정예정표(다음 사항을 정보중계자인 싱가포르 Milton Tan 교수에게 보내도록 함)

• 1997년 12월 25일까지 각 회원국의 학교 교육과정(Curriculum)에 대한 데이터를 완료 할 것.

• 각 회원국에서는 Issue 내용들을 정리한 후 각 회원국으로 1998년 7월까지 보내줄 것

• 1998년 7월에 Milton Tan교수로부터 받은 내용에 대해 각 회원국은 예비 응답을 9월까지 정리하여 다시 TAN교수에게 전달할 것

• 1998년 11월에 스리랑카에서 토론회 시작

이번 건축교육위원회에서는 시종일관 어떤 주제로 논의 되었다기 보다는 앞으로의 교육위원회를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각 회원국 실리적인 도움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절차와 앞으로의 할 일들을 정립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실질적으로 국제회의라는 것이 각 회원국의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 주제로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등의 차이로 해서 그러한 시각에서 문제를 같이 찾는다는 것이 정말 막연한 것이다. 특히 매번 회의에서도 그와 같은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는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고 공동의 ISSUE를 찾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히 보여졌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대는 국제화 즉, 시간의 공유, 정보의 공유, 상소의 공유 등으로 발전되고

있는 시점에 건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우리의 위기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아시아의 건축사회원들이 21세기에 대처 할 수 있는 현주소를 찾아가기로 같은 목소리를 낸 의의있는 국제회의였다.

〈글: 김지덕·백경국/본 협회 국제위원〉

■ 제9회 아시아 건축사회의 포럼

일시: 1997년 9월 22, 23일

장소: 일본 동경 Tokyo International Forum

주제: Architecture of the Future in Asia

언어: 영어, 일어

1. 포럼의 구성

본 행사가 일본건축가협회 10주년 기념행사와 겹쳐서 개최되었으므로 첫째날은 아카시아 포럼과 JIA 대회를 공통으로 치루었고 둘째날에는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첫째날의 행사와 둘째날의 Arcasis Work Session의 진행사항을 요약한다.

〈9월 22일(월)의 행사일정〉

• 개회식

환영사 ... 10주년기념 대회실행위원장 군 사사끼

대회사 ... JIA 회장 노부오 호주미

축사 ... 아카시아회장 수라 위크라마싱

일본 왕세자 다카마도

건설장관 쥬토무 가와라

UIA회장 사라 토펠슨

시상 ... 1997년도 일본건축가협회 신인상

제1회 일본건축가협회25년상

• 기조강연

주제 ... 다중문화와 건축

좌장 ... 히로유키 수주끼 교수

연사 ... 영국 건축가 니콜라스 그림쇼

싱가폴 건축가 테이 캥 슌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

• 저녁 리셉션

〈9월23일(화)의 행사일정〉

• ARCASIA Work Session

주제 ... 아시아 건축의 미래

부주제 ... 고층고밀도 주거

건축가없는 아시아의 도시

Glocal Architecture

함송연

• JIA Theme Forum

건축경제, 정보사회와 다중문화, 도시개발의 철학, 세계화와 고유문화, 표준화와 창조성, CALS와 건축

• Design Forum

30건축가에 의한 100인 회의

• Professional Work Shop

실내환경과 재료, 동경국제포럼의 신기술, 지속가능한 설계 등

2. 개막식 및 거조강연

2.1. 개막행사

포럼행사를 UTA 주재하에 국제현상에 부쳤던 동경포럼 건물에서 개최함으로써 일본건축의 국제적 수준을 널리 홍보하며 동시에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일본 왕세자 부부가 연단 중앙에 자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개회식과 축사후에 있는 일본건축가협회 1977년도 신인상의 시상식이 있었는데 수상자 3명이 모두 40대로서 조로하기 쉬운 우리 건축계의 풍토를 감안하면 신선하고 교훈적이었다. 올해 처음 제정한 일본건축가협회 25년상에는 1956년에 준공된 가가와현의 문화회관이 선정되었으며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모두에게 상이 주어졌고 설계자는 이미 작고하여 그의 아들이 대신 수상하였다.

2.2. 기조강연

수주끼 교수는 발제강연을 통해서 서구화가 바로 근대화로 여겨졌던 오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동양 삼국에서 표방했던 동로서기의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러나 가치관을 분리한 채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문명은 철학적인 배경이 없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건축에 있어서도 기술과 디자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자문하고 있다. 기술의 세계화와 더불어 문화적인 정체성은 상실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화의 사회에서 이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은 선적인 과정속에 보편화의 길을 따르지만 건축은 각각의 장소마다 고유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유문화의 건축적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미래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그림소는 리오 선언에 실린 지구촌의 인간환경의 보존에 대한 주제를 재 음미하였다. 그래서 그는 건축행위에 있어 변화에 대한 유연성, 재료의 재활용과 재회전,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라는 인공환경은 자연환경을 품어야 살만한 곳이 되며 녹지공간이 공적인 수준과 사적인 수준에서 다같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통신의 첨예한 발달이 도시공간의 패턴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살게 된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일 것이다. 공업생산에 의해서 선진국이 부를 축적하던 시기는 지나고 있으며 용역과 아이디어 그리고 창조적인 품목의 교환과 판매에 의해서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장래에는 개발국가와 저개발국간에 상호교류와 전문기술의 이양을 통해 지구 환경의 보존과 돌봄이 실현되리라고 낙관하고 있다.

데이 킵 순은 인간의 행동을 실제로 지배하는 거대한 억압된 저장고로서의 무의식 영역을 인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열쇠를 간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간의 억압된 영역을 회복하려는 섬없는 노력은 불균형의 상태를 그의 존재론적인 조건으로 결정지우고 있다. 서구의 근대주의는 15세기에 이미 이성과 도덕 및 미학의 자율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인간의 에너지를 분출하게 하였다. 17세기로부터 발원하는 생태문화적인 혁명은 물질의 대량 소모를 촉발시켰다. 물질소비의 민주주의는 세계의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다. 후기 근대라는 과도한 개인주의와 주관주의의 산물은 공업적 근대주의의 기술관료적 심성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생을 충만하게 하며 자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유기적 근대주의라는 가치개념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모든 전통문화는 물질주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근대와 전통이라는 이원주의의 수궁은 대중요법일 뿐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소비욕구가 소진되기전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중심성을 이탈한 후천적인 자아는 소비욕구의 충족과 가식을 통해서 보상받으려 한다. 에고는 이탈한 자아의 의식이다. 불교사상과 도가사상은 에고의 버림을 강조한 반면 서구의 가치관은 에고의 진작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축설계문화는 인간의 에고를 진작하는 패션산업과 보도매체가 부추기는 살롱건축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한다면 물질적으로 불리한 사회에서의 물질소비의 충족도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질적인 발전의 주 도구로서의 도시의 존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물질소비 욕구가 소진된 후에야 도시는 해체되어 사람들은 자연속으로 흩어져 살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 전까지 도시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기위한 기계일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도시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1989년에 그가 이끄는 싱가포르 팀이 제안한 바 있는 열대 도시개념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그는 수직 녹지대 형성과 교통유발요인의 최소화를 통해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를 줄이며 지표의 침식을 최소화하는 고밀도의 도시건축 형식을 제안하였다.

안도 다다오도 앞의 연사들과 같이 자신의 작품의 예술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6년 그의 작품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베 지진 때에 화를 면한 그가 설계한 건물 주변의 변동상황을 보여주었다. 심하게 파괴된 그 지역의 환경의 복구를 위해

그가 주도하고 있는 녹지대 그물망 운동의 계획과 실천사항을 보여주었다.

2.3. 저녁 리셉션

저녁 리셉션은 도쿄 포럼 홀 B에서 칵테일 형식으로 해외 참가자와 일본건축가협회 회원들이 같이 어울리는 행사였다. 아카시아 포럼9의 후원자가 BHP Steel Asia이므로 연회행사에는 항상 그 회사대표의 인사가 곁들여진다. 일본건축가협회장, 아카시아회장 및 동경도지사의 인사말이 있었고 초빙된 미국 건축사협회장 Raj Barr-Kumar씨의 치사가 이어졌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관서지방의 민속춤 공연이 있었다. 춤 행렬에 참석자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3. ARCASIA Work Session

3.1. Work Session 1: 고층고밀도 주거의 과제

좌장 ... 이프 시게루 교수

연사 ... Chung Wah Nen(홍콩)

후루야 노부아키 교수

김진애 박사

구라자와 쓰스무 교수(사회학)

Work Session1 담당자인 가토 모모요시는 이 토론회 회기1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발제하였다. 즉 아시아에는 높은 경제성장의 파도가 몰아쳤고 도시화의 속도는 건축의 물량을 증대시켜 고밀도 건축은 전통적인 시가지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대다수의 도시민들은 고밀도의 아파트에 살 수밖에 없으므로 고밀도 건축환경은 생활인의 심리와 생체적인 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 수 있다. 고층고밀도 생활환경은 지속가능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으며 사람들의 결속을 보장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이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Chung Wah Nen씨는 고층고밀도 건축환경의 표본적인 도시라 할 수 있는 홍콩에서 중국적인 생활철학의 배경과 사회적인 면들을 조감하였다. 후루야 교수는 정보화시대의 현상으로서 정시의 직접접촉의 의미가 변질되었음을 중시하고 도시와 사회의 조직이 고정적인 것으로부터 그물망 모형으로 전이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가구와 도로 및 불편한 하부구조와 개개의 건물들로 구성되는 도시의 개념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합적인 3차원의 기능구조를 가지는 새로운 도시의 모형이 실현되리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개념에 따라 고밀도의 수평적 구조를 가지는 동경에 1천미터 높이에 1천 헥타르의 면적과 1천년 존속을 가상하는 이종나선형의 도시건축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구조물안에서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며 30만명 이상의 사람이 취업활동을 할 것이다. 이 모형의 도시에서는 자연의 에너지

가 최대한 활용될 것이며 생산과 소비 및 폐기과정이 복합적으로 증첩된다.

김진애 박사는 한국의 도시들도 다양한 내용으로 고층고밀도의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밀도의 개념이 단순한 물리적 수의 양적인 것에 머무른다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밀도는 그것이 논의되는 지역의 문화와 환경계획의 특수성이 깊이 고려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박사는 자신이 기획한 바 있는 삼성 고층타워계획안과 부산 해안도시개발 계획안을 소개하였다. 도시사회학자인 구라자와 교수는 일본에서의 공공 사회주거의 발전과정을 예로 들면서 주택단지 계획에서의 새로운 근린주구체계와 공동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건물의 유형과 주민들의 사회성 및 접촉빈도 등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물리적 환경에의 적응성과 건축가들의 물리적 환경결정론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3.2. Work Session 2: 건축가 없는 아시아 도시

좌장 ... 이와사기 순주께 교수

연사 ... 호사카 미쯔히코 교수

Anzorena Eduardo Jorge(알젠틴)

P.K.Das(인도)

시게무라 쓰토무

좌장은 30년전에 이미 제기된 바 있는 건축가 없는 건축이라는 주제를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도시상황에서 상당한 부분이 건축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함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도시민의 생활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 부분에 전문 건축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을 환기시켰다. 저소득층 주거개발 전문가인 호사카 교수에 의하면 아시아의 주요 도시인구의 20~50퍼센트가 슬럼지구에서 산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 부분은 공식적인 체계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식적인 건축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일고 있는 도시경제의 세계화와 사회주택 정책의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는 여러 이익집단의 참여를 고무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건축전문가들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가 주도한 바 있는 스리랑카의 슬럼 개발경험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조적으로 안조레나 씨는 소위 불량지구 주민들의 자력에 의한 건축행위를 공식적인 부문이나 전문가들이 상의하달식으로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건축행위는 최소한의 자원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적합한 최대의 효율을 가지는 어느 전문가 집단도 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속가능하고 투자효율적인 개발의 방법은 도시 저소득층이 스스로 그들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기존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적자원이며 주민 자력개발을 돕는 방법은 그들의 실험과 상상력 과정을 고양하기 위

해 가능한 유연하고 바공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스 씨는 그가 체험한 바 있는 몸바이 불량 지구 개발의 예를 들면서 건축의 과정에 대한 교훈을 지적하고 전문가들의 실무행위가 관행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데오로기가 건축의 설계와 미적인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생활공동체 건축의 과정은 그 기획과 계획이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건축의 민주화라고 정의하고 일반 건축과정에서의 새로운 방법적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2차대전후부터 일본의 도시 중심부에 들어선 목조아파트에 대해 검토하였다. 도시화와 더불어 젊은 노동력이 도시에 집중하자 그들의 주거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도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노후를 위한 저층옥구가 맞물려서 주택의 빈공간에 목조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동경과 오사카 같은 대도시 주거의 30퍼센트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동인구가 밀집함으로써 주거지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고 위생과 재난, 구조의 취약성 등의 문제로 인해 반 정도가 콘크리트 구조의 현대식 아파트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거가구의 10퍼센트 정도가 목조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상은 싼 방세와 도시중심부의 위치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떠한 주거형식도 지방으로부터 온 젊은이들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준다.

3.3. Work Session 3: Glocal Architecture

의장 ... 나가시마 고이찌

좌장 ... 이와무라 기쥬오

연사 ... Jumsai Summet(태국)

니시무라 유끼오 교수

Tay Kheng Soon(싱가폴)

나가시마 씨는 이번 아카시아 포럼의 의장이기도 하다. 그는 이 주제를 이미 작년의 바르셀로나 UIA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일본건축가협회 UIA Work Program 'Architecture of the Future'의 간사국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포럼을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1999년 북경에서 열리는 UIA 대회에서 진전된 내용을 개선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그가 이 주제를 전개하는데 있어 Glocal이란 조어가 암시하듯이 세계적 차원(Global)과 지역적 차원(Local)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미래의 건축을 창조해 낼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일반성과 지역차원의 다양성이 상호 교류해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세계차원에서는 생태적인 균형을 취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문화의 영역에서는 전통과 연속성에 대한 재해석과 재정의의 통해서 세계성을 띄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담보하는 건축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 것이다.

좌장 이와무라씨의 주제요약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식민지배, 빠른 공업화와 근대화, 기술과 정보의 세계화 등의 경험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동반한 것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편리함 대신에 문화의 고유성이 희박해지고 온통 높은 에너지소비에 의존하는 천편일률적이고 개성없는 도시환경과 건축물의 탄생이다. 경제적 강화와 더불어 다시 찾게되는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유한 유산과 정체성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지구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생각할 때 환경문제를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거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건축환경에 관한한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관점이 다 같이 개선되어야 할 줄 믿는다.

줄사이씨는 지구상의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 현상에 주목하며 특히 아시아의 도시들에서의 인구증가와 거대도시화 현상 고층고밀도화하는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할 바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도시의 녹지화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건축은 이의 시적인 감성을 되찾아야 하며 고대의 우주적 조화를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교수는 아시아의 각 도시 및 그 인구가 가지고 있는 생활과 관련된 각종 통계치들을 광범위하게 비교함으로써 아시아의 도시의 상황을 파노라마식으로 펼쳐보였다. 그리고 각 나라의 지역적 환경질서에 대한 고유사상과 현대의 정보화 사회의 가치들이 모자이크되어 혼재하는 상태를 보여주었다. 아시아의 각국은 역동적으로 현대화의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 특성을 달리하는 문화의 다양성이 장래의 건축환경을 창출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리라는 것이다.

테이캥 순씨는 현대 아시아의 계층구성에 있어 중산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지만 정보의 소유면에서는 매우 편중되어 있어서 또다른 폭동의 위험이 상존함을 상기하였다. 세계의 정신사에 있어서 물질주의와 반물질주의 흐름은 이즈음에 와서 상호 교차하며 서로를 중화시키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인류의 도시환경 형성에도 어떤 실마리를 잡게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3.4. 환송연

일본건축가협회에서 환송연을 가졌다. 소재 건물은 UIA 4지역을 대표하는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렌수즈씨가 설계한 건물이라 하는데 그가 포르투제 사무실에서 일한 경력에서인지 그러한 체취를 건물에서 느끼게 한다. 회원부인들이 기모노를 입고 고풍스러운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다

도를 시험해 보이고 차를 대접하였다. 부패식 식사가 곁들여지고 이어 각국의 장기자랑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가부끼의 일부를 시험해 보였으며 우리 한국대표들은 회장을 중삼하여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민요 '벚노래'를 합창하였다. 한국대표단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단결도 잘 되었다. 그러나 장기 자랑의 상은 인도에게 주어졌다. 아카시아 회원국 뿐 아니라 움저버로 참석한 베트남, 호주, 초빙된 UIA 관계자들, CAA대표 등도 동참하여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막을 내렸다. JIA 10주년을 축하하는 뜻에서 해피 버스데이를 합창하였다. 일본건축가협회장 부인이 손수 구운 일본과자 한 상자씩이 각 대표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모든 행사의 부산한 면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으며 간결한 배경을 만들고 음식이나 선물 등이 과하지도 않으면서 예의를 갖추고 조용히 매끄럽게 그리고 배움의 장이 되도록 진행하여 무사히 마친 일본사람들의 연출력이 돋보였다. 아카시아의 각 회원국은 앞으로 주관하게 될 행사의 모범을 예시받은 결과가 되었다.

〈글: 이정근/본협회 국제위원장〉

■ ARCASIA Forum 9 건축탐방

1997년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도쿄에서 「Arcasia Forum 9」와 「제10회 일본건축사(JIA)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시아 15개국 회원국이 모여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건축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 및 우정을 나누는 아시아 건축사대회에 우리 대표단(KIRA)은 바쁜 업무도 미루어 단체 Arcasia Council meeting과 Forum 9을 위하여 그동안 정리 준비해둔 자료를 가지고 도쿄로 향하였다. JIA에서는 다양한 행사 Schedule과 반쯤없는 행사준비를 마치고 각국 대표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대표단은 9월 20, 21일 양일간 Council Meeting에 참석하였고 Forum을 통하여 Scope of High-rise High-density Living, Asian Cities Without Architects 및 Scope of Global Architecture 등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이 자국 건축사 및 Arcasia 회원국 회원들과 함께 토의진행 되었다. 공인된 석학들의 열띤 주제발표와 토의가 진행되면서 포럼행사가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Arcasia Forum 9의 마지막 행사로 JIA에서는 도쿄내의 다양한 건축물을 테마로 건축기행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선 각 테마별로 건축기행 내용을 살펴보면

F-1 Sumida와 Kanda강을 따라가며 건축물 탐방을 하는 크루즈여행

F-2 문화유산 건축물과 산업건축물 탐방코스

F-3 Rainbow Town 반문과 Metropolitan

Water Front Subcenter 탐방

F-4 TOKYO내 주거 건축물 방문코스

F-5 환경 친화적 건축물 및 도쿄전력사옥 탐방 등 다섯가지 테마별로 건축기행이 준비되어 있었다.

JIA에서 테마별로 준비한 다양한 건축기행 프로그램은 회원국은 물론 자국 건축사에게도 유익한 건축기행이 될 것이며 차후 대한건축사협회(KIRA)에서도 Forum을 개최할시 유용하게 참고가 될것임이 분명하다.

아직 도쿄의 지리가 밝지 못하고로 도쿄에서 JRE 설계실에 근무하는 한국인 Mr.황의 부언적 설명을 듣고 우리 회원들은 F-3 건축기행을 선택하였고 또다른 몇몇 회원은 F-5 코스를 선택했다.

오전 9시 2대의 버스에 F-3 건축기행 참가자를 싣고 TOKYO International Forum을 출발하였다. 참가자 중에는 자국 건축사와 아시아 회원국 회원이 합승한 관계로 영어 해설팀과 일본어 해설팀으로 나뉘어졌다.

Rainbow Bridge를 건너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장대한 토목교량 구조물을 주의깊게 관찰한후 우리 일행은 Fashion Town에 내려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을 들고 Fashion Town 내부로 들어가자 중앙광장에는 8층 높이의 천장에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었다. 안내 팸플릿을 보니 주변 조명과 폭포수가 이루는 야경이 일품이었다.

8층 Show Room을 둘러보며 산뜻하게 마감처리된 가구 Display에 눈길이 끌렸다.

Fashion Town에서 Tokyo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일명 Big Sight)까지는 연결된 Bridge를 통하여 Exhibition Hall에 들어섰다.

1996년 4월에 개장된 국제전시관은 대지면적 73,000평, 건축면적 43,000평, 연면적 70,000여평으로 입구에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조합 구성하여 8층 높이의 Main Tower가 웅장한 자태로 서있었으며, 상부층에 1만석을 갖춘 국제 회의장을 배치해 놓았다.

전시장은 East EXH. Hall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 복도 길이가 600m이상이나 되어 Moving Way가 보행자 편의를 돕고 있었다.

전시관은 9m×9m 모듈을 택하였으며, East EXH. Hall은 90m×90m 전시관을 조합하여 병렬구성하였다. 대규모 건축물인지라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둘러 보았다. 직선과 사선의 만남, 곡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형태미 등 건축의 구조미와 기하학적 건축미가 돋보이는 첨단 전시시설로 건축계획사에는 배치형태나 해안이 근접하여 재료마감 처리의 문제 등 설계할 당시의 고충들을 직접 건축계획에 참여하였던 건축가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다.

다음 행선지는 후지 TV 방송사 사옥 건축이

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미를 갖춘 후지 TV 방송사 사옥은 Rainbow Town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고속 엘리베이터로 전망대에 올라 오전에 지나온 Rainbow Bridge와 도쿄 시내의 스카이라인을 전망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적 배려가 잘되어 있었다.

건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건물 정면에 놓인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분수는 말없이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바로 인접한 곳의 도쿄 Beach Deck에 도착하여 전문상품판매점을 둘러보았는데 목재를 마감재로써 현대건축물과 접목시킨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마지막 건축 건물인 도쿄 현대 미술관으로 직행하였다. 어느덧 해는 서녘에 걸쳐 있었고 미술관에 도착하니 트러스형 갤러리가 첫 눈에 들어왔다. 구조미가 돋보이는 갤러리를 통하여 전시실로 들어서니 온화한 천정조명시설로서 전시실 분위기가 전시작품의 격을 높여주고 있었다.

전시관을 나서자 어둑해진 도쿄 시내에 하나 둘씩 가로등이 켜지고 차들은 어둑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가에 기대어 도쿄시에 우뚝 서있는 현대 건축물을 머리속에 그려가며 우리것과의 건축적 접목을 생각하여 깊은 상념에 잠겼다.

〈글: 오근석/유진종합건축사사무소〉

■ Tokyo 테마 건축기행 F-5편

「ARCASIA Forum 9」 3일째날인 9월 24일은 주최측이 준비한 F₁, F₂, F₃, F₄ 그리고 F₅ 코스의 건축 답사 Program에 따라 움직이는 날이다. 나는 F₅를 선택하였지만 F₅ 내용에 대하여 사전지식이나 주최측의 설명이 없어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여간 까마귀소리를 위로하고 주최측이 준비한 버스에 올랐다. 이곳에서는 까마귀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아마도 일본의 환경친화적인 정책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한다.

첫번째 답사건물은 「Thermal House」라는 프로젝트로 냉방 및 난방은 태양열을 이용하고 히드레물은 빗물을 저장하여 쓰거나 지하수 물을 사용한다는 집주인의 설명이 있었다.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Energy Saving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

두번째 답사건물은 Ishibash Tokugawa and Associates가 설계한 「Yonezawa Koki Headquarters」로 건물의 개념은 첫 번째 방문지와 같았으나, 냉방은 천정에서 하고 난방은 바닥에서 한다는 관리자의 설명이 있었다. 이 건물 역시 계획적인 측면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생각했다.

세번째는 방문지는 Setagaya Ward+Ichirura Planners & Architect가 설계한 「Setagaya Business

Square」로 노인과 저소득 및 연금수혜자 등을 위한 연립주택 단지이다. 단지내에는 5개동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동의 독립성을 강조한 부대시설 조경, 각동과 각동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brige, 자연스런 단지내 도로, 산책코스 등 계획적인 측면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그 이점을 거주자에게 배풀어 준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풍력계를 이용한 전기발생장치(초속 2~3m 이상이면 전기발생이 가능하다고 함), Solar 시스템, 빗물처리 시스템, 옥상녹지시설을 이용한 채소재배 등 우리 건축가는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그들의 노력과 건축주의 이해가 어렵지만 하다.

점심식사후 네번째 방문지는 Nikkon Sokkoi가 설계한 「Tokyo Gas Earth Port」 건물을 방문하였다. 도로 레벨을 이용한 건물배치, 일본의 전통적인 선을 도입한 메스 계획, 계단과 조경을 이용한 자연스런 접근, 공간의 자연스런 변화유도, 일반적인 사무실 구획을 넘어서 평면계획, Outdoor Space와 Indoor Space의 개념이 교차하는 계단, 날을 것 같은 옥탈 지붕선... 설계의 기본개념과 목표는 'Energy Saving, Long Life & Amenity'라는 설계자와 설명이 그대로 부합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기서도 계단실 상부에 까마귀가 앉아서 즐거운 듯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지막 방문지는 Daiichi-Kobo Associates가 설계한 「동경 전력기술개발」 빌딩을 방문하였다. 지하1층, 지상1층의 건물로 F₅코스중 가장 큰 건물이었으나 담당 안내자의 설명은 이 건물의 건축적인 접근에서의 이해보다는 Energy Saving 측면에서의 물리적인 설명으로 일관되었다.

이중 유리안에 브라인드 설치를 인한 태양광선 조정, 지하층 열조로 이용한 냉난방 등... 설계자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나에게서 못내 아쉬웠다. 주어진 짧은 시간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했던 노력이 어느 정도는 채워진 느낌을 받으며 Forum 9으로 돌아오니 까마귀가 반기고 있었다.

〈글: 안종성/메지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 ·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Value-Added Taxing on Design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황용현 / 본 협회 업무지도공인회계사
by Hwang Yong-Hyun

I. 자유직업인 부가가치세 과세의 개요 및 배경

최근의 경제적 국난은 일반 국민 특히, 사업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업자가 받는 고통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세정분야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최근 IMF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흑자재정의 기초를 이루기 위한 세제개혁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개혁 방향의 핵심은 간접세(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인 담세자가 다른 국세)의 확대 및 직접세의 과세기반 확충이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수입증 가장 큰 부분이 부가가치세이며 간접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세율의 인상 또는 면세범위의 축소이다. 당초 IMF의 요구는 태국과 멕시코의 경우처럼 세율을 인상(10%→11%)하는 것이었으나 세율인상이 미치는 경제적·행정적·심리적 영향이 커서 정부에서는 세율인상의 정책을 철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 같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기초생활필수 재화·용역, 국민후생용역, 문화관련 재화·용역, 부가가치 생산요소 관련 재화·용역, 근로유사 인적용역 및 기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중 부가가치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주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전문직종 등의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다.

98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예정 전문직종

- 건축사 및 기술사·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 학원·기타의 인적용역

이처럼 그동안 면세된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세무처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조세저항이 발생돼 일부가 사업자에게 전가되면서 결국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

II. 면세폐지가 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

면세폐지가 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관련 행정의 복잡성 증대, 수익성 저하 및 이중 가격의 발생 등으로 볼 수 있다.

1. 세무관련 행정의 복잡성 증대

(1) 세무조사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사가 시행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 중에는 부가세 감정조사가 있는 바, 이는 도표와 같은 업종별 부가율의 관리에 따라 부가율이 저조한 업체에 대하여 조사가 시행된다.

$$\text{부가세} = \frac{\text{매출액} - \text{매입액}}{\text{매출액}} \times 100$$

한편 정기 법인세조사의 경우에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누락이 지적되더라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만 추정되었으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세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2) 세무신고

면세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설계·감리수입)을 매년 1회(익년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보고서에 신고하였으며 법인의 경우 별도의 수입금액 신고절차가 없이 매년 3월 법인세신고만 하면 되었으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법인의 구별없이 1년에 4회의 수입금액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를 도표와같이 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가세 납부무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 분	적 용 기 간	신고(납부)기한
1기예정신고(납부)	1월~3월	4월 25일
1기확정신고(납부)	4월~6월	7월 25일
2기예정신고(납부)	7월~9월	10월 25일
2기확정신고(납부)	10월~12월	1월 25일

(3) 자료 전산처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제출되면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와의 제출내역이 상호검증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의 경우 그 제출의무가 1년에 1회이고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므로 그동안 상호검증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 제출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상호검증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져서 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요구가 빈번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한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내부관리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따라 건축사의 내부관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다 철저해야 할 것이다.

가. 자금계획

건축사의 자금계획에 부가가치세 납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회사의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보다 많게되므로 회사의 자금지출사 빈번하게 돌아오는 부가

가치세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제 및 계획이 필요하다.

나. 계약서 관리

그동안에는 설계 및 감리계약서상에 대금 수취조건이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대금수취일자 및 계산서 발행일자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다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총액과 발행된 계산서상의 금액의 합계액이 일치되고 연도별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틀리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없었지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일자와 계약서상의 대금수취조건이 일치하도록 변경계약서의 작성을 습성화 해야한다.

- 설계 및 감리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금이 수취되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청구)가 전부 발행되어야 한다.

- 가급적이면 실제 대금수취와 관계없이 계약서상의 조건이 성취되면 세금계산서(청구)는 발행하도록 한다.

- 6개월미만의 설계·감리용역은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위배할 경우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계약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변경계약서 작성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 세금계산서 관리

매출세금계산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사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매입부가세는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되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익성 저하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부가가치 세법상의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경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 또는

〈과세와 면세의 세부담 비교〉

구 분	면세(현재)	과세(변경)
매 입	1,000	1,000
매 입 세 액	100	100
지 급 금 액	1,100	1,100
매 입 원 가	1,100	1,000
부 가 가 치	500	500
매 출	1,600	1,500
매 출 세 액	-	150
소비자의 구입금액	1,600	1,650
납 부 세 액	-	50
사업자의 순현금	500	500
정부의 세수 (부가가치세)	-	50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게 하고 나아가 단일세율로 운용되는 부가가치세에서의 소득에 대한 간접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분석하면 도표와 같다.

상기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의 경우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순현금(판매금액-지급금액-납부세액)은 동일하며 정부의 세수는 증가되고 동 금액만큼 소비자의 지출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종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세로 인해 증가되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추가지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증가된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세금의 전이현상을 유발하게되므로 결국 과세로 변경되면 건축사의 입장에서는 증가된 부가가치세만큼 수익성이 저하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택위주의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경우와 연세사업자가 건축주인 경우에는 즉시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일반사업자가 건축주인 경우에도 세금의 전이현상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결

국 전체적인 건축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다.

3. 이중가격의 발생

현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유형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1년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자세한 내용은 후술)로 구별하고 있다. 이중 법인사업자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부가가치세도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율의 10%(간이과세자) 및 2%(과세특례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바 동일한 조건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축사의 과세유형에 따라 건축사의 수익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가가 달리 책정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중 가격의 형성은 그렇지않아도 가격경쟁이 치열한 건축사업계에 추가적인 문제점을 줄 수 있다.

사업자의 유형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1.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특례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년도 1억원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고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직전년도 1억원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2.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공급대가
3. 세율	10%·0%	업종별 부가율×10%·0%	2%·0%
4. 거래징수	외무있음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5.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능하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
6.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업종별 부가가치율×10%	과세표준(공급대가)×세율(2%·3.5%)
7. 예정신고납부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자진 신고납부단, 1억5천만원미만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예정고지단, 납부세액 24만원미만 예정고지 생략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 예정고지단, 납부세액 24만원미만 예정고지 생략
8. 매입세액계산서 등	매입세액으로 공제	매입세액의 일정율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초과 : 20% 업종별 부가가치율 20%이하 : 10%	매입세액의 10%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
9. 표준신고율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대상이 아님	표준신고율 이상으로 과세표준신고시 경정배제
10. 미등록가산세	개인 : 공급가액의 1% 법인 : 공급가액의 2%	개인 : 공급대가의 1%	개인 : 공급대가의 0.5%
11. 소액징수부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대상이 아님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12.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장부에 의하여 기장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같음

(*) 상기에서 세율이 0%인 경우는 외국에 설계용역을 제공할 경우임.

III. 건축사사무소의 부가가치세 실무요령

1.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라 함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부가가치를 남겨하는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 및 기업경영)의 대가인 임대료·급료·이자와 이윤 등을 합계한 금액이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기업의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공제하면 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이다.

2. 사업자의 유형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는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별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며 과세유형별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3.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과세표준의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도표와 같다.

구 분	과 세 기 간
일반적인 경우	- 제1기 :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4. 공급시기

공급시기라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시기를 말하며 설계·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용역이 완료된 때이다. 그러나 계약서상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의 형식으로 대금을 수취하는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기준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영세율

부가가치세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

정책 등의 이유에 의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세율 제도이다. 설계·감리의 경우 외국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면세와는 달리 매입부가세는 환급이 된다.

6.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으로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표준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이때 유의할 점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만약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할 경우 시가로서 과세된다는 것이다.

7. 세 율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영세율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다.

8.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할 세액을 말하며 이때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계산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매출세액} \dots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 & \text{매입세액} \text{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세액} \\
 & \quad \text{금전등록기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
 & \quad \text{이면확인세액} \\
 & \quad \text{대손세액} \\
 & \quad \text{재고매입세액} \\
 \hline
 & \text{납부세액} \\
 (+) & \text{가산세} \\
 \hline
 & \text{차·기감납부(환급)할 세액}
 \end{aligned}$$

매출세액은 설계·감리용역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이 되며 가산세는 뒷장에서 설명하므로 여기서는 주로 매입세액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1)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재화나 용역을 구입 또는 사용하고 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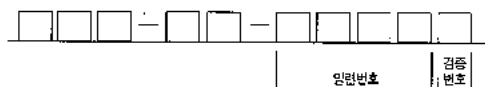
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건축사사무소가 다음의 지출을 하고 받는 세

구 분	내 역
• 외주거공비	다른 건축사사무소 및 기술사사무소에 외주를 주고 지출한 비용
• 비품구입비	비품구입, 인테리어설치 및 CAD등의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용
• 지급임차료	월세로 납부하는 임차료 및 관리비
• 소모품비	설계·감리에 필요한 종이 및 필기구 구입비용
• 복리후생비	직원회식 및 종업원 복리후생 비용
• 기타	업무와 관련된 비용

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된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중 세금계산서로 수취된 부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하며 현실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되어 지출되었다라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과세특례자나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며 또한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매입세액 공제가 없다. 참고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유형을 알 수 있는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상기 일련번호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는 0001~5999이며 일반 과세자는 6000~9999이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일련번호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나.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세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로 합계하여 작성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② 세금계산서의 미수취·부실기재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자기
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지출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④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배기량 800cc이하의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특별소비세가 붙지 않는 티코이외의 출퇴근용 및 업무용승용차 모두가 해당된다. 이러한 승용차의 취득시 또는 차량유지비, 수선비 및 주차료등의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

⑤ 점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점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등록전 매입세액

건축사사무소가 개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이면확인 매입세액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거래상대방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3) 대손세액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의 파산·강제집행등의 사유로 설계·감리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왕에 발생된 매출채권(부가세포함)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사망, 실종신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일반적으로 외상채권은 3년임)

•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4) 재고매입세액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었던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비품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종 류	적 용 범 위	적용금액	가 산 세		비 고
			개 인	법 인	
① 사업과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1/100	2/100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1% • 과세특례자 공급대가 0.5%
② 세금계산서 등 관련 불성실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1/100	2/100	
㉠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1/100	2/100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공급가액	1/100	2/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이면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된 지연제출가산세	확인을 거쳐서 제출할 경우				
③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 ·	공급가액	1/100	2/1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공급가액	1/100	2/10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기재불				
기재불성실 등 가산세	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	5/1,000	10/1,000	
지연제출가산세					
④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불성실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공급가액	1/100	2/100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아니하고 경정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공급가액	1/100	2/100	
의 기재불성실 등 가산세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기재불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성실 및 사실과 다른 경우				
과다신고가산세	•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신고된 때	공급가액	1/100	2/100	
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	1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 과소납부	납부세액	10/100	10/100	
⑥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 미달신고	공급가액	1/100	1/100	
	•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공급가액	1/100	1/100	
⑦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①적용되는 부분에 ②·③적용 배제 • ③적용되는 부분 ② 적용 배제 • ⑤·⑥의 경우 예정신고 적용분 확정신고시 적용 배제 • ⑤의 적용 중첩 · ㉠동시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 같은 경우 ㉠ 적용				

9.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의 종류는 위 표와 같다.

10. 사례연구

○ 매출세액의 계산 : 1,000 + 2,000 +

$$5,000 = 8,000$$

○ 매입세액의 계산 :

• 공제가능매입세액 : 200 + 1,500 + 20

$$= 1,720$$

• 공제불가능 매입세액 : 1,200 + 5 =

$$1,205$$

〈사 례〉

(주) 홍길동 건축사사무소의 98년 2기 확정신고기간(98.10.1~98.12.31)동안의 매출, 매입 및 부도채권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99. 1. 25까지 신고·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매출현황

일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비 고
98. 9.30	10,000	1,000	11,000	2기에정신고누락분
98.10.15	20,000	2,000	22,000	
98.12.31	50,000	5,000	55,000	

○매입현황

일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비 고
98.07.02	2,000	200	2,200	2기에정신고누락분(소모품비)
98.10.10	15,000	1,500	16,500	외주가공비
98.11.25	12,000	1,200	13,200	소나타승용차 구입
98.12.24	50	5	55	접대비
98.12.30	200	20	220	직원전체회식비

○부도채권 현황

세금계산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대가	부도일자	비 고
98.04.05	12,000	1,200	13,200	98.05.30	외상채권
98.05.02	10,000	1,000	11,000	98.06.15	어음채권
98.06.30	20,000	2,000	22,000	98.07.30	어음채권

○ 대손세액공제
- 98. 6.15 부도난 어음채권만이 대손세액공
제됨
- 부도발생일(98. 6.15)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된 날(98.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
함
- 외상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대손세액 : 1,000
○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
세 : $10,000 \times 10/100 = 100$ - 신고(납부)불상실 가산세 :
 $1,000 \times 10/100 = 100$
- 가산세 합계 : $100 + 100 = 200$
○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매출세액 8,000
- 매입세액
• 매입세액 총액 2,925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1,205
• 대손세액공제 (+) 1,000 2,720
- 납부세액 5,280
- 가 산 세 200
- 차감납부할세액 5,480

Ⅳ. 향후대책 및 기타 고려사항

1. 계약서 작성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199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98년 2월에 개정세법이 임시국

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가 미정이지만 다음중 어느 하나가 시행시기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다.

- 98년 이후 대금수취분부터 적용
- 98년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
- 98년 2월 법 개정후 계약분부터 적용

현재로서는 98년 2월 법개정후 계약분부터 또는 98년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많으며 97년에 계약을 하고 98년에 대금수취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98년 계약예정인 것을 97년으로 소급하여 계약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98년 이후 계약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여 건축주와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2. 면세범위 유지

바록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현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0조 ①항 1호에는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이는 국가정책상 목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줌으로써 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취지하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용역에도 면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의 입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고 현재 건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세대·다가구·연립 및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용역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져서 과세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자등록 신청

현재로서는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유동적이긴 하지만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시설투자가 적고 건축주가 주로 주택 등의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 시설투자가 많거나 건축주가 주로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의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한다.

4. 법인전환

건축사사무소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폐업을 해도 건축주가 양해를 할 경우 세무상의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속성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의 실체가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도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금번의 과세전환으로 법인전환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욱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법인전환방식은 반드시 사업의 포괄 양도·양도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이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경우 폐업시의 잔존재고(비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법인전환일(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개인사업자의 폐업계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5. 세무행정부담의 완화

현재는 개인건축사사무소가 설계·감리비를 수취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를 당하지만 이는 주로 면세사업자에게 해당되므로 과세로 전환되면 원천징수조항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주택 등의 설계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세금계산서발행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세무행정부담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관련 문의처: 선진회계법인(Tel:558-4642)

공인회계사 황용현)

협회소식 / 92

건축계소식 / 94

해외공모전 / 98

현상설계경기 / 104

계획작품 / 113

게시판 /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8

신입회원 / 120

97년도 건축사지 총목차 / 122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개최

「'98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유보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변경
협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8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13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
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98년도 제1회 이사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98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일자 및 장소 변경의 건

- 당초 오는 4월말 개최키로 된 '98전
국건축사대회 개최(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현 국가경제의 어려움
을 감안해 유보키로 함. 단, 개최시
기 및 방법,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국건축사대회집행위원회에
서 재검토키로 함.

- 제2호의안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
인건비 기준변경(안) 승인의 건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제26조 규
정에 의거 1998년도 건축사 및 건
축사보의 인건비 기준액을 엔지니어
링사업 노임단가와 동일하게 적용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원안대로
승인함. 단, 시행일자는 98년 1월 1
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함.
- 제3호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
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협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사무기구의 전문화를 목표로 직제
및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현 1실1처4부12과1연구
소 체제의 본회 기구조직을 2본부
(기획운영/사업관리) 4실(기획조정/
건축행정/정보관리/시험관리) 9팀
(기획/홍보·편찬/총무/기획운영회
계/기술·법제/회원지원/경력·등
록관리/정보·전산/사업관리회계)
1연구소(건축연구소) 1교육원(교육
연구원)체제로 개편하고 직원정원은
현 79명에서 68명(사무기구 60명,
건축연구소 7명, 건축교육원 1명)으
로 조정>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

(단위 : 원)

구 분	직접인건비		인상률 (%)	학력 및 경력의 기준			비 고
	현	행		학 사	전문대졸	공 고 졸	
건 축 사	153,805	186,816	21.5	-	-	-	기 술 사
건축사보(고급)	111,484	117,410	5.3	10년이상	12년이상	14년이상	고급기술자
건축사보(중급)	90,147	97,488	8.1	5년이상	7년이상	9년이상	중급기술자
				10년미만	12년미만	14년미만	
건축사보(초급)	63,872	69,405	8.6	5년미만	5년이상	7년이상	초급기술자
					7년미만	9년미만	
보 조 원	55,263	60,249	9.0	-	5년미만	7년미만	중급기능사

• 제4호의안 : 직원 직급구분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일반직의 경우 1급급 직책인 처·실·국장을 본부장/국장으로, 현 1급을 직책인 국장/부장을 국장/실장/부장으로 직급을 각각 구분하여 조정하고 일반직 2급 과장이하와 기능직, 연구직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함)

• 제5호의안 : 직원보직 변경 승인의 건

-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규정 제19조에 의거한 직원 보직변경을 회장 및 김무언 부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 제6호의안 :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직제 및 사무기구가 본부장 중심제로 개편됨에 따라 회장 결재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중심으로 하향조정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 6~7단계의 결재체계를 회장 - 본부장 - (실장) - 팀장 - 팀원의 4~5단계 결재체제로 간소화 함)

신년 교례회 개최

희망찬 새해출발 다짐후
'건축교육원 현판식' 가져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임원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98년도 신년 교례회」를 갖고 새해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비록 경제난으로 협회는 물론 회원사들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원 모두가 힘을 합해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협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난관을 헤쳐나가자고 다짐했다.

또 임원들은 신년교례후 협회 회관 1층 로비에서 올해 새로 개원하는 '건축교육원' 현판식을 가졌다.



신년교례회 광경



건축교육원 현판식 광경(좌로부터 박경환 상근부회장, 김영수 회장, 건설교통부 유준석 건축심의관, 이세훈 부회장, 김무언 부회장)

서울건축사회,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시행

1월말 현재 서울 회원 1천7백여명
지역감리사무소 가입

지난 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 소형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 분리제도가 시행되었다.

4층 이하, 1천㎡이하의 소형건축물에 한해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맡는 이 제도는 지난해 서울시건축사회 정기총회에서 의결 통과된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공사감리 운영지침 및 운영세칙'에 따른 것으로 시행개시년도에 한해 지역건축사회 소속의 회원 누구나 해당 지역감리사무소에 가입해 새제도에 의거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지난 1월말 현재 각 지역감리

사무소에 가입한 서울회원은 총1천 7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설계 및 감리계약분(98년 2월 1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소속 지역건축사회로 사전수탁신고하는 경우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시행일 이후 3개월까지 (98년 4월 30일)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수행할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 시작

협회소식 및 회원동정 담은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

우리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작년 10월 14일 개통하여 2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1월5일부터 정식 개설했다. 협회소개와 최신정보, 공개강좌·게시판, 자료실 및 관련사이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는 접속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내려받거나 자신의 자료를 게재할 수도 있으며 특히 건축사사무소와 시공사, 각종 교육기관 등 관련 사이트들이 연결되어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협회는 앞으로 각종 공지사항이나 건축자재정보, 건축관련 법령정보 등 더욱 다양한 내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인터넷주소는 <http://www.kira.or.kr>이다.

제7회 부산건축사화우회展 열려

부산건축사회 소속 미술동호인 작품 전시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미술동호모임인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 '예당'에서 7번째 회원작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8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시회를 갖고 작품집을 발간해온 부산건축사화우회는 현재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22명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도 회원들이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이 그려온 유화, 수채화 등의 미술작품 19점을 선보였다.

화우회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회원은 전화 051-552-2023 또는 051-809-6969로 문의하면 된다.



허경원화원작 '홍포공경'



안광모화원작 '수향'

건축계소식 archi-net

삼우설계, 세계 14위 설계사무소에 선정돼

영국 WA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설계사무소' 중 상위 랭크

삼우설계가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유일하게 영국의 유명 건축전문지인 World Architecture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사사무소에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WA誌는 지난 98년 1월호 특집에서 지난해의 매출실적과 설계조직력 등을 분석한 자체조사자료를 근거로 각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삼우설계가 세계 14위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선정됐다.

국내업체가 세계 500대 설계사무소에 포함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세계 열네 번째라는 상위 랭킹은 이제 우리 건축설계업체도 세계 굴지의 설계사무소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뜰이나 IMF로 얼어붙은 국내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14위라는 순위는 일본의 건축사사무소가 10위권내에 3개업체나 랭크된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중에서는 4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WA誌 선정 1위는 700명의 건축사를 거느린 미국의 HOK社(97년 매출액 1억6천만 달러)가 차지했으며 2위는 Gensler(미국), 3위는 日建設, 4위는 가자마디자인(이상 일본), 5위는 NBBJ(미국)가 각각 선정됐다.

WA誌는 또 이번 조사에서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업체로 日本設計(일본)를 지목하였는데 이 업체는 1억 2천만달러의 전체매출액중 65%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誌 선정 세계 10대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사무소명/국적	건축사수(명)	97년매출액(\$)
1	HOK(미국)	700	1.4~1.6억
2	Gensler(미국)	685	1.6~1.8억
3	日建設(일본)	684	1.8억+
4	가자마디자인(일본)	648	1.8억+
5	NBBJ(미국)	557	1.0~1.2억
6	RTKL(미국)	425	0.6~0.8억
7	SWECA AB(스웨덴)	420	1.8억+
8	Lockwood Greene(미국)	417	1.8억+
9	SOM(미국)	400	0.8~1.0억
10	日本設計(일본)	350	1.6~1.8억
14	삼우설계(한국)	319	1.0~1.2억

포스에이씨,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2등 당선

지난 1월 13일 다카시 세네갈외무부에서 시상식 개최

지난 1월 13일 세네갈 다카시 세네갈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시상식에서 (주)포스-에이.씨 심인보회원이 영예의 2등상을 수상했다. Abdou Diouf 대통령 등 세네갈정부 주요인사와 유네스코책임자, 각국 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김민국 주세네갈대사관 부영사가 심인보회원을 대리해 세네갈 국회의장으로 부터 상장과 함께 상금 F.CFA15,000,000(미화 약 3만불) 및 기념상품을 수여받았다.

(주)포스-에이.씨는 지난해 세네갈 정부가 세계건축가연맹과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다카시 마들레인만에 아프리카인들의

제7회 부산건축사화우회展 열려

부산건축사회 소속 미술동호인 작품 전시

부산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의 미술동호모임인 부산건축사화우회(회장 김종문)가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건축사회관 전시실 '예당'에서 7번째 회원작품전을 개최했다.

지난 89년부터 매년 한차례씩 전시회를 갖고 작품집을 발간해온 부산건축사화우회는 현재 부산건축사회 소속의 건축사 22명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도 회원들이 바쁜 업무속에서 틈틈이 그려온 유화, 수채화 등의 미술작품 19점을 선보였다.

화우회 입회를 희망하는 건축사회원은 전화 051-552-2023 또는 051-809-6969로 문의하면 된다.



허경원화원작 '홍포공경'



안광모화원작 '수향'

건축계소식 archi-net

삼우설계, 세계 14위 설계사무소에 선정돼

영국 WA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설계사무소' 중 상위 랭크

삼우설계가 국내 건축사사무소로는 유일하게 영국의 유명 건축전문지인 World Architecture誌가 선정한 세계 500대 건축사사무소에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WA誌는 지난 98년 1월호 특집에서 지난해의 매출실적과 설계조직력 등을 분석한 자체조사자료를 근거로 각국의 건축설계사무소의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이 중 삼우설계가 세계 14위의 건축설계사무소에 선정됐다.

국내업체가 세계 500대 설계사무소에 포함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세계 열네 번째라는 상위 랭킹은 이제 우리 건축설계업체도 세계 굴지의 설계사무소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가뜰이나 IMF로 얼어붙은 국내 건축설계업계의 경쟁력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더욱이 14위라는 순위는 일본의 건축사사무소가 10위권내에 3개업체나 랭크된 점을 감안하면 아시아권중에서는 4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WA誌 선정 1위는 700명의 건축사를 거느린 미국의 HOK社(97년 매출액 1억6천만 달러)가 차지했으며 2위는 Gensler(미국), 3위는 日建設, 4위는 가자마디자인(이상 일본), 5위는 NBBJ(미국)가 각각 선정됐다.

WA誌는 또 이번 조사에서 해외진출이 가장 활발한 업체로 日本設計(일본)를 지목하였는데 이 업체는 1억 2천만달러의 전체매출액중 65%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誌 선정 세계 10대 건축설계사무소〉

순위	사무소명/국적	건축사수(명)	97년매출액(\$)
1	HOK(미국)	700	1.4~1.6억
2	Gensler(미국)	685	1.6~1.8억
3	日建設(일본)	684	1.8억+
4	가자마디자인(일본)	648	1.8억+
5	NBBJ(미국)	557	1.0~1.2억
6	RTKL(미국)	425	0.6~0.8억
7	SWECA AB(스웨덴)	420	1.8억+
8	Lockwood Greene(미국)	417	1.8억+
9	SOM(미국)	400	0.8~1.0억
10	日本設計(일본)	350	1.6~1.8억
14	삼우설계(한국)	319	1.0~1.2억

포스에이씨,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2등 당선

지난 1월 13일 다카시 세네갈외무부에서 시상식 개최

지난 1월 13일 세네갈 다카시 세네갈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고레기념관 국제현상설계 시상식에서 (주)포스-에이.씨 심인보회원이 영예의 2등상을 수상했다. Abdou Diouf 대통령 등 세네갈정부 주요인사와 유네스코책임자, 각국 외교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김민국 주세네갈대사관 부영사가 심인보회원을 대리해 세네갈 국회의장으로 부터 상장과 함께 상금 F.CFA15,000,000(미화 약 3만불) 및 기념상품을 수여받았다.

(주)포스-에이.씨는 지난해 세네갈 정부가 세계건축가연맹과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다카시 마들레인만에 아프리카인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건립코자 실시한 고려키념관 국제현상설계에서 세계 각국의 건축가들과 경쟁을 벌여 당당히 2등에 당선됐다.

서울건축학교 98년도 건축가세미나 및 정기강좌

정기강좌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
까지 주1회 열려

서울건축학교에서는 오는 2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기강좌 및 건축가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건축학교가 98년도 제2쿼터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하는 이번 정기강좌에는 조동일(서울대 국문과), 이애주(서울대 무용과),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등 각 분야별 강사들이 '한국학'을 주제로 강좌를 열어 2월과 3월에는 4회에 걸쳐 김영섭, 김인철, 김현, 손학식, 와르 키시(일본), 티치난(대만)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건축가세미나가 펼쳐진다.

수강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서울건축학교(종로구 원서동 김수근문화재단 내)로 하면 된다.

문의 : 763-0471, 747-3046

■ 정기강좌

2. 27(금) / 조동일(서울대 국문과 교수) / 우리 학문의 길
3. 6(금) / 이애주(서울대 무용과 교수) /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춤
3. 13(금) / 이견웅(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노동은(목원대 음악대학 교수) / 한국음악 미학사
3. 19(목) / 최영준(고려대 지리학과 교수) / 한국인의 전통적 국토관
3. 27(금) / 안규철(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 현대조각

의 이해

4. 3(금)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 지식정보사회와 기술문화
4. 10(금) / 조혜정(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성례(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 한국학의 해체와 재구성, 탈식민주의와 정체성 정치

■ 건축가세미나

2. 24(화) / 김영섭 / 전통미학과 모더니즘
3. 24(화) / 김인철 / 없음의 미학
3. 10(화) / 김 현 / 프로그램을 통해 읽혀지는 추상성의 코드들
3. 17(화) / 손학식 / 와르 키시(일본) 티치난(대만)

■ 건축기행

기행1 / '98. 2. 28 ~ 3. 1

기행2 / '98. 4. 4 ~ 4. 5

경기대 건축대학원, 국내최초 건축전문대학원에 선정돼

건축설계분야 교수 임용계획 공고

지난 95년에 설립돼 건축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온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교육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건축분야 설계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원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경기대 건축대학원은 앞으로 전문학위인 건축학석사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경기대 건축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건축비전공자를 대상으로한 3년제 과정 17명과 건축관련학과 전공자 대상의 2년제 과정 33명 등 총 50명으로 각각 90학점(116시간)과 60학점(84시간)의 규정 이수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수업은 학부전임교수 및 건축대학원 교수, 겸임 및 석좌교수, 초빙강사 등 30여

인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맡아 주간 스튜디오 운영방식으로 진행하며 방학기간 4~6주동안은 2~3회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경기대는 이번 건축전문대학원 인가에 따라 모두 4명의 건축설계분야 교수를 초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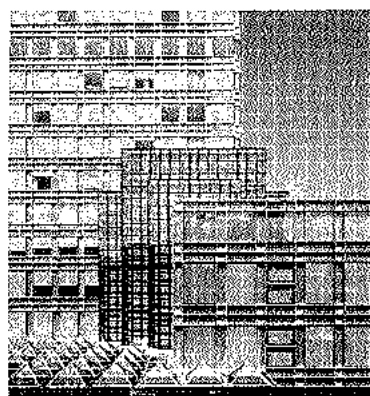
응모자격은 사립학교 교수임용 및 경기대대학원 교원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대학설계교육 또는 건축설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서류접수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곧 신문공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나 모든 신입교수는 3년계약제로 임용해 해당년도에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용시기는 98년 3월 1일이고 연구실적(작품실적) 목록과 학력 및 성적증명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서류를 갖춰 수원캠퍼스 교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학부(02-390-5245~6)

김태오 건축사진전

2월 9일부터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사롱」에서



건축사진작가 김태오씨가 자신의 두 번째 개인작품전 「건축 속의 풍경전」을 연

다.

오는 2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후지포토사롱」에서 열릴 이번 사진전에서는 사진작가로 10여년의 외길을 걸어온 김태오씨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30여점의 건축풍경 사진들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이 전시회는 순수 사진적 측면보다는 오늘날 우리 주위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건축물과 그에따른 풍경의 변화를 포착해 잘못된 건축시각을 교정하고 또한 좋은 건축물이 주는 인위적 풍경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풍경 사진의 한 장르로 개척해 나가려는 작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작가 김태오씨는 홍익대에서 사진디자인을 전공하고 월간 플러스 사진부장을 거쳐 현재는 간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공간지 자문위원과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디자인과 강의를 맡고 있다.

문의 : 간스튜디오 02-579-1175.

후지포토사롱 02-266-3722

김재경 사진전 "자연과건축"

「인덕코화랑」에서 2월2일부터 10일까지



10여년전부터 주로 충청·전라·경상도를 무대로 가옥과 절, 서원 등의 고건축 사진을 찍어온 김재경씨가 첫 번째 개인

사진전을 연다.

오는 2월 2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덕코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자연과 조화된 우리의 옛 건축물을 촬영한 흑백사진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들 흑백사진들은 대형카메라의 8×10인치 필름으로 제작된 말착프린트들로 미세한 질감과 풍부한 톤의 계조(Tone Gradation)를 통해 사진속 고건축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식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줌으로써 서구식주택에 길들여져 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옛공간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 김재경씨는 월간 플러스 사진기자를 거쳐 현재는 건축사진 전문 사진가로 활동중이다.

문의 : 인덕코화랑 02-738-5075

건축신소재

「자옥산 황토방 온돌믹스」
철골내화페인트 「화이어콘트롤(FIRE CONTROL)」
건축계획 프로그램 「AutoPLAN」

■ 자옥산 황토방 온돌믹스



최근들어 황토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게 알고있는 가운데 일반 모래보다 축열 능력과 열전도율이 높고 인체건강에도 유익한 황토 온돌믹스 자재 신상품이 나왔다.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옥산세라믹스는 초전도체 성분이 함유돼 있는 이

제품이 방전체의 온도분포를 일정하게 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인체노화를 촉진하는 과산화지질의 독소를 제거시키는 카탈라아제가 함유돼 있어 인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운석과 같이 반외암이 7배수로 농축된 물질이어서 축열효과가 클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를 끼는 것으로 알려진 수맥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고 자석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 원격외선 공명파장이 인체 깊숙히 스며들게 해 모세운동을 강화하므로써 고혈압이나 중풍, 관절염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자옥산세라믹스가 지난 92년에 개발해 특허출원한 이 제품은 밤 자갈 형태로 가공돼 판매되며 2cm두께의 초벌황토와 3cm두께의 마감재 황토에 맥반석을 30% 함유시켜 약 6cm로 시공하도록 돼 있다. 평당 단가는 6만2천5백원.

문의 : 자옥산세라믹스

(Tel : 0584-52-8830)

■ 철골내화페인트 - 「화이어콘트롤(FIRECONTROL)」



철골내화페인트를 적용한 「울산 삼성정밀화학」

하이템(주)가 국산재료를 사용해 국내최초로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는 화이어콘트롤(Fire Control)은 무기질 수용성 재질의 제품으로 냄새나 독성이 없을뿐 아니라 시공시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환경친화성을 지닌 철골내화페인트이다.

하이템(주)측은 특히 기존의 철골내화페인트들이 1층 공장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의 철골보나 기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화이어콘트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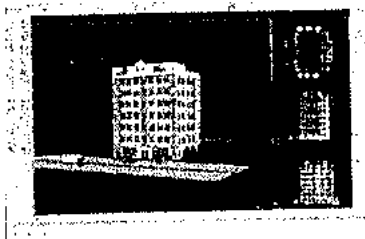
철골내화페인트로서는 유일하게 모든 건축물의 철골보 및 기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립건설시험소로부터 국내 최초로 내화구조지정을 받은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강한 접착력과 높은 밀도를 유지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의한 탈락이나 부서짐이 없고 외관이 미려해 별도의 외부마감재가 필요없는 것이 특징으로 내화성능에 있어서도 모든 내화구조지정 시험에서 뛰어난 성능을 입증해 화재시 유독가스나 연기가 방출되지 않고 발포성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불연재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문의 : 하이템(주)

(Tel : 02-535-7230)

■ 건축계획프로그램 「AutoPLAN」



「Auto PLAN」의 루시도 기능(render, bmp)

지금까지 2차원 도면만을 주로 작업하던 건축CAD를 건축계획분야에까지 폭넓게 적용시킨 프로그램이 나왔다.

(주)부림캐드네트워크가 개발한 건축계획프로그램 「AutoPLAN」은 중소 건축설계사무소들이 그래픽 전문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는 한 건축계획과 3차원 루시도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작업수행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건축법규 검토, 건폐율 및 용적률 계산, 주차소요대수 산정, 조경면적 검토, 사업타당성 검토, 평면계획 설정, 프리젠테이션 목적의 3차원 모델링·루시도·애니메이션 작업 등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부림캐드네트워크사는 "건축계획에서의 법규검토라는 항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축계획분야가 사실상 간단한 주택에서부터 복잡한 초고

층빌딩에 이르기까지 대상범위가 넓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법규를 검토해 주지는 못하지만 국토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이나 다세대주택, 10층안팎의 근린생활 건축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좁은 대지에서 최고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니면서도 여러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건축물의 계획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림캐드측은 또 이후 버전에서는 사업타당성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세부적인 항목들로 분리 지원하여 건설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토록 하는 것은 물론 특히 3차원 입면계획 기능과 칼라링 기능을 AutoCAD의 렌더링 기능을 사용해 기초적인 맵핑과 보다 다양한 3차원 모델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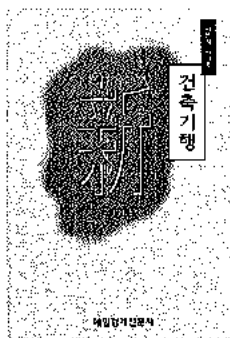
문의 : (주)부림캐드

(Tel : 02-571-2638)

건축신간

新건축기행
유리건축

■ 新건축기행



싶은 집, 갖고 싶은 건축을 찾아서"란 제목으로 작년초 발간되었던 건축기행 시리즈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해 매일경제신문에 월마다 게재됐던 '신건축기행' 시리즈를 묶어낸 것으로 「살고

저자인 건축가 서용식(수목건축 대표)씨와 연기홍(매일경제 사회부)거자는 이 책에 소개된 40여 건축물에서 우리 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삼고자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을 단일 개체로 보기보다는 그 건물의 입지적, 역사적 환경과 조건을 함께 분석하는 보다 통시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다시보는 거리」, 「되살아나는 거리」, 「뒤집어 보는 거리」, 「내일의 문화유산」, 「다시보는 옛집」 등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전통한옥과 낡은 건물을 고쳐 만든 찻집에서부터 건축사적 의의가 높은 작품성 있는 근대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서용식, 연기홍/ 매일경제신문사(02-2626-442) 펴냄 / 250쪽 / 1만원

■ 유리건축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엔지니어 사무소 RFR의 피터 라이스와 영국건축가 휴 듀턴이 공동저술한 "Struc-

tural Glass" 한글판이 발간됐다. 저자인 피터 라이스는 이 책에서 유리가 더 이상 정적인 재료가 아니며 유리재료를 제대로 사용했을 때 하중에도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신기술을 이용한 유리건축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역피라미드, 런던의 채널4 본부 등 이 책에 실린 15개 각 프로젝트별 사례들은 저자인 피터 라이스가 자신의 파리 사무소인 RFR사에서 행한 유럽과 일본에서의 최근작들로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유리재료의 새로운 방법의 적용 가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피터 라이스 휴 듀턴/ 배대승/ 현대건축사(02-549-6444) 펴냄 / 148쪽 / 2만7천원

97년 JIA 신인상

'97JIA Newcomer Awards

사카모토 아키라 : 「白髻의 집」
반 시게루 : 「종이(紙)의 교회」
와타베 카즈오 : 노인보건시설 「栞梗」

지난해 일본에서는 일본건축가협회(JIA)가 자국 건축문화의 질적향상과 우수 신인발굴을 위해 개최한 「'97 JIA 신인상」에서 사카모토 아키라, 반 시게루, 와타베 카즈오 등 3명의 촉망받는 신인건축가들이 입상에 일본건축계에 화제가 되었다.

신인건축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해 온 「JIA 신인상」은 지난해 3월 작품을 공모해 9월말 도쿄에서 개최된 제9회 아카시아포럼 기간중 열린 일본건축가협회 창립10주년기념행사에서 입상자가 발표돼 포럼에 참석한 아시아 각국 건축가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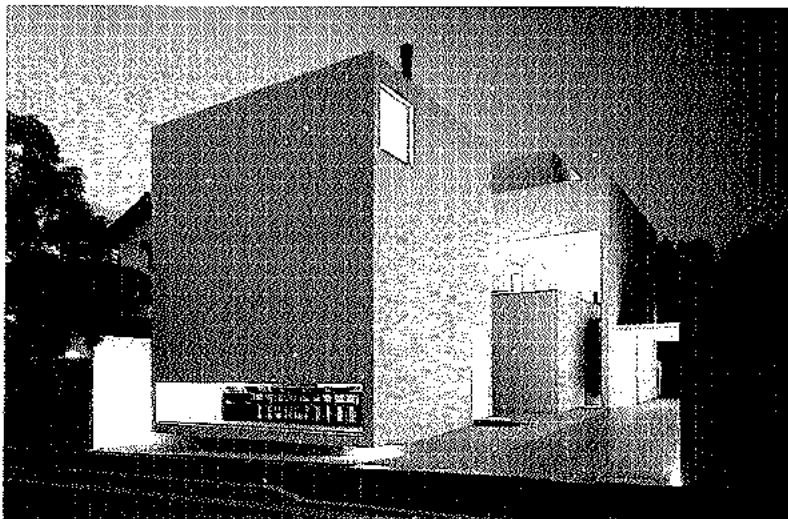
본지는 한·일 양국간 건축교류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건축의 내일을 이끌 이들 3인 신인상수상자들의 작품을 통해 오늘의 일본건축을 들여다 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본지는 지면을 빌어 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해준 각 신인상 수상자들과 취재과정에 협조해 준 본협회 국제위원회 및 일본건축가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白髻의 집

Hakuei Residence

사카모토 아끼라(坂本 昭)

Design by Akira Sakamoto



〔부지〕 동서 양면이 도로에 접한 부지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도로로부터의 시선을 받아내며 그 흐름을 동측의 녹지로 전달하고 있다.

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백색의 벽에 감싸여진 공간에서 시선을 멈추고, 이후 그 안에서 펼쳐지는 주거공간과 가로에 시선을 옮기게 된다.

〔구성〕 먼저 부지를 따라 한 커의 벽을 세운다. 그리하여 그 벽과 마주보게끔 크고 작은 3개의 직방체를 배치한다. 이 4개의 요소가 중정을 중심으로 마주보게 되어 하나의 주거공간을 구성하게 된다.

〔요소〕 1커의 벽은 부지의 형태를 따르는 공간의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직방체가 만들어내는 주거공간의 정경을 투영한다.

백색의 벽은 각 층의 사이와 천장에서 흘러 들어오는 자연의 빛을 끌어들이고 밤에는 지면에서 발하는 빛의 리듬을 동서 방향으로 전달한다.

서쪽의棟과 동쪽의棟, 그리고 상부에 테크를 갖춘 작은 직방체중 서쪽과 동쪽의 직방체는 공간을 감싸고, 작은 직방체는 공간을 개방시키고 있다. 벽이 감싸는 공간은 주거공간으로서의 안락함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개구부를 통하여 유입되는 빛, 바람,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다양한 외부의 분위기를 융합하고 있다.

〔중정〕 직방체의 중앙에 배치된 중정은 한 그루의 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과 동 사이에서 교환되는 시선, 대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행위들

과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전해지는 바람의 움직임,四季의 표정, 태양빛의 쬔임이라는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양상들이 이 공간에서 중첩되며 만나게 된다.

〔室〕 공간을 분절하는 백색의 벽은 개구부들을 관통해 나가면서 주거공간의 장을 연결해 나간다. 내부공간을 만들어내는斷續적인 백색의 벽은 각각의 실들을 구별함과 동시에 인접한 실들간을 연결짓고 있다. 하나의 실에서 또다른 실로 전달되는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 주거공간은 하나의 공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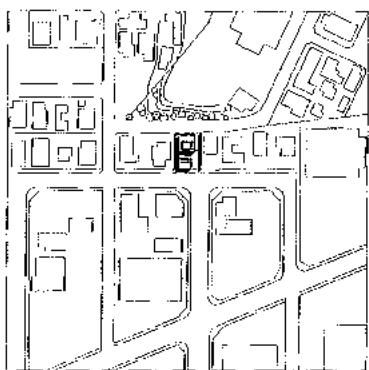
단순한 평면, 그리고 단순한 단면이 만들어내는 공간이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실들을 구성하고 종합하게 된다.

각각의 실들은 실의 이름을 갖지 않는다. 건물 전체, 그리고 모든 실 전체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행위 그 전체를 수용하는 것이다. 방문하는 사람들을 현관이라는場所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외부의 분위기와 함께 시간의 흐름을 수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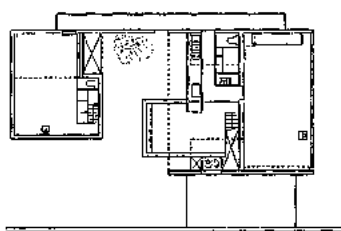
〔빛〕 백색의 벽에 투영되는 점, 선, 면 모양의 빛은 벽에 표정을 갖게하여 공간의 움직임과 고요함이 중첩되는場所를 만들어낸다.

빛과 짙(양산). 공간에 퍼지는 빛과 그림자의 리듬은 각각의室에 독자적인 분위기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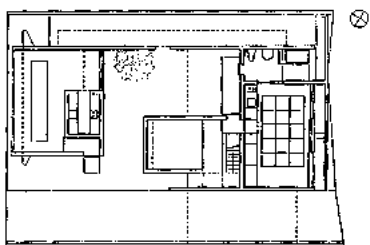
사람들은 빛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건물, 그리고室의 존재를 느끼고,場이 담아내고 있는 공기에 감싸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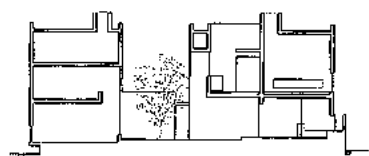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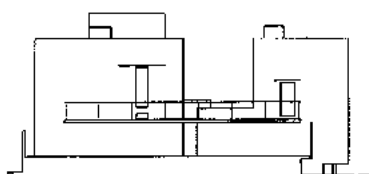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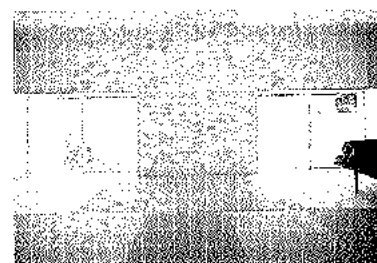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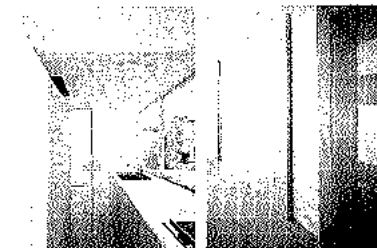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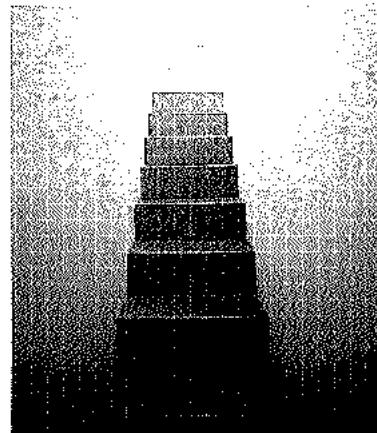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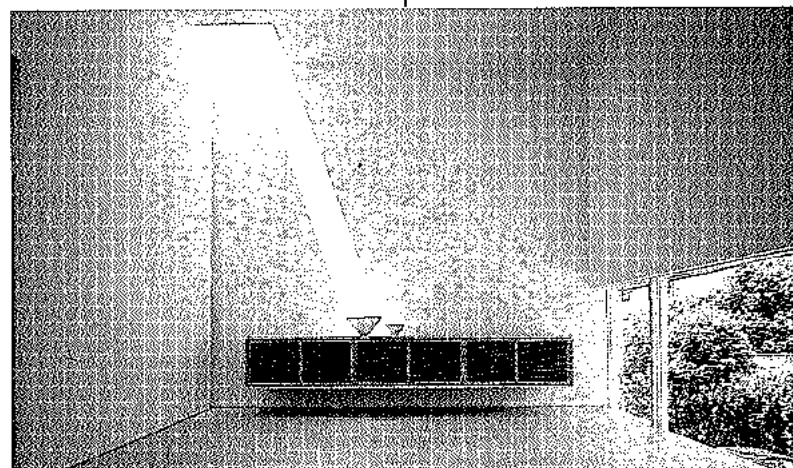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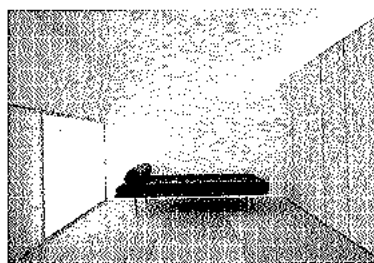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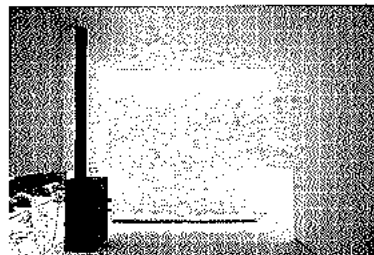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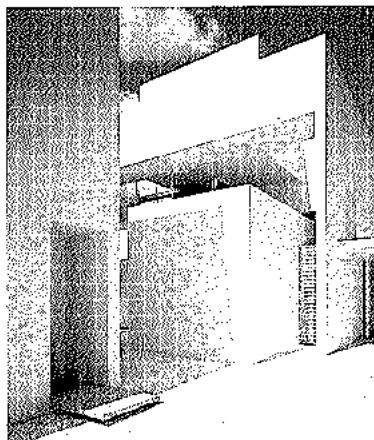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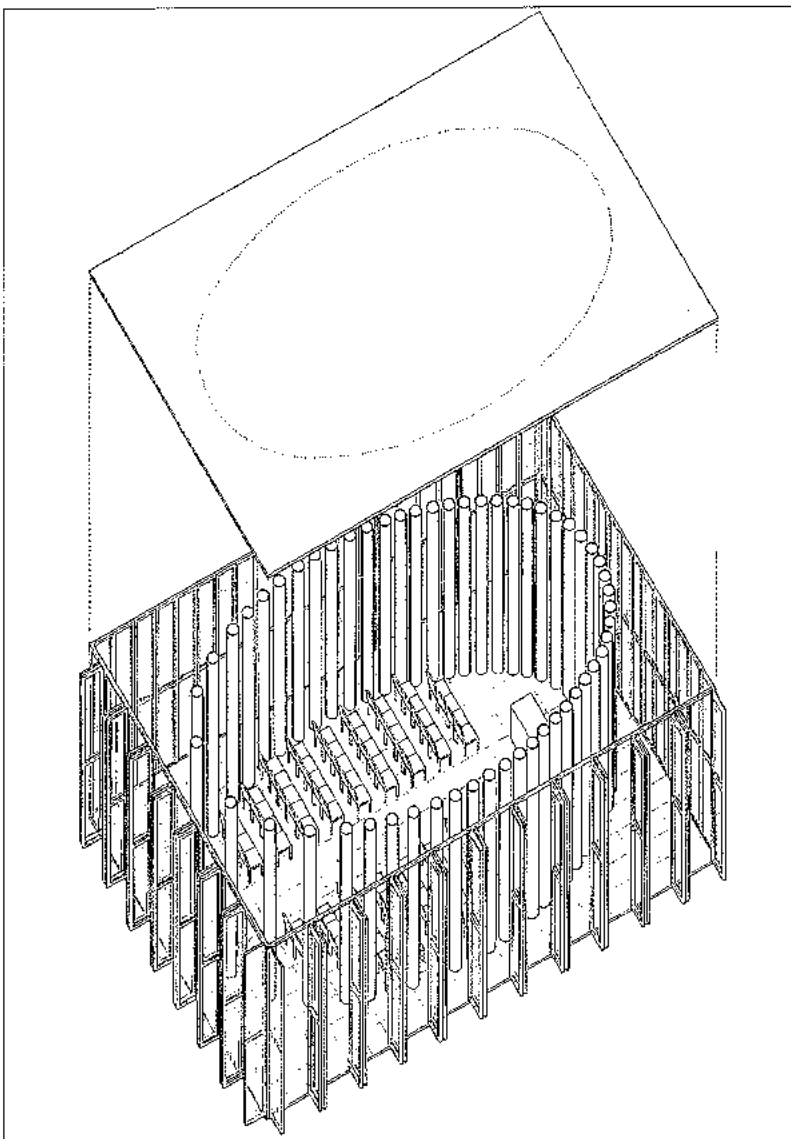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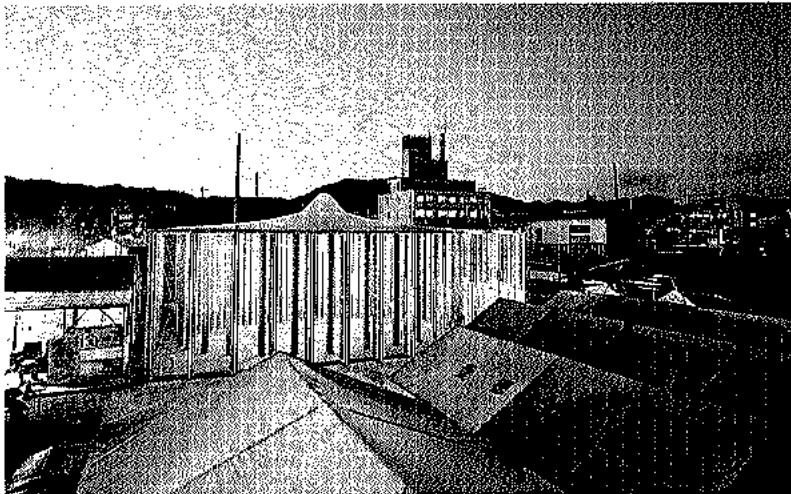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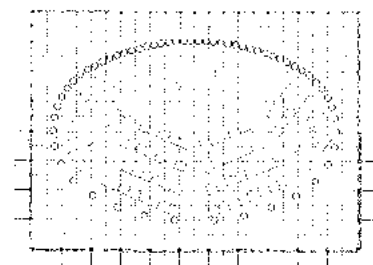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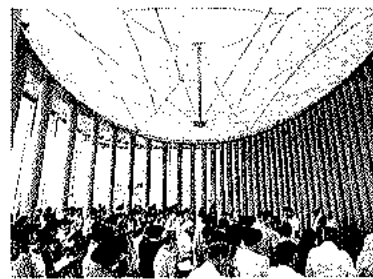


종이(紙)의 교회 The Paper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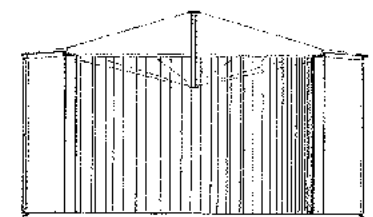
반 시게루(坂 茂)
Deisign by Sigeru Ban



Paper Church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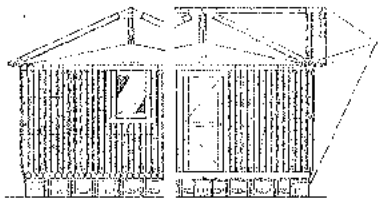
Paper Church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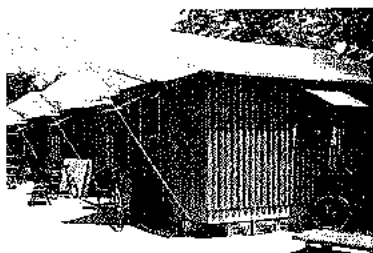
Paper Church 단면도

- 작품활동과 사회적 공헌의 양립을 추구하며

오래전부터 “우리 건축가들은 사회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다. 물론 특권계급(행정, 기업, 재벌)을 위해 훌륭한 모뉴먼트를 만드는 일을 건축가의 일로서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금세기에 들어 산업혁명후의 도시화나 大戦직후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거장 건축가들은 집합주택이나 공업화주택의 과제에 뛰어 들었으며, 양적인 면만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들은 다수의 명작들을 남겼다.



Paper Log House 단면상세도



Paper Log House



Paper Log House

현재, 난민이나 Homeless의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건축가로서 이들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보도를 통해 루안다의 문제를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개발해온 「종이의 건축」(紙管을 구조체로 하는 건축)으로 난민용 쉼터의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네바의 국제연맹난민고등사무소(UNHCR)에 이를 제안하였을 때, 난민에 의한 산림벌채의 방지를 위해 이것이 채용되었고 개발이 시작되었다. 神戸市 長田區의 한 교회에 많은 수의 베트남 난민이 모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교회를 가보게 되었다. 교회를 포함하여 그 주위는 지진후의 화재에 의하여 소실되어 있었다. 그 후 그 교회를 지나갈 때에 神父와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를 자원봉사자의 손에 의해 「종이의 건축」으로 건설하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

고, 건축비와 건설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직접 모집하는 일로부터 설계가 시작되었다.

건설에서 중점이 된 것은 저예산으로 건설 가능하면서도 학생자원봉사자에 의해서 간단하고 안전하게 조립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건물의 형태는 10m×15m의 장방형을 플리카 주름판의 새시를 외파로서 둘러 그 안에 약 80석의 좌석이 배치될 수 있는 타원형의 공간을 紙管(길이 5m, 직경 33cm, 두께 15mm)으로 구성하였다. 타원형의 한쪽 長周는 紙管을 밀집시켜 무대나 제단의 배경이 되도록 하였고 그 너머에 여분의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반면 입구측의 長周는 紙管과 紙管의 간격을 넓혀 全面的 새시를 모두 열 경우 내부와 외부의 공간이 연속되도록 하였다. 이에 의해 공간적으로는 훌륭한 성당에 들어설 때 체험되는, 회랑을 통해 메인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공간의 시퀀스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입하는 듯한 구

성이 만들어졌다.

건설은 전국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16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모여 5주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이 건물은 마차에도 사용되나 최초의 주목적대로 지역부흥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홀이다. 단지 이곳은 통상적인 공간만이 마련된 의미없는 홀이 아닌, 기부를 해준 사람들이나 기업, 그리고 건설에 참가한 자원봉사자들 모두의 정신이 깃든 장소로서, 나는 이곳을 감히 「종이의 교회」라 부르고 싶다.

설계: 건축-坂 建築設計

구조-松井源吾

협력-星野建築構造事務所 TSP太陽

시공: 자원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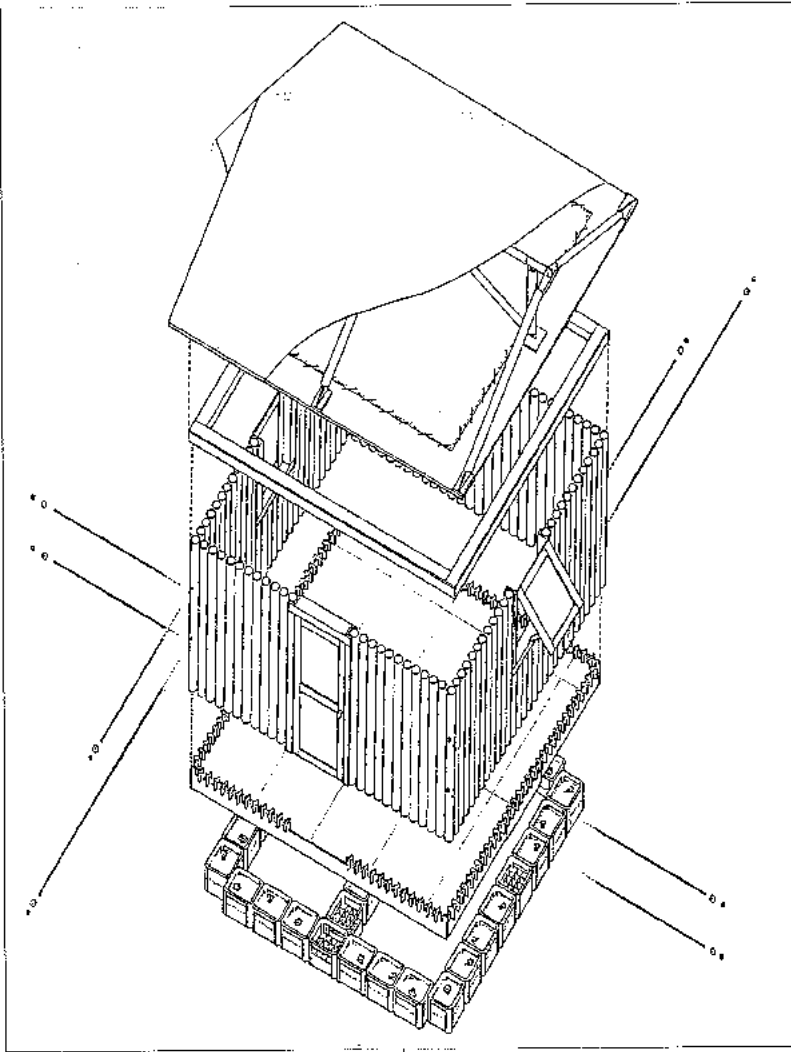
건축면적: 168.9㎡

연면적: 168.9㎡

층수: 지상1층

구조: PTS(紙管構造) 일부 철골조

공기: 1995년 7월-1995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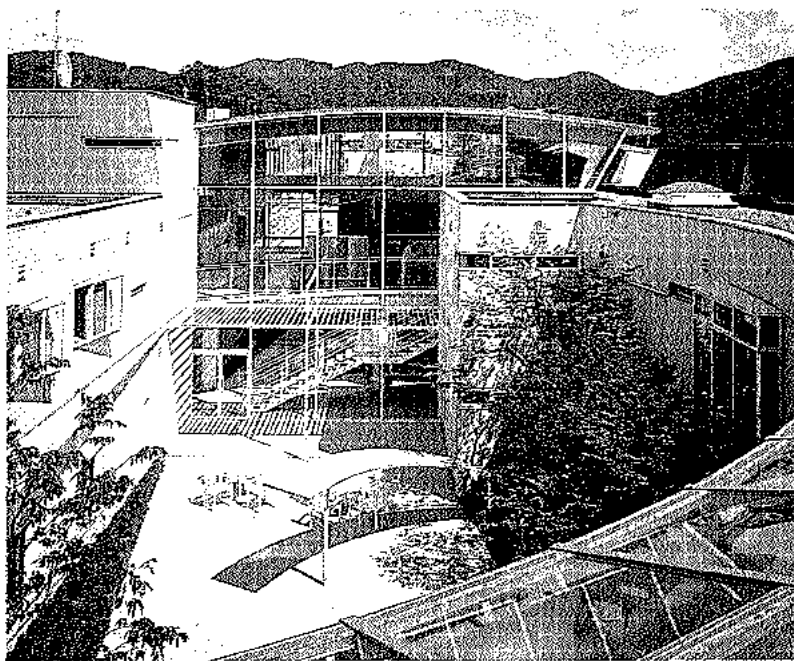
Paper Log House 엑스노메트릭

노인보건시설「桔梗」

Kikyo Nurses Residence & Nursery School II
Affiliate to OTA General Hospital

와타베 카즈오(渡部和生)

Design by Kazuo Watabe



노인보건시설은 병약자나 노인이,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Rehabilitation 등을 행하며 요양생활을 하는 건물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100석의 요양실, Daycare, 그리고 郡山市로부터 위탁받은 財宅介護支援센터가 개설되어 적극적으로 지역과의 연계가 도모되고 있다.

구체적인 설계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유의하였다.

- 다양한 그룹형성과 선택성

가정환경과 공공시설과의 차이로써, 너무 거대한 공간이나 큰 집단에서 생활해야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각 요양실 앞의 작은 세미퍼블릭 스페이스로부터 가동가구를 이용해 엘코브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조금 큰 공간이 마련되어, 입주자가 자신이 거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연광에 의한 생활리듬의 회복

다양한 외부공간과, 눈높이의 창을 중시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高側窓를 통해 동절기에도 밝은 실내공간이 얻어내고 있다. 변화하는 자연광에 의하여 하루동안의 시간의 변화나 사계절의 다채로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서서히 생활리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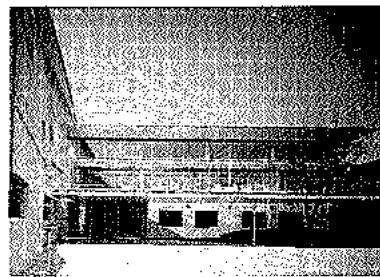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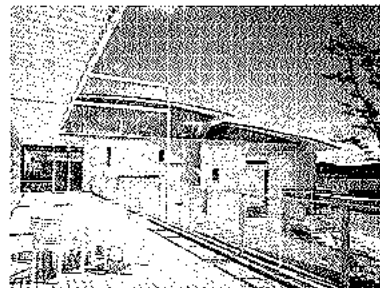
- '開室'로부터 '오픈 스페이스'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 건물의 평면형태를 보면, 외주부에 객실들을 배치하였으며 오픈스페이스의 채광상태가 좋아지도록 크고 작은 다양한 외부공간을 배치하였다. 또한 요양실에서 오픈스페이스로 이동하기 쉽도록 매력적인 시퀀스를 도입하였다.

내부와 외부의 중간에 Louver Zone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목재 테라스나 중정에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배려하였다. 더 나아가 '자신이 거하는 장소'를 잊기 쉬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적극적인 공간이동에 의하여 불균질하고 변화가 풍부한 공간을 체험하도록 하여 '장소'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현대건축으로서의 고령자시설

이 건물은 2개의 상이한 가치관이 상극을 이루는 관계속에서 탄생하였다. 고령자에게 익숙한 '추억'이나 '기억'의 문제와, 이와는 절대 같은 레도를 갖지 않는 현대건축으로서의 재요소가 그것이다. 2개의 가치관은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이 가능하나 다른 국면에서는 Gap을 지닌 채 남게된다. 예를들면 고령자에게 친숙한 건물 내외부의 목재 재질의 표현은 파악으로 처리하였는데, 특히 외벽은 스테



인레스 요철 伸縮目地材를 이용하여 패널형태로 분할하여 현대성을 잃지 않도록 하였다.

'개설'에 설치된 반투명의 미닫이와 오픈 스페이스의 투명한 공간의 흐름, 혹은 친숙한 곡선의 디자인과 긴장감있는 직선도 통일되기보다는 대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령자에게 친숙한 디자인과 현대성이라는 때때로 발생하는 모순을 설계·감리를 통해 꾸준히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앞으로 지켜보고 반성하여, 금후의 설계활동에서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고 싶다.

설계: 와타베 카즈오(渡部和生)/惟建築計劃

시공: 間組東北支店

부지면적: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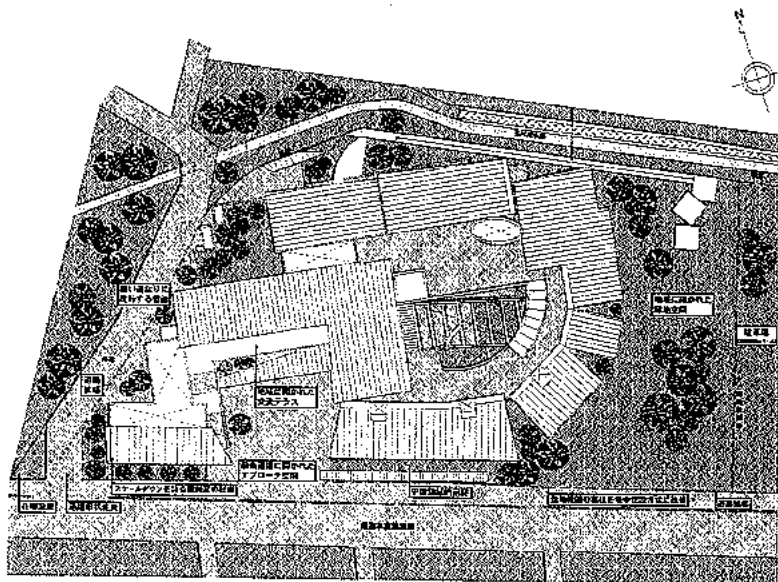
건축면적: 2,407.91㎡

연면적: 3,98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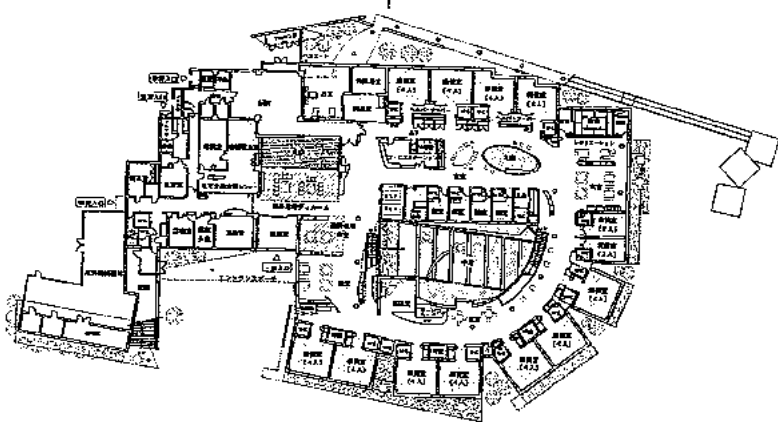
층수: 지상 2층, 옥탑 1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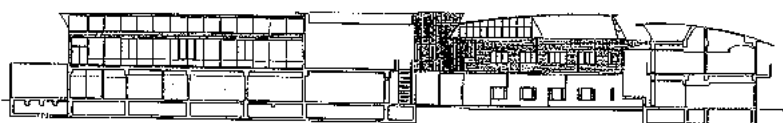
공기: 1995년 6월-1996년 5월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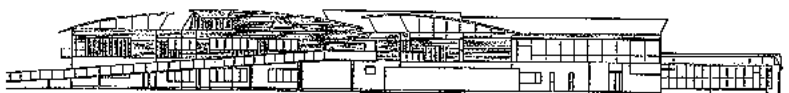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남측입면도



북측입면도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서대문시립병원

노동부소속기관 표준모델 청사

마산문화회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서대문시립병원

Seodaemoon City Hospital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기존 시립병원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서대문시립 병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5개 작품 이 접수된 가운데, 양동양(고려대), 김 익(홍익대), 김종민(홍익대), 임창복(성균관대), 양내원(한양대), 이낙운(강원대), 김광우(서울대), 이강엽(한양대), 김준성(경기대), 한창진(한정건축), 장 치욱(서대문병원장) 씨 등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진양건축(김성동)안, 우수 작에 원도시 건축(윤승중+변용+정현

화)안을 선정 그 결과를 지난 97년 12월 19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진양건축(김성동)



조감도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산 31-1
대지면적 68,772㎡
건축면적 4,560.28㎡
연면적 23,816.5㎡
건폐율 19%
용적률 85.9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규모 지하3층, 지상3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법랑페널 · 화강석버너구이 · 북
충유리
설계담당 김동욱, 신자선, 김은희, 김재윤
설비자문 일봉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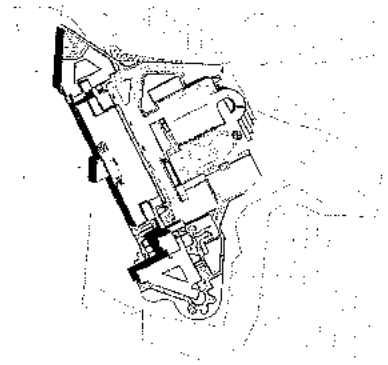
온 나라가 IMF 한파에 휩싸이기 전 실시 된 시립서대문병원 현상설계 기간중 세차 례 현장답사를 하였다. 11월 20일로 기 역되는 어느날 오후 세번째,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하였다. 방문기록지를 건네 주면서 병원 담당자는 의아해 하면서도 친절히 "아니, 다른 회사들은 벌써 보고 갔는데 이제야 현장을 보러왔느냐" 하며 안스러워 하는 직원을 뒤로 하고 차분히 현장답사를 마쳤다.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미묘했다.

조금전 담당 직원의 말중에 "진양건축? 잘 모르는 사무실인데...", "병원 건축을 해본 적이 있어요?"라는 그의 말은 계속 나의 머릿속에 남아돈다. 개인적으로는 병원건축에 입문한 지 20년이 되었건만 실질적으로 인정이 안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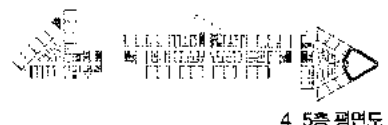
그리고 12월 18일 금세기 최고의 대선경 기결과를 지켜보았고 12월 19일은 최고 승부의 날이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다." 우리는 거품이 없 는 구조조정된 그런 실계를 하였기에...

〈글/김성동〉



배치도



4.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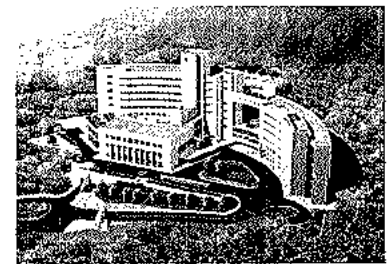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우측면도

▶ 우수작 / 원도시건축(윤승중+변용+정현화)



조감도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산31-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대지면적 총 대지면적 - 68,772㎡ 중
건축대상 대지면적 - 24,000㎡

도로현황	도로폭 6m
연면적	병원부분 계획면적 - 23,892.1㎡ 병원부분 지침면적 22,195.2㎡ ×1.1=24,414.7㎡ 주차장 - 8,298.3㎡ 총합계 - 32,190.4㎡
건축면적	4,779.18㎡
건폐율	19.91%
용적률	134.13%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층수	지하2층, 지상8층
최고높이	46.9m
외부마감	석재쌓침
설비개요	기계 - 열원, 공조, 위생, 가스, 자동제어, 의료가스 등 전기 - 수변전, 예비전원, 전력간선, 동력, 약전, 방재
주차개요	지하 251대, 옥외 14대 합계 265대
조경개요	13,220㎡

계획의 이념

- 시립병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계획과 디자인 - 건축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으로 처리함은 물론 옥외 공간의 확보, 각종 진료실의 대기, 식당, D/A 등 퍼블릭 스페이스의 채광도입과 여유스페이스의 적극적인 공간디자인으로 지금까지 선입견으로 받아들여졌던 시립병원의 이미지를 첨단적으로 개선하고자 건축물을 디자인하였다.
- 노인, 치매, 결핵 병원의 복합적 병원기능을 합리적으로 분리 결합하는 배치계획 - 서로 기능이 다른 3개의 Block을 배치상으로 분리하면서 복합사용하는 중앙진료부를 그 절점에 배치하여 운영상 통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각각의 병원이 독립 출입구와 접수를 갖고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 복도에 의해 기능상 복합 이용할 부분은 통합 이용이 가능한 배치 계획을 하였다.
- 복합 장기요양 병원으로서의 거주 아메니티의 극대화 - 환자층이 노인, 결핵, 치매 등 장기거주환자를 대상으로 함은 물론, 요양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대부분의 병실을 남향으로 배치코자 하였으며, 병실층마다 각각 독립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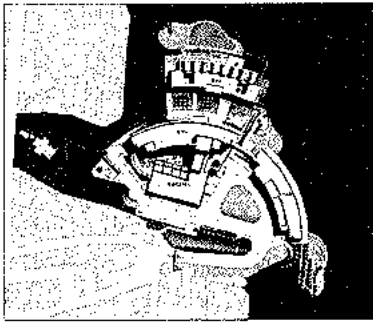
당과 테이크너를 설치하여 병동내의 커뮤니케이션과 재활의학 요법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중정, 환자공원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장기 환자의 옥외 레크리에이션에 이용토록 하였다.

- 대지의 효율적이용을 고려한 배치 계획 - 지형조건을 현상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현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각 부문의 레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주출입, 주차스페이스 출입, 중앙진료부의 레벨, 노인·결핵 치매 등 각 병동부의 유기적 연결과 분리, 영안부의 출입, 환자공원의 레벨 등을 정하였으며, 서비스차량, 영안반입등은 병원의 Main Level과 완전히 분리하여 외부에서 직접 퇴출할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교통 Traffic을 고려한 주차장 출입구, Taxi Stop, 응급출입구 등을 설치하였다.
- 이전, 증축 등 성장에 대응한 합리적 배치계획 - 현재의 결핵병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 및 기존건물 철거 순서를 설정하고 가능한 현재 건물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성장에 따른 병동부의 증축과 전환을 고려하였으며 중앙진료부 성장에 대비한 수평적 증축을 고려하여 노인동과 치매동 사이에 여유공지를 확보하였다.
- 노인 및 치매병원의 환자특성에 대응하는 병원 - 노인 병원의 진료과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외래부를 확보하고 재활의학부의 전문화 및 중심기능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독립화하여 공간성능을 채광, 조망에서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치매병원은 배회복도, 기능훈련, 개호목욕 등을 고려하여 공간구성을 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분리 운영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도입하였다.
- 병실 환경을 개선한 새로운 병실 타입 및 병동부의 제안 - 장기요양병원으로 4인실을 주로 하였으며 병실내부에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전 Bed의 Bed Side의 채광확보와 의료장비 반입 및 Care의 반입 등 간호업무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병실 타입을 도입하였으

며, 이에 따른 모듈의 개발과 병동부 Shape를 제안하였다.

또한 병동부의 식당 설치와 Day Room의 설치는 물론, N/S는 출입통제가 효율적이면서도 간호동선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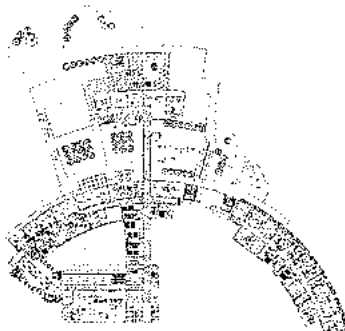
- Day Care Center의 적극개발과 이용에 대응 - 재활의학부는 물론 노인정, 다목적홀, 개호목욕실 등 Short-Stay Day Care를 위한 부문을 노인동과 치매동의 절점에 위치시키며 가능한 남쪽에 위치시켜 채광을 위주요한 중심기능으로 입지시켰다.
- 호스피스의 확보와 독립성 - 말기환자를 중심으로한 호스피스 병동을 타병동과 분리독립시켜 독립성과 타요양 환자와의 격리를 확보시켰으며 종교시설과 자원봉사자 시설을 인접 배치하여 호스피스환자의 편리한 이용을 꾀하였다.
- 재활의학부의 독립과 전문화 - 재활의학부를 통과의자의 동선과 분리하여 쾌적한 독립된 장소에 확보하여 충분한 채광과 정숙을 확보하였으며 운동요법, 물리치료, 수치료 등 이학요법 기능과 작업요법 레크리에이션요법 등 재활의학 기능을 전부 전문화시키는 수준을 확보하였다.
- 옥외 아메니티 공간의 확보 - 대지의 고저차를 충분히 활용하여 남쪽으로 넓은 공지를 확보해서 옥외 재활의학요법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환자 공원 등 옥외 아메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 다인실의 환경 개선 - 각 병실의 외벽요철 형태는 환상형의 병동평면에 적합하면서 비교적 환경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복도측의 베드에도 채광을 끌어들이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병상배치로 각 병상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함과 동시에 내측에 넓은 간호 서비스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전체적인 간호 서비스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환자의 배치도 병세가 경증인 환자를 외측에 중증인 환자를 내측에 두어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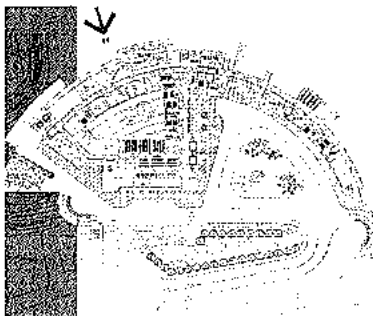
배지도



7·8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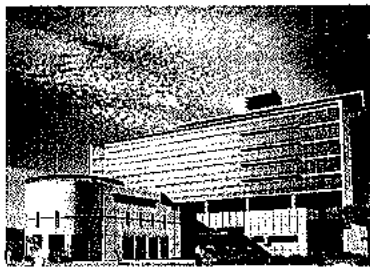
배면도

노동부소속기관 표준모델 청사

Standard Building Model
Affiliated the Ministry of Labor

노동부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의 노동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대민노동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동부소속기관 표준모델 청사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4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두우건축(박용우)안, 우수작에 예시트건축(윤찬)안, 가작에 디자인 토건축(이용우)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97년 12월 26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두우건축(박용우)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울전동
	87-2,3,4
지역지구	주거지역, 천천리 택지 개발지구
대지면적	4,668㎡(1,415평)
건축면적	772.2㎡(235평)
연면적	2,776.3㎡(839.8평)
건폐율	16.65%
용적률	51.8%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시설면적 80㎡/1대
	법정 - 35대
	계획 - 40대(장애인용 3대 포함)
조경면적	1,861.4㎡(563.1평)

계획의 배경

현재 지방노동부소속기관 청사 건물 시설에 대한 표준모델이 미비하여 청사 건립 또는 임차시 건물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으

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노동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노동부소속기관의 표준모델이 요구되어 진다. 이에 합리적인 지방 노동부소속 기관들의 표준모델의 유형을 제시한다, 능동적인 사무공간 구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민원인 서비스 공간을 통하여 노동 행정업무 및 대민노동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 21세기를 맞아 새 시대에 부응하는 현대적이고 상징적인 공공 행정기관으로서의 이미지 부여와 편리하고 기능적인 대민 봉사 업무를 위한 새로운 노동 행정기관의 미래상 제시
- 2000년대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시설 규모를 갖추고 제반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동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 및 장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증축 고려
- 다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사로서 최신 설비와 사무자동화, 중앙 관리 시스템 등이 갖추어진 미래지향적인 청사로 계획

계획의 기본방향

■ 상징성

- 노동부 이미지가 표현된 상징적인 건축물
- 미래 지향적이고 기능적인 공공 청사의 시각화
- 친근하고 안정적이며 현대적 이미지 추구
- 표준모델 제시로 노동부소속 지방관서의 통일성 추구

■ 기능성

- 지방 노동 관서의 기능에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배치
- 노동 행정 업무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시설 확보
- 동선의 기능적 분리 및 유기적 연결
- 설비의 현대화 및 중앙 관리 시스템에 의한 사무자동화
-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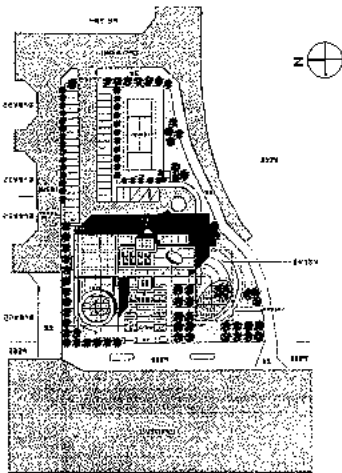
- 대민 업무의 종합지원처리시스템 구축
- 대민 관련 부서의 연결 배치로 업무의 효율화 및 동선의 단순화 및 단축화
- 이용자에게 충분한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 제공
-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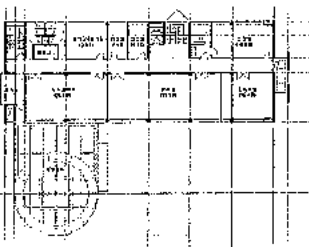
- 지역 속에 공공 기관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처 제공
- 주변 환경 및 도시 환경과의 균형 잡힌 조화
-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 장래성 및 경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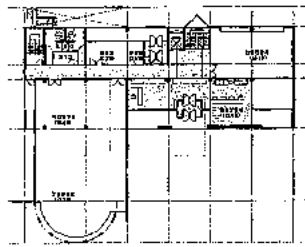
- 지방 노동 행정의 변화와 신장에 대비하여 증축 고려
-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 각 기능별 Zonning으로 경제성 추구 및 경제성 있는 재료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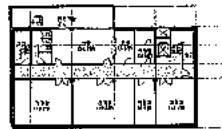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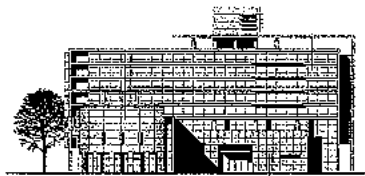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정면도

▶ 우수작 / 예시건축(윤 찬)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천천택지 개발지
구내 103BL(울전동 87-2,3,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택지개발지구

대지면적 4,668㎡(1,415평)

용도 공공업무시설

건축면적 709.57㎡

연면적 지하층(690.23㎡), 지상층(청
사:2,196.72㎡, 경비동:11.25㎡)
합 계: 2,886.95㎡(876.71평)

건폐율 15.20%

용적률 47.30%

구조 철근콘크리트

층수 청사 - 지하1층, 지상4층,
경비동 - 지상1층

주차대수 설계:42대 (법정: 37대)

조경면적 대지면적의 18% 이상

건물높이 18.12m

설계 유상만, 최홍수, 김상선

계획의 개념

■ 기본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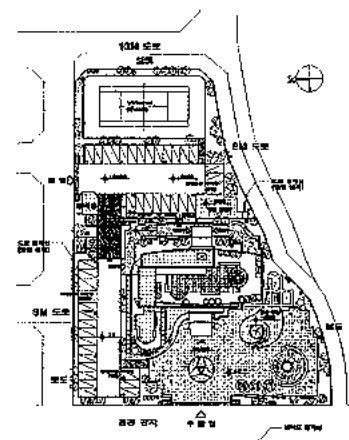
- 표준 모델로서의 이미지 정립
-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 유도
- 부드럽고 개방된 이미지 연출
- 민주적 공공 건물의 이미지 창조
- 각종 정보의 제공 등 지역 사회 발전의 역할
-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소

■ 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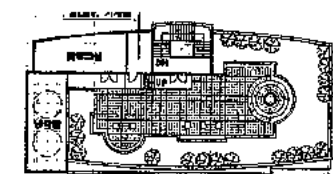
- 민원 및 사무공간의 명확한 동선 구분 및 유기적 연계성
-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 고려하여 유지비 절감
-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유지·관리 및 사용상의 편의성 최대한 고려
- 사무자동화 및 정보통신화를 고려한 설비계획

■ 쾌적한 내부 공간

- 여유있는 서비스 공간 부여
- 쾌적한 지하공간 연출을 위한 선큰의 도입
- 각종 휴게공간 고려
-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 및 설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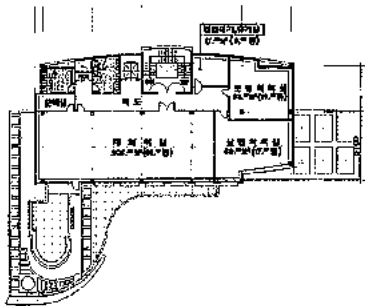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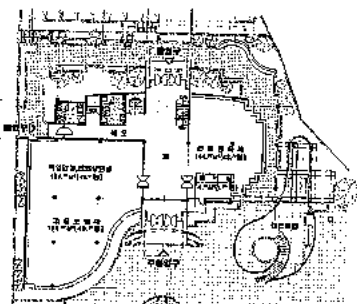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 외부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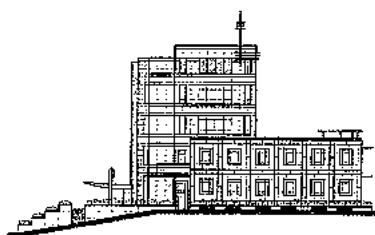
-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을 유도
-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구분
- 건물 내의 공간과 유기적 휴식공간 (지붕층 및 선로과의 연계)
- 전면부의 공개 공간과 후면부 공개 공간의 유기적 연계성
- 체력 단련을 위한 옥외 운동 공간의 마련
- 대지조성상의 고저차를 이용한 원활한 접근성 확보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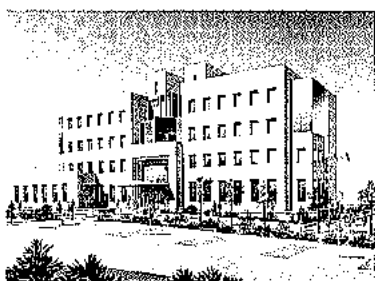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축측도

▶ 가작 / 디자인 토건축(이용우)



조감도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천천택지 개발지구내 103BL
대지면적	4,668.0㎡(1,415.0평)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698.75㎡(211.37평)
연면적	2,895.11㎡(875.77평)
건폐율	14.97%
용적률	50.24%
규모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RC)
주차대수	52대(장애자 주차 2대 포함)
주요외장재	컬러복층유리, 국산화강석
녹지면적	1,640㎡

설계의 배경 및 목적

다가올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시대이자 첨단정보망을 통한 신속하며 효율적인 대민행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청사확장 및 행정수요에의 능동적인 대처와 노동청사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미래지향적이며 영속성을 지닌 노동부 소속기관 표준청사를 계획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의 기본방향

• 지역사회의 중심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의 환경향상에 공헌하고 민원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지역밀착형 건물이 되도록 계획한다.

• 기능과 미관

표준청사로서의 특수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며 대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사무공간구성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물로서 조화로운 표현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지역사회의 상징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금번화속의 유연성

금번화하는 대민행정에 대비해 각종 첨단정보처리시설을 수용하므로써 행정력 강화 및 유연성 증대를 목적으로 계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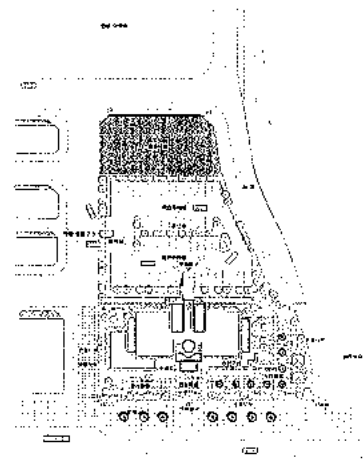
• 부지의 효율적 활용

향후 증축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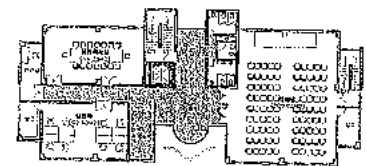
려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을 합리적으로 배치계획한다.

• 에너지 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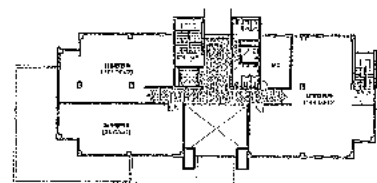
건물의 배치와 형태, 공간은 자연환경과 융화되며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되도록 설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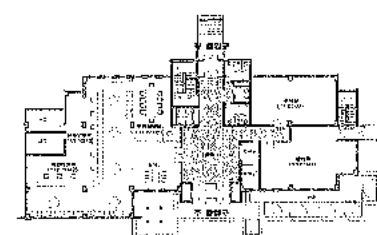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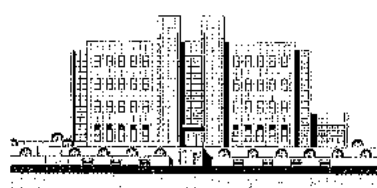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면도

마산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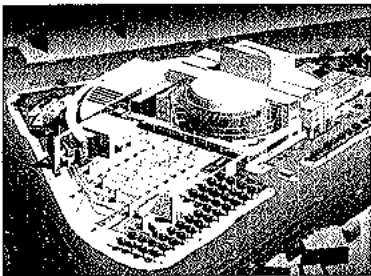
Masan Culture Hall

시의 행사와 축제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마산시는 문화회관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0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라인건축(송이호 + 박현철)안, 우수작에 엠앤디건축(이근창)안, 가작에 이앤에이건축(김상락)안과 일건건축(황일인)안을 각각 선정, 그 결과를 지난 97년 11월 20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홍갑표(연세대), 김광문(한양대), 전명현(홍익대), 송호산(동익대), 이상정(경상대), 유영민(경남대), 김수영(마산시부시장), 이홍원(마산시가기획실장), 조정범(마산시건설교통국장), 손광문(마산시의원), 백종현(한성건축), 이영환(한국예총마산지부지부장), 이동호(한국예총마산지부지부장)

▶ 당선작 / 라인건축(송이호 + 박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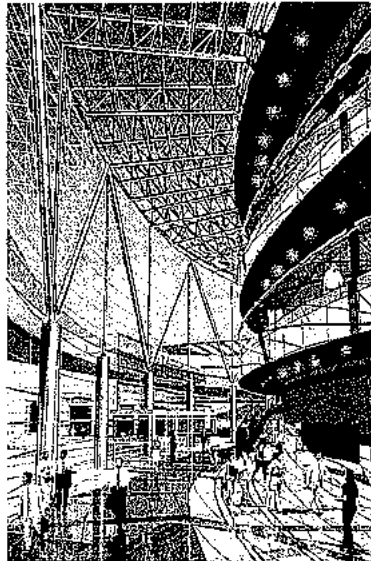


조감도



루시도 1

위치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427-1번지 일원
용도지역 공공복지시설, 자연녹지
대지면적 21,329.0㎡(6,452.0평)
건축면적 5,309.79㎡(1,606.21평)
연면적 14,503.85㎡(4,387.41평)



루시도 2

건폐율 24.89%
용적률 46.02%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주차대수 총 151대
지상 112대, 지하 39대
외장재료 화강석버너구이, 24THK투명복층유리
부대시설 시민휴식공간, 조각전시장

배치계획

■ 배치계획개념

- 도시화
건물을 단일화, 한정화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도심의 오픈 스페이스로 할애한다.
- 통합
외부공간을 단일공간으로 연결 가능하도록 한다.
- 팡창
도시로 환원된 오픈 스페이스를 주변 상황에 따라 특성화시킨다.
- 교통계획개념
- 보행자 동선
다양한 형태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 차량동선
— 주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간선 도로로부터의 접근을 유도한다.
— 이용객과 옥내, 옥외 주차장 입구가 단일화로 관리의 용이를 꾀한다.

평면계획

- 여윌공간
— 기다림, 만남, 휴식 등 다양한 행위를 수용하는 여윌공간을 계획
- 아트리움 홀(Atrium Hall)
— 유리가 가지는 투명성이 외부와 내부공간의 공유와 확장을 가능케 한다.
- 내부조닝
— 공연부분과 전시부분 구분
— 영역분리와 아울러 동선의 분리 의도
- 공유
— 각각의 전용 시설은 다목적 홀과 중앙광장의 유리를 통하여 공유
- 지하층
— 주차장 : 시설들간의 연결 용이
— 선 큰 : 개방된 외부공간이 건물에 유입
- 지상 1층
— 로비 : 내부와 외부의 매개공간
— 코어 : 출연자, 관리, 전용홀 동선 분리와 역할의 중요성 인식
- 지상 2층
— 다양한 형태의 진입 패턴에 따른 캐노피
— 브릿지를 이용한 공간의 기능적 연결
- 지상 3층
— 프레임에 의한 빛의 여과로 문화 공간의 분위기 상승 효과 노림

입면,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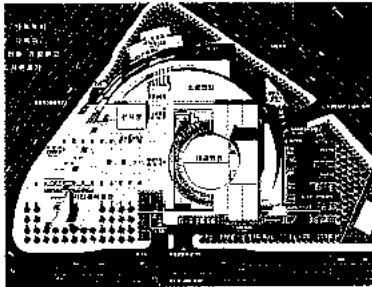
■ 입면계획

- 공공시설의 친밀한 접근을 위한 수평선 강조
- 브릿지를 이용하여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기능적으로 연결
- 전면 유리가 가지는 투명성이 공유와 확장을 통해 자연의 유입을 가능케 하고 각 기능 공간은 통합된 공용홀을 통해 외부중앙광장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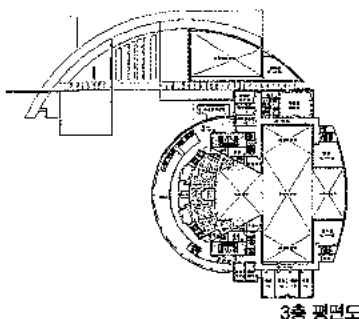
■ 단면계획

- 레벨차를 이용한 동선의 분산배치
- 각각의 매스와 통로의 높이를 이용 채광,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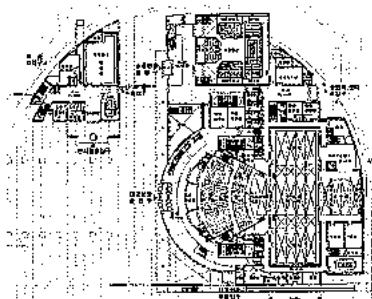
- 각 기능에 따른 접근 강도와 독립성을 고려, 입구를 계획하고 수직적인 조닝을 한다
- 야외공연장은 지면아래로 경사지게 하여 소음차단하고 공연의 집중력을 높인다.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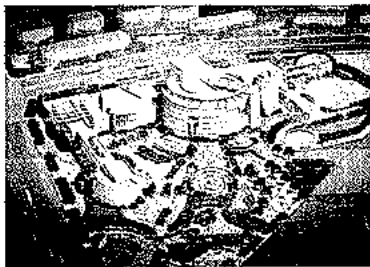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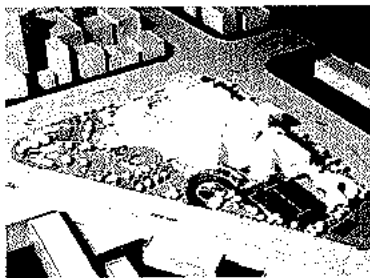


월단면도

▶ 우수작 / 엠앤디 이건축(이근창)



조감도



모형

위치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412-7번지 일원
대지면적	21,329.0㎡(6,452.0평)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문화복합지시설
건축면적	6,703.7㎡
연면적	13,975.1㎡
건폐율	31.43%
용적률	42.22%
공개공지	10.81㎡ 2,305.6㎡
조경비	26.30% 5,609.5㎡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무분 철골 트러스
주차대수	185대(법정 2배 이상 확보) 지상-117대, 지하-68대 (장래 주차장 증설가능)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24THK 컬러복층유리

기본계획개념

- 부속시설의 기능적 조합으로 이동의 편리성 도모 및 건물의 효율가치를 증대시킴
- 공연관련 단체 사무실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이용계획
- 예향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역사성, 상징성, 예술성이 깃든 미래적이고 창의로운 계획

- 마산시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구조
- 21세기 하이테크(Hi-Tech), 산업의 중심도시인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조형화하여 미래지향적이미지를 표현

평면계획

■ 기본개념

- 관객과 출연자 및 관리자의 동선 분리로 건물관리 기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킴
- 라운지 및 휴게공간을 각 공간의 중심에 배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 공연장의 로비를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관객에게 입체적인 휴게공간 제공

■ 공연장 및 관련 부속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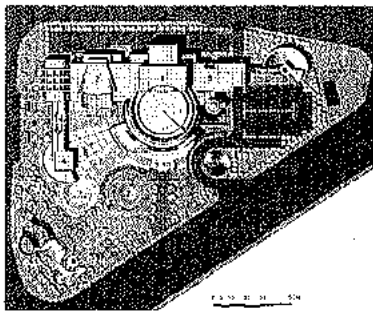
- 적극적인 데크의 계획으로 관객동선의 혼잡을 피하고 대공연장과 외부공간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게 함
- 대공연장까지의 동선을 데크로 직접 연결하여 관람동선을 단순화시킴
- 관리부분과 무대서비스 기능의 연결을 통한 관리 기능의 편리, 효율, 경제성 제고

■ 전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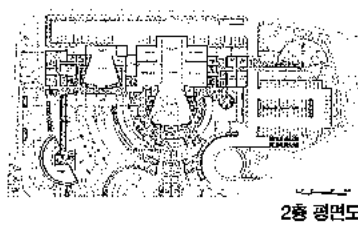
- 전시계획에 따른 공간적 위계, 동선처리, 기능별 존 구획
- 전시공간의 가변성 부여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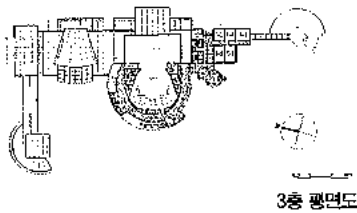
-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데크, 대 공연장 매스의 곡면처리로 정면성을 부각시킴
- 거대한 매스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각 동별 기능에 따른 분절 이미지 표현
-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담고 있는 공간감을 역동적이고 리듬감있는 조형언어로 표현
- 평면의 계획요소를 동일하게 내포할 수 있는 형태구성
- 기하학적 변화의 매스와 고전적 열주, 원형매스(Mass)를 조합하여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조형미를 창출
- 각동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매스(Mass)의 변화와 통일된 외관이미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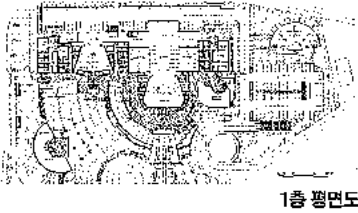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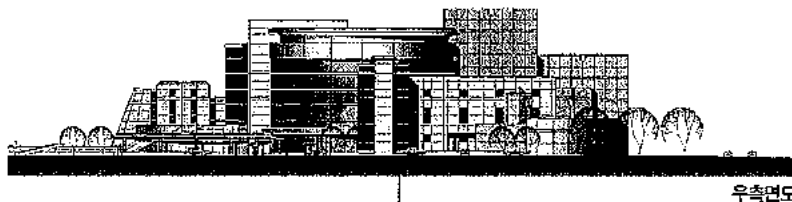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단면계획

- 공연장에 적합한 층고 계획
- 로비공간에 자연채광을 도입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유기적인 연계 도모
- 효과적인 단면가시선 확보를 위해 발코니 형식채택
- 각층에서 관객을 출입시켜 대량동선의 혼재 방지
- 공용공간을 수직적으로 분산 배치하여 관객에게 휴게공간의 선택성을 부여
- 영역(Zone)별 레벨 변화와 기능별 공간분리, 입체적인 공간 체험을 조성
- 객석 관람자의 관람조건을 극대화한 단면계획
- 객석의 진입의 레벨을 고려한 데크 계획과 도구반입 레벨을 고려한 층고 계획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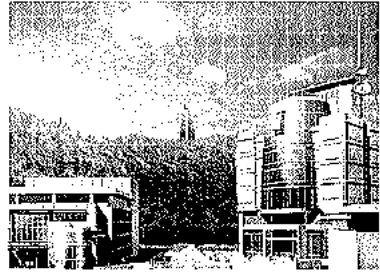
Kwangju Educational Culture Center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청소년들에게 교육, 놀이, 공연, 체육 등 문화의 장 마련을 위해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5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10월 28일에 당선작에 (주)시명종합건축(안희상)안, 우수작에 토형건축(오금렬)+우토건축+토문건축안, 기작에 대호건축(송 건)안을 선정, 발표했다.

▶ 당선작 / 시명종합건축(안희상)



조감도



외부전경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택지 개발지구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5.18 공원구역)

대지면적 14,846.10㎡

건축면적 4,467.21㎡

연면적 24,904.60㎡

건폐율 30.02%

용적률 97.68%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계획배경

이번 현상설계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취지의 5.18기념공원내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놀이, 공연, 체육 등의 문화의 장을 만들려는 건립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5.18기념공원내에 위치하는 조건으로 문화회관과 기념공원의 관계 해석과 정의가 가장 큰 과제였다. 또한 기능이 각기 다른 문화시설의 복합적인 수용을 위한 합리적인 Zoning계획을 통하여 각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또다른 과제였다.

첫번째 과제에 대한 해석으로 3개의 축을 설정하여 5.18기념공원과 망원동을 연결하는 역사의 축과 상무신도시의 축을 도시의 축으로 공원과 무등산을 연결하는 자연의 축으로 정하였으며, 역사의

측에 맞추어 도서관을 배치시켜 청소년들이 5.18기념탑이 조망되도록 하였다.

배치계획

공원내에 위치하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원계획에 포함된 잔디광장, 기념탑, 주차장 등의 주변요소를 반영하여 주차장과 문화회관, 잔디광장과 옥외동구장 기념탑과 중앙광장, 계단, 진입광장으로 연결되는 의미적 시각축을 형성하였으며, 25m도로변에 10m폭의 가로공원을 형성하여 보행자들의 여유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도서관을 소음과 분리된 대지의 중앙에 위치하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중심건물로서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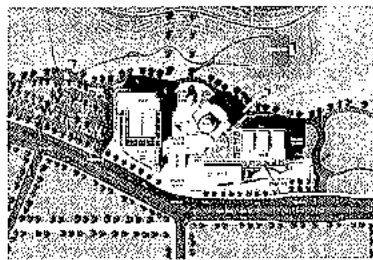
또한 각각의 기능이 다른 공간(공연장, 도서관, 전시관, 체육관)등의 혼재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동선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를 분리시키고 각출입구에 대한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하였다.

평면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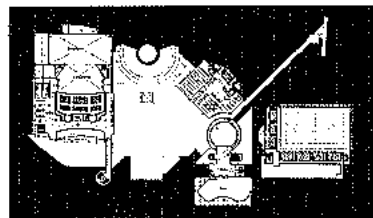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등의 공간적특성을 고려한 구조모듈에 의하여 관련공간들을 수직적으로 배치시켰으며 기능이 다른공간들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건물로 구성하고, 건물과 건물사이의 중앙광장을 설치하여 휴식의 장과 기념탑조망을 위한 의미적공간을 부여하고, 전시관의 Atrium을 통해 기능이 다른 체육관과 도서관의 충돌을 방지하고 전시관과 도서관의 연결공간으로 변화있는 전시공간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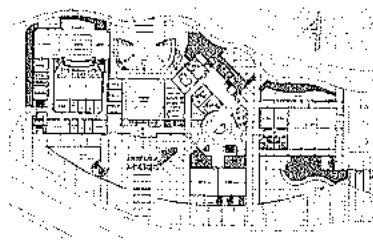
각 시설별특성을 부여하면서 각건물의 요소의 혼란을 방지하고 입면의 통일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료를 통일시키고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서의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추구할 수 있는 커튼월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주위 자연환경과 건물의 조화를 고려한 Void와 Solid, 면과 선을 주 입면요소로 디자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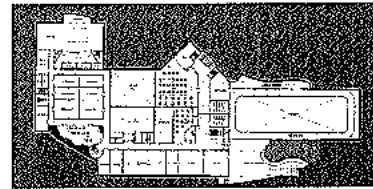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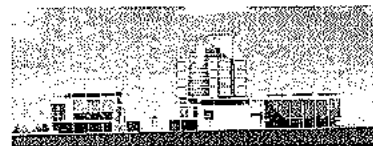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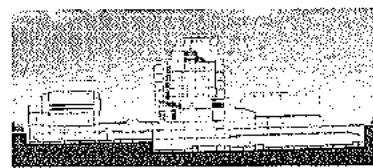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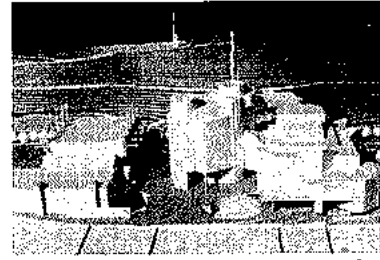


후면도

▶ 우수작 / 토형건축(오금철) + 우토건축 + 토문건축



모형1



모형2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택지 개발지구(5.18공원내)

대지면적 약14,876.10㎡(약4,500평)

건축면적 5,618㎡(1,699평)

연면적 24,465㎡(7,400평)

건폐율 37.76%

용적률 97.87%

규모 지하2층, 지상7층

구조 철골인장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37대

계획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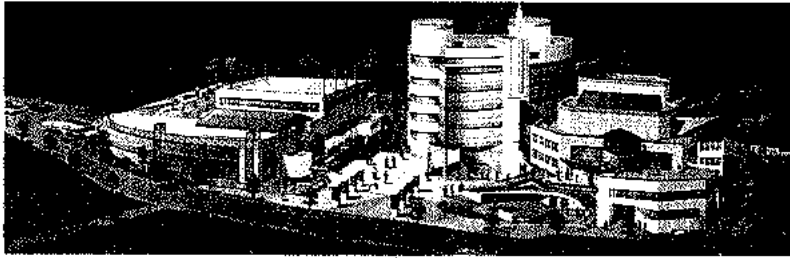
- 5.18 기념 시설로서의 근린공원 구성
- 5.18 정신의 승화, 계승, 발전
 - 광주의 역사적 상징적 기념적 공간
- 신도심(시민)개발의 의도에 부합되는 공원의 조성
- 상무신도심 기존 경관 녹지의 활용
- 광주시민의 종합 휴게공간으로 조성
 - 주변공원 녹지체계와 연계

계획목표

- 건전한 놀이문화와 체육공간 마련
 - 21세기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비르고 슬기롭게 성장
 - 여가선용, 정서함양, 심신단련
 -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 육성

계획방향

- 상징성
 - 5.18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승화시키는 기념공원의 성격
- 개방성
 - 청소년 및 시민에게 개방되는 장
 - 적극적 외부공간 계획으로 친숙한 이미지 제공
- 공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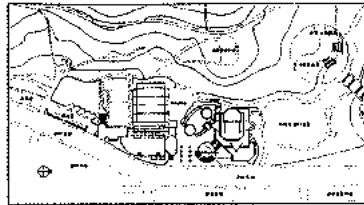
조감도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활동의 중심 공간

배치계획

- 이용자의 편의성 제공
- 공원 속의 공원(5.18기념공원과 연계한 Open Space)
- 보행자의 안정성 - 보차분리
- 기존 주차장과 연결된 주차공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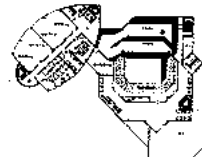
- 체광을 적절히 해결
- 중심광장을 기준으로 건물 및 옥외공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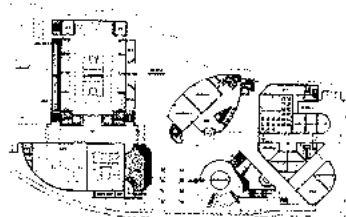
배치도

평면계획

-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모델 채택(10×10m)
- 기능의 변화에 대응하며 자유로운 실구획 가능하도록 가변적공간 설정
- 선큰 거든과 내부 Open공간을 통하여 지하, 지상공간의 자연채광 및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건물이 되도록 함
- 저층부의 내부공간에 적절한 Open Space를 두어 개방성 확보 및 다양한 공간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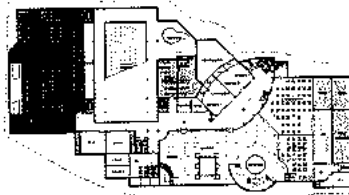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입면계획

- 지형에 변화에 따른 매스의 높이 조절 - 부드러운 Sky Line 형성
- 상징축(5.18기념탑)에 부응하는 Sky Line
- 건물의 기능에 따른 재료선택
체육관 - 구조미(철골트러스구조)
도서관 - 현대미(알루미늄 패널)
문화관 - 고전미(화강석 건식쌓기)
- 형태의 다양성을 통한 입면의 활력구성



지하1층 평면도

단면계획

- 중심광장에 선큰거든을 두어 지하층에도 자연채광이 가능토록 처리하여 휴식공간 제공
- 지하주차장과 수영장에 선큰도입으로



입면도

계획작품 blueprint

명지빌딩

꽃마을병원 석촌분원

신라관

시네마 스타월드 타워

명지빌딩

Myeongji Building

문성운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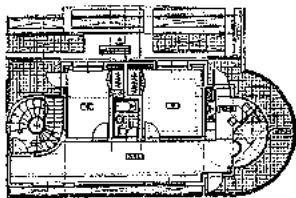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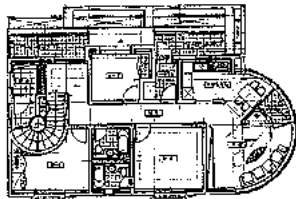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22-18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주택
대지면적	253.2㎡
건축면적	151.36㎡
연면적	842.24㎡
건폐율	59.77%
용적률	261.69%

오랫만에 열정을 갖고 임했던 작업이다. 명지대학교 후문을 마주 보고 있는 대지로써 4, 5층은 건축주의 주택으로 나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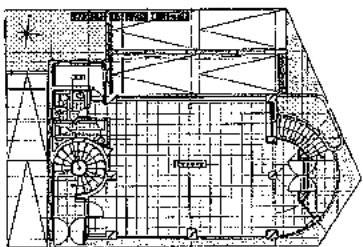
지는 임대 목적의 근린 생활시설이다. 다행스럽게도 작업을 다 끝내고 건축주로부터 환한 미소와 함께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믿어준 건축주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현재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쯤 완공될 예정이다. 대학가의 특성을 살려 지적이며, 순수한 형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공간적으로도 한치의 낭비없이 작지만 넓게 느껴질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큰 원호안에 작은 원호를 감싸는 평면은 큰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단순한 제치장콘크리트 마감에 약간의 약세서를 첨가하여 액센트를 강조했을 뿐이다. 디테일은 상당히 세밀하게 처리하여 내심 완공이 기다려진다.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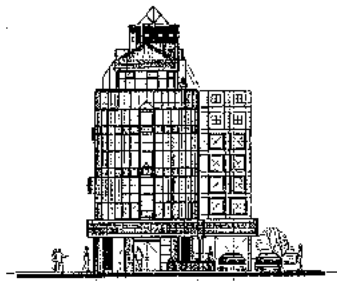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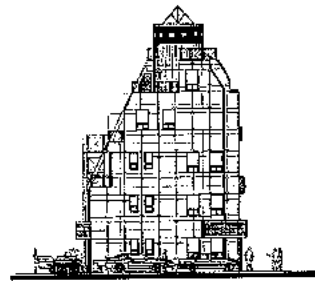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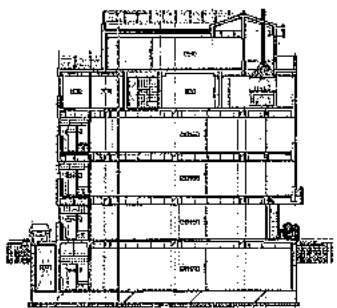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주단면도

꽃마을병원 석촌분원

Seokchon Branch of Kkonmaul Hospital

문성운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투시도

대지위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76-3, 276-14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20.40㎡
건축면적	311.72㎡
연면적	2,993.61㎡
건폐율	59.90%
용적률	389.90%

서초동 꽃마을 한방병원의 분원으로써 석촌동에 또 하나의 의료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본원과 연계하여 외관의 통일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협소한 대지 조건에서 한정된 공간을 소화하다보니 공간적으로 답답한 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조권 제한으로 북측 벽면이 경사질 수밖에 없어 장래에 증축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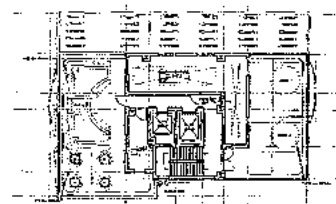
한가지 아쉬운 점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옥탑 부분의 장식물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 건축가로서 심히 불쾌한 감정을 삭이느라 고생했다.

건축 허가후 법령이 개정되어 심의 제도가 폐지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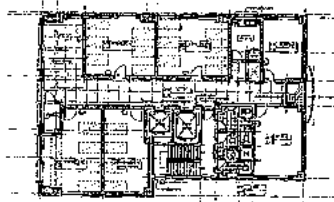
심의 제도에 있어 공직자나 교수나 관련 전문가나 무조건적인 생색내기의 칼질보다는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심의위원이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의 도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라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꽃마을 병원 석촌 분원은 정면성에 주요 점을 두고 계획하였으며, 외래부, 진료부, 병실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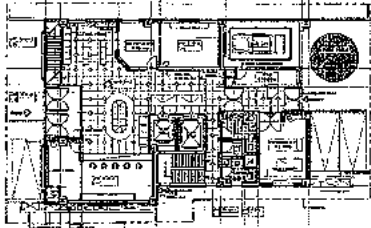
작은 규모지만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그리고, 작가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옥탑의 장식은 반드시 설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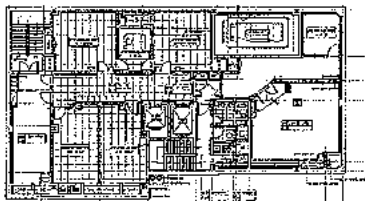
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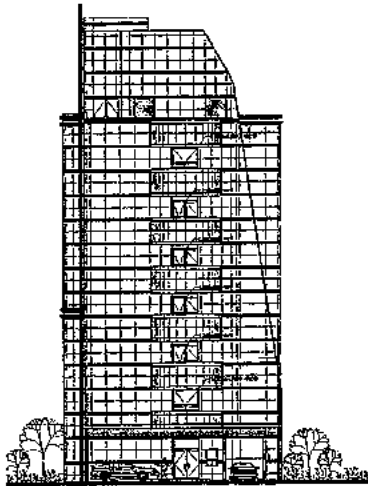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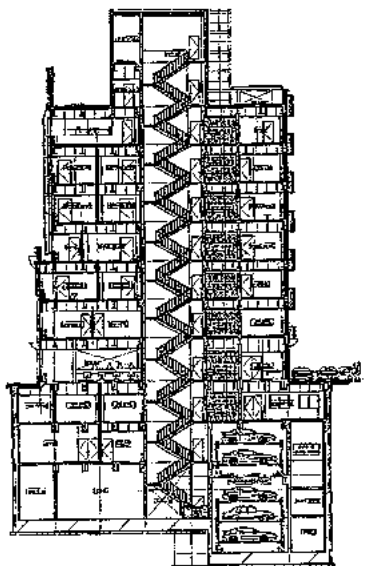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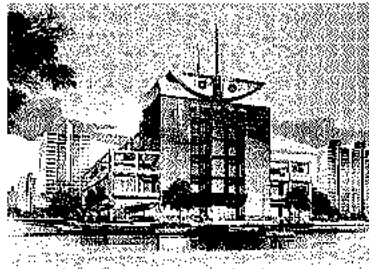


주계단 단면도

신라관

Restaurant 'Shilla'

문성운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시 설계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764.10㎡
건축면적	762.29㎡
연면적	2,518.38㎡
건폐율	43.21%
용적률	122.05%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골조

가장 최근에 마무리한 작업이다.

부천 신시청사를 마주하고 있는 대지 조건으로써 50m의 전면도로와 10m, 15m의 측면, 후면 도로를 갖고 있는 형태로써 비교적 여유있는 대지면적을 가지고 있다.

지하층은 기계실과 냉장, 냉동창고와 전 분창고, 그밖에 손님 자녀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 무료로 개설된다.

1층은 냉면식당, 2층과 3층은 한우 생고기 전문식당, 4층은 직원숙소 및 사무실, 5층은 카페로 사용되어진다.

주변에 LG백화점과 까르프할인매장, 동아 시티 백화점이 있어 상권에 매우 유리하다. 신도시라는 이유도 있지만 단일 용도의 건축물이라 기금적 독특한 외관구성으로 인지성을 강조하려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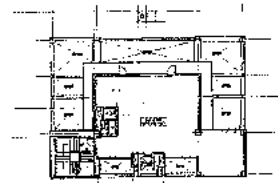
오랫동안 식당을 여러곳 운영해 오신 건축주라 평면계획등이 심어차레이상 변경

되는등 고심한 면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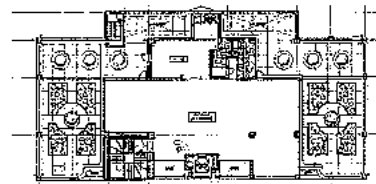
철골조건식공법으로 설계되어 내년 4월 경이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또한 임대 목적이 아니라 단일 용도의 자영 건물이라 필요이상의 면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3층 부터는 각층이 축소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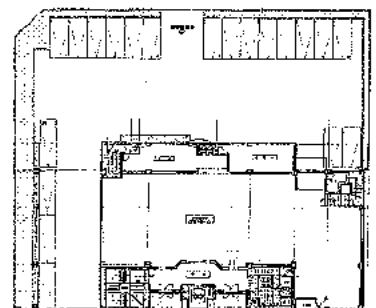
따라서 외관적으로 비례감을 주기 위해 골조를 그대로 노출시켜 볼륨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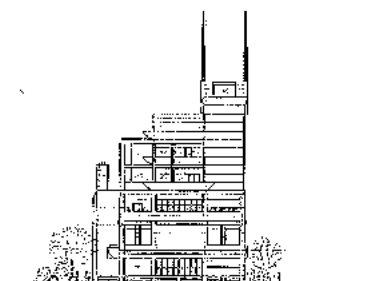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시네마스타월드 타워

Cinema Starworld Tower

문성운 / (주)건축사사무소 이상도시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 산 9-4와 1필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준도시), 시설용지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대지면적	28,039.9㎡
건축면적	1,491.05㎡
연면적	32,124.19㎡
건폐율	5.32%
용적률	7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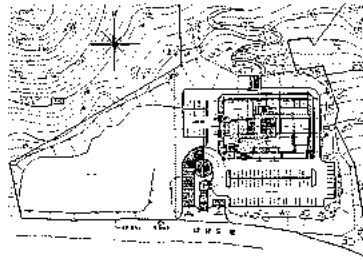
얼마전 준공을 한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 부지내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의 영화 및 CF 기타 영상사업을 위주로 하는 시설과는 별개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영상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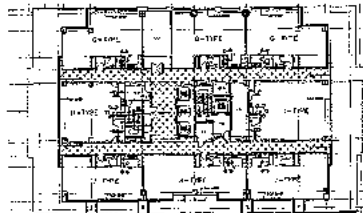
경사가 심한 임야의 일부를 절개하여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토목 공사의 비중이 큰 편이므로 부득이 고층으로 계획을 하였다. 주변의 경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서, 한정된 공간에서의 위압감을 주

지 않도록 입면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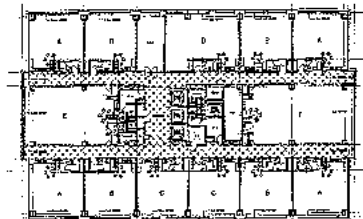
전관 영화관련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장차 한국의 헐리우드로써 영화 산업의 매카가 되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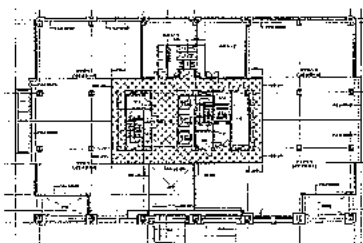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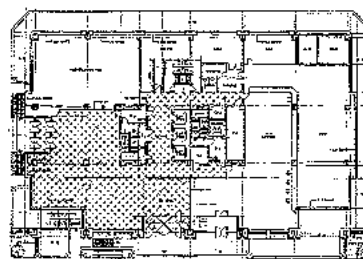
14~1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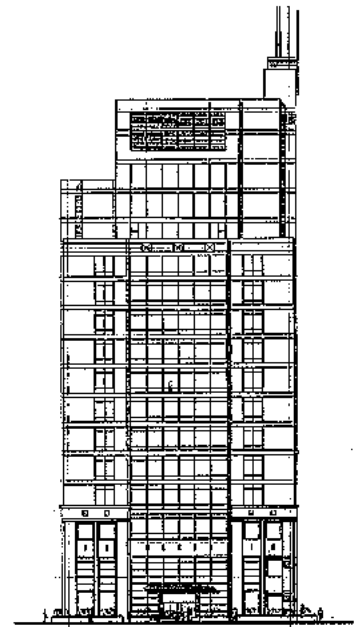
4~1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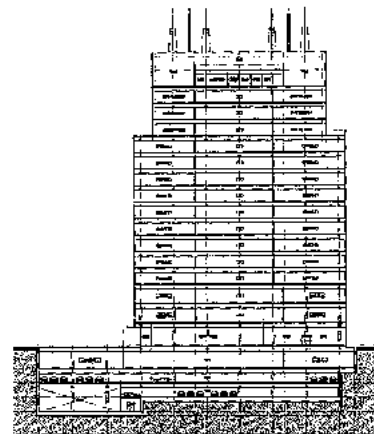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주단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1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 1천1백1십5만3천9백11㎡ 보다 0.0%(4천5백15㎡) 증가한 1천1백1십5만8천4백26㎡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 누계 1억2천2십만9천1백88㎡ 보다 1.2%(1백4십만2천7백74㎡) 증가한 1억2천1백6십1만1천9백62㎡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 1천5만3천3백95㎡보다 11.0%(1백1십만5천31㎡) 증가한 1천1백1십5만8천4백26㎡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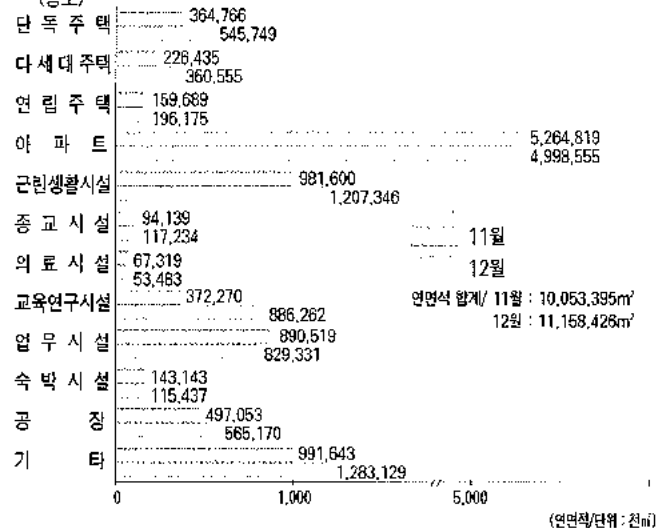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4,174,616	5,842,580	1,667,964	40.0%
	울산	0	74,758	74,758	-
	충북	230,861	406,697	175,836	76.2%
	충남	229,128	249,322	20,194	8.8%
	전북	272,359	272,626	267	0.0%
감소지역	부산	866,741	410,304	(456,437)	-52.7%
	대구	1,062,624	556,180	(506,444)	-47.7%
	인천	505,960	456,680	(49,280)	-9.7%
	광주	603,968	460,072	(143,896)	-23.8%
	대전	528,347	186,558	(341,789)	-64.7%
	경기	1,212,389	1,192,370	(20,019)	-1.7%
	강원	169,948	129,198	(40,750)	-24.0%
	전남	146,260	127,946	(18,314)	-12.5%
	경북	368,836	330,017	(38,819)	-10.5%
	경남	710,641	404,573	(306,068)	-43.1%
	제주	71,233	58,545	(12,688)	-17.8%
합 계	11,153,911	11,158,426	4,515	0.0%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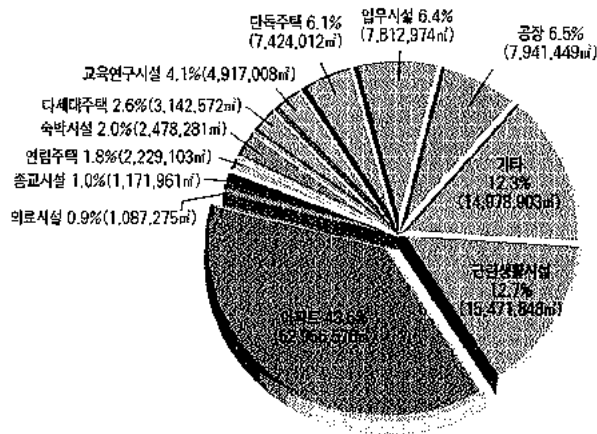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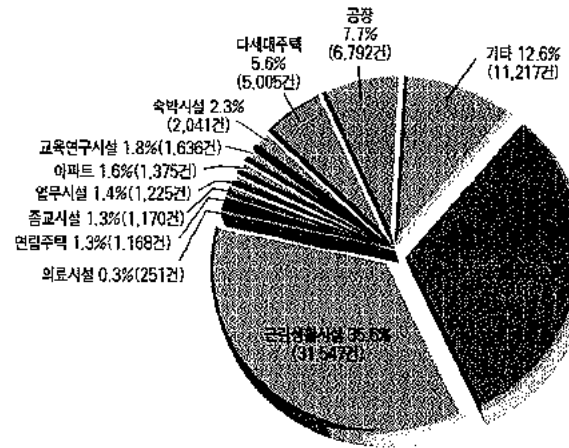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2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도											
단독주택	2,033	2,137	666,656	1,840	1,941	545,749	(193)	(196)	(120,907)	-18.1	
다세대주택	441	470	261,222	411	433	360,555	(30)	(37)	99,333	38.0	
연립주택	89	91	115,249	95	123	196,175	6	32	80,926	70.2	
아파트	112	256	4,830,418	107	296	4,998,555	(5)	40	168,137	3.5	
근린생활시설	2,839	2,921	1,571,188	2,498	2,563	1,207,346	(341)	(358)	(363,842)	-23.2	
종교시설	112	124	113,602	102	112	117,234	(10)	(12)	3,632	3.2	
의료시설	22	21	57,360	22	25	53,483	0	4	(3,877)	-6.8	
교육연구시설	183	214	520,970	217	265	886,262	34	51	365,292	70.1	
업무시설	133	151	422,018	140	145	829,331	7	(6)	407,313	96.5	
숙박시설	250	273	272,709	119	128	115,437	(131)	(145)	(157,272)	-57.7	
공장	691	927	816,281	487	570	565,170	(204)	(357)	(251,111)	-30.8	
기타	1,271	1,495	1,506,238	1,060	1,273	1,283,129	(211)	(222)	(223,109)	-14.8	
합 계	8,176	9,080	11,153,911	7,098	7,874	11,158,426	(1,078)	(1,206)	4,515	0.0	()=미야네스

용도별 구성비(1997년 12월 누계)



연면적 (총 121,611,962㎡)



건수 (총 88,730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2월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434	1,437	4,174,616	1,062	1,062	5,842,580	(372)	(375)	1,667,964	40.0	
부산	431	586	866,741	251	384	410,304	(180)	(202)	(456,437)	-52.7	
대구	413	413	1,062,624	1,166	1,166	556,180	753	753	(506,444)	-47.7	
인천	318	320	505,960	294	296	456,680	(24)	(24)	(49,280)	-9.7	
광주	662	762	603,968	239	345	460,072	(423)	(417)	(143,896)	-23.8	
대전	306	311	528,347	253	253	186,558	(53)	(58)	(341,789)	-64.7	
울산	0	0	0	70	71	74,758	70	71	74,758	-	
경기	1,800	2,077	1,212,389	1,339	1,601	1,192,370	(461)	(476)	(20,019)	-1.7	
강원	392	427	169,948	304	315	129,198	(88)	(112)	(40,750)	-24.0	
충북	300	396	230,861	293	367	406,697	(7)	(29)	175,836	76.2	
충남	338	260	229,128	326	273	249,322	(12)	13	20,194	8.8	
전북	330	330	272,359	128	128	272,626	(202)	(202)	267	0.1	
전남	251	284	146,260	217	241	127,946	(34)	(43)	(18,314)	-12.5	
경북	370	483	368,836	519	585	330,017	149	102	(38,819)	-10.5	
경남	662	809	710,641	509	629	404,573	(153)	(180)	(306,068)	-43.1	
제주	169	185	71,233	128	158	58,545	(41)	(27)	(12,688)	-17.8	
합계	8,176	9,080	11,153,911	7,098	7,874	11,158,426	(1,078)	(1,206)	4,515	0.0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2월 누계)

구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25,924	25,988	56,437,567	15,033	15,095	55,701,852	(10,891)	(10,893)	(735,735)	-1.3	
부산	7,720	10,383	10,101,171	5,283	8,089	12,111,062	(2,437)	(2,294)	2,009,891	19.9	
대구	8,053	8,097	8,926,781	5,990	5,995	6,904,529	(2,063)	(2,102)	(2,022,252)	-22.7	
인천	3,946	4,029	4,750,588	3,295	3,352	5,640,705	(651)	(677)	890,117	18.7	
광주	3,927	4,633	3,221,633	3,685	4,350	3,058,641	(242)	(283)	(162,992)	-5.1	
대전	3,325	3,378	2,376,920	2,924	2,955	1,995,626	(401)	(423)	(381,294)	-16.0	
울산	0	0	0	934	972	637,751	934	972	637,751	-	
경기	19,864	21,960	12,453,492	17,217	19,569	12,410,775	(2,647)	(2,391)	(42,717)	-0.3	
강원	4,989	5,450	2,020,808	4,936	5,376	2,071,419	(53)	(74)	50,611	2.5	
충북	4,374	5,095	3,136,836	4,710	5,585	3,726,237	336	490	589,401	18.8	
충남	3,700	3,190	2,235,234	3,956	3,201	2,604,432	256	11	369,198	16.5	
전북	2,723	2,725	2,096,112	2,874	2,874	2,373,088	151	149	276,976	13.2	
전남	3,462	3,836	1,628,929	3,271	3,533	1,778,503	(191)	(303)	149,574	9.2	
경북	4,973	6,156	2,905,409	4,719	5,226	3,063,106	(254)	(930)	157,697	5.4	
경남	10,378	11,973	7,131,155	8,153	9,577	6,765,832	(2,225)	(2,396)	(365,323)	-5.1	
제주	1,725	1,894	786,533	1,750	1,956	768,404	25	62	(18,129)	-2.3	
합계	109,083	118,787	120,209,188	88,730	97,705	121,611,962	(20,353)	(21,082)	1,402,774	1.2	()=마이너스